토마스 L. 컨스터블 박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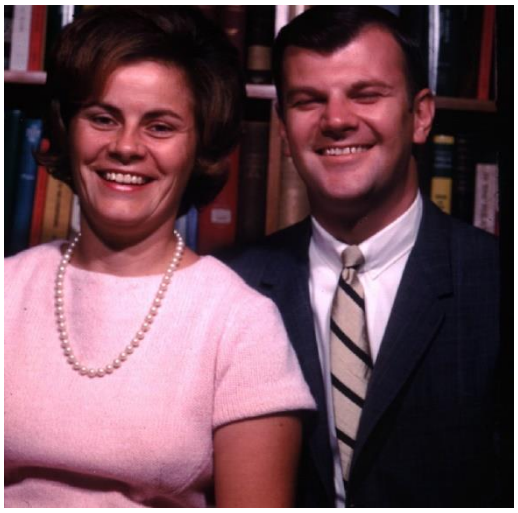
성경 연구 노트

『 사도행전 』

SonicLight.com

Copyright © 2025 by Thomas L. Constable

저자 소개



1966년 톰 컨스터블 박사는 2011년 5월 은퇴할 때까지 달라스 신학교에서 교사/교수로서 사역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톰은 45년 동안 성경 강해학과에서 수천 명의 젊은 남녀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현장 교육학과(1970-85), 성경 연구 센터(1973), 목회학 박사 학위 프로그램(1979-96)을 설립하고 감독했으며 마지막 15년(1996-2011) 동안 성경 강해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주석을 집필했으며, "톰 컨스터블의 성경 주석"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컨스터블 박사의 주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틴데일 신학교 출판부에서 『톰 컨스터블의 성경 주석』을 여러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 형태로 출판했습니다.

톰과 메리는 수년 동안 30여 개국에서 사역했으며 정기적으로 신학교 학생과 가족을 집으로 초청해 왔습니다. 이들의 관계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훈련시켜 성경을 가르치는 톰의 실제적인 사역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톰과 메리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미쳤습니다. 1968년 컨스터블 부부는 플라노 바이블 채플을 설립했고 톰은 1980년까지 담임목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장로 및 장로 자문위원, 교사, 강단 연사로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컨스터블이 끼친 영향은 지상의 용어로 완전히 표현하거나 측정할 수 없습니다.

톰 컨스터블은 자신이 한 일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톰의 인생 이야기는 최근 생명의 말씀 연구소 소장 폴 위버가 녹음했습니다. 영감을 주는 생명의 말씀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저작권 정책

토마스 L. 컨스터블 박사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의 명시적 서면 동의없이 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일부를 어떤 형태로든 무단 번역, 재출판, 파일 복제,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 배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연구 노트는 개인 공부나 수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나 성경 공부 그룹을 위해 컴퓨터에 사본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거나 종이로 복사할 수 있지만, 복사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변경한 후 컨스터블 박사에게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후원

컨스터블 박사의 노트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다면,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닉라이트 사역에 대한 후원금은 이러한 목적과 이 웹사이트와 관련된 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후원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이 열립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Constable Notes'을 선택하여 올바른 계좌로 후원금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성경 주석

2025년판

토마스 L. 컨스터블 박사

(Dr. Thomas L. Constable)

서론

제목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1] 누가복음의 〈반 마르시온적 프롤로그〉(*Anti-Marcionite Prologue,* 주후 150-180)에 이 책에 대한 가장 오래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몇몇 사도들의 행적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책은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완전한 역사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교회가 확장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반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인공입니다.

저자

사도 바울의 친구이자 동료 선교사, 의사였던 누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책을 썼다는 결론에 이르는 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부 증거, 특히 누가를 지칭할 수 있는 일인칭 복수로 쓰인 구절이 있습니다(16:10-40; 20:5-21:18; 27:1-28:16). 둘째,

[1] 이 노트의 영어 성경 인용문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판 신미국표준성경(NASB)에서 발췌함. (해당 성경 인용문의 번역은, 노트 저자의 의도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한국어 성경들을 참조하여 2020년판 NASB를 우리말로 옮김-역자 주)

누가가 사도행전을 저술했음을 나타내는 외부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초대 교회 교부들의 언급,[1] 신약성경 전집의 주석,[2] 특정 신약성경의 초기 주석에 있는 편집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3] 누가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지만, 루카누스, 루시아누스, 루시우스 또는 루실루스 등 라틴어 이름의 그리스식 축약어입니다. 유세비우스와 제롬은 누가가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라고 기록했습니다.[4] 그가 빌립보 출신이라는 전통도 있습니다.[5] 셋째, 사도행전과 누가는 모두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으며, 이는 같은 저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어 누가가 두 문서를 모두 저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 연대 및 기록 장소

기록 연대는 아마도 60년대 초반, 즉 주후 60-63년이었을 것입니다. 누가의 강조점을 고려할 때, 누가가 글을 쓸 무렵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면 그것들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후 64년에 시작된 네로의 그리스도인 박해, 주후 68년 바울의 죽음,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 포함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 누가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집필한 후 바울이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던 로마에서 최종 형태로 완성했을 것입니다(28:30-31; 주후 60-62).

> "다행히도 이 책의 명료성과 가치는 이 책이 쓰여진 정확한 상황에 대한 지식과는 크게 무관합니다. 사도행전 해석의 세세한 부분은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사도행전의 본질적인 주제는 기본적으로 명확하고 단순합니

[1] E.g., Irenaeus, *Against Heresies*, 3.1, 14, c. 주후 180; Clement of Alexandria, *Stromata*, 5:12, c. 주후 200; et al. Darrell L Bock, *Acts*, p. 16 참조.

[2] E.g., the *Muratorian Canon*, second century 주후 이 문서의 영어 번역은,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 pp. 28–29 참조.

[3] E.g., the *Anti-Marcionite Prologue* to the Gospel of Luke, second century 주후 영어 번역은, T. W. Manson, *Studies in the Gospels and Epistles*, p. 49 참조.

[4]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3:4:85. 또한, J. S. Howson, in *The Life and Epistles of St. Paul*, p. 241 참조.

[5] A. 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2:x.

다."[1]

범위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은 약 30년에 걸친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후 33년 주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하여 주후 62년경에 끝난 바울의 2년간의 로마 가택 연금까지입니다.[2] 델픽 비문(The Delphic Inscription)과 요세푸스의 여러 언급, 그리고 수에토니우스의 언급을 통해 사도행전의 주요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장르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고대 역사"라는 문학적 분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행함"을 뜻하는 그리스어 프락세이스(*praxeis*)는 고대 세계의 특정 장르(문학의 유형) 또는 하위 장르, 즉 개인이나 도시의 영웅적 행적에 대한 서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적인 장르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4] 사도행전은 고대 역사서의 모든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기술과 방법론에 있어서 당대의 다른 고대 역사 작가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5] 그러나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서 그 이상입니다.[6]

목적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사(이야기) 형식으로 역사를 기록한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누가는 분명 역사적 목적을 가지고

---

[1] I. Howard Marshall, *The Acts of the Apostles*, p. 49.
[2] 바울의 활동에 관한 표는 이 노트 끝에 있는 부록 1을 참조.
[3] 이에 대한 차트는 Bock, p. 30 참조.
[4] Donald A. Carson and Douglas J. Moo,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pp. 285, 300–01.
[5] Ibid., pp. 316–21.
[6] 또한, Gordon Fee, "The Genre of New Testament Literature and Biblical Hermeneutics," in *Interpreting the Word of God*, pp. 114–19 참조.

있었습니다.[1] 그는 교회가 시작된,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뻗어나간 복음과 교회의 확산을 보여주는 선택된 사건에 대한 영감 받은 기록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 "이 책은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공급을 가져오신 시작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 "[버나드 H.] 스트리터(Streeter)는 사도행전의 다른 제목은 '로마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것이 누가의 작품에서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염두에 둔 사소한 주제들, 예컨대 그리스도인이 사회 질서에 파괴적인 요소가 아니라 건설적인 요소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든, 그의 주된 관심은 인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옛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제1단계[즉, 누가복음]의 목표이고, 세계의 중심인 로마가 제2단계[즉, 사도행전]의 목표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3]

그러나 누가가 자신이 한 일을 포함시키고 다른 많은 역사적 자료는 생략한 것은 두 번째, 신학적인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신실하고 거침없이 그분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마 16:18).[4]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5]

> "... 사도행전의 누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예수 시대와 초대 교회 시대 사이를 연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와, 예수와 그분의 교회 시대 사이를 연결하는 데도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고대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셨던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

---

[1] William Barclay, *The Acts of the Apostles*, p. xvii.
[2] G. Campbell Morgan, *The Unfolding Message of the Bible*, p. 334.
[3] William Neil, *The Acts of the Apostles*, p. 27.
[4] Stephen J. Strauss, "The Purpose of Acts and the Mission of God," *Bibliotheca Sacra* 169:676 (October–December 2012):443–64 참조.
[5] 사도행전의 주요 신학적 강조점에 대한 매우 훌륭한 토의는, Marshall, pp. 23–34 참조.

나님과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1]

셋째, 누가는 분명히 변증적인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많은 로마 관리들을 언급하면서 교회와 로마 국가와의 관계를 자주 지적했는데, 그들 중 그리스도인의 교리나 관습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적대적인 이교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방어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리처드 롱게네커(Richard Longenecker)는 누가의 목적을 설교적(선포), 변증적(방어), 화해적(평화 조성), 교리 문답적(교육적)으로 구분했습니다.[2]

> "저는 누가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어떤 삶이 가능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아니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지만, 누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음이 분명하다고 제안합니다. ... 저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교회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을 선택하여 요약 서술에 포함시켰다고 생각합니다[2:42-47, 4:32-35; 5:12-16]. 그는 독자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연구하고 본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범으로서 교회 생활의 초상을 제시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의 경우, 요약 서술은 모범적인 교회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묘사합니다."[3]

> "우리는 누가가 다양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으며 이러한 목적이 더 크고 일반적인 목적, 즉 그리스도인을 세워주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점점 더 많아지는 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4]

---

[1] Brian S. Rosner, "Acts and Biblical History,"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1: The Book of Acts in Its Ancient Literary Setting*, p. 82. Cf. George E. Ladd, "The Acts of the Apostles,"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pp. 1123-24.

[2] Richard N. Longenecker, "Acts," in *John-Acts*, vol. 9 of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pp. 216-21.

[3] Andy Chambers, *Exemplary Life*, p. 5.

[4] Carson and Moo, p. 305.

독특한 특징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시작된 역사를 이어가는 유일한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의 수직적 보편화(사회적 계급 위아래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사도행전은 복음의 수평적 보편화(예루살렘에서 세상 끝까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긴밀한 문학적 연관성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원래 구성이 두 부분으로 된 작품을 제작하려는 계획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 형태는 하나의 작품의 두 부분을 형성하며, 하나의 통일체로 구상되었습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된 문학적 구성의 다른 예가 있지만 (요세푸스의 〈콘트라 아피오넴〉은 시간과 문화적 맥락에서 누가복음-사도행전과 가장 유사한 평행작 중 하나임), 누가의 작품은 그리스도인 저술 중에서 독특하며 종교 지도자와 그의 추종자들의 이야기를 결합한 세속적 선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1]

>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이 책은 신약성경의 오경(Pentateuch)을 완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들 중 네 권은 우리 주님의 인격을 제시하고, 다섯 번째 책은 교회 역사의 첫 페이지를 제공합니다..."[2]

> "이 책은 복음서라는 나무가 맺는 열매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보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요 12:24)."[3]

사도행전은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사적 기록이며, 사도행전이 없으면 바울이 쓴 서신 중 일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의 역사적 전환을 기록한 유일한 성경책이며, 초대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을 줍니

---

[1] I. Howard Marshall, "Acts and the 'Former Treatis,'"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1: The Book of Acts in Its Ancient Literary Setting*, p. 182.

[2] G. Campbell Morgan, *The Acts of the Apostles*, p. 9.

[3] Robert Jamieson, A. R. Fausset, and David Brown, *Commentary Prac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p. 1080.

다.[1]

롱게네커(Longenecker)는 누가의 역사 기록 방식이 당시의 역사학(역사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2] 벤 위더링턴(Ben Witherington)은 누가복음-사도행전이 로마(라틴) 역사 기록보다 고대 그리스 역사 기록의 전형에 가깝다고 했습니다.[3] 다른 이들은 무엇보다도 히브리 성경과 더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르노 게벨라인(Arno Gaebelein)은 복음서와 창세기, 사도행전과 출애굽기, 바울 서신과 레위기, 일반 서신과 민수기, 요한계시록과 신명기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했습니다.[4]

누가복음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책으로, 1,151절로 가장 길고, 마태복음은 1,071절로 두 번째로 길며, 사도행전은 1,003절로 세 번째로 깁니다.

구조

롱게네커(Longenecker)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독자들이 알아야 할 사도행전의 구조에 관한 다섯 가지 현상을 파악했습니다:

> "1. 이 책은 [제3]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선교의 구성적 사건들을 다루는 누가 특유의 도입부(1:1-2:41)로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1:7) 복음의 전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 "2. 이 도입부 다음에 주제별 진술로 보이는 내용이 이어진다(2:42-47). 이 자료는 종종 앞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뒤에 나오는 내용을 위한 논지 단락의 역할을 한다.
>
> "3. 누가는 그리스도인 선교의 진전에 대한 발표에서 예루살렘(2:42-6:7)에서 유대와 사마리아(6:8-9:31)를 거쳐 팔레스타인-시리아(9:32-12:24)로, 그리고 로마 제국 동부의 이방인(12:25-19:20)으로 이동하는, 본질적으로 지리적 개요를 따르며,

---

[1] Stanley D. Toussaint, "Acts," i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New Testament*, p. 349.
[2] Longenecker, pp. 212-14.
[3] Ben Witherington III, *The Acts of the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p. 28.
[4] Arno C. Gaebelein, *The Annotated Bible*, 3:1:251.

마침내 바울의 변호와 복음의 로마 입성으로 절정을 이룬다(19:21-28:31).

"4. 누가는 사도행전 전반부의 베드로의 사역과 후반부의 바울의 사역 사이에 의도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설정하고 있다.[1]

"5. 누가는 6개의 요약문 또는 '진행 보고서'(6:7; 9:31; 12:24; 16:5; 19:20; 28:31)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요약문은 내용의 자체적인 '패널'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인다.[2]

"이러한 문학적, 구조적 특징을 모두 고려할 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전개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서론: 그리스도인 선교의 구성적 사건들(1:1-2:41)

"제1부: 유대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선교(2:42-12:24)

패널 1 -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시대(2:42-6:7)

요약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갔다.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많은 제사장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6:7).

패널 2 - 중추적인 세 인물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6:8-9:31)

요약문: '그 후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전역의 교회는 평화의 시대를 누렸다. 그것은 강건해졌고 성령의 격려를 받아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면서 그 수가 늘어났다'(9:31).

패널 3 - 팔레스타인-시리아에서 복음의 전진(9:32-12:24)

---

[1] W. H. Griffith Thomas, *The Acts of the Apostles: Outline Studies in Primitive Christianity*, pp. 25-26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제시했다. 사도행전 1-12장과 13-28장 사이의 16개의 유사점 목록을 보려면, Charles H. Talbert, *Literary Patterns, Theological Themes, and the Genre of Luke-Acts*, pp. 23-24를 참조. 이 책에는 사도행전 내, 누가복음 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의 흥미로운 유사점에 관한 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2] Cf. *A Dictionary of the Bible*, s.v. "The Chronology of the New Testament," by C. H. Turner, 1:421. Turner의 첫 번째 패널에는 1:1—2:41가 포함되어 있다.

요약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증가하여 퍼져 나갔다'(12:24)

"제2부: 이방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12:25- 28:31)

패널 4 - 첫 번째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12:25-16:5)

요약문: '그래서 교회들은 믿음에 굳게 서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16:5).

패널 5 - 두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한 광범위한 선교 활동(16:6-19:20)

요약문: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권능이 커졌다'(19:20).

패널 6 -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19:21-28:31)

요약문: '담대히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28:31)."[1]

신학

대럴 복(Darrel Bock)은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그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강조점에 주목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선교, 반대, 이방인이 들어옴, 만민에게 보내진 복음으로 인한 만민의 주 예수님, 새로운 공동체의 분리된 정체성, 율법, 복음의 승리, 종말론(마지막 때 사건).[2]

개요

I.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1:1-6:7

A. 교회의 창립 1:1-2:47

1. 책의 요약적 서문 1:1-5
2. 증거하라는 명령 1:6-8

---

[1] Longenecker, pp. 233-34. 사도행전의 역사, 저자, 통일성, 본문, 구성, 신학, 교회, 사역과 같은 배경 문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Richard B. Rackham, *The Acts of the Apostles*, pp. xiii-cxv의 서론 부분을 참고하라.

[2] Bock, pp. 32-42.

3. 예수님의 승천 1:9-11
4. 예수님께서 열두 번째 사도를 임명하심 1:12-26
5. 교회의 탄생 2:1-41
6. 초대 교회의 모습 2:42-47

B.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 3:1-6:7

1. 외부의 반대 3:1-4:31
2. 내부의 위기 4:32-5:11
3. 강력해진 외부의 반대 5:12-42
4. 내부 갈등 6:1-7

II.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6:8-9:31

A. 스데반의 순교 6:8-8:1a

1. 스데반의 체포 6:8-7:1
2. 스데반의 연설 7:2-53
3. 스데반의 죽음 7:54-8:1a

B. 빌립의 사역 8:1b-40

1. 사마리아의 복음화 8:1b-25
2.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빌립의 사역 8:26-40

C. 사울의 사명 9:1-31

1. 사울의 회심과 부르심 9:1-19a
2. 사울의 초기 갈등 9:19b-30
3. 평화로운 교회 9:31

III. 땅 끝까지 나아가는 증거 9:32-28:31

A. 시리아 안디옥으로 확장된 교회 9:32-12:24

1. 룻다와 욥바에서의 베드로의 사역 9:32-43
2. 고넬료의 회심 10:1-11:18
3. 안디옥 교회의 선도적 활동 11:19-30
4.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 12:1-24

B. 키프로스와 소아시아로 확장되는 교회 12:25- 16:5

1. 바나바와 사울의 신성한 임명 12:25- 13:3
2. 키프로스 선교 13:4-12
3. 소아시아 선교 13:13-14:21a
4.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옴 14:21b-28

5. 예루살렘 공의회 15:1-35
6. 이방인 교회들을 굳건하게 함 15:36-16:5

C. 에게해 연안으로 확장된 교회 16:6-19:20

1. 마케도니아로의 부름 16:6-10
2. 마케도니아에서의 사역 16:11-17:15
3. 아가야에서의 사역 17:16-18:17
4. 아시아 사역의 시작 18:18-22
5. 아시아 사역의 결과 18:23-19:20

D. 로마로의 교회 확장 19:21-28:31

1.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 19:21-21:16
2.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21:17-23:32
3. 가이사랴에서의 사역 23:33-26:32
4. 로마로 가는 여정 중의 사역 27:1-28:15
5. 로마에서의 사역 28:16-31

메시지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현 시대에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관심 대상인 사도행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에 관한 세 가지 주요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사역하는 동안 교회 설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로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생명을 보여 주셨습니다(요 14:6). 우리는 복음서에 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날은 교회의 생일이었습니다. 성령 침례는 하나님께서 역사상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영적 몸의 동료 지체로서 새로운 관계로 그리스도와 연합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분[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안에 거하시리니”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후 신자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교회라는 한 몸 안에서 동등하게 연합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주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교회의 연합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신조),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는지(정치), 어디서 어떻게 모이는지(문화)와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으로 인한 내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합의 기초는 교회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오순절 날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처음으로 침례를 주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고전 12:13; 롬 8:9). '교회'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실체입니다(참조, 엡 2-3장).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받는 교회의 두 번째 주요 계시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의 생명을 공유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인종의 머리로 제시했습니다. 아담이 한 인종의 머리였다면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자 새로운 인종의 머리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었듯이 그리스도는 두 번째 사람, 즉 새로운 인종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난 자로서 새로운 인종의 머리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맏아들(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인종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형이신 형제애를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몸의 성장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인종”의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영적 유대는 아담의 인종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육체적 유대보다 더 강합니다(참조, 마 12:47-50). 새 인종의 구성원은 종종 연약하고 결점이 있으며 어리석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힘을 얻은 하나의 유기적 전체(한 몸)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

할 때마다 빵과 포도주(또는 그 대용품)가 참여자의 육체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일부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의 세 번째 주요 계시는 교회의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입이 되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도구를 통해 신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종들도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셨을 때와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같은 종류의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참조, 1:1-2).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언급은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은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통해 비추며, 잃어버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복음이 도달할 장소를 지시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복음이 죄와 사탄으로 인한 어둠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신자들을 통해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영적 무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빛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무관심과 괴로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령에 의해 그분의 도구인 신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신자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인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사도행전에는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위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원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마 16:18).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입니다(고전 12:13). 교회의 기능에 관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도구입니다. 고린도후서 6:1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즉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교회가 직면한 세 가지 주요 적대 세력에 대해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편견입니다. 편견이란 미리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유형의 반대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믿지 않는 일부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이 제시한 증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주요 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인정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을 놓쳤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동일한 반대(예: 성경의 계시와 반대되는 전통적 개념)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성령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편견은, 성경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계시에 비추어 경험을 해석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전통을 통해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성경을 스스로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직면한 두 번째 적대자는 개인적 의제(agendas)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성 그 자체가 아니라 영성에 대한 명성을 원했습니다. 시몬 마구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초자연적인 은사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성령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령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충만케 하시거나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전적인 통제권을 양보해야 합니다(참조, 롬 6:12-13).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는 교회가 직면한 세 번째 적대자는 교만입니다. 이 위험에 대한 가장 뛰어난 예는 아마도 두 사람일 것입니다: 벨릭스와 아그립바. 개인적인 명성에 대한 그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경력 목표와 자존심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성령에 대한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뜻에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10:14에서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이 세 가지 위험은 그리스도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위험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편견, 개인적 의제, 교만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입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교회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 주요 교훈을 제시합니다:

첫째, 교회의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누가가 이 책에 기록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다른 신실한 선교사들과 증인들의 삶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개인의 안전이나 육체적 편안함,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기회, 세상에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가치 있는 야망을 마음속의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a gloria dei*)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 6:9; 눅 11:2)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교회의 통치 원칙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그리스도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주된 헌신은 그분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또 그들을 통해 역사하도록 하고, 자신의 일이 아닌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그리스도께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침례자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요 3:30)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참조, 딤후 2:4).

셋째, 교회의 힘은 성령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많은 언급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존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서, 또 자기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4:24-30). 그들은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12:12, 20:36).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하고 굴복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의존해야 합니다(요 15:5).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강조점으로부터 세 가지 도전 과제가 떠오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의 동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한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싶나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책상에 "누가 공로를 받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일을 하나요? 사도행전의 모델들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굴복, 말

씀에 대한 순종, 성령에 대한 의존이 포함되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셨는지(치유, 방언 등)와 같은 부수적인 것에 매료되어 본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핵심은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매우 꺼려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에 전심전력을 다해 열정적으로 헌신합시다. 마태복음 28:18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18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은 환상적인 책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위대한 교회 건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1]

[1] G. Campbell Morgan, *Living Messages of the Books of the Bible*, 2:1:75– 91으로부터 각색함.

해설

I.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1:1-6:7

사도행전의 첫 번째 주요 부분에는 오순절 날에 교회가 설립되고 예루살렘 성에서 교회가 확장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A. 교회의 창립 1:1-2:47

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설립에 대한 기록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신 날과 오순절 날을 연결시키는 배경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보여주었습니다.

1. 책의 요약적 서문 1:1-5

누가는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연결하기 위해 이 서문을 썼습니다.[1] 누가는 이전 책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중에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번째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계속 행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참조, 요 14:12).[2]

1:1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첫째 기록"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 프로톤(*proton*)은 "첫째"라는 뜻이지만 누가가 두 권 이상의 책을 쓰려고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 학자들의 불필요한 결론입니다.[3] 누가가 쓴 두 권의 책 중 첫 번째 책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해

[1] 누가복음 1-2장과 사도행전 1-2장의 병렬 구조에 대한 설명은, Longenecker, p. 252 참조.

[2] Craig S. Keener, "The Spirit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Acts 1—2,"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62:1 (March 2019):25-45 참조.

[3] E.g., E. M. Blaiklock, *The Acts of the Apostles*, p. 49.

석자들은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 아니며, 누가가 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의인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참조, 눅 1:3).[1]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가 실존 인물이 아닐 이유가 없습니다. 데오빌로는 상당히 흔한 그리스 고유명사입니다.[2]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도 그의 『유대 고대사』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비슷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3]) 적어도 한 명의 저자는 데오빌로를 헤롯 아그립바 2세 왕(행 26장)으로 밝혔지만,[4] 이것은 소수의 견해입니다.

누가는 독자들이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초자연적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점에 유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분의 열렬한 추종자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 "'행함'과 '가르침'이라는 단어의 순서가 주목할 만합니다. 행동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24:19에도 같은 순서가 나옵니다(사도행전 7:22와 대조). 기독교는 주로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먼저입니다. 가르침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이는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입니다."[5]

1:2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들림"을 받으셨습니다(눅 24:51). 그분이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1:4; 눅 24:49). 그런 다음 그들은 온 세상에 나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1:8; 눅 24:47; 마 28:19-20).

"사도"는 정의상 "보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용어는 예수님

---

[1] 의인화란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적 특성을 인간이 아닌 것에 부여하거나 추상적인 특성을 인간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함.

[2] R. J. Knowling, "The Acts of the Apostles," in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2:50.

[3] Flavius Josephus, *Antiquities of the Jews*, preface, par. 2. Cf. idem, *The Life of Flavius Josephus*, par. 76.

[4] Alberto S. Valdés, "The Acts of the Apostles," in *The Grace New Testament Commentary*, 1:481.

[5] Thomas, pp. 18–19. Cf. Ezra 7:10.

이 직접 이 명령을 내린 소수의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부르심은 특별했습니다(엡 2:20). 그리스도께서 이 사명을 위해 신자인 우리 모두를 보내셨다는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입니다. 그러나 12사도(그리고 바울)는 주님께서 다른 사도들에게 주지 않으신 특별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그룹이었습니다.[1]

> "이 네 가지 요소, 즉 증거 사명, 사도들, 성령, 승천하신 주님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강조점이며, 각각 1장과 2장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습니다."[2]

1:3 "증거"로 번역된 헬라어 테크메리오이스(*tekmeriois*)는 신약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증인이 주장하는 증거와 대조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3]

> "부활의 사실은 사도들의 신앙의 견고한 토대이자 초기 메시지의 핵심 요소였습니다."[4]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앞서 있었듯이(눅 4:2),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현재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침례는 40일 시험 이전에 일어났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사건의 순서가 반대로 나타납니다.[5]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세계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를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교회의 세계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셨습

---

[1] Robert D. Culver, "Apostles and the Apostolate in the New Testament," *Bibliotheca Sacra* 134:534 (April–June 1977):131–43 참조.
[2] Longenecker, p. 253.
[3] 부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Merrill C. Tenney, *The Reality of the Resurrection* 참조.
[4] Blaiklock, p 49.
[5] 마태복음 주석의 끝부분에 있는 부록 1을 참조.

니다.[1]

>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복음서에서 이미 이루어진 시작을 상기시키는 시작이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연속되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40일은 누가의 연속성 신학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2]

성경이 "하나님의 왕국"[3]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때때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문구는 역사 전반에 걸친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주권적 통치입니다. (2) 다른 경우에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 중보자를 통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재자에는 아담, 노아, 모세, 이스라엘의 사사들(사사 시대), 이스라엘의 왕들, 특히 다윗 왕조의 왕들이 포함됩니다. 이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은 메시아(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4]

"왕국"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는 8번만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39번, 신약 서신에서는 18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 사이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왕국"은 아마도 현재와 미래에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즉 메시아 왕국을 가리킬 것입니다.[5]

어떤 해석자들은 이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통치하실 지상 왕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참조, 6절).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국을 연기(지연)하셨

---

[1] J. Manek, "The New Exodus in the Books of Luke," *Novum Testamentum* 2 (1957):8-23.

[2] John F. Maile, "The Ascension in Luke-Acts," *Tyndale Bulletin* 37 (1986):54.

[3] 대부분의 한국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됨-역자주.

[4] 이러한 문제에 대한 도표와 도표는 부록 2 "왕국에 대한 견해"와 부록 3 "하나님의 왕국"을 참고하라(이 노트의 끝부분에 있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신약성경 계시의 개요는, Robert L. Saucy, "The Presence of the Kingdom and the Life of the Church," *Bibliotheca Sacra* 145:577 (January-March 1987):30-46를 참조.

[5] Alva J. McClain, *The Greatness of the Kingdom*, p. 424-25.

습니다(7절).[1] 메시아 왕국(메시아에 의한 통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그분의 현재 통치와, 땅에서 온 인류를 다스리는 미래의 통치(재림 이후)가 그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로 돌아가실 때 어떤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1:4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성령 침례였습니다(눅 24:49; 참조, 1:5; 요 14:16, 26; 15:26; 16:7).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듯, 이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선물로 보셨습니다(참조, 눅 11:13). 성령은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 "신약성경의 어떤 필자도 하나님의 성령의 신성한 인격과 지속적인 능력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높임 받으신 주님과 신성한 영에 대한 두 가지 강조에서, 우리는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즉 교회 생활과 행함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요소가 인간보다 우세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2]

1:5 "침례받다"(Gr. 에밥티센[*ebaptisen*])는 "담그다" 또는 "잠기다"라는 뜻으로, 침례는 어떤 것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조, 고전 10:1-2).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마 3:11; 막 1:8; 참조, 요 7:39). 예수님은 이제 이 침례가 불과 며칠 후("지금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침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일어났습니다(2장). 성

[1] J. Dwight Pentecost, *Thy Kingdom Come*, pp. 214, 225–28; Cleon L. Rogers Jr., "The Davidic Covenant in the Gospels," *Bibliotheca Sacra* 150:600 (October–December 1993):458–78 참조.
[2] Thomas, p. 15.

령께서 예수님께 침례를 주시고 그로 인해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듯이, 그분의 후계자들에게도 그러한 힘을 주는 침례가 필요했습니다.

"누가가 역사를 기록한 목적은 주로 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부상과 발전에 대한 질서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1] 그러나 이 운동이 '모든 곳에서 반대하는'(행 28:22)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 반대하는 일부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기독교 역사가는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가 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는 2세기 기독교 변증의 세 가지 주요 유형 중 1세기 원형을 제공했습니다: 이교 종교에 대한 변증(기독교는 참되고 이교는 거짓이다), 유대교에 대한 변증(기독교는 참된 유대교의 성취를 나타낸다), 정치 당국에 대한 변증(기독교는 로마법에 대한 어떠한 범죄와도 무관하다)."[2]

2. 증거하라는 명령 1:6-8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의 침례와 그에 따른 성령의 내주였습니다. 이 신성한 능력이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데 그쳤을 것이지만, 성령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성령 침례 준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누가는 그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기록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행전의 주제를 선포하고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을 위한 무대를

---

[1] L. C. Alexander, "Luke's Preface in the Context of Greek Preface-Writing," *Novum Testamentum*, 28 (1986):48-74 참조.

[2] F. F. Bruce, "Paul's Apologetic and the Purpose of Acts,"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University Library* 89:2 (Spring 1987):389-90. 또한, pp. 390-93 및 David Peterson, "The Motif of Fulfilment and Purpose of Luke-Acts,"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1: The Book of Acts in Its Ancient Literary Setting*, p. 104를 참조. David Peterson은 누가의 목적이 일차적으로는 세워주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변증이라는 데 동의함.

설정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다'(witness)라는 개념은 매우 두드러져서(이 단어는 다양한 형태로 39회 정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모든 것, 심지어 원시적인 케리그마[설교]도 그 아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1]

1:6 구약 성경은 성령 침례를 메시아 왕국의 지상적 측면의 시작과 연관시켰습니다(사 32:15-20; 44:3-5; 겔 39:28-29; 욜 2:28-3:1; 슥 12:8-10). 그러므로 제자들이 며칠 안에 성령이 그들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비추어 지상의 "왕국"이 곧 시작될 것인지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때"는 '지금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를 의미합니다(5절). 칠십인역에서 "회복"(Gr. 아포카타스타세오스[*apokatastaseos*])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정치적 회복을 의미합니다(시 16:5; 렘 15:19; 16:15; 23:7; 겔 16:55; 17:23; 호 11:11).[2]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국을 빼앗은 것은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의 정복과 함께 일어났으며, 여기서는 분명히 메시아 왕국의 지상적 측면(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을 말한 것이지, 교회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3]

"사도행전에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20번, 에클레시아(교회)는 19번 사용되었지만 두 그룹은 항상 구별됩니다."[4]

아놀드 프루텐바움(Arnorld Fruchtenbaum)은 신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73번 등장하는 것을 나열하고 논의했습니다.[5]

"... 제자들이 여전히 구약의 약속의 종말론적 성취를 찾고 있었다는 것은

---

[1] Longenecker, p. 256.

[2] J. Carroll, *Response to the End of History*, p. 146, footnote 124. 칠십인역은 LXX라고도 하며,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진 히브리 성경(우리의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입니다

[3] J. Sidlow Baxter, *Explore the Book*, 6:14-15; Ladd, p. 1125; Darrell L. Bock, "Evidence from Acts," in *A Case for Premillennialism: A New Consensus*, pp. 187-88 참조.

[4] Arnold G. Fruchtenbaum, "Israel and the Church," in *Issues in Dispensationalism*, p. 118.

[5] Ibid., pp. 118-20; idem, *The Book of Acts*, pp. 32-33.

분명합니다(참조, 3:21)."[1]

1:7 **예수님께서 지상 왕국이 올 것이라고 믿는 제자들을 바로잡지 않으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2] 예수님은 왕국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있고 왕국이 며칠 안에 시작될 것이라는 제자들의 가정을 바로잡으셨을 뿐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상의 왕국을 이스라엘로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왕국, 즉 교회를 창조하셨고, 그 교회가 육적인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다루심을 끝내셨으며, 이 새로운 실체인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또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믿습니다.[3] 전천년주의자들은 메시아의 지상 통치에 대한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언급이 물리적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재림 후 메시아의 지상 통치를 기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회복에 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아마도 회복이 즉시 올 수 있다는 그들의 가정을 수정하지만, 유대 민족의 민족적 삶의 회복에 대한 그들의 관심의 정당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4]

"이 구절은 언약된 형태의 신정 체제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단지 연기되었을 뿐, 이 현 시대가 다윗 왕국 형태의 발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신정 통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미래의 다윗 왕국의 시기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왕국과 그 사이에 있는 현재의 신정 통치 형태를

---

[1] George 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p. 333.

[2] See John A. McLean, "Did Jesus Correct the Disciples' View of the Kingdom?" *Bibliotheca Sacra* 151:602 (April–June 1994):215–27.

[3]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p. 1637 참조.

[4]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2:15.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1]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상 왕국이 언제 시작될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승천 후 "때"(Gr. 크로노스[*chronous*], 시간의 길이)와 "시기"(Gr. 카이로스[*kairous*], 시대의 주요 특징)를 계시하실 것이며, 그분이 택하신 예언자들을 통해 알려 주실 것입니다 (참조, 살전 5:1; 계 6-19).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때와 시기에 대한 언급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사도들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지상의 메시아 왕국 이전의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2] 그러나 문맥을 고려할 때 예수님은 지상 왕국이 임하기 이전의 때와 시기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6절).

"사도행전 3:20[원문 19]에서 선택된 문구는 카이로이 아납수케오스(상쾌함의 계절)입니다. ... 다시 말해, 마지막 성취의 날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으며 회개하면 사람이 공유하는 현재의 상쾌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서 약속한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2

"1:6에 표현된 희망과 3:19-21의 베드로의 조건부 약속 사이에는, '회복시켜.. '와 '회복'이라는 특이한 단어뿐만 아니라, 두 문맥에서 '때...'와 '시기...'에 대한 언급으로 알 수 있듯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에는 메시아 왕을 통한 이스라엘의 통치 회복이 포함됩니다."[3]

1:8 제자들은 지상 왕국이 언제 올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대신 다른 것, 즉 전 세계에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전 세계 선교를 위한 신성한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참조, 누가복음 24:47-49).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이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1] Pentecost, p. 269.
[2] Cf. Henry, pp. 1637–38.
[3] Tannehill, 2:15–16.

힘을 주셨듯이, 제자들이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된 "권능"은 사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성령은 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사도들에게 약속된 것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 즉 말하고, 입으로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고, 일반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며, 반대로 사도행전의 성령은 이 능력을 주는 신성한 매개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1]

"너희가 ... 되리라"는 그리스어로 미래 지시형 동사를 번역한 것입니다("너희가 ... 받을 것이다"에서처럼). 하지만 "너희는 ... 되리라"는 이 구절은 예측일까요, 아니면 명령일까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선포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꼈습니다(참조, 10:42). 그러나 이것이 명령이라면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동사("너희가 ... 되리라"와 "너희가 ... 받으리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예측이자 사실에 대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들은 이제 증인이 되어야 했고, 그들의 확실한 임무는 그들의 스승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자나 철학자나 지도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어떤 사람이 되든, 모든 것은 개인적인 간증이라는 생각에 종속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인류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 즉 증인이기도 한 제자들은 이 책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4:20)는 베드로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2]

제 친구인 도널드 스콧(Donald Scott)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복음)을

---

[1] C. K. Barrett,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1:79.

[2] Thomas, p. 21.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체부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의 영감받은 개요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 사람(“나의”, 예수 그리스도), 능력(“성령”), 프로그램(“증인들”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증거하는 일이 계속 확장됨)을 지칭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누가는 계속해서 이 예언의 성취가, 복음과 교회가 로마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세계의 다른 모든 오지로 퍼뜨리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메시지는 잔잔한 물웅덩이에 돌이 떨어졌을 때 파문이 일듯이 점점 더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에서 1,4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적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행동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하나님의 왕국 선포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시하고 지원했던 성령의 인도와 힘을 받고,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선교 지침을 따르는 선교적 교회입니다."[1]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라는 점에서 지상에서 가장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연결은 민족적 구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지리적 영역을 묘사합니다. “땅의 가장 먼 곳"이라는 구절은 문자 그대로 “땅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는 드물지만 칠십인역에는 다섯 번 등장합니다(사 8:9; 48:20; 49:6; 62:11; 솔로몬의 시편 1:4).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위에 인용된)을 암시하고 계셨습

[1] Longenecker, p. 256.

니다.[1]

"(i) 유대인에게 증거한다는 것은 참된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참된 종교를 대부분 거짓되고 비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ii) 사마리아에서 증거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참된 종교를, 부분적으로는 거짓 종교를 가진, 유대인과 이교도가 혼합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iii) 땅끝까지 증거한다는 것은 참되고 중요한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2]

사도행전에서의 복음 전파				
참조	중심지	주요 인물	복음 전파 지역	전파 대상
행 1-12	예루살렘	베드로	유대와 사마리아	주로 유대인
행 13-28	안디옥	바울	땅 끝	주로 이방인

이 단락(본문 6-8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후계자들에게 고별 연설을 하는 장면을 기록한 누가의 기사입니다(참조, 창 49장; 민 20:26; 27:16-19; 신 31:14-23; 34:9; 왕하 2장; 등). 누가는 1:1-14에서 유대적인 고별 장면의 몇 가지 전형적인 특징을 사용했습니다.[3]

---

[1] Tannehill, 2:16. Cf. Thomas S. Moore, "'To the End of the Earth': The Geographical and Ethnic Universalism of Acts 1:8 in Light of Isaianic Influence on Luk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0:3 (September 1997):389-99.

[2] Thomas, p. 22. Paragraph divisions omitted. See also Steve Walton, "What Does 'Mission' in Acts Mean in Relation to the 'Powers That B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5:3 (September 2012):537-56.

[3] 누가가 사도행전을 소개하는 데 사용한 문학적 형식, 즉 프롤로그, 등장, 고별 장면, 가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 W. Palmer, "The Literary Background of Acts 1:1-14," *New Testament Studies* 33:3 (July 1987):430-31 참조. 포스트모던 시대에 누가복음-사도행전을 사용하기 위한 제안은, William J. Larkin Jr., "The Recovery of Luke-Acts as 'Grand Narrative' for the Church's Evangelistic and Edification Tasks in a Postmodern Ag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3:3 (September 2000):405-15 참조.

3. 예수님의 승천 1:9-11

1:9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신자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주하실 성령의 강림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습니다(요 14:16, 26; 15:26; 16:7; 행 2:33-36). "그들이 보고 있을 때"는 사도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 이를 증언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언급은 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부활 후의 이전 모습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지만(눅 24:31), 이제는 서서히 제자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가시적 상징인 쉐키나(참조, 출 40:34; 마 17:5; 막 1:11; 9:7)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1] 따라서 제자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실제 구름이 예수님을 하늘로 영접하고 감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2]

> "예수님께서 특정 순간에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특정 순간에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3]

1:10-11 "자세히"(Gr. 아테니제인[*atenizein*])라는 단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음을 더욱 강조합니다(2절; 눅 24:51). 누가는 이 극적인 헬라어를 1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이 단어가 두 번밖에 더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로"(문자적으로. 하늘 안으로, 에이스 톤 우라논[*eis ton ouranon*])는 이 두 구절에서 네 번 등장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

[1] Richard D. Patterson, "The Imagery of Clouds in the Scriptures," *Bibliotheca Sacra* 165:657 (January-March 2008):18 참조.

[2]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가 올리브 산에서 승천한 전통적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교회의 역사는, Jack Finegan, Light from the Ancient Past, pp. 535-37 참조.

[3] Barclay, p. 6.

사도들과 다른 증인들을 통해 지상에서 사역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두 "남자"는 사람처럼 보이는 천사 사자들이었습니다(참조, 마 28:3; 요 20:12; 눅 24:4).

일부 주석가들은 두 "남자"가 에녹과 엘리야 또는 모세와 엘리야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1]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2] 아마도 누가는 그들이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었다면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누가가 이 두 천사에 대해 묘사한 것과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들(눅 24:1-7)이 유사하다는 점은 그들이 단순히 천사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11절). 가룟 유다는 열두 제자 중 유대 출신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론은 "이스카리옷"[3]이 히브리어 '이쉬 케리요트'를 번역한 것으로, "그리욧 사람"을 의미하며, 그리욧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12마일 떨어진 케리옷-헤스론이라는 전통적인 해석을 전제로 합니다.[4]

"남자들"은 두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하늘 거처에 들어가셨고, 그분은 지상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으며 같은 방식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단 7:13; 마 24:30; 막 13:26; 14:62; 눅 24:50-51; 계 1:7).[5] 또한 같은 장소인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참조, 12절; 눅 24:50-51; 슥 14:4).

---

[1] E.g., Morgan, *The Acts* ⋯, p.21.

[2] Homer A. Kent Jr., *Jerusalem to Rome: Studies in the Book of Acts*, p. 25; Marshall, *The Acts* ⋯, p. 61; Longenecker, p. 259; Harry A. Ironside, *Lectures on the Book of Acts*, p. 22; Barrett, p. 83; F. F. Bruce, *Commentary on the Book of Acts*, p. 41; Charles C. Ryrie, *The Acts of the Apostles*, p. 14; Warren W. Wiersbe, *The Bible Exposition Commentary*, 1:404; Gaebelein, 3:1:257.

[3] 개역성경에는 "가룟"으로 번역됨-역자 주.

[4] *The New Bible Dictionary*, 1962 ed., s.v. "Judas Iscariot," by R. P. Martin, pp. 673- 75 참조.

[5] John F. Walvoord, "The Ascension of Christ," *Bibliotheca Sacra* 121:481 (January- March 1964):3-12 참조.

>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창조세상 속으로 내려오셔서 그 안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경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곧 그분의 창조물은 영원히 함께하며 결코 해를 입지 않을 포옹으로 껴안고 있습니다!"[1]

예수님 자신의 지상 재림에 대한 묘사는 마태복음 24:30; 26:64; 마가복음 13:26; 14:62; 누가복음 21:27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변화산 사건(눅 9:27-36)의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셨고, 그 사이에는 사라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분이 곧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고, 이때까지 그분은 제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2]

이 제자들을 큰 기쁨으로 가득 채운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곧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눅 24:52). 이 희망이 없었다면 주님의 떠남은 제자들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쁨의 전망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같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존 마일(John Maile)은 누가복음-사도행전에 나오는 승천 이야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첫째, "승천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분의 현재 주되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둘째, 승천은 "유대인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 사이의 연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셋째, 승천은 "부활 현현의 정점"입니다. 넷째, 승천은 "성령의 파송에 대한 전주곡"입니다. 다섯째, 승천은 "기독교 선교의 기초"입니다. 여섯째, 승천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서약"입니다.[3]

> "올바르게 이해하면 누가복음의 승천 이야기는 … 누가의 신학과 목적을 풀어내는

---

[1] F. W. Grant, *The Crowned Christ*, pp. 23-24.
[2] Kent, p. 23.
[3] Maile, pp. 55-59.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1]

"누가의 요점은 초대 교회의 선교 활동이 예수님의 지상명령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재림에 대한 확실한 약속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2]

"누가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승천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이야기의 끝이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교회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의 경우, [C. K.] 바렛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이야기의 끝은 교회이고, 예수님 이야기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3]

4. 예수님께서 열두 번째 사도를 임명하심 1:12-26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가 장차 맡게 될 사역을 고려할 때 유다의 후임자를 찾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주 예수님의 인도를 얻었습니다(참조, 21, 24절). 따라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두 번째 사도를 임명하셨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은 이스라엘에 메시아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 곧 재림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6절), 열두 제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사역을 수행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준비 1:12-14

1:12-13 제자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번데기에서 날개를 단 단계로 넘어가는 영적 변화를 겪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약속하신 큰 조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들을 모든 기독교 진리 안으

[1] Ibid., p. 59.
[2] Longenecker, p. 258.
[3] Neil, p. 26.

로 인도하실 것입니다."[1]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서 승천하신 곳에서 다락방까지는 "안식일 한나절 거리"(약 2,000규빗, 2/3마일 또는 1킬로미터; 참조, 출 16:29; 민 35:5)에 불과했습니다.[2] 이 "다락방"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첫 주의 만찬을 거행했던 곳과 동일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눅 22:12). 다른 그리스어 단어들이 그 장소를 묘사합니다. 이 다락방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소였을 수도 있지만(눅 24:32, 36; 요 20:19, 26), 이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리차드 렌즈키(Richard Lenski)는 헬라어 카타메논테스(*katamenontes*, "머물다")를 통해 신자들이 이 방을 예루살렘의 본부로 삼았다고 추론했습니다.[3]

헬라어 본문에서 "다락방"을 가리키는 정관사 "the"와 이 구절의 강조된 위치로 보아 누가는 독자들이 이전에 이 방에 대한 언급을 통해 알고 있었을 특별한 다락방을 식별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저자는 이 다락방과 9:37, 39 및 20:8에 언급된 다락방이 회당의 일부였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4] 사도들의 이름이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신 것을 상기시킵니다(참조, 눅 6:13-16).[5] 그러나 이 목록에는 가룟 유다가 생략되어 있으며 그의 후임자가 선정되는 장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14 사도들은 "항상 ...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참조, 단 9:2-3; 눅 11:13). "기도"(헬라어 테 프로슈케[*te proseuche*])는 유대인들이 지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참조, 2:42; 6:4).

---

[1] A. B. Bruce, *The Training of the Twelve*, p. 538.

[2] Mishnah *Sotah* 5:3. 미쉬나는 유대 율법의 구전 전통을 구현하고 탈무드의 첫 부분을 구성하는 권위 있는 주석 자료집이다.

[3] Richard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s of the Apostles*, p. 39.

[4] Rainer Riesner, "Synagogues in Jerusalem,"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 206.

[5] Margaret H. Williams, "Palestinian Jewish Personal Names in Acts," in ibid., pp. 79– 113 참조.

프로슈케(*proseuche*)는 때때로 예배라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자주 언급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그들의 합심("모두 ... 한마음으로")을 강조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자극해야지 기도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사도행전의 거의 모든 장에서 기도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으며,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1]

> "...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분이 행하실 일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그들을 자극하십니다. 제자들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 오는 자기 성찰을 통해 곧 일어날 엄청난 사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2]

언급된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자들과 동행했던 여성들임이 분명합니다(눅 8:1-3; 참조, 23:49; 23:55-24:10). 누가의 복음서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여성에 대한 누가의 관심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됩니다.

>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지만, 여러분은 그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녀에게 촛불을 밝히지도 않았으며, 그녀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어떤 축복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열한 제자 및 여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

---

[1] Wiersbe, 1:405.

[2] Ironside, pp. 28-29. 기도와 부흥의 인과 관계에 대한 증거는, J. Edwin Orr, *The Fervent Prayer: The Worldwide Impact of the Great Awakening of 1858*, ch. 1: "The Sources of the Revival. 참조.

었습니다는 것을 파악할 것입니다."[1]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언급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요 7:5, 막 6:3)이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신자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참조, 고전 15:7).

맛디아가 선택됨 1:15-26

1:15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베드로의 리더십 은사를 고려할 때, 그가 이 사건에서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대표적인 제자이자 선도적인 사도였습니다."[2]

"형제들"은 문자 그대로 "제자들"(Gr. 마테톤[*matheton*])입니다. 이 때 베드로가 언급한 "120명"(참조, 13-14절)은 아마도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신자들 중 일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500명 이상의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고전 15:6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작은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번성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증거로 땅을 가득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한 번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1:16-17 베드로는 모인 제자들에게 유대인에게 말할 때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 형제들"(안드레스[*andres*], 아델포이[*adelphoi*])입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인사말이 등장하는데, 항상 유대인들에게 하는 공식적인 연설에서 사용됩니다(참조, 2:29, 37; 7:2; 13:15, 26, 38; 15:7, 13; 22:1; 23:1, 6;

[1] Ironside, pp. 26-271.

[2] Darrell L. Bock, "A Theology of Luke-Acts," in *A Biblica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p. 148.

28:17).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주목하십시오.[1] 그는 다윗의 말이 "성령"(딤후 3:16)으로부터 왔다고 믿었고, 그것을 "성경"(거룩한 글)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거짓 동료와 악한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말씀이 "유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윗의 원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윗이 예상했던 주님(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다윗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독특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의 전형으로 여러 번 다루고 있으며, 다윗의 적은 예수님의 적의 유형이 됩니다."[2]

> "물론 그의 추종자 중 한 사람이 메시아를 배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초기 유대인의 메시아 기대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3]

베드로는 이 성경 구절이 "성취되어야만 했다"(Gr. 데이[*dei*], 신적 필요성에 의해)고 말했습니다.

> "여기서 [베드로가] 이해한 것은 ... (1)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한 계획에 필연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 것, (2)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 부족이 크다는 것, 특히 '우리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도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의 안내자 역할을 한' 유다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크다는 것, 그리고 (3)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어 온 일을 이해하는 명시적인 방법은 거짓 동료와 악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두 시편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통해서이며, 당시 널리 통용되었던 주석 규칙

[1] Edwin A. Blum, "The Apostles' View of Scripture," in *Inerrancy*, pp. 39–53 참조.
[2] Kent, p. 27.
[3] Witherington, p. 122.

인 칼바호머('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 또는 *minore ad majorem*)를 통해 거짓 제자이자 악인의 전형인 가롯 유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1:18-19 이 구절은 누가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베드로의 연설에 정보를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받은 돈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피의 밭"을 구입했습니다(마 27:3-10). 아마도 "피의 밭"이라는 이름은 "피의 돈"으로 밭을 샀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붙인 별명이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 기록은 유다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기록한 마태복음과는 다릅니다(마 27:5). 두 사건은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두 기록 모두 사실입니다. 아마도 유다는 목을 매었고, 그 과정에서 "곤두박이로"(얼굴이 정면으로) 떨어져 복부가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목매달았던 밧줄이나 나뭇가지가 끊어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가가 묘사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줄을 잘라서 그의 시체를 내릴 때 시체가 떨어져서 찢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유다가 목을 맬 때 도시를 더럽혔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의 시신을 힌놈 계곡을 향한 벽 너머로 던졌고 "창자가 빠져나왔낫다"는 것입니다.[2] "하켈다마"의 전통적인 위치는 예루살렘 남동쪽, 힌놈과 키드론 계곡이 만나는 곳 근처에 있습니다.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 묘사는 그 사도의 행동과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유다의 변절은 그의 끔찍한 죽음으로 이어졌고,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후임자가 필요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맛디아는 유다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가 불충실했기 때문에 유다의 후임자가 된 것입

[1] Longenecker, p. 263. 또한, Andrew Judd, "Do the Speakers in Acts Use Different Hermeneutics for Different Old Testament Genre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64:1 (March 2021):109-27 참조.

[2] Fruchtenbaum, *The Book …*, p. 54.

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전임 사도가 죽었을 때 한 사도가 다른 사도의 뒤를 잇도록 의도했다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1] 사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12:1-2)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1:20 베드로의 인용문은 시편 69:25 및 109: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구약 성경의 인용문은 모두 헬라어 번역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2] 시편 69편은 예수님 자신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경험과 유사하거나, 예수님의 경험을 예견했다고 보았던 구약 성경 구절입니다(참조, 요 2:17; 15:25; 롬 11:9-10; 15:3).[3] 베드로가 인용한 이 구절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은, 그분의 상황이 다윗과 같았다는 의미에서, 다만 더 중요한 메시아적 규모에서라는 측면에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다를 다른 사도로 교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편 69:25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109:8을 인용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경험과 유사한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건에 적용한 또 다른 구절입니다. 그는 다윗이 주님의 왕을 반대하다가 교체된 사람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사용하여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유다의 "직분"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했습니다.

1:21-22 베드로는 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열두 제자가 지상 메시아 왕국의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 19:28; 눅 22:30; 참조, 계 21:14).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역에 대한 자격을 갖추려면 열두 번째 제자는 베드로가 명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

[1] 사도적 계승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견해는, Ludwig Ott, *Fundamentals of Catholic Dogma*, p. 308 참조.
[2] Witherington, pp. 123-24.
[3] C. H. Dod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pp. 61-108 참조.

> "1:21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 특히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강조하는 것은 사도 증인들이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연히 그 자리에 있어서 사고 목격자처럼 보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사역을 위해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공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시험을 받고 자신의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은 또한 준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증언은 우연한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르침과 시험을 받은 후 예수님과 공유한 삶과 사명으로부터 말했습니다. 이 그룹에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선택됩니다."[1]
>
> "'우리 가운데 드나들었다'[NIV]는 친숙하고 방해받지 않는 관계를 나타내는 셈어 관용구입니다(참조, 신 31:2; 삼하 3:25; 시 121:8; 행 9:28)."[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를 대비하여 스스로를 준비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은 종종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사람을 더 충실한 청지기로 교체하셨습니다(예, 아히도벨 대신 사독, 엘리야김 대신 셉나, 삼손 대신 사무엘, 사울 대신 다윗 등).

이 두 구절은 "사도"라는 단어의 기술적 사용과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구별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정의상 "사도"(apostle, "보내다"를 뜻하는 아포 스텔로[*apo stello*]에서 유래)는 메신저로 파송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번역가들은 이 단어를 영역본에서 "메신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나바, 바울의 동료 사역자, 야고보, 에바브로디도 등이 이런 의미에서 사도였습

---

[1] Tannehill, 2:23.

[2] Longenecker, p. 265. NIV 는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가리킴.

니다(행 14:4, 14; 고후 8:23; 갈 1:19; 빌 2:25).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두 사도는 특별한 의미에서 사도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은 후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사도, 즉 예수님께서 처음 열두 제자를 택하여 파송하실 때 세우신 사도직(20절)을 맡은 사도들이었습니다(눅 6:13).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도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훈련를 받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연설(16-21절)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23-24개의 연설 중 첫 번째 연설입니다. 사도행전 내용의 약 1/3이 연설입니다.[1] 이 연설은 화자가 청중에게 가까운 미래에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려는 의도적 수사학의 예입니다.[2] 누가는 사도행전에 연설을 기록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을까요?

> "물론 사도행전의 모든 연설은 어느 정도는 의역[패러프레이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원래의 전달에는 누가가 기록한 것보다 더 자세한 논증과 예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가엾은 유두고가 의심할 여지없이 증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행 20:7~12))! 속기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든 요약문에서 요구되는 대로 재작성되었고, 더구나 내러티브의 스타일에 맞게 재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러티브에 부합하는 연설을 만들어내는 글쓰기의 종류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한 보도나 전통적인 출처 자료의 부족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한 명의 저자가 전체의

[1] 그것들에 대한 도표를 보려면 이 노트의 마지막에 있는 부록 4 "사도행전의 설교와 연설"을 참조. 사도행전의 연설에 대한 유용한 논의는, Neil, pp. 38–45 및 M. Soards, *The Speeches in Acts: Their Content, Context, and Concerns*을 참조.

[2] George A. Kennedy,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through Rhetorical Criticism*, p. 116.

문학적 형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1]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에서 많은 연설을 보고했지만, 그 연설을 자신의 말로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공격해오는 아라비아 사람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독려하는 연설을 들 수 있습니다. 같은 연설이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에 모두 등장하지만 내용은 다소 다릅니다.[2] 또 다른 예는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유대인들에게 로마인과의 전쟁을 말리는 연설입니다.[3]

1:23-26 "약 120명의 사람들이 ... 함께 모인 무리"(15절)였을 것으로 보이는 참석자들("그들")은 동등하게 자격을 갖춘 두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아마도 열한 사도가 이 과정을 주도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사바"는 아람어로 "안식일의 아들"을 의미하며, "유스도"는 로마어입니다. "맛디아"는 히브리어로 마티디아의 줄임말입니다. 그때 참석자들은 주님께서 어느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알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참조, 6:6; 13:3; 14:23; 삼상 22:10; 23:2, 4, 10-12). "주"(24절)는 아마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21절 참조), 이 경우 성경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기도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삼상 16:7),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선택했을 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따라 그 사람을 식별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제비뽑기"를 했는데, 아마도 두 개의 지정된 돌 중 하나를 통에서 꺼내거나, 특별히 표시된 물건을 던져서 뽑았을 것입니다(참조, 레 16:8; 수 14:2; 삼상 14:41-42; 느 10:34; 11:1; 잠 16:33). 고대 그리스인들은 투표할 때 종종 조약돌을 사용하여 검은색은 정죄, 흰색

[1] Longenecker, p. 230. 또한 사도 행전의 연설에 대한 위더링턴의 추가적 기록은, pp. 116- 20 참조.
[2] Josephus, *Antiquities of* ⋯, 15:5:3; idem, *The Wars of the Jews*, 1:19:4.
[3] Ibid., 2:15:4. 특히 각주에 주목하라. 고대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연설을 자신의 말로 표현했다고 설명한다.

은 무죄를 표시했습니다.[1] 주님은 맛디아를 유다의 "사역"(봉사)과 "사도직"(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주권적 선택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유다의 "자기 자리"는 열한 제자의 자리와는 다른 곳, 즉 무덤과 결국 지옥이었습니다(참조, 요 17:12). 맛디아는 신약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자로 죽었다고 합니다.[2]

> "... 다른 사도들의 자격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후계자 역시 열한 제자를 임명하신 주님에 의해 임명되어야 했습니다."[3]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한 이 사례는 신약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것은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제비뽑기는 성령이 영구히 내주하시기 전에 필요했지만, 성령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외부적으로 제공하셨던 인도하심을 내적으로 제공하셨습니다.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인도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객관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주관적으로는 기도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신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각인시킴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열두 번째 사도를 인정하도록 이끈 것이 옳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신하도록 의도하셨나요? 몇몇 주석가들은 바울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체자라고 믿었습니다.[4] 물론 바울은 열두 사도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친구이자 가까운 동료였던 누가는 열두 제자를 공식적인 그룹으로 주저 없이 언급했습니다(행 2:14; 6:2; 참조, 고전 15:5). 또한 향후 열두 제자 사역의 뚜렷한 유대적 성격(마 19:28)은 바울이 이 그룹에서 제외된 것을 뒷받침합니다. 그의 사역은 주로 이방

---

[1] Robertson, 3:19, 446.
[2] Blaiklock, p. 53; Knowling, 2:86.
[3] Longenecker, p. 266.
[4] E.g., Blaiklock, p. 53; Morgan, *The Acts ⋯,* p. 24; idem, *An Exposition of the Whole Bible*, p. 450; J. Vernon McGee, *Thru the Bible with J. Vernon McGee*, 4:514.

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갈 2:9). 바울은 자신이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지만, 자신의 공식 사도직이 주님의 직접적인 사명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고, 그는 자신이 비정상적으로 사도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고전 15:7-8).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이 때 내린 결정이 실수였다는 힌트가 없습니다.

> "... 이 단락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관한 결정에는 (1) 개인적인 자격 평가, (2) 간절한 기도, (3) 그리스도 자신의 임명, 즉 문화와 관련된 방식으로 올 수 있지만, 지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방식으로 임명이 수반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1]

> "마태복음은 부활로, 마가복음은 승천으로, 누가복은은 성령의 약속으로, 요한복음은 재림의 약속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네 가지 기록을 모두 모아 각각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며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2]

5. 교회의 탄생 2:1-41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인류 통치에서 새로운 경륜(경륜, 일하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3] 누가는 초대 교회와 오늘날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인류를 대하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 날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성경 연구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교회의 시작, 즉 탄생일로 봅니다.[4]

---

[1] Longenecker, p. 266.

[2] McGee, 4:515.

[3] 세대, 경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harles C. Ryrie, *Dispensationalism Today*, 또는 idem, *Dispensationalism* 참조.

[4] E.g., James D. G. Dunn, *Baptism in the Holy Spirit*, p. 49;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s.v. "*pneuma*, et al.," by Hermann Kleinknecht, et al., 6(1968):411; Emil Brunner,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hurch*, p. 161; Neil, p. 71; Longenecker, p. 271; Morgan, *The Acts …,* p. 22).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관점의 요약을 보려면, Ryrie, *Dispensationalism Today*, ch. 10; 또는 idem, *Dispensationalism*, ch. 11 참조.

"이 사건은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중심축[중추적인] 이야기입니다."[1]

"작품의 줄거리는 종종 그 안의 주요 갈등이나 대립을 고려함으로써 조명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다른 갈등에 직면하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 주요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여전히 존재하는 줄거리의 중심 갈등은 유대인 기독교 설교자(바울 포함)에 의해 유발된 유대교 내 갈등입니다. 사도행전 2:1-8:3은 예루살렘에서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2]

성령의 강림 2:1-4

누가는 이전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시작을 성령 침례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눅 3:21-22). 이제 그는 예수님의 하늘 사역의 시작을 제자들의 성령 침례로 비유했습니다(행 2:1-4).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내주하시고 힘을 주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이제 믿는 제자들에게도 내주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행 1:8)과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성령 침례를 예언했습니다(마 3:11; 눅 3:16).

2:1 "오순절 날"은 유대인들이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연례 봄 절기였습니다(출 34:22a). 유대인들은 이전 시대에는 오순절을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절기가 끝난 후 7주(즉, 주들(weeks)의 한 주)가 끝날 때 이를 기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오순절 날에 훗날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신자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오순절을 모세 율법을 주신 기념일로 기념했습니다(출 19:1 참조). 바울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모세의 율법이 옛 모세 언약에 따라 신자들에게 제공했던 외적 인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간주했습니다(갈 3:3, 23-29).

"오순절"은 헬라어 단어로 영어로 음역하면 50번째를 의미합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위치했습니다. 모든 남자 유대인이

[1] Bock, *Acts*, p. 92.
[2] Tannehill, 2:34.

중앙 성소에 참석해야 하는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출 34:22-23). 예루살렘에서 최대 20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오순절은 보통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지켰습니다. 당시의 여행 여건 덕분에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이 날 예루살렘에 많은 수의 유대인이 모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축제는 유대인 축제 중 예루살렘에서 가장 붐비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축제였습니다.[1]

> "... 누가는 예수님의 침례와 오순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초기 추종자들의 경험을 병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회의 사명이 성령의 임재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오순절을 기적이 일어난 날로 강조함으로써 (1) 성령의 오심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2) 성령의 오심이 유대인의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데, 전자는 토라 중심적이고 토라가 지시하는 반면, 후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성령이 지시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바울과 비슷하게 들립니다."[2]

"그들"의 선행어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누가가 언급한 신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나중에 방언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군중이 놀랐다고 기록했기 때문에(7절) 열두 제자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문자적으로, 집, Gr. 톤 오이콘 [*ton oikon*])를 확실하게 식별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미 언급된 위층 방(1:13)이거나 다른 집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실내에 있었습니다(2절).

2:2 예수님이 가신 곳인 하늘로부터 "심히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

[1] Knowling, 2:429.
[2] Longenecker, p. 269.

다(1:10-11). 이 소리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심을 상징합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프뉴마[*pneuma*])는 "바람" 또는 "영"을 의미합니다. 에스겔과 예수님은 이전에 바람을 하나님의 영에 대한 비유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겔 37:9-14; 요 3:8).

> "누가는 특히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삶에서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1]

예수님께서 초기에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주신 것(요 20:22)은 구약의 능력 부여에 따른 일시적인 성령의 능력 부여였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가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징적이고 생생한 예시, 즉 나중에 그들에게 임하실 성령에 대한 사전 예시를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하실 일과 오순절에 실제로 하셨던 일을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에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전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설명을 선호합니다.

> "제 딸의 친구가 캔자스에 사는데 토네이도를 경험했습니다. 토네이도는 집을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집 두 블록 이내에 들어왔어요.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딸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화물 열차 1천대가 마을로 들어오는 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야, 그건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소리였어. 오순절 날에 그들이 들은 소리는 바로 그런 종류의 소리였습니다."[2]

2:3 "불"은 바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참조, 창 15:17; 출 3:2-6; 13:21-22; 19:18; 24:17; 40:38; 마 3:11; 눅 3:11). 신자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받았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겉으로는 불("불처럼 보이는 혀")보이

---

[1] Marshall, *The Acts* ⋯, p. 32.
[2] McGee, 4:516.

는 것 한 덩어리로 왔다가 개별적인 불꽃으로 분리되었는데, 이는 항상 불의 혀와 비슷했습니다. “갈라져"는 현재형이자 아마도 중간태 그리스어 분사인 디아메리조메나이(*diamerizomenai*)로 번역되는데, 이는 불이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였음을 암시합니다.

이 불꽃들은 각각 “각” 신자들에게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이 모든 개별 신자에게 분배되는 것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묘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은 광야의 불기둥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집단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각 신자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불은 닿는 것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일반적인 불이 아니었습니다(참조, 출 3:2-6).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신자들이 기적적으로 말하는 방언을 불의 혀와 연결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방언의 기적을 그들의 역사에서 불과 동일시했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침례 요한의 말(마 3:11; 눅 3:16; 참조, 욜 2:28-29; 말 3:2-5)이 성취된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 이후의 성취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은 의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이러한 예언은 모든 이스라엘의 경험과 관련된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은 초기, 부분적 또는 이와 유사한 성취였으며 완전한 성취는 여전히 미래라고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 침례에 관한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지만 불 침례에 관한 예언은 그 당시에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7년 환난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오순절에 두 가지 침례가 모두 일어났으며, 두 가지 모두 미래에 다시 일어날 것이며

이스라엘을 포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것과는 전혀 다른데, 그 예언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1] 저는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의 예표로 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성령과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포함하는 은혜로운 침례입니다.[2]

2:4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성령의 사역입니다. 누가는 충만함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둘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1:5) 성령 침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성령 침례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얼마 후 오순절에 성령 침례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11:15-16).[3]

성령 충만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출 35:30-34, 민 11:26-29, 삼상 10:6, 10)에도 신자들이 여러 차례 경험한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이를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성령으로 사람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참조, 행 4:8, 31; 6:3, 5; 7:55; 9:17; 13:9, 52).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신자들이 두 번째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엡 5:18)고 명령하셨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누가는 신자 안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충만함"을 사용했습니다.[4]

성령에 의한(또는 성령과 함께) 충만함은 신자에 대한 성령의 통제(영향력)를 초래합니다(엡 5:18). 성령은 신자를 충만하게 하시는 정도까지 신

---

[1] E.g., Robert G. Gromacki, *The Holy Spirit*, pp. 78-80.
[2] 아래 2:16-21에 대한 제 의견도 참조.
[3] Fruchtenbaum, "Israel and …," pp. 116-17 참조.
[4] Bock, "A Theology …," pp. 98-99.

자를 통제하십니다. 신자는 성령의 뜻에 굴복하는 정도까지 성령의 통제를 경험합니다. 오순절 날 모인 신자들은 그분께 복종하는 올바른 인격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참조, 1:14).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말할 때마다 그들의 성령 충만은 항상 복음 선포 또는 선교와 관련된 특정한 섬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2:4; 4:8, 31; 9:17; 13:9).[1]

> "...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항상 '성령 충만'을 복음 선포와 연결시킵니다(행 2:4; 4:8, 31; 9:17; 13:9).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선포자로서 기름부음 받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행 6:3, 5; 7:55; 11:24; 13:52)."[2]

> "초대 교회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어떤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적도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였습니다."[3]

> "사도행전의 첫 13장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40번 이상 나옵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으며 바로 그 안에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4]

그리스도인은 성령 침례(충만과는 대조적으로)를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성령 침례를 명령하신 적이 없으며, 성령 침례는 단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납니다(롬 8:9). 그러나 오순절 날 성령 침례가 일어났을 때,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신자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 차례(8:17; 10:44-45; 19:6)에 걸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장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신자임

---

[1] Frederick R. Harm, "Structural Elements Related to the Gift of the Holy Spirit in Acts," *Concordia Journal* 14:1 (January 1988):30.

[2] Walt Russell, "The Anointing with the Holy Spirit in Luke–Acts," *Trinity Journal* 7NS (Spring 1986):63.

[3] Barclay, p. 12.

[4] Ibid., p. 13.

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신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세 번의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었으며, 전형적인 성령 침례가 아닙니다.[1]

성령 침례는 항상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시킵니다(고전 12:13). "그리스도의 몸"은 신약 성경 기자들이 이스라엘이나 다른 어떤 신자 집단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교회에만 사용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침례 역사가 처음 일어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참조, 마 16:18).

다른 "방언"(언어들)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에게 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다는(즉, 그들을 통제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침례를 주셨다는) 외적인 증거였습니다. 성령 침례의 다른 초기 사례에서도 동일한 표적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10:46, 19:6). 각각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주신 것은 주로 하나님의 활동을 표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던 당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눅 11:16; 요 4:48; 고전 1:22).[2]

은사주의적 기독교인과 비은사주의적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표적 은사(방언, 주문형 치유, 놀라운 기적 등)의 목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사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은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세우는 일에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참조, 고전 12:7).[3]

> 은사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언급되는 것처럼 보인다... [성령께서] 교회의 새롭게 됨과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일을 기꺼이

[1] 자세한 설명은 이 노트의 이 구절에 대한 제 의견을 참조.

[2] William G. Bellshaw, "The Confusion of Tongues," *Bibliotheca Sacra* 120:478 (April- June 1963):145-53; Stanley D. Toussaint, "Rethinking Tongues," *Bibliotheca Sacra* 172:686 (April-June 2015):177-89 참조.

[3] E.g., Jack Deere, Surprised by the Power of the Spirit, pp. 134-36.

수행할 수 있게 한다."[1]

많은 비은사주의자들은 표적 은사의 목적이 주로 세워주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의 인증에 있다고 믿습니다.

"... 기적과 계시는 그 표적과 자격으로서, 또는 더 좁게는 모든 계시의 요약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기적은 성경의 페이지에 이유 없이 여기저기서 무분별하게, 그리고 아무렇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계시의 시대에 속하며, 하나님께서 공인된 메신저를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은혜로운 목적을 선포할 때만 나타납니다. 사도 교회에서 그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난 것은 계시에 있어서 사도 시대가 풍요로웠다는 증거이며, 이 계시 시대가 닫히면서 기적의 역사 시기도 당연히 함께 지나간 것입니다."[2]

"...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주로 예배를 위한 특별한 언어가 아니었고, 복음의 전파를 촉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신자가 두 번째 '성령 침례'를 경험했다는 표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측면을 인증하고 입증하기 위한 증거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객관적인 표징에서 주관적인 경험으로 강조점을 옮기는 사람들에 의해 항상 왜곡됩니다."[3]

다른 비은사주의자들은 표적 은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식별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메시지를 인증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비은사주의자들은 표적 은사의 결과가 세우는 일에 관한 것이

---

[1] E. D. O'Connor, *The Pentecostal Movement in the Catholic Church*, pp. 280, 283. See also Ernest Swing Williams, a classic Pentecostal theologian, *Systematic Theology*, 3:50; Bernard Ramm, *Rapping about the Spirit*, p. 115; John Sherrill, *They Shall Speak with Other Tongues*, pp. 79-88; and the *Catalog of Oral Roberts University* (1973), pp. 26-27.

[2] Benjamin B. Warfield, *Counterfeit Miracles*, pp. 25-26.

[3] Joel C. Gerlach, "Glossolalia," *Wisconsin Lutheran Quarterly* 70:4 (October 1973):251. See also John F. Walvoord, *The Holy Spirit at Work Today*, p. 41; and Culver, p. 138.

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인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행 2:22; 막 16:20; 행 7:36-39, 51; 히 2:2-4; 고전 14:20-22).[1] 유대인들은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일어날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2장, 10장, 19장). 사도들이 이미 받아들인 히브리 성경(우리의 "구약성경")에 더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요구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성경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다는 강력한 증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세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언젠가 외국어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사 28:11; 참조, 고전 14:21). 이사야의 이 예언을 알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임을 인식했어야 했습니다.

> "바클레이와 다른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알려진 그리스어나 아람어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했을 텐데 왜 여러 방언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2]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기록의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군중들의 주의를 사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의 방언을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러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놀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수단이 있을까요? 그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를 끌게 되고, 신적 개입의 증거가 감지되고, 놀란 군중은 베드로의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들을 준비를 하게 되며, 따라

[1] S. Lewis Johnson Jr., "The Gift of Tongues and the Book of Acts," *Bibliotheca Sacra* 120:480 (October–December 1963):309–11 참조.

[2] Barclay, p. 16.

서 은사를 부여한 성령의 목적이 실현될 것입니다."[1]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여기서 단순히 무아경에 빠진 채 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이라면, 누가는 에테라이스 글로사이[다른 방언, 다른 언어]가 아니라 글로사이[방언, 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야 했다."[2]

"... 어려운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다른 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현상의 놀라운 효과(행 4:13-16; 10:28-29; 11:1-3, 15-18; 15:1-12)는 표적 은사에 대한 (세우는 일이 아닌) 인증의 목적을 뒷받침합니다."[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고전 14:22-25).[4]

사도행전 2장 4절의 문맥을 보면 이 표적은 말하는 사람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언어로 말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음이 분명합니다(6, 8절).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능력이 그 자체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불경스러운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사탄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통역사가 필요했지만(참조, 고전 14장), 오순절처럼 통역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

[1] Harm, p. 30.
[2] Witherington, p. 133.
[3] J. Lanier Burns, "A Reemphasis on the Purpose of the Sign Gifts," *Bibliotheca Sacra* 132:527 (July-September 1975):245.
[4] Zane C. Hodges, "The Purpose of Tongues," *Bibliotheca Sacra* 120:479 (July-September 1963):226-33. 방언을 주석적으로 다룬 좋은 책으로는, Robert G. Gromacki, *The Modern Tongues Movement*; Robert P. Lightner, *Speaking in Tongues and Divine Healing*; John F. MacArthur Jr., *The Charismatics: A Doctrinal Perspective*; and Joseph C. Dillow, *Speaking in Tongues: Seven Crucial Questions* 가 있음.

사도행전에서 방언의 예시들				
본문	화자	청자	회심 시기와 비교	목적
2:1-4	유대인 신자들	구원 받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회심 후 일정 시간 이후	요엘이 예언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유대인들을 위해) 확인하기 위해
10:44-47	이방인 신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던 유대인 신자들	회심 즉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확인하기 위해
19:1-7	신자들	바울의 메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유대인들	회심 즉시	(유대인을 위한)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서 "방언"은 고린도전서(고전 12; 14)의 그것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두 경우 모두 무아경에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두 경우 모두 외국어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의 방언은 외국어이고 고린도에서의 방언은 무아경에서 하는 말이었습니까?[1]

"사도행전의 누가와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용어가 동일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은사와 고린도에서 나타난 은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2] 이는 용어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히 불가능합니다. 누가와 바울이 지속적인 동반자였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같은 의미로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때 이 결론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즉, 초기 신자들은 이 은사를 설명할 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고정된 용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의 은사에 대한 전체 설명은 다른 곳에서 발생

[1] 이러한 견해에 대한 명확한 논의는, Kent, pp. 30-32 참조.

[2] [E.g., F. J. Foakes-Jackson, *The Acts of the Apostles*, p. 11.]

하는 더 제한된 설명을 설명할 수 있어야합니다."[1]

아마도 "방언의 은사"는 말하는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을 포함하는 용어였을 것입니다. 이 기적은 자신의 언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사는 신자들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할 때, 특히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 매우 유용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 주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강조합니다.

참석했던 모든 신자들이 방언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방언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3, 7-11절). 오순절 날의 방언은 방언 은사의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독특한 신적 개입(기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된 용어를 고려할 때 지지하기 어렵습니다.[2]

초기 기독교인들이 방언을 했다면 현대 기독교인들도 방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방언을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방언의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도 사도들이 방언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참조, 고전 12-14장).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체험을 받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렸을 뿐입니다. 성령 강림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실 때 오게 될 것입니다."[3]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성

---

[1] Johnson, pp. 310-11. 또한, Henry Alford, *The Greek Testament*, 2:2:15-16; Rackham, p. 21; Dillow, pp. 20-23을 참조. Longenecker, p. 271은 사도행전 2장과 고전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의 차이점을 지적한다.

[2] 방언 은사의 중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6에 대한 노트를 참조.

[3] Gromacki, *The Modern …,* p. 85.

령 강림의 세 가지 표징, 즉 바람, 불, 외국어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표징은 각각 유대 역사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 "오순절 날에는 성령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적어도 세 가지 뚜렷한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1) 성령께서 이 세상으로 강림하셔서 이 시대 내내 거하시게 하셨습니다(즉, 영구적으로 내주하셨다). ... (2) 다시 말하지만, 오순절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의 몸인 교회'[즉, 성령 침례]라고 불리는 새로운 몸 또는 유기체의 형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 (3) 또한 오순절에 준비된 생명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거나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권능을 주셨습니다[즉, 성령 충만]."[1]

구경꾼들이 놀람 2:5-13

2:5-6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아마도 디아스포라(이스라엘 땅 밖에 살던 사람들, 즉 흩어져 살던 사람들) 출신으로 유대인의 고향에 정착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20; 7:2, 4, 48; 9:22; 11:29; 13:27; 17:24, 26; 22:12에서 카토이쿤테스(*katoikountes*, "거하다")를 다른 용법으로 사용했으며, 이는 10절의 에피데메오(*epidemeo*, "방문객")와 비교하여 영속성을 암시합니다.**

> "타국에서 평생을 보낸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능한 한 성전 근처에서 생을 마감하기 위해 귀국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2]

9절과 10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온 나라들의 목록이 이어집니다. 주의를 끌었던 소리는 바람 소리(2절) 또는 방언하는 사람들의 방언 소리(4절)였을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소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echos* 이지만, 6절에서 "소리"로 번역된 단어는 *phone* 입니다. 문맥상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주목을 끈 것으로 보입니다. 2절은 그 소리가 제자들이 있

---

[1] Lewis S. Chafer, *He That Is Spiritual*, pp. 19–21. 단락 구분 생략.

[2] Neil, p. 73. Cf. Kent, p. 30, n. 9.

는 집에 가득 찼다고 말하지만, 집 밖에서 들렸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또한 6절은 그 소리를 말하는 언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은 위층 방에서 일어난 일이 언제 공개적으로 알려졌는지, 제자들이 그 방에서 나와 더 큰 장소로 이동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외국어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소리의 근원을 찾았을 때,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먼 지역의 모국어로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람어를 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것은 그들이 살던 외딴 곳에서 흔히 쓰이던 언어였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위층 방에서 소리가 들렸고,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자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날 약 3,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41절), 군중(6절)은 수천 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3,000명만 참석했고, 그들 모두가 신자가 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전 구역에는 최대 20만 명까지 모였을 수 있습니다.[1] 이 사실 때문에 일부 해석자들은 이 군중이 그곳에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2:7–11 당시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이었고, 열두 제자 모두는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골 출신의 외모와 억양으로 식별될 수 있었습니다(참조, 마 26:73).

> “갈릴리 사람들은 후음을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말할 때 음절을 삼키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방 사람으로 무시당했습니다(참조, 막 14:70). 따라서 말하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1] J. P. Polhill, *The Acts of the Apostles*, p. 118, footnote 135; Joachim Jeremias, *Jerusalem in the Time of Jesus*, p. 83.

> 때문에, 또 제자들이 혼자서 그렇게 많은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1]

"파르티아", "메대", "엘람", "메소포타미아"는 팔레스타인의 동쪽과 북쪽에 살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본문에는 "유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본문이 진본이라면 아마도 시리아를 포함한 로마의 유대 지방을 가리킬 것입니다. "본도", "아시아", "브루기아", "밤빌리아"는 모두 북서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지방이었습니다. "이집트", "리비아", "구레네"는 남쪽과 서쪽에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옮겼습니다(눅 23:26). 물론 "로마"는 현재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북서쪽에 더 멀리 위치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유대인이 여러 나라에 살았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2]

누가는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를 특별히 언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이주민들 중 일부는 로마로 돌아와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4세기 라틴 교회의 교부였던 암브로시아스터는 로마 교회가 특별한 기적이나 사도와의 접촉 없이 설립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3] 요세푸스는 큰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방문객들로 인해 인구가 거의 3,000,000명으로 늘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4]

> "로마 제국의 인구는 약 5천만에서 8천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자유 로마 시민은 약 7백만 명에 달했다(Schnabel 2004: 558–59). 유대에는 약 250만 명이 거주했고, 제국 전체 인구의 10%인 약 500만 명의 유대인

---

[1] Longenecker, p. 272.
[2] Joseph P. Free, *Archaeology and Bible History*, pp. 305–6 참조.
[3] Ibid., p. 273.
[4] Josephus, *The Wars …*, 6:9:3.

이 있었다."[1]

"개종자"는 유대교를 받아들인 이방인으로, 세 가지 의식에 복종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은 개종자에 대해 언급하는 유일한 신약성서입니다. 이 의식은 할례(남자의 경우), 증인 앞에서 자기 침례,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2] "크레타인"은 크레타 섬에 살았고 "아랍인"은 홍해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팔레스타인 동쪽에 살던 아라비아인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민족은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즉, 복음)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벨에서 일어난 일(창 11장)의 반전이며, 하나님의 방해받지 않는 역사가 만들어내는 인류의 단합을 보여줍니다.

> "모든 유대인이 베드로의 연설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나레이터는 모든 땅의 유대인들의 대표들을 베드로의 청중으로 묘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위한 복음, 즉 메시아 아래 하나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3]

> "[누가의 인물과 장소 목록의] 요점은 알려진 세계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던 나라들을 언급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당연히 유대가 포함됩니다.[4] 누가의 배열은 먼저 주요 거주 국가 또는 지역을 나열한 다음, 섬에서 온 사람들(크레타인들), 마지막으로 사막 지역(아랍인)에서 온 사람들을 나열하는 방식입니다."[5]

2:12-13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일부 관찰자들은 신자들이 성령이 아니라 "달콤한 포도주로**

---

[1] Bock, *Acts*, p. 43.
[2] F. F. Bruce, *Commentary on …*, p. 64.
[3] Tannehill, 2:27.
[4] D. J. Williams, *Acts*, pp. 28-29 참조.
[5] Witherington, p. 136.

충만하여"(참조, 엡 5:18; 고전 14:23) 그 포도주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를 뜻하는 헬라어(글류쿠스[*gleukous*])는 일반 포도주보다 알코올 함량이 높은 "달콤한 포도주"를 의미합니다.[1]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2:14-41

"기적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필연적으로 일률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이 온전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마음의 준비와 메시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이 모든 것이 준비된 백성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선포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위해 독자를 준비시킵니다."2

바클레이(Barclay)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실천했던 네 가지 설교 유형을 지적했습니다.[2] 저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루그마(*kerugma*)로, 기독교 메시지의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didache*) 또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사실에 대한 설명과 해석, 즉 "그래서 요점이 무엇입니까?"를 의미합니다. 셋째, 파라클레시스(*paraklesis*), 즉 메시지를 적용하라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넷째, 기독교 메시지의 관점에서 어떤 주제나 삶의 영역을 다루는 강론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계시든 오래된 계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적대적인 적들에 맞서 기독교 메시지를 변호하는 아폴로기아(*apologia*)가 있었습니다. 종종 연설자는 다음 설교에서 베드로가 한 것처럼 이러한 두 가지 이상의 연설을 하나의 메시지로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호(14-21절), 선포(22-36절), 권면(37-41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연설은 방어와 공격의 수사학인 변론 수사학의 훌륭한 예입니다.[3]

베드로의 변호 2:14-21

2:14 베드로는 다시 사도들("다른 열한 사도"; 참조, 1:15)을 대표하여 모인 군

[1] Blaiklock, p. 58.
[2] Barclay, pp. 16-17.
[3] Witherington, p. 138.

중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성전 바깥 뜰(이방인의 뜰)에서 이 연설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방언보다는 아람어 또는 코이네(일반적인) 그리스어와 같은 모국어로 연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청중을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토착 유대인("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모두"라는 두 가지 유형의 유대인으로 구분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그룹인 디아스포라 대표단은 방언 현상에 대해 가장 호기심이 많았던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2:15 베드로는 술 취했다고 하는 고발에 대해 반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직 오전 9시에 불과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설명이 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해질녘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약 12시간의 어둠이 있었고 그 후 12시간의 낮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낮의 제 삼시"는 오전 9시 정도였을 것입니다.

> "불행히도 이 주장[즉, 사람들이 술에 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주장]은 오늘날보다 고대에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1]

> "꼼꼼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고기와 함께 마셨고, 출애굽기 8장에 근거하여 아침에는 빵을 먹고 저녁에만 고기를 먹었습니다. 따라서 포도주는 저녁에만 마실 수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발언의 요점입니다."[2]

2:16 베드로는 오순절 날 성령의 부으심이 요엘의 예언(욜 2:28-32)을 성취했다고 주장한 것일까요? 보수적인 주석가들은 이 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요엘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의 예언자들도 하나님께서 장차 개별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상의 문제입니다(사 32:15; 44:3; 겔 36:27; 37:14; 39:29; 슥 12:10). 또한 침례 요한도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했습니

[1] Longenecker, p. 275.
[2] Blaiklock, p. 58

다(마 3:11; 막 1:8; 눅 3:16; 요 1:33).

일부 주석가들은 베드로가 요엘이 예언한 모든 일이 그날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 "백성들이 방금 목격한 요엘의 예언의 성취는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였습니다..."[1]

> "그때 일어나고 있었던 일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이 마지막 날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의 청중이 지금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행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2]

> "베드로에게 성령의 부으심은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 또는 '마지막 때'(요일 2:18)로 알려진 기간을 시작했으며, 따라서 이 표현에는 그리스도인 시대 전체가 포함된다."[3]

일부 필자들은 "이것이 곧"(투토 에스틴 토[*touto estin to*])라는 문구가 페셔(pesher)라는 특정 유형의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그[베드로]가 요엘서 구절을 사용한 것은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이후 우리가 '페셔'(히브리어 페세르[*peser*], '해석'에서 유래)라고 부르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 관점은 '해석'하는 성경 예언의 세부 사항을 주석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성취에만 중점을 둡니다."[4]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 요엘의 예언을 부분적으로만 성취하셨다는

---

[1] Foakes-Jackson, p. 15.

[2] Marshall, *The Acts …*, p. 73. 또한 Henry, p. 1642 참조. 사도행전 2장의 요엘 2장의 성취로 여성 성직자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견해에 대한 반박은, Bruce A. Baker, "The New Covenant and Egalitarianism," *Journal of Dispensational Theology* 12:37 (December 2008):27-51 참조.

[3] Kent, p. 32. 또한, Longenecker, pp. 275-76; John R. W. Stott, *The Message of Acts*,p. 73; Barrett, 1:135-39; 및 Robertson, 3:26-28 참조.

[4] Longenecker, p. 275.

것입니다.[1] 예를 들어, 이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17절과 18절을 성취하셨지만 앞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2] 저는 다음과 같은 설명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이것은 저것과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엘이 묘사한 것을 오순절에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9-20절에 인용된 요엘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나머지는 성취될 것이라는 뜻입니다."[3]

"분명히 백 이십 명의 유대인에게 성령이 부어 진 것은 그 자체로는 '모든 육신에' 부어지는 예언을 성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취의 시작이었습니다."[4]

세 번째 견해는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요엘이 예언한 대로 그날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비교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언이 성취되었다거나 심지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요엘을 통해 성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당시 그들이 보고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는 21절에 기록

---

[1] E.g., Jamieson, et al., p. 786.

[2] Ironside, pp. 46-48; John F. Walvoord, *The Holy Spirit*, p. 229; Zane C. Hodges, "A Dispensational Understanding of Acts 2," in *Issues in Dispensationalism*, pp. 168-71; Steven Ger, *The Book of Acts*, p. 45. See also Homer Heater Jr., "Evidence from Joel and Amos," in *A Case for Premillennialism: A New Consensus*, pp. 157-64; Walter C. Kaiser Jr., *Back Toward the Future: Hints for Interpreting Biblical Prophecy*, p. 43; and Daniel J. Treier, "The Fulfillment of Joel 2:28-32: A Multiple-Lens Approach,"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0:1 (March 1997):13-26.

[3] Toussaint, "Acts," p. 358. Cf. Pentecost, p. 271.

[4] F. F. Bruce, *Commentary on …*, p. 68. See also Bock, *Dispensationalism, …*, pp. 47-48; Ladd, "The Acts …," pp. 1127-28; Kenneth L. Barker, "The Scope and Center of Old and New Testament Theology and Hope," in *Dispensationalism, Israel and the Church*, pp. 325- 27; Robert L. Saucy, *The Case for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pp. 74, 178-80; and D. A. Carson, Exegetical Fallacies, p. 61.

된 구원의 초대를 포함시키기 위해 요엘서를 계속 길게 인용했습니다."[1]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오순절 사건에서 성취되었다는 의미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 사건에 대한 예언적 예화로서 인용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베드로의 인용문은 왕국 설립 이전에 있을, 여전히 미래의 주의 날에 일어난 사건을 포함함으로써 오순절에 성취 될 수있는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넘어서는 것이 분명합니다 (행 2:19-20). ... 이 언급에는 교회 시대 동안의 지속적인 성취나 교회 시대 말기에 다가올 성취에 대한 힌트가 조금도 없습니다."[2]

"사실상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요엘서 2장에서 예언된 것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방언)은 요엘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이 언급한 것(꿈, 환상,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엘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 사도행전 2장은 열두 사도, 기껏해야 다락방에 있던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엘의 '모든 육체'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사한 점이 있었는데,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요엘서 2장을 바꾸거나 재해석한 것도 아니고, 요엘서 2장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성취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유사성 때문에 신약의 사건에 적용하는 것일 뿐입니다."[3]

---

[1] Ryrie, *The Acts …*, pp. 20–21. 또한, McGee, 4:519; Paul L. Tan, *The Interpretation of Prophecy*, pp. 183–85; Warren W. Wiersbe, "Joel," in *The Bible Exposition Commentary/Prophets*, p. 333 참조.

[2] Merrill F. Unger, "The Significance of Pentecost," *Bibliotheca Sacra* 122:486 (April–June 1965):176–77. 또한, J. N. Darby, *Meditati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1:17; idem, *Synopsis of the Books of the Bible*, 4:13; Gaebelein, 3:1:259–60; Fruchtenbaum, *The Book …*, p. 65; Gromacki, *The Modern …,* pp. 102–3 참조.

[3] Arnold G. Fruchtenbaum, Israelology: The Missing Link in Systematic Theology, pp. 844–45. 또한, Arno C. Gaebelein, The Acts of the Apostles: An Exposition, p. 53; Thomas D. Ice, "Dispensational Hermeneutics," in *Issues in Dispensationalism*, p. 41; Renald E. Showers, *Maranatha: Our Lord, Come! A Definitive Study of the Rapture of the Church*, pp. 36–38; Merrill F. Unger, *Zechariah*, p. 215; and Wiersbe,

>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2:30-32(비교, 행 2:19-20)의 세부 사항은 당시에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자신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시하고, 하나님께서 요엘이 예언한 모든 것을 아직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보증으로 인용했습니다. 그 성취의 시기는 여기 ('그 후에', 비교, 호 3:5), 즉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들입니다."[1]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하신 것이 오순절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취되었다"를 생략한 것은 청중들이 요엘이 예언한 것이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요엘이 예언한 것과 유사한 일이었습니다.

2:17-21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칠십인역 성경에서 인용하면서 상당한 변화를 주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그가 완전한 성취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첫째, 그는 "이 후에"(욜 2:28)를 "마지막 날들에"(행 2:17)로 변경했습니다. 요엘의 예언의 맥락에서 볼 때, 고려되는 시간은 주의 날, 즉 환난기(요엘 2:30-31)와 천년기(요엘 2:28-29)입니다. 베드로는 이 시기를 마지막 날들로 해석했습니다.

많은 현대 해석가들은 베드로가 "마지막 날들"(17절)이라고 했을 때 그가 살았던 시대를 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환난기나 천년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마지막 날들을 미래의 일로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은 신약의 일부 필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묘사할 때 사용했던 문구입니다만(딤후 3:1; 히 1:2; 약 5:3; 벧전 1:5, 20; 벧후 3:3; 요일 2:18; 유 18), 요엘이 쓴 내용을 고려할 때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마지막 날들"은 다가올 시대 직전, 즉 메시아의 지상 통치 시대 직전의 날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1:409 참조.

[1] *The New Scofield Reference Bible*, p. 930.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요엘이 "이 후에"(요엘 2:28)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과 오순절에 일어난 일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을 인용한 이유도 바로 그 유사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통해 우리는 이 예언이 당시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하실 것처럼 "모든 인류"(17절)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일부 유대인들에게만 그분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요엘은 환난기의 구원을 언급했지만(요엘 2:32), 베드로는 이 말씀을 청중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해석자들은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에 처음 또는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합니다(위의 두 번째 관점). 이러한 견해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요엘이 말한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새 언약이 시작되었고(참조, 눅 22:20), 성령의 내주는 메시아 왕국과 새 언약의 표징이라고 믿습니다.[1] 그러나 그것이 요엘이 말한 주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날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대주의 학자들이 이 성취 문제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생(Toussaint)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오순절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보는 반면, 라이리(Ryrie)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그때는 성취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을 요엘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예언한 것(요 14:16-17, 26; 15:26; 16:7)의 부분적인 성취로 보는 것이 더 일관성 있어 보입니다.

성취 없음 입장을 취하는 일부 학자들은 미래 사건인 '성령과의 침례'(baptism *with* the Spirit)를 오순절 사건인 '성령에 의한 침

[1] Saucy, *The Case …*, p. 134 참조.

례'(baptism *by* the Spirit)와 구별합니다.[1] 이 구별에 대한 적절한 주석적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2]

> "실현된 종말론자들(realized eschatologists)과 무천년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그러한 물리적 이미지[즉, "피와 불과 연기 증기", "해가 어둠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를 포함시킨 것을 영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오순절에 일어난 일에서 요엘의 예언의 영적 성취, 즉 반드시 자연 현상과 관련이 없는 성취를 발견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유사한 자연 현상과 묵시적 이미지에 대한 묘사를 이해하는 데 해석학적 열쇠를 제공한다고 이들은 제안합니다."[3]

베드로는 요엘서 본문에는 없는 "그들이 예언하리라"(18절, 참조, 17절)를 반복함으로써 요엘이 예언한 것과 청중이 목격한 것 사이의 가장 중요한 유사점으로 예언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엘서 구절과 관련하여 일부 해석자들이 지지하는 또 다른 해석의 변형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요엘의 예언이 곧 성취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믿습니다.[4]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눅 19:11-27). 그는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유대인]에게서 빼앗겨 그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마 21:43).

다니엘은 유대인들에게 7년 동안 끔찍한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단 9:24-

---

[1] E.g., Merrill F. Unger, *The Baptizing Work of the Holy Spirit*.
[2] Saucy, *The Case …*, p. 181 참조.
[3] Longenecker, p. 276.
[4] E.g., Robert B. Chisholm Jr., "Joel," i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Old Testament*, p. 1421.

27; 참조, 마 24-25장).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는 적어도 7년간의 환난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견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옳다면 베드로는 이것을 몰랐거나 잊었거나 환난기를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실 심판으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구약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아들이신 것에 대해 계시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10장 참조).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회개하면 예수께서 즉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다시 주신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에는 그러한 취지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왕국이 다시 제의되었다는 관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노트의 뒷부분에서 이어집니다.

>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경전을 제쳐두거나 자신을 경전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학자들은 결코 성경을 넘어서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1]

베드로의 선포 2:22-36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세 가지 증거를 인용했습니다: 그분의 기적(22절), 부활(23-32절), 승천(33-35절)이 그것입니다. 36절은 요약된 결론입니다.

2:22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적"은 일반적인 단어로, 베드로는 "이적"(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적)과 "표적"(무언가를 가리키는 기적)으로 더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증명했고(참조, 요 3:2), 그 기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마 12:23).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보다 사탄에게서 권능을 받았다고 믿기로 했습니다(마 12:24).

2:23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1] Henry, p. 1641.

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참조, 3:18; 4:28; 13:29). 최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중 일부는 베드로의 연설을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죄를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참조, 36절; 3:15; 4:10; 5:30; 7:52; 10:39; 13:28)과 이방인 로마인(참조, 4:27; 눅 23:24-25)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모두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요 3:16)과 유다의 죽음(행 1:16)을 의도하셨지만, 그 사실이 유다의 책임과 죄책감을 면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눅 22:22). 그는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서 행동했습니다."[1]

예수님의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였지만, 이차적인 원인은 "불경건한"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의 적대감이었다. 실제로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24 "그러나 하나님", 더 높으신 재판관인 그분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인간 재판관들의 판결을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문자적으로, 죽음의 산고, Gr. 오디나스 토우 타나토우[*odinas tou thanatou*]), 즉 그 끔찍한 손아귀에서 풀어 주셨습니다(참조, 삼하 22:6; 시 18:4-6; 116:3). 하늘의 상급 법원이 지상의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죄의 삯을 얻지 않으셨지만(롬 6:23),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발적으로 짊어지셨습니다.

2:25 베드로는 유대인 성경에서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시편 16:8-11에 호소했습니다.[2] 시편 16편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언일 것입니다. 앞서(1:20) 베

---

[1] Robertson, 3:29.

[2] 7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Gregory V. Trull, "Views on Peter's Use of Psalm 16:8 in Acts 2:25–32," *Bibliotheca Sacra* 161:642 (April–June 2004):194–214 및 idem, "Peter's Interpretation of Psalm 16:8–11 in Acts 2:25–32," *Bibliotheca Sacra* 161:644 (October– December 2004):432–48 참조.

드로는 메시아(예수님)의 체험이 다윗의 말을 성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 즉 친밀한 교제와 강력한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다윗이 기록한 내용의 연장선으로 보았습니다.

2:26 다윗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다윗에게 행복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도 베드로를 행복하고 희망차게 만들었습니다.

2:27 다윗은 자신이 "음부"(하데스, 떠난 영들이 있는 곳, 구약의 스올)에 가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몸도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궁극적인 굴욕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경건한 자("당신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2:28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기뻐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새 생명으로 들어가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좌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부활과 즉위를 예언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왕좌에 즉위하는 것은 아직 미래의 사건이지만, 아버지 우편에서 즉위하는 것은 이미 성취된 사

실입니다."[1]

2:29-31 베드로는 다윗이 실제로 "죽어 장사"되었기 때문에 방금 인용한 다윗의 말씀이 다윗만을 가리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연설을 할 때 "그의 무덤"이 아직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다윗이 무덤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31절). 고대 전통에 따르면 다윗 왕의 무덤은 다윗의 옛 도시 남쪽 실로암 못 근처에 있습니다. 다윗의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인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의 후손 중 한 사람을 왕위에 앉히겠다"고 맹세하신 말씀은 시편 132:11에 있습니다(참조, 삼하 7:16).[2]

베드로는 일부 해석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왕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30절).[3]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다윗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다윗이 예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시지만, 아직 지상 왕좌인 다윗의 왕좌에는 앉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로 통치하기 위해 지상에 다시 오실 때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은 언젠가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

[1] Pentecost, pp. 273.

[2] Robert F. O'Toole, "Acts 2:30 and the Davidic Covenant of Pentecos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2:2 (1983):245-58; Michael Rydelnik, *The Messianic Hope*, pp. 87- 88 참조.

[3] E.g., Bock, *Dispensationalism, …*, pp. 49-50; Craig A. Blaising,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pp. 175-87; and Saucy, *The Case …*, p. 59-80. 이 점진적 세대주의적 견해에 대한 반박은, John F. Walvoord, "Biblical Kingdoms Compared and Contrasted," in *Issues in Dispensationalism*, especially pp. 89-90; David A. Dean, "A Study of the Enthronement of Christ in Acts 2 and 3" (Th.M. thesis, Dallas Theological Seminary, 1992); McLean, pp. 223-24; Ryrie, *Dispensationalism*, pp. 168-69; Hodges, "A Dispensational …," pp. 174-78; Stanley D. Toussaint, "The Contingency of the Coming of the Kingdom," in *Integrity of Heart, Skillfulness of Hands*, pp. 231-32; Valdés, 1:491 참조. 다윗 언약 구절의 규범적 세대주의적 해석에 대해서는, Charles C. Ryrie, *The Basis of the Premillennial Faith*, pp. 81-82; 및 John F. Walvoord, *Jesus Christ Our Lord*, pp. 224-26 참조.

2:32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메시아, 31절)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시켰습니다("하나님이 살리신"; 참조,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이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참조, 3:15, 26; 4:10; 5:30; 10:40; 13:30, 33-34, 37; 17:31; 26:23).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 계속 나아갔습니다(1:8).

2:33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신"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요 14:16-17, 26; 15:26-27). 그 증거는 청중들이 보고 들은 불의 혀와 방언의 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최고의 능력과 권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며, 이에 대한 언급은 다음 구절에서 시편 110:1의 인용을 설정합니다.

베드로는 이 구절에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 "사도행전 전체에서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되는 표식, 즉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요소로 간주됩니다."[1]

2:34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두 번째 증거를 덧붙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했음을 증명했습니다(27절). 이제 그는 다윗이 메시아의 승천도 예언했다고 말했습니다(시 110:1).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신에게 적용하셨던 구약의 구절이었습니다(마 22:43-44; 막 12:35-37; 눅 20:41-42).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사용함으로써 제자들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주"(야훼, 아버지 하나님)가 다윗의 "주"(아도나이, 주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나 원래 솔로몬을 가리킬 수도 있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분명히 의미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1] Witherington, p. 140.

왕으로 즉위했을 때 이 시편을 작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분명 즉위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야훼께서 자신의 대리자인 메시아(또는 솔로몬)에게 자신의 관리자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2:35 야훼께서는 자신의 부 섭정자의 원수들을 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포함하셨습니다("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베드로는 이 구절을 다윗의 가장 위대한 아들,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야훼께서 다윗의 주님, 즉 메시아께 말씀하셨습니다. '내 곁에 앉아 나를 위해 통치하면 내가 네 적들을 정복하겠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자신의 "주"를 언급한 것을 다윗의 궁극적인 후손인 메시아에게까지 확장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시편 110:1의 성취로 예수님이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베드로의 진술은 세대주의와 비세대주의 해석자들 사이에 의견 충돌의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상의 통치에 대한 다윗의 메시아 왕국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재림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재 활동 기간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좌와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치를 구별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행 2:30).[1] 반면 비세대주의자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신약 성경이 다윗의 메시아 예언을 재해석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메시아의 왕좌가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옮겨졌고, 예수님은 '다윗의 왕으로서 메시아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2]

---

[1] E.g., McClain, p. 401.

[2] Saucy, *The Case …*, pp. 69–70. 단락 구분 생략. 그의 인용은, Ladd, *A Theology …*, p. 336에서 온 것이다. Cf. Oswald T. Allis, *Prophecy and the Church*, p. 136. "the right hand of God," pp. 72–74에 있는 Saucy의 논의는 유용하다.

"이것은 예수님이 현재 다윗의 왕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적들이 정복될 때까지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는 뜻입니다(행 2:33-35)."[1]

"... 시편 110편과 132편의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의 지상 왕좌는 주님의 하늘 왕좌와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편 110편은 주님의 왕좌(1절)와 멜기세덱 계열 제사장직(4절)을 언급하지만, 시편 132편은 다윗의 왕좌(11절)와 (아론 계열) 제사장들(9, 16절)을 언급한다."[2]

"메시아는 다윗의 기름 부음받은 자손이자 다윗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아직 다윗의 왕좌를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통치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몇 년 후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기 전에(시 110:2)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1절). 그분의 현재 위치는 명예와 권능의 자리이지만, 그 권능의 행사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기로 선택하신 것으로 제한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축복을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서 메시아 통치를 시작하기 위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분은 적들을 정복하실 것입니다(시 110:2, 5-7). 그때까지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1절), 신자의 위대한 대제사장(히 2:17; 4:14-15; 5:10; 6:20; 7:26; 8:1; 9:11; 10:21) 멜기세덱 왕-제사장(4절)의 정해진 역할을 행사하고 계십니다."1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즉위하신 것은 다윗의 왕좌가 아니라 성육신 당시 포기하셨던 아버지 우편의 자리(히 1:3; 행 7:56)로 회복하신 것입니다(빌 2:6-8).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전에

---

[1] Cleon L. Rogers Jr., "The Davidic Covenant in Acts-Revelation," *Bibliotheca Sacra* 151:601 (January-March 1994):74.

[2] Elliott E. Johnson, "Hermeneutical Principles and the Interpretation of Psalm 110,"*Bibliotheca Sacra* 149:596 (October-December 1992):434.

다윗의 왕좌를 차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차지하지 않으셨던 왕좌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을 아버지 우편에 있는 그분의 자리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메시지에서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승천할 수 없기 때문에 승천을 증언함으로써 부활의 사실을 확증합니다."[1]

규범적 세대주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 전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점진적 세대주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는 이제 하늘에서 시작되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는 이제 하늘에서 시작되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천년주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는 이제 하늘에서 왔고 앞으로도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2:36 베드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방금 제시한 증거를 고려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나사렛 예수(참조, 22절)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자("주")이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증명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문맥상 베드로가 "주"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아버지의 공동 섭정자로 지칭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21절에서 언급했던 것과 동일한 "주"를 언급했습니다.

"이 '주'라는 칭호는 메시아보다 더 중요한 칭호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권위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1] Pentecost, pp. 272. Cf. Hodges, "A Dispensational …," pp. 172–78; John A Witmer, *Immanuel*, pp. 119–26.

그분의 능력과 권리를 묘사했기 때문입니다."[1]

규범적 세대주의자들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님은 다윗 계보의 메시아라고만 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분은 현재 하늘로 돌아가 아버지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장차 그분은 지상에 다시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규범적 세대주의자들은 다윗 왕국을 전적으로 지상의 왕국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 통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왕좌에 앉아 하나님으로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그분께서 앉아 계신 왕좌는 다윗 왕의 미래 지상 통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다윗의 왕좌가 아닙니다(참조, 계 3:21).

점진적 세대주의자들과 언약신학자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통치가 지상 사역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2] 그들은 교회를 메시아 왕국이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현재의 단계로 봅니다(따라서 "점진적 세대주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3]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다윗의 왕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약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4]

저는 그리스도께서 처음 강림하실 때 메시아로서 통치하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통치에는 두 단계가 있다는 점, 즉 하늘에서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현재 통치와, 땅에서 모든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미래 통치가 있다는 점에는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 왕좌에 대한 언급이 지상의 왕좌에 대한 언급이라는 규범적 세대주의자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

[1] Bock, "A Theology …," p. 104. 누가복음 기독론에 대한 Witherington의 해설은, pp. 147–53 참조.
[2] Blaising,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p. 248.
[3] Ibid., p. 49.
[4]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을 비교하려면, Renald E. Showers, *There Really Is a Difference* 참조.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청중들의 책임을 다시 언급했습니다(참조, 23절).[1]

"베드로는 십자가를 죄 없는 대속자가 세상을 위해 죽으신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신의 메시아를 죽인 곳으로 제시했습니다!"[2]

"그러므로 14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본질적으로 전 세계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보아야 합니다."[3]

"연설 본문의 시작과 끝은 공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너희가 알라'로 시작하여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집이 확실히 알고...'로 마무리하여 포괄성을 형성합니다(2:14, 36). 문맥상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에 대한 최초의 공개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새롭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2-36은 36절의 결론인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으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시다 .. '로 이어지는 간결하고 치밀하게 구성된 논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권위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청중들의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드러냅니다. 오순절 연설은 비극의 방식으로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여 맹목적으로 행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인식 장면의 일부입니다."[4]

"오순절 연설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거부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메시아, 성령을 주시는 분, 회개와 용서의 원천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놀랍게 뒤집으신 것을 청중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5]

---

[1] Darrell L. Bock, "Jesus as Lord in Acts and in the Gospel Message," *Bibliotheca Sacra* 143:570 (April-June 1986):147-48 참조.
[2] Wiersbe, 1:410.
[3] Witherington, pp. 140-41.
[4] Tannehill, 2:35.
[5] Ibid., 2:37.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영을 그분께 부어 주셨던 것과 같은 이유로, 오순절(그리고 그 이후에도) 신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참조, 1:8). 누가는 두 번의 성령 부으심을 모두 기록했습니다(눅 3:21-22; 행 2:2-4; 참조, 행 4:27; 10:28). 이 사실은 누가가 독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1:1-2).

> "누가가 신약의 성령론에 특별히 강조하고 기여한 것은, 성령이 각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합하거나 그와 더 큰 새 언약의 친밀감을 제공하기 위해 교회에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16-30에 정의된 대로 교회를 전 세계적인 예언적 사역의 임무에 봉헌하기 위해 부어졌다는 점이다."[1]

베드로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고 세 번이나 언급했습니다(25, 33, 34절; 30절도 참조).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과 특별히 관련이 있습니다(참조, 14, 22, 29절).

>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의 메시아 되심은 유대 사회 내에서 교회가 증거하는 독특한 특징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소망의 성취와 하나님의 구속 목적의 절정을 의미했습니다. '주'라는 칭호는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예수께 적용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유대계에서 기독론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 그러나 '주'는 '메시아'가 유대 세계에 더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방인에 대한 교회의 증거와 특별한 관련성을 갖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팔레스타인과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청중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한 반면,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고유명사로 사용하며 그리스도 예수 '주'로 선포합니다."[2]

---

[1] Russell, p. 63.

[2] Longenecker, p. 281. 단락 구분 생략.

베드로의 권고 2:37-41

2:37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요 16:8-11)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가 말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의 죄책감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 두 가지 반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전체 의미를 주목하십시오. 이들은 메시아가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그분이 오셨다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지만,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통치해야 할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질문은 단순히 개인적인 딜레마가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이 끔찍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8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에는 먼저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차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 "성경에 따르면 회개는 전적으로 내면의 행위이며, 회개에서 비롯되는 삶의 변화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1]

"회개"(메타노이아[*metanoia*])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 그대로 관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메타 및 노에오는 재고한다는 의미). 유대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고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이전에 청중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마 3:2; 4:17; 등), 사도들은 누

[1]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p. 487.

가가 사도행전에서 보고했듯이 이 강조를 계속했습니다(행 3:19; 5:31; 8:22; 10:43; 11:18; 13:24; 17:30; 19:4; 20:21; 26:18, 20).

> "영생을 가져다주는 회개, 그리고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설교한 회개의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날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전에는 그분을 단순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그분을 주님(신)이자 그리스도(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1]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어 단어를 행동의 변화(죄악된 관행에서 돌이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또한 개념적 변화(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킴)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혼란이 생겼습니다.

> "그리스어 동사[메타노에오, "회개하다"로 번역됨]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지만, 누가의 용법에서는 문자 그대로 '돌이키다, 돌아서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회개에 매우 가깝게 쓰입니다(슈브). ... 이 용어는 전체 사람의 관점을 포함하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했습니다([눅] 3:8). 이 구절은 회개와 열매를 구분하고 회개와 열매 사이의 연관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로 이어집니다."[2]

> "요약하자면, 누가는 회개를 삶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는 관점의 변화로 보았습니다."[3]

---

[1] Charles C. Ryrie, *Balancing the Christian Life*, p. 176.
[2] Bock, "A Theology ⋯," pp. 129–30.
[3] Ibid., p. 132.

회개를 단순히 죄의 관행에서 돌이키는 것(자신을 개혁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회개는 사람이 하는 선한 일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회개는 두 가지 이유로 구원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째, 헬라어 메타노이아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약성경의 복음 전파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성경에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한 선행이 구원을 얻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예: 엡 2:8-9).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1]

정의상 회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과 별개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과정의 일부입니다.[2]

> "... 회개와 믿음은 모두 구원을 위해 필요하지만 별개의 조건은 아닙니다. 용어의 끊임없는 상호 교환성에서 확인되듯이 회개와 믿음은 항상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3]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은 "거듭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 둘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 셋째,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그에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또한 내가 실제로

---

[1] 회개의 참된 정의와 거짓 정의에 대한 Joseph C. Dillow의 훌륭한 논의는, *The Reign of the Servant Kings*, pp. 30-36 참조. 또한, Earl D. Radmacher, *Salvation*, pp. 129-35, 237-47; 및 Kent, pp. 33-34도 참조.

[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3:3:5, 9; Lewis S. Chafer; Systematic Theology, 3:372-78 참조.

[3] C. Gordon Olson, *Beyond Calvinism and Arminianism*, p. 108.

> 내 죄로부터 등을 돌리고, 즉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회개는 죄를 버리고 내 삶을 내 삶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넘겨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 넷째, 믿음과 신뢰로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1]

일부 학자들은 회개가 구원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회개는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교제를 위한 조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2] 그러나 이것은 소수의 견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세주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또 우리를 위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충분함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에 대해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은 그렇게 동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안에 확신을 두는 것(신뢰하는 것)입니다.

>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제안에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불행히도 특정 유형의 마음에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친히 개인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행위로 인간의 얽힌 매듭을 끊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훨씬 더 깊은 문제입니다."[3]

> "...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교리적 진술을 인정하는 단순한 지적인 과정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한 회개를 낳는 죄에 대한 신성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믿음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4]

---

[1] Billy Graham, *The Holy Spirit*, pp. 62-63. 단락 구분 생략.
[2] E.g., Zane C. Hodges, *Absolutely Free*, pp. 145-6.
[3] J. B. Philips, *Your God Is Too Small*, p. 101.
[4] Harry A. Ironside, *Except Ye Repent*, pp. 9-10.

베드로는 개인적 회개를 촉구했습니다("너희 각 사람", 헬라어 2인칭 복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집단적으로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개인의 책임으로 그들을 맞닥뜨렸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침례"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성령 침례와 물 침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여기서 어떤 유형의 침례를 요구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38절에서 침례는 아마도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물침례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는 의미에서 성령 침례를 언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특권이었던 성령 침례는 엄밀히 말하면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세우셨을 때 단번에 일어난 일이며, 물 침례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개인이, 성령 침례를 받은 새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에 공적으로 편입되는 외적인 표징이었다."[1]

이 구절은 물 침례가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증거 본문입니다.[2]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을 "복음주의 신학"과 대비되는 "성례전 신학"이라고 부른다. 이 견해는 죄의 용서와 일반적으로 구원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만 의존하는 구절들(예: 행 16:31; 10:43; 13:38-39; 26:18; 눅 24:47; 요 3:16, 36; 롬 4:1-17; 11:6; 갈 3:8-9; 엡 2:8-9)에서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3] 베드로는 나중에 믿음만으로 죄의 용서를 약속했습니다(5:31; 10:43).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다루는

---

[1] F. F. Bruce, *Commentary on …*, pp. 76–77.

[2] Aubrey M. Malphurs, "A Theological Critique of the Churches of Christ Doctrine of Soteriology" (Th.D. dissertation, Dallas Theological Seminary, 1981) 참조.

[3] Charles C. Ryrie, *So Great Salvation*; Hodges, *Absolutely Free!* and Robert N. Wilkin, "Repentance and Salvation," *Journal of the Grace Evangelical Society* 1:1 (Autumn 1988):11–20, 및 2:1 (Spring 1989):13–26; idem, *Confident in Christ*, pp. 199–210 참조.

100개 이상의 구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일한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인의 [물] 침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과 헌신의 표현입니다."[1]

저는 루터교 주석가인 렌즈키(Lenski)의 의견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세례[물 세례]는 상징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과 예수께서 행하셨고 모든 민족을 위해 제정된 이 세례는 죄 사함을 주었으므로 참된 성례였다."[2]

"실제로 어거스틴은 세례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인 원죄를 씻어내는 규정된 방법이라는 근거로 유아 세례를 옹호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세례와 주의 만찬이 모두 구원에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3]

정교회는 또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가 용서된다고 가르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원죄든 실제 죄든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어'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4]

저는 성경이 물 침례가 죄 사함을 준다고 가르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16:31; 등).[5]

이 구절에서 회개, 물 침례, 용서, 성령의 은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 침례를 받으면 죄가 용서된다는 생각을 배제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

---

[1] Marshall, *The Acts …*, p.81.
[2] Lenski, p. 106.
[3]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p. 179.
[4] Timothy Ware, *The Orthodox Church*, p. 284.
[5] Wilkin, *Confident in …*, pp. 187-98 참조.

설명이 가능합니다.[1]

1. 한 가지 허용 가능한 옵션은 "for"(~하기 위해)[2]로 번역된 그리스어 전치사(eis)를 "때문에"(because of) 또는 "기초로"(on the basis of)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for"의 일반적인 의미는 목표나 목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구절(예: 마 3:11; 12:41; 막 1:4)에서는 "때문에"라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이 설명은 용서를 침례와 연결시킵니다. 이 견해를 다음과 같이 의역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으므로 침례를 받으십시오[3].

2. 다른 해석자들은 문장의 두 부분에서 동사와 대명사의 수(단수 및 복수) 사이의 대응을 강조합니다. "회개하라"는 "너희"와 마찬가지로 복수형이며, "침례를 받으라"와 "너희"("너희 각 사람"에서)는 단수형입니다.

   회개 하고 (2인칭 복수)
   침례를 받으라. (3인칭 단수)
   너희 각 사람(3인칭 단수)은
   너희(2인칭 복수) 죄의 용서를 위해.

   이 견해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모두)은 죄 사함이라는 목적을 위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모두)은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괄호 안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단수)는 (믿음의 증거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이

[1] Lanny T. Tanton, "The Gospel and Water Baptism: A Study of Acts 2:38," *Journal of the Grace Evangelical Society* 3:1 (Spring 1990):27-52에서는 이 구절에 대한 여섯 가지 해석을 논의했다.
[2] 한국어 역본들은 대부분 "~하기 위해" 또는 그와 상응하는 뜻으로 번역했다-역자 주.
[3]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는, Ryrie, *The Acts …*, p. 24; W. A. Criswell, *Acts*, p. 96; H. Dana and Julius R. Mantey, *A Manual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pp. 103-4; Kenneth S. Wuest, *Word Studi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3:76-77; Robertson, 3:35-36; 그리고 Wiersbe, 1:410가 있음.

설명은 용서와 회개를 연결합니다.[1] 이것이 가장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 "회개에는 침례의 증거가 필요하고, 용서에는 성령의 선물[즉, 성령 침례]이 뒤따릅니다."[2]

3. 덜 인기있는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이 교회가 초기 단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 침례를 보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로 침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교를 맺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행 2:38, 22:16). 그들의 그리스도인 체험은 중생, 물침례, 죄 용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 침례라는 일련의 사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개종자들은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접한 적이 있지만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한 사람은 이 견해가 사도행전 2:38; 8:12-17; 19:1-7; 22:16에 나오는 성령 침례의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을 초기 그리스도인 특유의 비규범적 경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0:43-48은 중생, 용서, 성령 침례가 동시에 일어나고 물 침례가 뒤 따르는 규범적인 그리스도인 경험을 반영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무렵에는 이 후의 순서가 규범이 되었습니다(롬 8:9; 참조, 고전 12:13).[3]

물 침례는 유대교와 초기 그리스도교 모두에서 흔히 행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적인 정결을 위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개종한 증거로 공개적으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

---

[1] Toussaint, "Acts," p. 359; Ned B. Stonehous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3 (1949–51):1–15; Frank Stagg, *The Book of Acts*, p. 63; Bob L. Ross, *Acts 2:38 and Baptismal Regeneration*, pp. 45–49; Malphurs, pp. 167–69; 및 Luther B. McIntyre Jr., "Baptism and Forgiveness in Acts 2:38," *Bibliotheca Sacra* 153:609 (January–March 1996):53–62 참조.

[2] Blaiklock, p. 60.

[3] Zane C. Hodges, *The Gospel Under Siege*, pp. 101–4. Cf. Rackham, p. 30.

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 "... 침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신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1]

> "침례는 메시지, 집단 또는 그것을 승인하는 데 관여하는 사람과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참조, 고전 10:1-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이들에게 유대교와의 관계를 끊고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의 메시지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침례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를 유대인 공동체에서 확실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표시하는 것은 기독교를 고백하거나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거나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 침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2]

사도가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지시를 어긴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마 28:19).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실 때 모든 민족, 즉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비기독교인을 전도할 때는 물 침례를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 베드로의 청중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도 참 하나님과 동일시할 필요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

---

[1] F. F. Bruce, *Commentary on …*, p. 77. 또한, Longenecker, p. 284 참조.
[2] Ryrie, *The Acts …*, pp. 23-24. 또한, Longenecker, p. 286 참조.

님이 영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와 연결시켰습니다. 성령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즉시 침례를 주셨습니다(참조, 11:15). 그들의 성령 침례는 나중에 두 번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그분의 주되심에 완전히 내어드린다는 의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하는 것이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여기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복종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36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제가 설명했듯이 그곳의 문맥은 "주"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주권 구원" 관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노트에서 이어집니다.

2:39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1:5, 8; 2:33). 베드로가 "너희 자녀"라고 언급한 것은 유대인 아버지가 가정에서 행사한 강력한 영향력을 반영합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녀들도 대개 아버지를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미래 세대의 유대인, 이방인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표명했으며(21절; 참조, 요엘 2:32), 이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고넬료의 구원과 관련된 베드로의 문제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즉, 유대교를 통하지 않고 유대인이 먼저 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베드로의 확고한 믿음(23절 참조)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그러면 그들은 회개합니다(38절; 참조, 요 6:37; 롬 8:28-30).

2:40 "세대"(게네아[*genea*])로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같은 세대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범위가 더 넓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예: 마 17:17; 막 9:19; 13:30; 눅 9:41; 16:8). 이 단어는 "재능, 추구, 성품이 서로 매우 유사한 사람들, 특히 나쁜 의미에서는 비뚤어진 종족"을 의미합니다."[1] 여기서 이 말은 모든 시대의 믿지 않는 유대인, 특히 베드로의 생애에 살았던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넓은 의미의 "세대"는 사실상 "인종"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실제 세대가 자신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마 21:41-44; 22:7; 23:34-24:2). 이러한 예언을 고려할 때,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임박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은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흩어뜨린 주후 70년에 일어났습니다.

> "이 권고는 베드로가 그 세대를,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물리적, 현세적 심판 아래 있는 것으로 보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경고하셨던 것(마 12:31-32)이 그들에게 닥쳐왔고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2]

> "민족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었지만, 개인은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

[1]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s.v. "genea," p. 112.
[2] J. Dwight Pentecost, "The Apostles' Use of Jesus' Predictions of Judgment on Jerusalem in A.D. 70," in *Integrity of Heart, Skillfulness of Hands*, p. 139.

> 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는 것, 즉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민족의 반복되는 죄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침례를 통한 그분과의 동일시 고백은 그들이 민족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고 민족의 모든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리를 통해 그들은 그 세대의 일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대에 대한 심판을 개인적으로받지 않을 것입니다. 침례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에 대한 그들의 믿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민족과의 정체성을 끊어 민족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1]

2:41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38절). 누가는 신자들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이 언급 역시 아마도 물 침례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전체 기간 동안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날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참조, 요 14:12). 누가는 신자들의 가시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1:15에 언급된 120명에 3,000명을 더한 것 같습니다.[2]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출 32:28).

그러나 일부 해석가들은 이 구절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직후에 일어난 일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를 자신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요약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사도행전에서 "그때"(멘[*men*])로 번역된 헬라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또한 "하루"(헤메라[*hemera*])라는 단어는 24시간뿐만 아니라 더 긴 시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회의 첫 번째 기간을

---

[1] Ibid., pp. 139–40.

[2] Kent, p. 34, 각주 14.

가리킬 수 있습니다.[1]

>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을 우리의 백성으로 삼아야합니다."[2]

또 다른 해석가들은 누가의 설명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다음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 “사도행전 초기 장에서 상황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상화(idealized)되어 있습니다."[3]

그리스도의 죽음과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이의 기간은 과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마 27:51)은 옛 모세의 질서가 종식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했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고와 실천을 전환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전환의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전환은 광범위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주로 유대인을 상대하던 것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상대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에서 교회로의 전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원칙도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상 다윗 왕국의 제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모든 인간에 대한 구원의 제안으로 전환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전망에서 약속하신 분이 오셨다는 역사적 사실로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에서 성령이 오셨다는 역사적 사실로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전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오순절 날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위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이러한 진리들은 약 40년에 걸쳐서야 이해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

[1] Rackham, pp. 31–32; Neil, p. 80.
[2] Henry, p. 1644.
[3] Foakes-Jackson, p. 22.

> 사도행전은 신권 왕국 프로그램의 발전에서 경험적 전환뿐만 아니라 지위적 전환을 기록합니다."[1]
>
> "... 사도행전은 이후 그리스도인 교회 생활의 일부가 된 여러 의식과 제도의 초기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사례는 이후의 모든 사례의 유형과 모델로서 연구되어야 합니다."[2]

그리피스 토마스(Griffith Thomas)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 "성령의 첫 강림(2장), 첫 그리스도인 설교(2장), 첫 그리스도인 교회(2장), 기독교에 대한 첫 반대(4장), 첫 박해(4장), 첫 기도회(4장. 4장); 교회의 첫 죄(5장); 첫 교회 문제(6장); 첫 순교자(7장); 첫 교회 확장(8장); 첫 개인적 다루심(8장); 첫 이방인 교회(11장); 첫 교회 공의회(11장); 최초의 선교사(13장); 최초의 선교 방법(13장, 14장); 최초의 교회 논쟁(15장); 유럽의 첫 교회(16장);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게 한 첫 연설(20장)"[3]

이 목록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 "... 사도행전이 목표로 하는 것은 초대 교회의 위대한 영웅적 인물들의 일련의 전형적인 업적과 모험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4]

6. 초대 교회의 모습 2:42-47

누가는 이제 특정 날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것에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생활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설명으로 옮겨갔습니다(참조, 4:32-5:11; 6:1-6). 흥미롭게도 그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내부 생활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내용 선택은 그의 목적이 교회의 외적 확장을 강조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

---

[1] Pentecost, *Thy Kingdom …*, pp. 266–67. 단락 구분 생략.
[2] Thomas, p. 86.
[3] Ibid., pp. 86–87.
[4] Barclay, p. xiii.

은 초대 교회의 삶을 설명하는 세 가지 요약 서술 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참조, 4:32-35; 5:12-16).[1]

2:42 이 새로운 개종자들은 제자들과 함께 주로 두 가지 활동, 즉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에 "지속적으로 헌신"(Gr. 프로스카르테레오 [*proskartereo*], 참조, 1:14)했습니다. 헬라어 문장의 문법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은 교제를 정의하는 다음 두 가지 활동과 구별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유대인 성경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늘에서 사도들에게 주신 계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의미합니다.[2]

> "사도들의 가르침이 꾸준히 지속되었다는 것은 (a) 사도들이 가르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과 (b) 그들이 들은 것을 [큰 주의와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3]

"교제"(Gr. 테 코이노니아[*te koinonia*])는 다른 사람들과 물건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본문에 "교제"와 함께 "the"라는 관사가 있는 것을 보면 이 교제가 독특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내의 교제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교제에는 물질적 재화가 포함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했던 사상, 태도, 목적, 사명 및 활동이 주된 참조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제"를 대표하는 두 가지 독특한 활동이 있습니다. "빵을 떼는 것"은 여기서 아마도 함께 식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참조, 46절; 20:7; 고전 10:16; 11:23-25; 유 12).[4] 다른 곳에서 이 문구는 평범한 식사(눅 24:30, 35; 행 20:11; 27:35)와

---

[1] Chambers, pp. 61–84 참조.

[2] Steven J. Lawson, "The Priority of Biblical Preaching: An Expository Study of Acts 2:42–47," *Bibliotheca Sacra* 158:630 (April–June 2001):198–217 참조.

[3] Barrett, 1:163.

[4] Kent, pp. 34–35; Blaiklock, p. 61.

주의 만찬(눅 22:19; 고전 10:16; 11:24) 모두를 묘사합니다. 아마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 중 또는 식사 후에 공동의 음식인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했을 것입니다.[1]

"기도"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고 중보했을 것입니다(참조, 마 6:9-13). 헬라어 본문에서 "기도"와 함께 "그"(the)라는 관사는 아마도 공식적인 기도 시간을 의미하지만(참조, 1:14),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다른 시간에도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2]

> "누가가 누가복음-사도행전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역 사이의 평행성을 설정한 것처럼, 그는 또한 예수님의 삶에서의 기도와 교회의 삶에서의 기도 사이의 평행성을 설정한다."[3]

> "기도는 의존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필요를 느낄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 모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4]

이러한 활동에 대한 신자들의 끈질긴 참여는 그들이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43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로 인한 "경외감"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 사이에 계속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심을 가리키며, 이 영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놀라운 단합과

---

[1] Neil, p. 81.

[2] Daniel K. Falk, "Jewish Prayer Literature and the Jerusalem Church,"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267-301 참조.

[3] Longenecker, p. 290. Cf. 1:14, 24; 4:24-31; 6:4, 6; 9:40; 10:2, 4, 9, 31; 11:5; 12:5; 13:3; 14:23; 16:25; 22:17; 28:8.

[4] Ironside, *Lectures on* ⋯, p. 77.

자기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놀라운 일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한 2장 22절과 누가가 사도들이 "놀라운 일과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한 이 구절을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자신의 종들을 통해 계속 일하셨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1]

2:44-45 초기 신자들은 서로 자주 접촉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동 생활은 자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으며(4:32, 34-35; 5:4), 강제적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다른 어떤 교회도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만큼 공동체 생활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공동생활을 명령하는 구절은 없으며, 사도행전에서도 5장 이후에는 공동생활을 언급하지 않습니다.[2]

신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재산"(부동산, 참조, 5:37)과 개인 "소유물"을 팔려는 의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작가는 누가의 초대 교회 초상화가 이상화된 그림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3] 다른 사람들은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4] 신자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인 형제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부했을 것이지만 누가가 강조한 것은 서로에 대한 희생적인 기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이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동기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

[1] 오늘날 신자들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것과 같은 종류의 기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표적과 기사 운동"에 대한 좋은 평가를 보려면, Ken L. Sarles, "An Appraisal of the Signs and Wonders Movement," *Bibliotheca Sacra* 145:577 (January–March 1988):57–82; or idem, "All Power & Signs," *Kindred Spirit* 13:2 (Summer 1989):8–11 참조.

[2] Brian Capper, "The Palestinian Cultural Context of Earliest Christian Community of Goods,"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323–56; 및 Jerome Murphy-O'Connor, "The Cenacle— Topographical Setting for Acts 2:44–45," in ibid., pp. 303–22 참조.

[3] Alan J. Thompson, "Unity in Acts: Idealization or Reality?"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1:3 (September 2008):523–42.

[4] E.g., S. S. Bartchy, "Community of Goods in Acts: Idealization or Social Reality?" in *The Future of Christianity: Essays in Honor of Helmut Koester*, pp. 309–18).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2:46-47 이 경과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교회 성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7장 중 하나이며, 각 장은 교회의 세계 선교를 위한 주요 진전을 마무리합니다(참조, 6:7; 9:31; 12:24; 16:5; 19:20; 28:30-31).[1]

신자들은 "날마다" 서로 만나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토론과 복음 전도를 위해 "성전" 지역에 모였을 것입니다(참조, 3:11; 5:12). 아마도 이 유대인 신자들은 교회의 독특성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진정한 남은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초기 신자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식사"를 함께 먹었으며 아마도 주의 만찬을 준수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공통의 헌신과 깊은 교제를 반영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는 우정의 상징이자 인장이었습니다. 현대 이교 종교에서 식사는 예배자들과 예배자, 예배자와 신 사이의 친교를 형성하기 때문에 종교의 중심 의식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예배의 제물 중 일부를 먹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며, 특히 화목 제물을 상징했습니다. 공공 교회 건물은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에서 공식 종교가 된 주후 3세기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장이 기록하는 일반적인 시기에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인 운동에 대한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신자들은 유대인 형제들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리스도를 신뢰했고 주님은 이들을 교회에 더하여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시대와 시대에 거듭난 사람들의 전체 무리"를 포함한다고 믿는 일부 해석자들은 "그렇지 않으면 그날 거듭난 사람들이 '추가'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2]

---

[1] 사도행전 요약에 대한 Witherington의 해설은, pp. 157-59 참조.

[2] A. H. Strong, *Systematic Theology*, pp. 887, 900-901.

그러나 이 신자들이 "날마다" 추가되었던 그룹은 오순절에 구원받은 3,000명과 사도들(41-44절), 즉 교회의 핵심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목적(1:1-2)과 조화를 이루며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했습니다(47절; 참조, 마 16:18). R. J. 놀링(Knowling)은 교회의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했습니다(참조, 눅 2:52).[1]

> "…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몇 안 되는 언급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구가 적다는 것은 신약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교훈과 교제, 기도, 즉 참여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고, 물론 이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예배에 대한 언급이 적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2]

> "기독교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광범위한 계층에 호소력을 발휘했습니다."[3]

B.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 3:1-6:7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부분의 사건을 기록하여, 교회의 지속적인 확장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수단을 파악했습니다. 3장부터 5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증거가 유대 지도자들과 어떻게 충돌하게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외부의 반대 3:1-4:31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에 대한 반대는 외부,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처음 시작되

---

[1] Knowling, 2:98.
[2] Marshall, *The Acts …*, pp. 85-86.
[3] David A. Fiensy, "The Composition of the Jerusalem Church,"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 230.

었습니다.

앉은뱅이의 치유 3:1-10

누가는 방금 사도들의 가르침, 많은 유대인들이 느꼈던 경외심,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도들, 성전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2:43-44, 46). 이제 그는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건을 서술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치유를 선택했습니다(마 8:2-4; 막 1:40-45; 눅 5:12-16, 24, 요 4:46-54). 이 사람의 치유로 인해, 유대인 지도자들의 제자들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인 태도에서 적대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4:1-4).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의 호의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2:47).

이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14가지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입니다(베드로에 의해: 3:1-10; 5:1-11; 9:32-35, 36-42; 천사에 의해: 5:17-26; 12:1-19, 20-23; 바울에 의해: 13:4-12; 14:8-11; 16:16-19, 20-42; 20:7-12; 28:3-6, 7-8). 여기에는 치유 4건(마비 3건, 열병 1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2건, 해방 4건(육체적 속박에서 해방 2건, 퇴마 관련 2건), 심판 3건, 보존 기적이 1건 포함됩니다. 사도행전에는 기적에 대한 10개의 요약 기록도 있습니다(2:43; 5:12, 15, 16; 6:8; 8:6-7, 13; 14:3; 19:11-12; 28:9).[1]

> "이 사건은 공동체의 동정심과, 단순한 물질적 문제를 넘어선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동체의 방법을 보여줍니다[참조, 14:8-11; 눅 5: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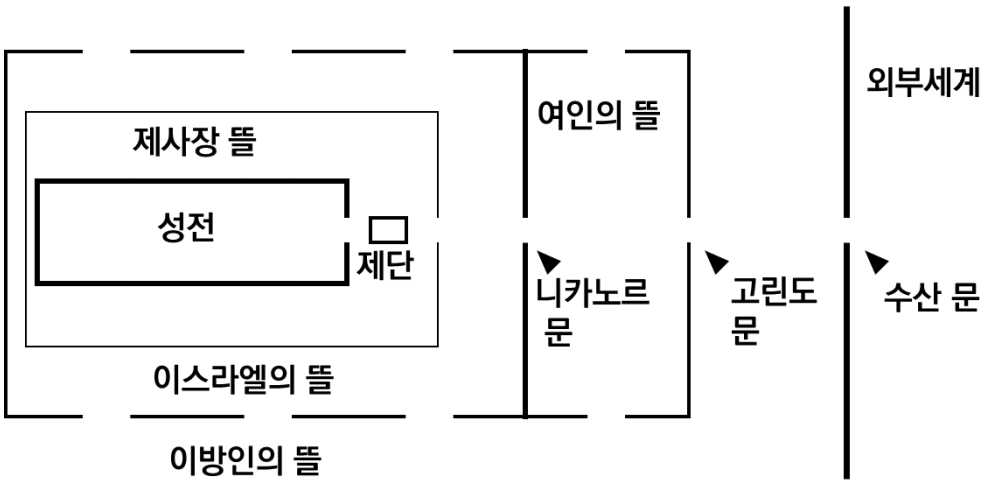
3:1 여기서 "요한"은 의심할 여지없이 야고보의 형제인 제4복음서의 저자였습니다.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고, 유대인의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에 시작되었으며, 유대인의 다른 주요 기도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참조, 2:15; 10:9, 30; 단 6:10; 9:21; 유딧 9:1).[3]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

[1] Bock, *Acts*, p. 157.
[2] Ibid., p. 158.
[3] Josephus, *Antiquities of* ···, 14:4:3.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이전의 습관을 계속 따랐습니다.

3:2 앉은뱅이는 40년 넘게 그 상태로 지냈습니다(4:22). 게다가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업혀야 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절망적인 경우였습니다. “아름다움이라 불리는 성전 문"은 구체적인 지칭이라기보다는 묘사적인 표현입니다. 누가가 동쪽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세 개의 주요 출입구 중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1] 그는 외부 세계에서 이방인의 뜰으로 들어가는 수산(또는 황금) 문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2]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이어지는 고린도(또는 동쪽) 문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3] 또 다른 가능성은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이어진 니카노르 문이었을 가능성입니다.[4] 요세푸스가 성전에 대한 묘사는 이 두 문을 모두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5] 위의 옵션 중 마지막 두 가지가 첫 번째 옵션보다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이 문제에 대한 간략한 논의는, Barrett, pp. 179–80 참조. 혹은, 다른 긴 논의는, Martin Hengel, "The Geography of Palestine in Acts,"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ain Setting*, pp. 37–41 참조.

[2] Jack Finegan, *The Archaelolgy of the New Testament*, pp. 129–30; Ger, p. 61.

[3] Longenecker, p. 294; Kent, p. 37; Wiersbe, 1:412; Alfred Edersheim, *The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 1:245; idem, *The Temple*, p. 47; McGee, 2:422; *The Nelson Study Bible*, p. 1820.

[4] Lenski, p. 125; Witherington, p. 174.

[5] Josephus, *Antiquities of …*, 15:11:5–7; idem, *The Wars …*, 5:5:3.

3:3 "동쪽에서는 거지가 성전이나 신전 입구에 앉아 구걸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길에 거지가 앉아 있으면 동료 사람들에게 관대해지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모든 자세 중에서 가장 좋은 자세로 여겨졌고 지금도 그러합니다."[1]

3:4-5 **베드로는 거지에게 자신과 요한을 보라고 말했는데, 이는 베드로의 온전한 관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핍한 사람들을 대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그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다음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기적이 나타내는 바로 그것입니다."[2]

"… 교회의 기회는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인 불완전한 인간입니다."[3]

3:6 **한 사람의 이름은 그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대표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치유를 책임지는 분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를 고쳤습니다(참조, 16절).**

이 사람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사도들이 치유한 세 명의 불구자 중 첫 번째 사람입니다(9:32-34; 14:8-10; 참조, 요 5; 9).

초대 교회에 존재했던 치유의 은사는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위 치유의 은사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은사를 사용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

[1] Barclay, p. 28.
[2] Bock, *Acts*, p. 161.
[3] Morgan, *The Acts …*, p. 82.

뜻에 따라 누구든지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참조, 마 10:1, 8; 행 28:8-9; 등).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병자의 믿음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16절; 참조, 막 6:5-6). 14장 8-10절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고친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 누가는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에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초대 교회에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는 주로 유대인 관찰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고전 1:22).

> "신약의 치유 은사는 개인에게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은사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1]

> "현대의 은사주의적 '치유'와 신약성경에 기록된 치유 사이에는 거의 일치하는 점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오늘날의 많은 치유사들은 자신들이 치유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종종 치유로 응답하시는 사람일 뿐이라고 조심스럽게 지적합니다."[2]

물론 현대의 다른 많은 치유사들도 자신의 치유가 신약성경의 기록과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3:7-8 베드로는 앉은뱅이를 고치기 위해 그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의 발걸음을 돕기 위해 붙잡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치유받은 거지는 즉시 자신의 강화된 팔다리의 능력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어느 곳으로 가든지 따라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

[1] Thomas R. Edgar, "The Cessation of the Sign Gifts," *Bibliotheca Sacra* 145:580 (October– December 1988):376.

[2] Ibid., p. 378.

3:9-10 이 거지는 성전 입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 사람을 여러 번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의 치유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앉은뱅이를 고치셨던 것처럼 이 표적(의미 있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참석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절뚝거리는 자는 사슴처럼 뛰게 될 것"(사 35:6)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 앉은뱅이의 치유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앉은뱅이들의 치유는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 "... 예수님의 중풍병자 치유와 베드로의 앉은뱅이 치유 사이의 유사성은 치유 자체보다는 더 큰 이야기에서 이 장면들이 갖는 기능에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치유는 예수님의 구원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주장의 계기가 되며, 그 중요성과 일반적인 범위를 강조합니다('땅에서', 눅 5:24; '하늘 아래', 행 4:12). 두 경우 모두, 치유는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는 구원의 능력에 대한 선포로 이어집니다. 두 경우 모두 새로운 반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주장이며 취임 연설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에서 선포한 사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1]

이 사건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다른 기적은, 이 책의 독자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실제로 행하십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 중 하나입니다. 더 좋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다른 1세기 사도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는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시는가?

---

[1] Tannehill, 2:51-52.

중요한 것은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종들에게 이 은사를 극적으로 나타내셨던 세 시기는 각각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새로운 계시를 주셨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 시기는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전반에 걸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의 각 시기는 두 세대를 넘지 않는 짧은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의 은사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 (예: 막 6:5-6; 빌 2:27; 딤후 4:20; 등).

솔로몬의 주랑에서 베드로가 연설함 3:11-26

사도행전에서 종종 그렇듯이, 한 사건이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참조, 2장).

> “언뜻 보기에는 누가가 베드로의 비슷한 두 설교를 그렇게 가깝게 배치한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 설교를 사도행전의 도입부에 배치한 것은 초기 사도적 설교의 일종의 패러다임[모델], 즉 누가가 문학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듬은 것으로 보이는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주랑에서 있었던 설교의 경우, 누가는 예루살렘의 초기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방법의 예로서 이 설교를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1]

>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 신자들이 술에 취했다는 비난에 대해 반박해야 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그는 자신과 요한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쳤다는 개념을 반박해야 했습니다(참조, 14:8-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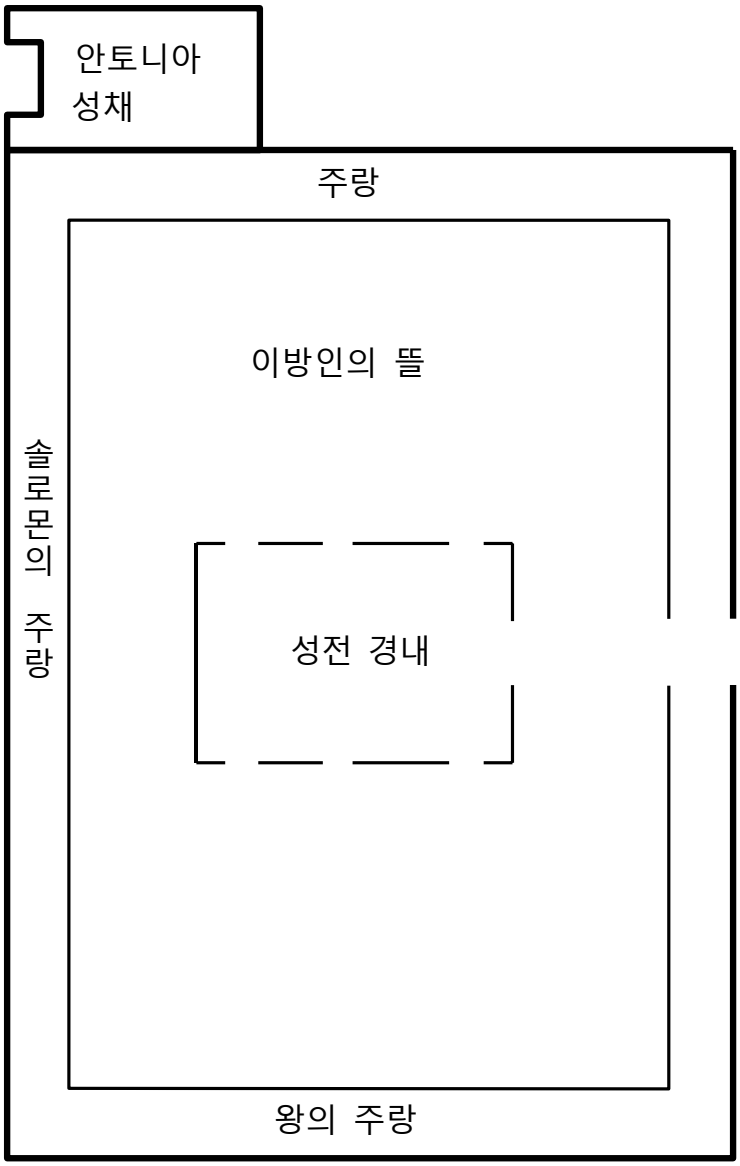
설교의 배경 3:11

“베드로와 요한"은 치유된 앉은뱅이를 붙들고 성전의 “주랑”(행각)으로 들어갔고, 치유에 놀란 많은 군중이 그들을 따랐습니다(참조, 21:30). 일련의 기둥으로 지탱 된 지붕이있는 주랑이 외부 성전 뜰인 이방인의 뜰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현관의 동쪽 부분은 “고대 성전 기초의 잔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솔로몬의 주랑”이라는 이름이

[1] Longenecker, p. 296.
[2] Wiersbe, 1:412.

붙었습니다.[1]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전에 가르치셨던 이 편리한 그늘진 곳에서 호기심 많은 군중에게 연설했습니다(요 10:23).

헤롯 성전



베드로의 선포 3:12-16

"베드로는 이전 연설에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임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제 그는 제자들이 지상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위를 선포합니다. 두 연설

[1] Robertson, 3:42.

모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범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이자 순종해야 할 새로운 모세로서 예수의 역할을 강조합니다."[1]

3:12-15 누가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 7편을 기록했습니다(1:16-22; 2:14-36; 3:12-26; 4:8-12: 10:34-43; 11:4-17; 15:7-11).[2] 이 설교에서 베드로가 추상적인 교리를 논하거나 심오한 신학적 문제를 추론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단순한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동료 유대인으로서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자신이나 요한의 능력이나 선한 성품이 치유의 근거였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족장들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 치유를 책임지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분의 종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참조, 2:22). 베드로의 청중들이 "살인자"인 바라바를 주님보다 더 좋아하여 "부인"하고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불렀습니다. 메시아 예언의 대상인 하나님의 종(또는 아들, Gr. 파이다[*paida*])(사 42:1; 49:6-7; 52:13; 53:11; 참조. 막 10:45), 메시아의 칭호인 "거룩하신 분"(시 16:10; 사 31:1; 참조, 막 1:24; 요일 2:20), "의로우신 분"(사 53:11; 슥 9:9; 참조, 요일 2:1), "생명의 통치자[근원]"(시 16; 참조, 요 1:1-18; 골 1:14-20; 히 1:2-3; 2:10; 12:2).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네 가지를 고발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세 가지 불일치를 지적하고, 그들이 그분을 대한 방식과 하

[1] Neil, p. 84.
[2] 사도행전에 나오는 연설의 수사적 형식에 대해서는 Witherington의 해설을 참조.

나님께서 그분을 대한 방식을 대조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석방하려 할 때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13절). 셋째,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부하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선호했습니다(14절; 눅 23:18-19). 넷째, 그들은 사도들이 "증인"이었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의 근원을 처형했습니다(15절). "통치자" 또는 (여기서는 더 나은) "생명의 근원(창시자)"은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부활하신 메시아로 제시합니다.[1]

3:16 베드로 설교의 선포 부분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명합니다(참조, 6절).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베드로는 거지의 치유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의 신뢰("그분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거지가 예수님의 신성과 신적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베드로의 걸으라는 초대에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6절). 그의 대답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사람은 이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예수님을 보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현재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은 그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한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밖에 있을 수 없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평화와 능력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2]

베드로의 권면 3:17-26

3:17-18 청중들에 대한 베드로의 고발이 가혹했다면(13-15절), 그들이 "무지" 가

---

[1] Neil, p. 85.

[2] Barclay, p. 31.

운데 행했다고 말한 베드로의 인정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할 때 그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의심할 여지없이 자신의 부드러운 접근이 청중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 "이스라엘의 상황은 악의 없이 이웃을 죽이고 가장 가까운 피난처 도시로 도망친 '살인자'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민 35:9-34)."[1]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보여주셨을 법한 것만큼 설득력 있게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통치자"들이 보여준 불신앙의 반응은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많은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베드로는 서둘러 예수님의 고난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베드로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자들의 계시였습니다.

> "베드로의 유대인 청중 중 많은 사람들이 앞의 말씀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기적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적의 사역자로서의 예수님의 명성을 낯설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십자가 사건에 비추어 예수님을 정복하는 메시아로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2]

3:19-21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왕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메시아의 지상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경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적한 내용을 고려하여 청중들에게 "회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참조, 2:38). 또한 예

[1] Wiersbe, 1:413.
[2] Kent, p. 41. Cf. Blaiklock, p. 63.

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회개나 용서에 필수적인 침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참조, 2:38).

회개란 무엇이며 구원에서 회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구원과 관련하여 회개는 죄와 자신, 구세주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청중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음을 바꾸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참되기에 우리의 죄와 구주에 대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1]

"회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메타노에오(*metanoeo*)는 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나 죄에서 돌이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회개의 결과 또는 열매입니다(참조, 눅 3:8).

> "회개(repent)가 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repent하신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마흔여섯 번 등장합니다. 이 중 37번은 하나님이 repent(또는 repent하지 않음)하십니다. 회개가 죄에 대한 슬픔을 의미한다면 하나님도 죄인이 되실 것입니다."[2]

성경에서 회개(repent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죄뿐만 아니라 많은 것에 대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행 20:21), 그리스도(행 2:37-38), 행위(히 6:1; 계 9:20; 16:11)에 대한 생

---

[1] Wiersbe, 1:413.

[2] G. Michael Cocoris, *Evangelism: A Biblical Approach*, pp. 68-69. 특별히 "What is Repentance?"라는 제목의 장을 참조.

각뿐만 아니라 죄(행 8:22; 계 9:21)에 대해서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회개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두 단계가 아니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한 단계입니다. 회개하라는 호소는 믿음만이 구원에 필요한 전부라는 수많은 약속과 모순되지 않습니다(예: 요 1:12; 3:16, 36; 5:24; 6:47; 20:30-31; 롬 4; 등). 구원받는 믿음에는 회개(마음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사람은 불신에서 믿음으로 변화합니다(행 11:17-18). 신약 성경 기자들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예: 막 1:15; 행 20:21; 히 6:1). 때로는 회개만을 구원의 유일한 요건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행 2:38; 3:19; 17:30; 26:20; 벧후 3:9). 어느 한 용어 또는 두 용어 모두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 "... 참된 회개는 믿음과 함께하지 않고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반면에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참된 회개도 있습니다."[1]

> "성경적 회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위해 자신을 신뢰하고, 멸시받고 거부당하는 그리스도를 등지고 등을 돌려 왔습니다. 회개하라! 뒤로 돌아! 죄인은 이제 자신을 멸시하고 거부하며 모든 확신과 신뢰를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죄에 대한 슬픔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의 죄악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나중에 옵니다."[2]

> "우리는 신자의 거듭남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회개는 믿음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 자체가 결코 구원의 분리되고 독립적인 조건이 아니며, 고해성사, 침례, 기도 또는 충실한 봉사와 같은 다른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에 추가될 수 없음을 믿습니

[1] Berkhof, p. 487. 또한, Chafer, *Systematic Theology*, 3:373 참조.
[2] Donald G. Barnhouse, *God's River*, p. 202. 또한, Robert N. Wilkin, "Repentance and Salvation: A Key Gospel Issue," *Grace Evangelical Society News* 3:6 (June-July 1988):3 참조.

다."[1]

"그러므로 저는 회개를 한마디로 중생으로 해석하며, 그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훼손되고 거의 지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입니다."[2]

"새롭게 되는 때"(19절)라는 구절은 베드로가 20절과 21절에서 이 때를 묘사한 것을 볼 때, 주의 날, 특히 천년기와 관련된 축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3] 이 구절들은 메시아의 재림을 "만물이 회복되는 때"(20절)와 연결시킵니다. 이 시기는 구약성경 예언의 주제입니다. 스가랴는 유대인들이 이전에 거부했던 메시아를 언젠가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슥 12:10-14; 참조, 신 30:1-3; 렘 15:19; 16:15; 24:6; 50:19; 겔 16:55; 호 11:11; 롬 11:25-27).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부 성경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권면에 응답하여 민족적으로 회개했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지상 왕국을 세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예언에서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개인적 회개와 민족적 회개를 모두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결과는 개인의 용서와 영적 구원이었습니다. 후자의 결과는 민족적 용서와 로마로부터의 물리적 구출, 그리고 지상 천년 왕국의 출범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네 문단은 투생(Toussaint)이 이 견해를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에는 몇 가지 이유로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합니

---

[1] *Doctrinal Statement of Dallas Theological Seminary*, Article VII: "Salvation Only Through Christ."

[2] Calvin, 3:3:9. 회개에 관한 H. A. Ironside의 견해에 대한 분석은, Robert N. Wilkin, "Did H. A. Ironside Teach Commitment Salvation?" *Grace Evangelical Society News* 4:6 (June 1989):1, 3를 참조. Ironside는 회개가 구원의 별개의 단계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3] Bock, "Evidence from …," p. 189 참조.

다: (1) 회복(3:21)이라는 단어는 1:6의 '회복'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3:21에서는 명사형(아포카타스타세오스[*apokatastaseos*])이고, 1:6에서는 동사형(아포카티스타네이스[*apokathistaneis*])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예견합니다(참조, 마 17:11; 막 9:12). (2) 회복의 개념은 왕국에 사용될 때 중생과 유사합니다(참조, 사 65:17; 66:22; 마 19:28; 롬 8:20-22). (3) 목적절은 사도행전 3:19과 20에서 다릅니다. 19a절에서는 '그리하면'은 [NIV에서] 부정사와 함께 *pros to* (일부 사본에서는 eis to)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목적을 가리킵니다. 19b절과 20절에서 두 번 나오는 것은 다른 구조(가정법 동사가 있는 *hopos*)로 번역된 것으로, 더 먼 목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회개는 가까운 목적인 죄의 용서를 가져올 것입니다(19a절).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한다면, 두 번째로 먼 목표인 왕국의 도래(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로워지는 때)가 성취될 것입니다. (4)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20절)은 왕국의 도래를 의미했습니다. (5) 구약성경은 '이 날들을 예언했'습니다(24절; 참조, 21절). 구약의 예언자들은 교회를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비밀이었습니다(롬 16:25; 엡 3:1-6). 그러나 예언자들은 종종 메시아의 황금기, 즉 천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원의 제안과 천년기의 제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모두 가리켰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 이후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이전의' 예수를 거부했고, 이제 부활 이후의 메시아를 제안받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말은 이스라엘의 거부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요나의 표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믿기를 거부했습니다(참조, 눅 16:31). 진정한 의미에서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일부 성경 학자들은 베드로가 왕국을 제안했다는 견해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몇 가지 반대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제안을 거절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제안이 아니었습

니다. 그러나 그것은 택함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2) 이것은 왕국 진리를 교회 시대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진리는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발견됩니다(참조, 마 16:18; 18:17; 요 10:16; 14:20). (3) 이 견해는 극단적 세대주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교회 시대 내의 전환으로 본다면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경첩이 달린 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상에 계신 그리스도와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한 그분의 사역을 연결하는 경첩 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3장 17-21절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 이스라엘 개인에게는 죄 사함을 위함, (2)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가 다시 통치하기 위해 돌아오시기 위함."

"복음서 시대에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공되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시대에도 왕국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두 시대 모두에서 그 제의는 예언자들에 따르면 그러한 제의에 합당하게 속한 동일한 '표적과 기사'에 의해 인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기간 모두에서 그 설립은 민족의 입장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게다가 두 시기 모두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고, 이는 거부 위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1]

다른 해석가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다시 제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단락은 이러한 견해에 대한 펜테코스트(Pentecost)의 변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민족에게 왕국을 다시 제안한 것도 아니고, 민족이 회개하면 왕국이 그 당시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1] McClain, p. 429. 또한, Gaebelein, *The Annotated …,* 3:1:264; 및 Robert Anderson, The Silence of God, p. 174. 참조.

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마 12:22-37 참조)를 범한 민족, 즉 그 민족에게 언약되고 약속된 왕국의 혜택에 들어가기 위해 민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는 1장 6절에서 언급된 회복과 동일한 회복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필요한 전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의 재제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적으로 임재하셔서 민족에게 자신을 바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이 왕국을 진정으로 제의할 수 있습니다. ...

"...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제의한 것도 아니고, 그 왕국이 이미 세워졌다고 말한 것도 아니며, 그 대신 그 민족이 언약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말하고 있었습니다."[1]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상 왕국을 다시 제안한 것이든 아니든, 일부 개별 유대인들은 회개했지만 민족 전체는 베드로의 권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4:1-4).[2]

"누가가 유대 민족의 민족주의적 희망을 대변하는 방식은 그 자신이 미래의 민족적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음을 암시합니다. 누가가 정말로 회복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는 분명히 정반대의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3]

"성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주님의 부재를 성령의 부으심의 필요성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그는 메시아 왕국의 참된 본질을 폄침으로써 그 어려움에

---

[1] Pentecost, *Thy Kingdom …*, pp. 275, 276; idem, *Things to Come,* p. 471. 또한, McLean, p. 225; Ger, p. 67; and Fruchtenbaum, *The Book …,* p. 98 참조.

[2] *The New Scofield …*, p. 1166.

[3] Larry R. Helyer, "Luke and the Restoration of Israel,"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6:3 (September 1993):329. See also J. Randall Price, "Prophetic Postponement in Daniel 9 and Other Texts," in *Issues in Dispensationalism*, p. 137.

답합니다."[1]

3:22-23 베드로는 자신이 방금 말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초의 기록된 예언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비슷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분명히 밝히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신 18:15-19; 참조, 레 23:29).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이 예언이 특별히 한 예언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는 다른 면에서도 모세와 같을 것입니다.[2]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시대의 신자들은 이 구절을 메시아 예언으로 간주했습니다(참조, 요 1:21b, 25; 7:40). 베드로는 이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청중들에게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에 직면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23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후 70년에 멸망이 뒤따랐습니다. 모세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야 했고(요 5:46),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베드로의 청중들이 모세에게 순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 "이 설교의 특별한 관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생명의 창시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묘사하면서 예수님 그분에 대해 더 가르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는 구약성경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양의 생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3]

3:24 예언자 "사무엘"은 다윗이 사울을 대신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삼상 13:14; 15:28; 28:17; 참조, 삼상 16:13), 그가 명시적으로 메시아적 예

---

[1] Rackham, p. 49.
[2] Darrell L. Bock, *Proclamation from Prophecy and Pattern: Lucan Old Testament Christology*, pp. 191-94.
[3] Marshall, *The Acts …*, p. 89.

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무엘이 다윗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메시아의 통치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염두에 두었던 다른 "예언자들"은 모두 다윗의 지속적인 왕조 통치에 대해 말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베드로의 진술은 여호수아가 다가오는 예언자에 대한 모세의 예언을 성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3:25-26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언자 자신이 아니라 그가 말한 예언자들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예언자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려고 계획하신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의 일부였습니다(창 12:3; 22:18; 26:4).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지만, 먼저 유대인을 축복함으로써 인류를 축복하고자 하셨습니다(참조, 마 15:21-28; 막 7:24-30).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언자로 부르신 것은 유대인을 먼저 축복하고 그 후에 모든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먼저"(26절, Gr. 휘민 프로톤[hymin proton])는 헬라어 본문에서 이 구절이 유대인 축복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강조적인 위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 "일으키셨다"(26절)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세(22절)와 같은 예언자로 일으키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무덤에서 일으키셨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기 전에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된 것은(참조, 마 10:5-6; 행 13:46; 롬 1:16)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의 성립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마 23:39; 롬 11:26).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통치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합니다(슥

12:10-14).

> "... 왕에 의한 왕국의 최초 제안이 '그의 육신의 날들'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은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선택된 민족에게 '먼저' 제안된다(행 3:25-26)."[1]

> "이 연설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기독론적으로 풍부한 연설 중 하나로서, 예수님은 종, 거룩하고 의로운 자, 생명의 창시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등으로 언급되신다."[2]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을 먼저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전에 유대인을 먼저 전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상 명령의 구절에는 누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초대 교회의 관행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신약의 교훈(명령)과 대조되는 신약의 관행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관행이 명령된 것인가, 그리고 그 관행이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를 초월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구분은 생물학적, 또는 민족적 유대인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체적 후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부는 "구원받은"(야훼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입니다. 종교적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스라엘의 종교를 실천해 온 사람들입니다. 일부 이방인은 유대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룻기 참조). 이들 중 일부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유대 민족이 아니어도

---

[1] McClain, p. 405.

[2] Bock, *Acts*, p. 165.

유대교라는 종교를 따를 수 있으며, 기독교인 유대인은 유대인의 관습을 일부 준수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대교를 고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고수합니다. "구원받은" 유대인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민족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메시아닉 유대인 또는 완성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에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그것은 "유다"라는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결정해야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항상 "구원받은" 또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민족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구원받은" 유대인이 언급되기도 하지만(예: 갈 6:16), 그들은 "구원받은" 유대인 민족입니다. 비 세대주의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때때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즉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을 모두 포함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 4:1-4

4장부터 7장까지는 일련의 유사한 대립이 있으며, 각 대립은 스데반의 죽음과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 박해의 위기를 구축합니다.[1] 4장의 처음 네 구절은 3장에 기록된 사건("그들이 말하는 대로", 1절)을 마무리하고, 4:5부터 31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4:1 요한이 베드로("그들")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분명하지만 누가는 요한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세 개로 분리된, 그러나 서로 관련된 개인들과 단체들이 반대했습니다(참조, 5:17). 예수님도 성전에서 가르치

[1]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를 허용하는 밀라노 칙령(주후 313년)을 발표할 때까지의 기독교인 박해의 역사에 대해서는, Earle E. Cairns,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pp. 95-101 참조.

실 때 그분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막 11:27-28; 눅 20:1-2). 성전 경비대의 "대장"(Gr. *strategos*)은 성전 경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 장교를 '사간'(Sagan)이라고 불렀습니다.[1] 이 사람은 대제사장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지휘관이었습니다.[2] 그는 이미 흥분한 청중들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고대 정통을 대표한다고 주장한 레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율법의 발전에 반대했고, 육체적 부활 교리를 부인했으며(23:8), 따라서 그 주제에 대한 베드로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3:15; 참조, 요 12:10). 그들은 메시아 시대가 마카베오 영웅들(주전 168-134년)로부터 시작되어 사두개인들의 감독 아래 계속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3:20).[3]

> "그들에게 메시아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상(ideal)이었으며, 메시아 시대는 대격변이나 종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마카비 패권 시대에 모든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넘겨준 고마운 민족의 정치적 지배자이자 지배적 지주로서, 전적으로 실용적인 이유로 로마와의 협력과 현상 유지를 강조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신자였고, 성전 경찰은 전적으로 레위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전 경비대장은 항상 높은 계급의 사두개인이었고, 각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4]

4:2 두 가지가 이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첫째,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에게 지정한 기능이었습니다. 둘째, 사도

---

[1] 탈무드는 미쉬나와 게마라로 구성된 유대인의 민법 및 의식법, 전설의 집합체입니다.

[2] Josephus, *Antiquities of* …, 20:6:1; 20:9:3; idem, *The Wars* …, 2:17:1; 6:5:3).

[3] See Steve Mason, "Chief Priests, Sadducees, Pharisees and Sanhedrin in Acts,"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147–56.

[4] Longenecker, p. 301.

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 "...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청소하는 위원회에서 봉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청소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아니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청소에 관심이 없습니까?' 저는 '위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신 밥 슐러 박사가 몇 년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을 들려줬어요. '우리는 어항에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부름받은 것이지 어항을 청소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요. 이 옛 세상은 고기 잡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셨고, 세상은 낚시를 할 곳입니다. 우리는 연못을 청소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적은 술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깡패들은 저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소위 종교 지도자, 자유주의자,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복음 전파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라디오 사역을 파괴하려고 했는지 알게 되어 놀라웠습니다."[1]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에서 맥기(McGee) 박사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가 사람들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돕고자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요점은 육체적 도움보다 영적 도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4:3 베드로와 요한을 정식으로 조사하기 위한 심리를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학대하는 것을 막지

[1] McGee, 4:526. 단락 구분 생략.

는 못했습니다(참조, 눅 22:63-66). 따라서 성전 관리들은 두 사람을 체포하여 아마도 안토니아 요새, 즉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 "유대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전통 중 일부는 이 성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고대 '다윗의 무기고', 히스기야와 느헤미야의 궁전, 마카비족의 요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1]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반대자가 되었습니다(참조, 2:47).

4:4 믿음은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핵심 요소였으며(참조, 3:19), 믿음과 침례를 받는 것(2:38)은 핵심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단순히 그들이 "들은"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베드로의 메시지로 인해 예루살렘의 총 개종자 수는 이제 "5,000명"(참조, 1:15; 2:41)에 이르렀습니다. 헬라어 안드론(*andron*)은 사람이 아닌 남성("남자들")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목격했을 성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남성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총 인구는 25,000~250,000명으로 추정되지만, 이보다 낮은 수치가 더 유력해 보입니다.[2] 한 작가는 6만 명 이상을 주장했고,[3] 다른 작가는 주후 40년대에 10만~12만 명이 거주했다고 믿었습니다.[4] 분명히 다양한 추측이 존재합니다.

산헤드린 앞에서 베드로의 설명 4:5-12

4:5 다음날 군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온 "공회"(15절)는 이스라엘의 원

---

[1] Edersheim, *The Temple*, p. 32.

[2] Marshall, *The Acts …*, pp. 98-99.

[3] Fiensy, p. 214.

[4] Wolfgang Reinhardt, "The Population Size of Jerusalem and the Numerical Growth of the Jerusalem Church,"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 263.

로원이자 최고 법원이었던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의장을 맡은 대제사장과 70명의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의 대다수인 귀족 회원은 사두개인이었고, 평민 지도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 율법 전문가 대부분은 민족주의 성향의 바리새인이었지만 사두개파는 로마를 지지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신학적으로는 합리주의적이지만 보수적이었고, 바리새파는 구전 전통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이 장에서 설명하는 회의를 포함하여 보통 성전 안뜰의 남서쪽에 인접한 홀인 '잘려진 돌의 방'(the Chamber of Hewn Stone)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1] "지도자"(관원)는 24개 제사장 직분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었고(참조, 23:5; 마 16:21), "장로"는 영향력 있는 지파의 족장,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이 집단을 구성했습니다(참조, 눅 9:22).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 "산헤드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을 때 관할권 내에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누군가가 기적을 행하고 그것을 가르침의 근거로 삼을 때마다 그를 조사해야 하고, 그 가르침이 사람들을 조상들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데 사용되면 그 민족이 그를 돌로 쳐야 한다고 명시했다(신 13:1-5). 반면에 그의 메시지가 교리적으로 건전하다면 기적의 일꾼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했습니다."[2]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산헤드린 앞에 섰던 네 차례 중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5:27), 스데반(6:12), 바울(22:30)이었습니다.

---

[1] Josephus, *Antiquities of* ···, 5:4:2.

[2] Kent, pp. 45-46.

4:6 누가가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던 "안나스"는 엄밀히 말해 당시에는 통치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봉사했지만,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통치 대제사장이었다. 그러나 안나스는 산헤드린에서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참조, 눅 3:2; 요 18:13-24). 누가가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참조, 눅 3:2; 요 18:13; 행 7:1). 이 기간 동안 전직 대제사장들은 산헤드린의 직책과 회원 자격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1]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의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요한"은 주후 36년에 가야바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곳에서는 "알렉산더"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재 그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주후 6-66년경
안나스 (주후 6-15년경) • 예수님 재판 당시 가야바와 함께한 비공식 대제사장(눅 3:2; 요 18:13, 24) • 가야바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한 비공식 대제사장(사도행전 4:6)
엘르아잘 (주후 16-17년경) • 안나스의 아들
가야바 (주후 18-36년경) • 안나스의 사위 •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공식 대제사장(마 26:3, 57; 눅 3:2; 요 11:49-50) • 안나스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함(행 4:6)

[1] Jeremias, p. 157.

요나단 (주후 36-37년경) • 안나스의 아들, 아마도 사도행전 4장 6절의 '요한'일 수도 있음.
데오빌로 (주후 37-41년경) • 안나스의 아들
마티아스 (주후 42년경) • 안나스의 아들
아나니아 (주후 47-59년경) •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재판함 (행 23:1-10; 24:1-23)
안나스 (주후 61년경) • 안나스의 아들
마티아스 (주후 66-66년경) • 데오빌로의 아들, 안나스의 손자

4:7 고침 받은 앉은뱅이(3:1-10)도 참석했지만(14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투옥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데려온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산헤드린은 베드로와 요한(복수형 "너희")이 앉은뱅이를 고친 것과 관련하여 "어떤 권세"(권위)로, 또는 "어떤 이름으로"(누구의 관할권 아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했는지(2절) 알고 싶어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높은 단 위에 반원 모양으로 다리를 꼬고 앉았다."[1]

4:8 예수님은 제자들이 적대적인 대적들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눅 21:12-15). 이 구절에서는 이 특별한 성령의 채우심("성령으로 충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1] Lenski, p. 158.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충만함은 성령의 통제를 반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하여 증인으로 봉사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충만(통제)하셨습니다(1:8). 헬라어 부정시제(aorist) 수동 분사 플레스테이스(*plestheis*, "충만하다")는 계속되는 상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행해진 행위를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산헤드린 회원들을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4:9-10 베드로는 이 "심문"을 예비 심리(Gr. 아나크리노마이[*anakrinomai*])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유대 율법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을 받기 전에 그 범죄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1]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쾌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즉, 그분)이 병자를 고쳐서 병자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헤드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의미하는 헬라어(소테나이[*sothenai*])를 사용했는데, 일부 영어 번역가들은 이를 "나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9절).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12절에서 같은 단어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분명히 이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참조, 2:23, 36; 3:13-15).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죄를 그들의 발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산헤드린은 당시에나 그 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4:11 베드로는 이 가르침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18:22을 인용함으로써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말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습니다(참조, 마 21:42; 막 12:10; 눅

[1] Joachim Jeremias, "Untersuchungen zum Quellenproblem der Apostelgeschichte,"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rift* 36 (1937):208-13.

20:17).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아로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리",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의 기초를 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참조, 사 28:16; 벧전 2:7).[1]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의 마지막 조각인 머릿돌(capstone)을 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참조, 단 2:34-35).[2] 전자의 해석이 옳다면 베드로는 아마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교회(참조, 벧전 2:4-8)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그는 메시아를 다윗 가문의 오랜 기다림의 완성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그들의 머릿돌, 즉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건설자인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4:12 시편 118:22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은 메시아의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 연설(3:17-26)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설에서도 민족적 구원과 개인적 구원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청중을 고려할 때 전자의 적용이 특히 적절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지상 왕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만 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누구" 즉 마카비 가문 영웅들이나 사두개인들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오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사가랴(눅 1:69), 시므온(눅 2:30), 침례 요한(눅 3:6)은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 아래서 "인류 가운데" 사셨던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10절)는 하나님의 유일한 공인된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떠나

[1] E.g., Knowling, 2:127.
[2] E.g., Longenecker, pp. 304–5.

서는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참조, 요 14:6; 딤전 2:5).

"베드로(및/또는 누가)는 현대의 종교적 다원주의 개념을 옹호하지 않습니다."[1]

"... 베드로의 연설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연설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연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기의 표현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연설은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성적이며, 가장 권력을 가진 청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갈릴리 어부 베드로는 그들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심판자로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법정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바로 그 법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2]

산헤드린의 반응 4:13-22

4:13-14 **산헤드린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본 것, 즉 정식 랍비 훈련 없이도 담대하고 권위 있게 말하는 용기를 보았습니다(참조, 마 7:28-29; 막 1:22; 눅 20:19-26; 요 7:15). 그들은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본 것을 기억했을 수도 있지만(요 18:15-16), 여기서 누가의 요점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는 사람들 안에 계셨고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유사성은 잃어버린 스승과의 접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의해 만들어진 유사성이었습니다."[3]

이 강력하고 교육받은 통치자들은 예전에 어부였던 이들을 경멸의 눈으

---

[1] Witherington, p. 194.
[2] Barclay, p. 36.
[3] Morgan, *The Acts ···,* p. 96.

로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부인한 이후(눅 22:56-60) 짧은 시간 동안 사도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통치자들은 또한 제사장 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성경을 다루는 시설을 관찰했습니다. 이 조사 위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거지였던 사람을 고쳤다는 사도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명백한 변화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대답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산헤드린은 다른 설명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체포에 관한 이야기에서 몇 가지 세부 사항은 제자들이 겪게 될 박해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참조, 눅 12:12 및 행 4:8; 눅 21:12 및 행 4:3 및 5:18; 눅 21:13 및 행 4:8-12 및 5:29-32; 눅 21:15 및 행 4:13).

4:15-17 산헤드린에 있던 누군가 또는 당시 또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른 사람이 이 구절의 정보를 누가복음에 보고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가말리엘은 바울에게, 바울은 누가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나 산헤드린의 다른 신실한 회원이 이 정보의 출처였을 것입니다. 산헤드린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사도들에게 경고하고 협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기적을 반증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사도들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결국 사도들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들어 내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4:18-20 산헤드린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대변인으로서 "결코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필요한 경우 사도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참조, 5:28).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의 명령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1:8; 마 28:19-20)과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참조, 렘 20:9). 이것이 성경이 허용하는 시민 불복종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롬 13:1-7; 벧전 2:13-17).[1] "보고 들은 것"(20절)을 말하는 것이 증언의 본질입니다(1:8). 경멸과 위협이 많은 증인의 입을 막았지만, 이러한 전술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2]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법을 어겨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사도들이 따랐고 우리도 따라야 하는 원칙은 법을 어기는 것은 주님께 불순종하도록 요구할 때만(단순히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부 및/또는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권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3]

4:21-22 공개적인 반항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은 사도들을 다시 협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치유로 인해 인기 있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처벌함으로써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적대시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반응 4:23-31

4:23-28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주님(Gr. 데스포타 [*Despota*], 주권 통치자)을 찾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이 기도에서 세 가지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하

---

[1] J. Kirby Anderson, *Moral Dilemmas*, ch. 17: "Government and Civil Disobedience;" Charles C. Ryrie, "The Christian and Civil Disobedience," *Bibliotheca Sacra* 127:506 (April- June 1970):153-62 참조. 이 글은 같은 저자의 *You Mean the Bible Teaches That …*, pp. 11-22를 약간 변경하여 재인쇄 된 것임.

[2] Barrett, p. 238 참조.

[3] Irwin W. Lutzer, *We Will Not Be Silenced*, ch. 4: "Freedom of Speech for Me, But Not for Thee," pp. 103-25 참조.

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24절). (2) 하나님의 계획에는 신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반대를 겪는 것도 포함됩니다(25-28절). (3) 이런 일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29-30절)."[1]

신자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위치와 그분의 종들의 위치를 대조했습니다. 다윗(25절), 예수님(27, 30절), 그리고 자신들(29절)입니다. 다윗(25절)과 예수님(27절)에 사용된 "종"(파이스[*pais*])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제자들에게 사용된 "종"(둘로스[*doulos*])으로 번역된 단어와 적절하게 대조됩니다(29절).

제자들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첫 언급(24절)은 다른 구약성경의 기도와 유사합니다(예: 출 20:11; 느 9:6; 시 146:6; 사 42:5; 참조, 행 14:15; 17:24). 이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반적이고 적절한 방법이었으며, 특히 여기서처럼 그 권능의 행사에 대한 요청이 뒤따를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참조, 왕하 19:15-19; 사 37:15-20).

25절에 담긴 시편 2편의 신성한 영감에 대한 증언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며,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시를 선포하고 기록하셨습니다(참조, 딤후 3:16; 벧후 1:21).

신자들은 메시아가 이방인과 지도자들의 반대를 경험할 것이라는 시편 기자의 예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유사점을 보았습니다(25-27절). 이 예언은 우리 시대의 역사에서 미래의 사건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참조, 10:38). "민족들", "백성들", "왕들", "통치자들"(25-26절)에 대한 다윗의 언급은 로마의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헤롯", "본디오 빌라도"(27절)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다시 인간의 행동(이차적 도구적 원인, 28절; 참조, 2:23a; 3:18)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궁

[1] Toussaint, "Acts," p. 364.

극적 효과를 내는 원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박해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수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성경의 지속적인 성취를 본다."[1]

4:29-30 제자들은 산헤드린의 "위협"에 주목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그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해야 했습니다(1:8; 마 28:19-20). 따라서 제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성한 능력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자동으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반대와 유혹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새롭게 호소했습니다(참조, 막 9:29). 그들은 또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모델입니다.

"기도는 책임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참된 기도는 봉사와 전투를 위해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2]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제 그들에게 닥쳐올 고난을 앞두고 교회에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결코 굴복시키지 못한 한 가지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산헤드린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위대한 신념이 들어왔고 그들의 삶에는 힘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3]

---

[1] Neil, p. 91.
[2] Wiersbe, 1:416.
[3] Barclay, p. 39.

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자들에 대한 심판이나 박해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의 "확신"과 능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참조, 사 37:16-20). 그들은 자신들의 최우선 과제가 복음이 필요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올바르게 인식했습니다.[1]

4:31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가 흔들리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할지 은유적으로 이해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참조, 출 19:18; 왕상 19:11-12; 사 6:4; 행 16:26). 어느 경우든, 모인 사람들은 이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의 청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신현을 나타내는 표징 중 하나였으며(출 19:18; 사 6:4), 기도에 대한 신적 응답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2]
>
> "'그 장소가 흔들렸고, 그로 인해 그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았습니다."[3]

앞서 베드로(8절)와 제자들(2:4)을 특징짓던 성령의 지배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증인으로서 "담대하게"(헬. 파레시아스, 자신감을 가지고, 솔직하게, 참조. 13, 29절) 말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또 다른 성령 침례가 아니라 단순히 새로운 충만함이었습니다.[4]

"누가복음 22:39-46에서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 베드로가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에 빠져 다음 위기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4:23-31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시 산헤드린의 위험한 반대에 직면합니다.

---

[1] Bock, *Acts*, p. 202.
[2] Marshall, *The Acts …*, p. 107.
[3] Chrysostom, Knowling의 인용, 2:136.
[4] Gromacki, *The Modern …,* p. 87 참조.

이제 그들은 이전에 들었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산헤드린 앞에서 베드로의 담대함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대조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기도에서 증거의 힘을 얻는 것도 누가복음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던 제자들과 대조됩니다. 이러한 대조는 나레이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를 묘사하는 데 기여합니다."[1]

2. 내부의 위기 4:32—5:11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초대 교회에서도 초기 성공 이후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적들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에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길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며, 앞의 부분은 단지 배경 설명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반대로 4:32-35은 생활의 패턴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 예시가 이어집니다."[2]

교회의 하나됨 4:32-35

이 짧은 구절은 누가복음 2장 44절부터 46절까지에 기록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나누고 팔고, 말로써 증거하는 것에 대해 누가복음이 앞서 기록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교회의 순결과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 이 설명을 기록했습니다(31절). 이것은 교회의 모범적인 삶을 묘사한 두 번째 요약 서술입니다(참조, 2:42-47; 5:12-16).[3]

4:32 신자들의 연합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까지 아우릅니다(참조, 마 22:37-39). 그들은 개인적인 소유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1] Tannehill, 2:71-72.
[2] Marshall, *The Acts* ···, p. 108.
[3] Chambers, pp. 85-99.

것을 사적인 소유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공동[Gr. *koina*, 참조, *koinonia,* 교제]의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관습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참조, 2:44, 46; 신 15:4). 그들의 단합은 서로에 대한 책임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그들이 재산을 나누도록 강권했습니다(참조, 요일 3:17-18).

> "그들의 관대함은 (현대 사회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적인 법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 의해 가능해진 진정한 마음의 연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1]

당시 예루살렘의 경제 상황은 기근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2]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고용 기회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4:33 신자들의 증인으로서의 위대한 힘은 수사적(설득력 있는 말하기)이고 기적적인 힘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참조, 요 13:35). 그들의 증인으로서의 삶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위치를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부활은 예언을 성취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참조, 2:29-32).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풍성한 은혜"는, 그들이 말하고 또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성한 능력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은혜와 같습니다(참조, 눅 2:40).

4:34-35 32절에 묘사된 자발적인 나눔은 관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언급된, 가끔씩 판 것은 분명히 예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참조, 2:45). 여기서 헬라어 불완전 시제 동사는 "때때로"를 의미합니다(NIV). 사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나누어 주는 일을 담당했습니다(참조,

---

[1] Kent, p. 50. Cf. Witherington, p. 206.

[2] Jeremias, *Jerusalem in* ···, pp. 121-22.

> 6:1-4).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행동(32절, 34-35절)과 말(33절)로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관대한 행동은 진심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동기에 대한 예입니다.

바나바의 관대함 4:36-37

누가는 이제 34절과 35절에서 그가 방금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바나바"에 대한 이 언급은 독자들에게 그를 소개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인물, 주로 선교사(사도)와 설교자로 등장합니다.[1] 또한 바나바는 5장에서 아나니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 4:36 바나바의 유대식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유대식 별명(가문 이름)인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Gr. *huios parakleseos*). 유대인들은 종종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예: "벨리엘의 아들"). 아마도 바나바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참조, 9:27; 11:22-30; 13:1-14:28; 15:2-4, 12, 22, 36-41; 고전 9:6).[2] 누가는 바나바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그를 더 구체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였을 뿐, 그를 의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레위인이 약속의 땅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민 18:24).
>
> "… 그 규칙은 더 이상 엄격하게 준수되지 않았고, 해외에 사는 사람들에

[1] S. Jonathan Murphy, "The Role of Barnabas in the Book of Acts," *Bibliotheca Sacra* 167:667 (July-September 2010):319-41 참조.

[2] Michael Pocock, "The Role of Encouragement in Leadership," in *Integrity of Heart, Skillfulness of Hands*, pp. 301-7 참조.

게는 적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1]

레위인들은 성전과 관련이 있었지만, 성전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들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참조, 4:1).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친척이 있었지만, 한때 키프로스 섬에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요한 마가와 마가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참조, 12:12; 골 4:10).

4:37 **바나바는 교회 지체들의 필요에 따라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땅" 일부를 "팔아"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 매각 수익금을 "사도들"에게 겸손하게 주어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바나바는, 새로운 주요 인물을 처음에는 작은 인물로 소개한 다음, 등장했다가 금세 사라지는 사도행전의 경향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빌립(행 6:5)과 사울(행 7:58; 8:1, 3)도 마찬가지로 서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전에 소개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서사를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며, 각각의 경우 소개 장면은 그 인물의 초상화에 중요한 요소를 더해 줍니다."[2]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 5:1-11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 시기에 교회가 죄 없는 공동체였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죄를 지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초창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축복뿐만 아니라 심판으로도 극적으로 역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이상화하지 않고 올리버 크롬웰이 말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3]를 그려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신자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본문의 주요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요 인물입니다. 누가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

[1] Neil, p. 94. Cf. Jer. 1:1; 32:6-15.
[2] Tannehill, 2:78.
[3] 전체 인용문은 *The Oxford Dictionary of Quotations*, 167:7 참조.

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1]

아나니아의 죽음 5:1-6

5:1-2 "그러나"는 바나바의 행동(4:37)과 마찬가지로 관대한 희생 행위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동기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아나니아의 유대인 이름인 하나냐는 "야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 삽비라의 아람어 이름인 "사피라"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행동이 위선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이러니한 이름이었습니다.

> "몇 년 전까지 성경 외의 다른 곳에서 삽비라라는 이름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33년에 여러 개의 납골당(죽은 사람의 뼈를 보관하는 상자)과 신약 성서 시대와 동시대의 다른 물건들에서 삽비라라는 이름이 쓰인 것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완벽하게 좋은 이름이고 이 시대에 맞는 이름임을 보여줍니다."[2]

헬라어 *nosphizo*("따로 떼어두다")는 또한 칠십인역에서 아간이 죄를 지은 기록의 시작 부분(수 7:1, "가져갔다"로 번역됨)에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는 바나바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도들에게 헌금을 드렸습니다(4:37).

5:3-4 아나니아는 성령이 자신을 채우시도록 허용하는 대신(참조, 2:4; 4:8, 31), "사탄"이 자신의 "마음을 통제(가득 채워짐)"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는 "마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이 이 일을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죄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

---

[1] Bock, *Acts*, p. 219.
[2] Free, p. 309.

다 더 큰 관대함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교회를 속임으로써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그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중요하게 동일시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아나니아의 죄는 그가 받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헌금을 잘못 드린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은 돈을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의 죄는 위선, 즉 거짓말의 한 형태였습니다.

>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기도했다면, 천 번을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설교할 수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할 수 없을 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척하는 것보다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가장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우며, 주 예수님만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 대신에 여전히 사람들이 설교자를 찬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1]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마찬가지로, 아간도 물질적인 소유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참조, 딤전 6:10; 딤후 4:10).

> "아나니아도 유다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대부분의 죄와 실패의 밑바탕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몬 마구스의 죄, 엘루마와 빌립보의 '주인들'과 에베소의 은세공업자의 죄, 에베소 개종자들의 결점, 벨릭스의 불의 등 말입니다. 아나니아도 *돈의 일부를 숨겨 두었습니다*."[2]

---

[1] Ironside, *Lectures on …*, p. 129.

[2] Rackham, p. 65.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것이 아닌 헌신을 하는 척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삶을 포기하는 척하는 등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 그들은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하신 것처럼 행동하신다면, 장의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자신이 하지 않은 선행을 자랑하거나, 하지 않을 선행을 약속하거나, 자신이 행하는 선행을 실제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잘 하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아나니아의 거짓말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1]

사도행전은 성령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3절), 사람들이 시험할 수 있는 분(9절), 증거를 하는 분 (32절), 저항을 받는 분 (7:51), 명령을 내리는 분 (8:29; 10:19; 13:2),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16:7), 말씀하시는 분(28:25)으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2]

5:5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죄를 지적했지만,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참조, 마 16:19). 누가는 의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그가 죄 때문에 즉시 죽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만 있었습니다. 헬라어 *ekpsycho*("죽다", 문자적으로, "숨을 거두다")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누군가를 치시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10절; 12:23; 참조, 삿 4:21, LXX, 여기서 시스라가 죽임당함). 아나니아의 죄는 육체적 죽음을 초래했습니다.[3]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였습니다(참조, 요일 5:16; 고전 11:30).

하나님께서 죄인을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하나

---

[1] Henry, p. 1652.
[2] Ger, p. 84.
[3] Stanley D. Toussaint, "Suffering in Acts and the Pauline Epistles," in *Why, O God? Suffering and Disability in the Bible and Church*, pp. 188–89 참조.

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자비심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 나답, 아비후 등 다양한 신자 그룹을 다루기 시작하셨을 때 가혹하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심판받은 자들의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참조, 고전 10:6). 또한 하나님은 항상 더 큰 특권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더 엄하게 다루십니다(참조, 눅 12:48; 벧전 4:17).

5:6 예수님의 장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즉시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일부 젊고 힘이 센 신자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매장할 준비를 했습니다.[1] 우리가 나사로와 예수님의 장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동굴이나 땅에 미리 파놓은 구멍에 묻혔습니다.

> "그러한 풍토에서는 죽은 후 곧장 매장되었고, 법적으로 필요한 의료 증명서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다."[2]

> "… 한 사람이 하늘의 손에 쓰러졌을 때(여호수아가 아간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수 7:25), 그의 시신은 반드시 신속하고 조용하게 무덤에 안치되어야 했다. 아무도 그를 애도해서는 안 되었다. 자살, 사회에 대한 반항, 파문, 배교, 유대인 법정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 장례를 치르지 않고, 서둘러 묻힐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위해 길고 번거로운 애도 의식을 치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3]

삽비라의 죽음 5:7–11

---

[1] Barrett, p. 269.

[2] F. F. Bruce, *Commentary on …*, p. 114.

[3] J. D. M. Derrett, "Ananias, Sapphira, and the Right of Property," in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Volume One*, pp. 198.

5:7 누군가 삽비라를 찾아 아나니아의 죽음을 알리려고 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누가가 글을 쓴 목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는 삽비라도 남편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같은 운명을 경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8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기꺼이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편의 죽음을 언급하며 미리 경고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정직하게 말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위선에 거짓말을 더했습니다.

5:9-10 베드로가 그녀에게 던진 "왜"라는 질문은 아나니아에게 던진 "왜"라는 질문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3절). "주님의 영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지, 즉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참조, 신 6:16; 마 4:7).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일부 독자들은 베드로가 삽비라와 아나니아를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3절), 이 문제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4:31)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인이었지만(3:6),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 "베드로는 가혹했고, 두 죄인의 운명은 충격적이었지만 위선에 대한 그리스도의 엄격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마 23장). ... 오래된 '바리새인의 누룩'이 작용하고 있었고, 성도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은 의도적으로 지도자와 친구들을 속이고, 그들이 받을 권리가없는 거룩함과 희생에 대한 명성을 쌓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랑과 모든 신뢰, 모든 성실을 위협하기 위해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인간의 형제애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대한 죄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곧바로 강력하

게 나타났습니다."[1]

5:11 누가는 이 사건들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끼친 냉정한 효과를 다시 강조했습니다(5절; 참조, 2:43).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간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23번 사용된 것 중 첫 번째입니다. 서방(베자) 헬라어 본문은 2:47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아마도 거기서는 잘못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헬라어 *ekklesia*(에클레시아)는 "불러 내어진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작가들이 정치 및 기타 다양한 유형의 모임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회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침례'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그리스도의 몸, 즉 보편적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특정 기간 동안 다양한 장소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예: 초대 교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특정 시기에 한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 그룹, 즉 지역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누가가 지리적 또는 다른 어떤 요건도 없이 '교회'에 대해 말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킵니다."[2]

성경 기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스라엘 민족과는 구별되는 실체로서 언급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언급은 야곱의 육체적 후손을 가리킵니다. 이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3]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

[1] Blaiklock, p. 69.

[2] F. F. Bruce, "The Church of Jerusalem in the Acts of the Apostles,"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University Library of Manchester* 67:2 (Spring 1985):641.

[3] Ryrie, *Dispensationalism Today*, pp. 132–55; 및 C. I. Scofiel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pp. 5–12 참조.

그들은 진실하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한 가지 방법인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가져 왔을 때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헌신적이라고 공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진실성이 부족했습니다.

> "우리는 교회에서 '흠과 주름'에 너무 익숙해져서 공동체 안팎의 첫 번째 죄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브의 타락과 함께 뱀이 에덴에 들어온 것에 해당하며, 이상(ideal)에서 처음 타락한 것은 사도들과 무리를 비틀거리게 했을 것입니다. ... 죄는 실제로 특정한 속임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3절 참조), 즉 위선과 비현실성이었습니다."[1]

일부 해석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정한 신자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그들이 진짜였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만큼이나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고의적으로 속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작가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결론을 내린 네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2]

> "신약 성경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고전 3:1-3; 갈 5:16; 엡 5:18)의 존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육체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육신을 끝까지 고집한 참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가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3]

3. 강력해진 외부의 반대 5:12-42

사도들을 통해 축복(3:1-26)과 심판(5:1-11)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점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대를 강화했던 것처럼 사도들에 대한 반대를 강화했습니다. 누가는 그 결과로 나타난 태도 변화에 대한 기록을 보존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더 질투하고 적대적이되었고 바리새인들은 적당히 반응하기로 선택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기쁨과 자신감을

---

[1] Rackham, p. 64.
[2] Kent, pp. 53-54 참조.
[3] Dillow, *The Reign* ···, p. 64. 참조, 고전 3:15; 5:5; 11:30; 히 10:29; 요일 5:16-17.

얻었습니다.

확대되는 사도들의 영향력 5:12-16

이 단락은 누가가 다음 내용을 소개하는 교회 상황을 요약한 또 다른 내용입니다(참조, 2:42-47; 4:32-35).[1] 또한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까지 체포할 정도로 질투심을 품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한 앉은뱅이의 치유가 처음에는 반대를 불러일으켰지만(3:1-10),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5:12 사도들의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통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앉은뱅이 거지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많은 궁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주었고, 사람들을 경외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신자들은 "솔로몬의 현관"에서 계속 모였습니다(참조, 3:11).

5:13 "나머지"(Gr. 호이 로이포이[*hoi loipoi*])는 아마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2] 다른 가능성은 그들이 사도들이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거나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대(4:18)와 사도들의 힘(1-10절)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이에 반응한 유대인들인 "백성"(Gr. 호 라오스[*ho laos*])은 신자들을 존중했습니다.

5:14 누가는 교회의 규모에 대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참조, 1:15; 2:41; 4:4), 하나님께서 교회에 남자와 여자 모두 "많은 수"를 끊임없이 더하고 계신다고만 말했습니다.

5:15 베드로의 강력한 영향력은 갈릴리 사역 초기에 모든 가버나움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던 예수님의 영향력을 떠올리게 합니다(막 1:32-34). 누가

[1] Chambers, pp. 101–14 참조.
[2] Kent, pp. 55–56 참조.

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누군가를 덮는 힘을 묘사했습니다(참조, 눅 1:35; 9:34). 본문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사람들을 치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능력이 너무 강력해서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1]

> "고대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그림자가 마법의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의 옹호자인 베드로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신앙에 자신들의 미신을 강요했습니다."[2]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은 사람의 그림자에 힘이 있다고 미신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이런 이유로 자녀를 악인의 그림자에서 떼어내어 명예로운 사람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기도 합니다. 이 1세기 근동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치유 도구였던 베드로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12절)는 사도들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증했습니다(참조, 19:11-12; 마 10:8).

> "모든 치유는 주님과 그분의 뜻에서 나오며, 사도들은 그분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3]

> "우리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기적을 행하는 매개체로 여겨졌다는(또는 분명히 암시된 것처럼 매개체였다거나) 사실에서 걸림돌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 성령님'이,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대로 어떤 도구로도 또는 아무 도구로도 일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손이나 목소리가 그림자보다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도구의 비유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믿음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처럼 믿음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가능성이 적은 매개체가 채택되었습니

[1] Barrett, pp. 276–77 참조.
[2] *The Nelson* …, p. 1824.
[3] Lenski, p. 210.

다."[1]

"저는 제 큰아들이 한때 신앙의 일렁임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 중 몇 명이 플로리다에 있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집에서 오후를 함께 보내도록 초대받았고, 저는 아들을 데려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방문 기간 동안, 우리는 2-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토론하고 성경의 귀중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 청년은 따로 앉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곳을 떠나자 그는 저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보였어요! 저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처럼 교육 수준이 높고 지적인 사람이 믿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척하는 것이 바보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그림자 사역입니다."[2]

5:16 **사도들의 권능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너머로 퍼져 나갔습니다. 외곽 지역에서 사람들이 "병든" 친구들을 데려오고, "더러운 영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멀리서부터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참조, 눅 5:15),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치유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했다는 뜻이지, 사도들이 모든 병자를 치유했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참조, 마 8:16). 예수님께서도 치유하신 범위는 제한적이었습니다(참조, 눅 5:17).[3]**

이 구절은 "번영의 복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증거로 호소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다른 본문으로는 출애굽기 15:26; 23:25; 시편 103:3; 잠언 4:20-22; 이사야 33:24; 예레미야 30:17; 마태복음 4:23; 10:1; 마가복음

[1] Alford, 2:2:53.
[2] Ironside, *Lectures on …*, p. 136.
[3] Deere, pp. 58-64.

16:16-18; 누가복음 6:17-19; 그리고 사도행전 10:38이 있습니다.[1]

이 부분(12-16절)은 4:32-35절과 매우 유사하지만, 이 요약문은 교회가 이전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서게 됨 5:17-33

사도들의 인기와 효과는 예수님의 인기와 효과가 그랬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유대 민족의 복음 거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17-42절]은 유대 관리들의 거부와 박해에 관한 내용을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2]

5:17-18 아마도 안나스였을(참조, 4:6) "대제사장이 일어나서(Gr. 아나스타스[*anastas*], 34절 참조)" 산헤드린의 지도자로서 공식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제사장과 대부분의 산헤드린 회원들은 사두개인(4:1)이었습니다. 성령이 신자들을 채웠고,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채웠으며, 이제 "질투"가 공의회 회원들, 특히 사두개인들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하여 "공공 감옥"(Gr. 테레시스 데모시아[*teresis demosia*])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27가지의 기독교인 박해 사례 중 하나입니다.[2]

>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에서 바리새인보다 신흥 종교에 더 적대적인 것으로 자주 묘사되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주요 반대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도시 밖에서 이루어졌던 것에서 예루살렘으로 관심이 옮겨졌음을 보여줍니다. 사두개인들은 의회를 장악하고 로마인들과 권력 분배를 위한 타협을 이루었기 때문에, 잃을 것들이

[1] 이 운동에 대한 비평은, Ken L. Sarles, "A Theological Evaluation of the Prosperity Gospel," *Bibliotheca Sacra* 143:572 (October–December 1986):329–52 참조.

[2] Ladd, "The Acts …," p. 1133.

더 많았습니다."[1]

"사두개주의와 바리새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합리주의와 의식주의로 대표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 있고 활력 있는 기독교의 반대자들입니다."[2]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는 위장 아래 얼마나 많은 질투심이 숨겨져 있는지 놀랍습니다."[3]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로 언급되어 왔지만, 이제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들"(복수)이 "공의회"(산헤드린, 25절, 27절, 29절)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따라서 17절로 시작되는 이 사건 전체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상의 사도들이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5:19 "천사"라는 단어(Gr. 앙겔로스[*angelos*])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곳에서는 메신저가 인간인지 영인지에 대한 문맥이 보통 결정적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메신저를 사용하셨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요점은 주님께서 사도들의 석방을 확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신저의 메시지는 매우 권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므로 아마도 그는 영적 존재였을 것입니다(참조, 12:6-10; 16:26-27).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세 가지 "감옥 문 기적" 중 하나입니다(참조, 12:6-11의 베드로, 16:26-27의 바울과 실라).

"너무 어둡고 너무 강한 감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백성을 찾아오실 수 있고, 그곳에서 그들을 데려오실 수 있습니다."[4]

5:20 천사는 사도들에게 "가라"(Gr. 포류에스테[*poreuesthe*])고 지시하고, 그곳에 "서라"(스타텐테스[*stathentes*])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의

---

[1] Bock, *Acts*, pp. 237–38.
[2] Morgan, *The Acts …,* p. 129.
[3] Wiersbe, 1:424.
[4] Henry, p. 1654.

반대에 저항하고 성전 뜰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던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물러서거나 말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와 동의어입니다(참조, 4:12; 13:26).[1] 헬라어 조에(*zoe*, "생명")와 소테리아(*soteria*, "구원")는 모두 같은 히브리어 *하야*(*hayyah*)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5:21 사도들은 지시자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의회 전체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아직 감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22-23 사도들을 재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성전 경찰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장면은 옛날의 키스톤 캅스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을 쉽게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 기적에 완전히 놀란 것 같습니다.

5:24 지도자들("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사건이 알려질 때 일어날 대중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사실보다 자신들의 명성과 안전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그들이 이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로 자라게 될지, 그리고 유대교의 나무가 그 옆에 비하면 얼마나 작아질지 알았더라면!"[2]

5:25 결국 산헤드린에 포로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도들이 도시를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5:26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대장과 성전 경찰은 사도들

---

[1] Longenecker, p. 319.
[2] Robertson, 3:64-65.

을 해치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최근 많은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처럼 지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할 때, 그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체포하는 방식에 신중을 기했습니다(눅 20:19; 22:2).

아마도 사도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보여 주신 비폭력과 비응보의 모범을 기억했기 때문에(눅 22:52-53) 그 대장과 그의 부하들을 복종적으로("폭력을 쓰지 않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감시하던 병사들의 능력도 그들 자신보다 열등했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출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5:27-28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권위를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참조, 요 19:10-11). 대제사장은 주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이 이름"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공식적인 반대는 확고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산헤드린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크다고 믿었습니다(참조, 마 28:18).

지도자들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4:18, 21),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가 더 크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4:19-20).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비난했습니다(4:10-11). 이 통치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죄를 합리화하여, 아마도 예수님 자신과 로마인들을 비난했을 것입니다(참조, 3:15). 유대인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들은 빌라도에게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를!"라고 말했습니다(마 27:25; 참조, 마 23:35).

5:29 이 구절은 당국이 베드로와 요한 외에 다른 "사도들"을 체포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사도들의 대변인인 베드로는 그들의 시민 불복종을 옹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보다(특히 산헤드린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을 반복했습니다(4:19; 눅 12:4-5과 비교).[1] 이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베드로의 네 번째 연설입니다.

5:30 베드로는 또한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으며, 그분이 극도로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한 것은 산헤드린의 책임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다"는 말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참조, 신 21:22-23; 벧전 2:24).

5:31 베드로는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 즉 "그의 오른편"으로 "높이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에게 그가 그리스도인지 물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참조, 눅 22:67-71).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통치자"(지도자, 메시아)이자 유대인들의 개인적, 집단적 "구원자"(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한 "회개"(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실 권한이 있었고, 따라서 "죄의 용서"를 허락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에 대한 권한은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 이래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항해 왔던 것이었습니다(눅 5:20-24).

5:32 사도들은 자신들을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지금 증언하는 것을 목격자("증인")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성령"의 증언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였으며, 성령은 성취된 메시아 예언을 통해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겠다고

---

[1] Charles C. Ryrie, *Biblical Answers to Tough Questions*, ch. 1: "The Question of Civil Disobedience," pp. 9–22 참조.

약속하신 성령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요한복음 15:26-27).

사도들은 성령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 즉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요 6:29). 성령은 또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참조, 민 11:17-29, 삿 3:10, 삼상 16:13, 눅 11:13).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고, 그렇게 하면 그들도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복음 전파자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 사항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아들을 믿으라고 '명하셨습니다'(예: 2:38; 3:19; 17:30).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에 해당하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주시고 그 안에 거하십니다(요 3:36; 6:29; 롬 8:9).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염두에 두었던 순종일 것입니다.

5:33 베드로의 단호하면서도 은혜로운 말은 사두개인들을 격분시켰고, 그들은 이제 대중의 반응에 관계없이 사도들의 죽음을 명할 참이었습니다.

> "산헤드린은 로마 관할 하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지만, 가말리엘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의 개입이 없었다면, (예수님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의심할 여지없이 이 사람들을 로마에 넘길 수 있는 구실을 찾았을 것입니다."[1]

가말리엘의 현명한 조언 5:34-40

가말리엘이 중용을 말한 것은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두 번째로 출두한 기록을

[1] Longenecker, p. 321.

기록한 누가의 주요 요점이자 이유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반대하여 "일어난" 반면(17절), 가말리엘은 사두개인들을 반대하며 "일어났"습니다(34절). 그는 이 시기에 사도들과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연설로, 비기독교인이 한 연설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5:34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6,000명 이상의 바리새인이 있었지만, 그들은 산헤드린에서 소수파였습니다.[1] 그들은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보다 대중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개인으로서의 메시아를 찾았고, 죽은 자의 부활 및 천사와 악마의 존재와 활동을 믿었으며, 사두개인들의 호화로운 생활과는 대조적으로 단순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2]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분리하다"라는 뜻의 아람어 동사 *peras*에서 유래한 것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존재로 여겼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했습니다. 당시의 성경 교사들 대부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 특히 가말리엘의 말을 따랐습니다.

> "요컨대, 신학적으로 기독교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3]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분파 중 하나인 힐렐파의 좀더 자유주의적인 분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힐렐의 제자였으며, 힐렐은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었습니다.[4] 다소(Tarsus)의 사울은 가말리엘의 유망한 젊은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행 22:3). 사람들은 그를 랍반 가말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반(Rabban, 문자적으로 "우리 선

---

[1] Josephus, *Antiquities of …*, 17:2:4.
[2] Ibid., 13:5:9; 18:1:2–3; idem, *The Wars …*, 2:8:14.
[3] Witherington, p. 234.
[4] Neil, p. 98; Kent, p. 58; Witherington, p. 233.

생님")은 랍비(Rabbi, 문자적으로 "나의 선생님")보다 더 높은 존경의 칭호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아마도 당대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이었을 것입니다. 서기 2세기 말경에 출판된 이스라엘의 구전 율법에 대한 주석 모음인 미슈나(Mishnah)에는 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 "랍반 가말리엘 장로가 죽은 이후로 율법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고, 동시에 순결과 절제가 사라졌습니다."[1]

가말리엘은 산헤드린을 자신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통해 지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산헤드린 내에서 어떤 우월한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5:35-36 사도들이 회의실을 떠난 후, 가말리엘은 동료들에게 전통적인 호칭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참조, 2:22). 그는 형제들에게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죽었을 때 실패한 두 가지 유사한 움직임을 지적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가말리엘이 언급한 "드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그가 헤롯 대왕이 죽은 직후(주후 4년경)에 두각을 나타냈을 수도 있습니다.[2] 요세푸스는 드다라는 사람이 이끄는 반란을 언급했지만, 이 반란은 가말리엘의 연설 이후 10년 이상 후에 일어났습니다.[3]

5:37 "갈릴리의 유다"는 주후 6년에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이끌었습니다.[4] "인구조사"는 아마도 주후 6년에 시리아 총독인 퀴리니우스가 실시한 것으로, 아켈라오스가 폐위되고 유다가 로마의 시리아 지방의 일부가 되었을 때 실시되었을 것입니다.[5] 유다는 로마의 통치를 폭력적으로 타도하려는 열

---

[1] Mishnah *Sotah* 9:15. Cf. F. F. Bruce, *Commentary on …*, p. 124.
[2] 이 드다의 신원 문제에 대한 논의는 Longenecker, p. 228를 참조하거나, 보수적 주석서들을 참조.
[3] Josephus, *Antiquities of …,* 20:5:1. 또한 Eusebius, 2:11:61 참조.
[4] Josephus, *Antiquities of …,* 2:8:1; 18:1:1, 6; idem, *The Wars …,* 2:4:1; 2:8:1.
[5] Neil, p. 100.

심당 운동을 이스라엘에서 창시했습니다.

> "유다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광신도였다. 그분에게만 공물이 바쳐져야 하고, 다른 모든 세금은 불경한 것이며, 그것을 내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였다."[1]

유다의 영향력은 상당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그 영향력이 감소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다의 영향력을 그에 걸맞지 않게 다소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5:38-39 가말리엘의 요지는 만약 사도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분명히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만일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산헤드린은 그들을 반대함으로써 "하나님과 싸우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이론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기다려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도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소의 사울은 기독교의 위협이 커지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처형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숫자와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였습니다(참조, 6-7장).

> "가말리엘이 지적한 … 요점은 이미 내레이터가 감옥에서 구출되고 그 후 발견되는 장면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복을 통한 강화의 사례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먼저 사건을 통해 암시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

[1] Barclay, pp. 48-49.

속 인물의 해석적 논평을 통해 명확하게 명시됩니다."[1]

가말리엘의 조언은 당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도들 외에도 지도자들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이 대변한 많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설교를 선의는 있지만 잘못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의 드다 혹은 갈릴리의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 외에는 근본적인 바리새교 신학을 도전하지 않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인 경전에 대한 구전 전통의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가말리엘은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로도 설득되지 않는 부류의 사람에 속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증거, 더 많은 표적(마 12:39) 등을 요구합니다."[2]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거나, 비밀리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전통은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성 크리소스톰의 말에 공감할 수 있지만, '그가 끝까지 불신앙을 유지했을 리 없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탈무드는 그가 유대인으로 죽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그가 신앙을 배반했다면 유대 전통이 그의 이름에 부여하는 명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5:40 **가말리엘은 동료 산헤드린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기로 결정했고, 아마도 39번의 채찍질로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신 25:3; 행 22:19; 고후 11:24). 미슈나에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어떻**

[1] Tannehill, 2:66.
[2] Lenski, p. 235.
[3] Knowling, 2:162.

게 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1] 이 채찍질은 산헤드린의 설교 중지 명령(4:18)을 불순종한 것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한 최초의 사례로, 그리스도인들이 증언을 이유로 신체적 구타를 당한 것입니다. 또한 통치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위협하고 "그들을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참조, 4:21).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는 계속 유효했습니다.

사도들의 반응 5:41-42

5:41 사도들은 회개하거나 낙담한 채로 나타나기보다는 "기쁨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매맞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불명예를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참조, 3:6; 16:25).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기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 5:10-12; 눅 6:22-23). 베드로는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겨야 한다고 썼습니다(벧전 4:13; 참조, 2:18-21; 3:8-17; 빌 1:29). 주님이 원수들의 모욕을 당하셨듯이, 그분의 종들도 그들의 증언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5:42 이런 대우를 당해도 사도들은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일 "가르침"(Gr. *didasko*)과 "선포"(복음전파, *euaggelizomai*)를 계속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성전에서", 개인적으로는 "집집마다"(참조, 2:46)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참조, 28:31).

> "이 구절[42절]은 도전, 자신감, 승리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선언이며, 여러 면에서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을 한데 모아 놓은 것입니다."[2]

---

[1] Mishnah *Makkoth* 3:10-15a.

[2] Longenecker, p. 325.

4. 내부 갈등 6:1-7

제6장에서는 사탄이 역사적으로 교회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즐겨 사용해 온 두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분열(1-7절)과 외부 박해(8-15절).

1절부터 7절까지의 장면은 교회 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참조, 4:32—5:11). 누가는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 필요해진 행정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 구절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방인 전도에 주도적 역할을 한 헬레니즘 유대인들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여기서 기록된 사건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6:1 예수님의 제자 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28번, 복음서에서 238번 정도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계셨거나, 하늘로 올라가신 직후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관련지어 언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후에 그들은 서로와 사회와의 관계로 그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1]

예루살렘 교회는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에서 주로 살았던 원주민 "히브리인"으로,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그리스어도 사용했으며 히브리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원래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살았던 유대인(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중 많은 수가 고향 땅에서 생을 마치고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했으며, 거주했던 지역의 언어도 사용했고,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나중에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지역 밖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히브리인 중 한 사람이라고 분류했습니다(고후 11:22; 참조, 빌 3:5).

[1] Blaiklock, p. 74.

> "일반적으로 말해, 아람["히브리"] 신학에서는 그리스 요소보다 동방 요소가 우세했으며, 바빌론의 영향은 성 베드로의 삶과 성 바울의 삶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1]

히브리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기본적인 구분은 언어적 차이에 있었습니다.[2] 셈족어를 말할 수 있는 이들은 히브리인이었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3]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헬라파 유대인의 주요 지적 대표자였습니다. 유대교 내에서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자주 긴장이 발생했으며, 이 문화적 문제는 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히브리인은 모세의 율법을 헬라파 형제들보다 훨씬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매우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각각의 회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4]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의 교제 모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참조, 엡 4:31; 히 12:15). 불만은 교회 "과부들"에게 음식 분배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참조, 2:44-45; 4:32-5:11). 과부와 빈곤층을 돌보는 것은 유대교에서 우선순위였습니다(출 22:22; 신 10:18; 등).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회당에서 매주 자기들의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5]

---

[1] Howson, p. 30.

[2] Witherington, pp. 240–43.

[3] C. F. D. Moule, "Once More, Who Were the Hellenists?" *Expository Times* 70 (October 1958–September 1959):100.

[4] *The Jewish Encyclopaedia*, s.v. "Alexandrians in Jerusalem," by Emil Schürer, 1:371–72. 또한 Alfred Edersheim, *Sketches of Jewish Social Life in the Days of Christ*, ch. xvi: "Synagogues: Their Origin, Structure, and Outward Arrangements 참조.

[5] B. W. Winter, "Providentia for the Widows of 1 Timothy 5:3–16," *Tyndale Bulletin* 39 (1988):89. See also Barclay, p. 50; Emil Schürer,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in the Age of Christ*, 2:437, n. 49; and Jeremias, *Jerusalem in* ⋯, pp. 126–34.

"...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이전에는 성전 금고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합류하면서 이러한 도움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여기서 불평이 과부들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성과 돈은 교회 생활에서 첫 번째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2]

6:2 **12사도는 이 과부들에 대한 교회 사역의 책임을 교회 내 다른 자격 있는 남성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요 임무에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발 앞에 놓인 돈으로 인해 설교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등에 맞은 채찍으로 인해 설교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역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사역자는 이 세상의 일, 아니, 하나님의 집의 겉으로 보이는 일에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3]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열두 사도"에 대한 유일한 언급입니다(참조, 고전 15:5), 비록 루카는 이전에 "열한 사도"라고 언급했습니다(2:14). "상을 섬기는 것"은 과부들에게 사역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히 웨이터나 분배자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참조, 마 21:12; 눅 19:23).[4]

6:3-4 **교회 지도자들은 회중에게 "일곱 남자"를 추천("선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 방법을 차기 교회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적용하며, 이 모델을 기반으로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회중이 집사들을 추천하고 장로들이 그 중 일**

---

[1] Knowling, 2:166.
[2] Robertson, 3:72-73.
[3] Henry, p. 1657.
[4] Longenecker, p. 331.

부 또는 전원을 임명합니다. 이 방법은 유대교에서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새롭게 고안한 지도자 선출 방법은 아니었지만, 교회에게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 "일곱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일곱 명의 존경받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의회에서 공공 업무를 관리하던 전통에서 유래한 것일 수 있습니다."[1]

이 사람들은 각각 "좋은 평판"을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성령으로 충만함"), "지혜로" 충만함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닌 인격적 특성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참조, 딤전 3:1-13; 딛 1:5-9). 그러면 12 사도는 그들의 주요 책임, 즉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이것은 상을 섬기는 일이 기도와 가르침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점은 12 사도들이 특별히 부름받은 임무는 증언과 전도라는 것이었습니다."[2]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인간 사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신 주요한 방법입니다.

> "여기서 사도들이 그들의 사역에서 설교보다 기도를 우선시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사도들은 기도를 통해 악의 세력과 더 특별히 싸웠고, 필요한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2

>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섬김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맡기신 가장 역동적인 사역이지만, 신자들에게 열려 있는 사역 중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

[1] Toussaint, "Acts," p. 367.

[2] Marshall, *The Acts …*, p. 126.

> 성경은 믿음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대의를 전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초기 사도들의 영적인 능력과 영광스러운 승리에 놀라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힘의 비밀이 끊임없는 기도 생활에 있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초기 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도의 진리와 실천을 중요한 원동력으로 회복해야 합니다."[1]

6:5 **회중이 선택한 일곱 사람은 모두 그리스 이름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 이름만 기록함으로써 이 일곱 사람이 교회 내 헬라파 유대인 그룹 출신임을 암시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유대인 중에도 그리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2]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을 해결하는 책임을 맡은 것은 현명한 접근이었습니다.**

> "한 주석가는 이를 '소수자 우대 조치의 첫 번째 사례'라고 불렀습니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일반적으로 불만을 품은 소수 집단을 억압했지만, 여기서는 사도들이 전체 체계를 상처받은 소수 집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3]

"스데반"과 "필립"은 사도행전 후반부에 각각 변증가와 전도자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등장합니다. 누가는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는 이교도였지만 "개종자"의 과정을 거쳐 유대인이 된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으로, 누가는 안디옥이 나중에 기독교의 중심지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이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안디옥은 누가의 고향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니골라는 니골라당 교리(계 2:6, 15)와 연결되지만, 이 연결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문스럽습니다. 시리

---

[1] 3D. Edmond Hiebert, *Working With God: Scriptural Studies in Intercession*, pp. 19-20. 단락 구분 생략.

[2] Knowling, 2:170.

[3] Witherington, p. 248. 그의 인용문은 Craig Keener, *Bible Background Commentary*, p. 338에서 인용됨.

아에는 유대인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안디옥 도시에서 살았습니다.[1]

6:6 누군가에게 "안수"하는 행위는 축복을 내리는 것을 상징했습니다(창세기 48:13; 등). 또한 이는 그 사람과의 동일시(레위기 1:4; 3:2; 등), 후계자로서의 임명(민 27:23), 그리고 권위의 부여(8:17-19; 9:17; 13:3; 19:6; 딤전 4:14; 5:22; 히 6:2)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서는 임무에 대한 위임이 강조되며(참조 13:1-3), 교회 역사에서 나중에 등장한 공식적인 성직 임명과는 다릅니다.[2] 이 의식에는 기도가 관습적으로 동반되었습니다.

많은 성경 연구자들은 이 일곱 사람을 교회의 첫 번째 집사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을 "집사"라는 용어로 묘사하지 않습니다(참조, 21:8). 헬라어 단어 *diakonos*("집사")는 사도행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단어의 관련 형태는 이 단락을 포함해 다른 곳에서 사용됩니다. *diakonia*("섬김"과 "사역")는 1절과 4절에 등장하며, *diakonein*("섬기다")는 2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일곱 남자가 나중에 집사 직분이 발전하는 단계임을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직분의 모델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분은 일반적으로 기능에서 비롯됩니다.

집사의 역사적 기원은 유대인의 사회적 생활에 있습니다. 참고로 장로 직분의 역사적 기원은 유대인의 시민적 및 종교적 생활, 특히 최근에는 회당 조직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필요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익숙했던 유대 문화의 조직적 특징을 일부 채택했습니다.[3]

> "초기 교회는 문제를 겪었지만, 사도행전에 따르면 부패를 막고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한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서로 열린 마음

[1] Irena Levinskaya, *The Book of Acts in Its Diaspora Setting*, p. 128.
[2] Witherington, p. 251; Foakes-Jackson, p. 54.
[3] Phillip W. Sell, "The Seven in Acts 6 as a Ministry Team," *Bibliotheca Sacra* 167:665 (January-March 2010):58-67 참조.

으로 듣고 선의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했습니다."[1]

6:7 이 구절은 사도행전의 각 주요 섹션을 마무리하는 누가의 요약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참조, 2:47; 9:31; 12:24; 16:6; 19:20; 28:31). 이 구절은 이 책의 이 섹션 내 다른 요약 단락과도 대응됩니다(참조, 4:32-35; 5:12-16).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산과 교회 성장을 연결지었습니다.[2] 이러한 인과 관계는 역사를 통틀어 계속되어 왔습니다. 복음의 전진과 사람들의 반응은 3:1부터 6:7까지에서 누가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 중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 저자는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약 2,000명의 제사장이 살았다고 추정했습니다.[3] 복음은 이스라엘의 "평신도들"만을 설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평범한 제사장들은 사회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복음에 대한 주요 반대 세력인 부유한 대제사장 가족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평범한 제사장들 중 상당수는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같이 거룩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었고, 복음의 진리를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4]

이 단락은 초기 교회의 우선순위에 대해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첫째, 교회는 영적 필요와 육체적 필요 모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영적 필요(기도와 말씀의 사역)를 우선으로 생각했지만, 불의를 바로잡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윤리적 요구를 따르기로 결심했음을 반영합니다(참조, 마 22:37; 막 12:30; 눅 10:27).

---

[1] Tannehill, 2:81.

[2] Benjamin R. Wilson, "The Depiction of Church Growth in Act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60:2 (June 2017):317–32 참조.

[3] Fiensy, p. 228.

[4] F. F. Bruce, *Commentary on …*, pp. 131–32. Cf. Jeremias, *Jerusalem in …*, pp. 198–213.

둘째, 초기 교회는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 구조와 행정 절차를 적응시키는 데 기꺼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구조와 관행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복음 전파와 교회의 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적인 구조와 방법을 적응시켰습니다. 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초기 교회의 형태와 기능을 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따르도록 구속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 초기 교회는 현대 교회가 실천하는 일부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제자들은 불의를 바로잡고 기도 및 말씀 사역을 우선시했습니다. 교회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해야 한다는 보호주의적 태도 대신, 사도들은 교회 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에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에게 분배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1]

7절은 예루살렘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그 도시에서 복음은 유대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누가는 다음 장들에서 그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II.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6:8—9:31

사도행전의 이 다음 주요 부분에서 누가는 초기 교회의 삶과 사역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스데반의 순교, 빌립의 사역, 그리고 다소 출신 사울의 회심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들을 주로 전기적 방식으로 서술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각 사건의 기록을 그 사건의 주요 인물의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6:8; 8:5; 9:1). 이 사건들이 발생한 시기는 이 책의 앞 장에 기록된 사건들 직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스데반의 순교 6:8—8:1A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둘러싼 사건들을 다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흩어지게 하신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기록은 또한 그 당시 교회의

[1] Longenecker, pp. 331–32.

영적 힘과 활력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기록된 스데반의 경험은 앞의 장에서 베드로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경험과 비슷합니다.

1. 스데반의 체포 6:8—7:1

6:8 스데반은 "은혜로 충만" (참조, 4:33; 눅 4:22)했고 "능력" (참조, 2:22; 4:33)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 (3, 5절)하고 "지혜" (3절)와 "믿음" (5절)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기적("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의 능력은 그가 일곱 제자 중 한 명으로 지명된 것(5절, 21:8 참조)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참조, 2:22; 43; 5:12).

6:9-10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회당이 존재했습니다(참조, 24:12). 탈무드는 로마가 도시를 파괴하기 전에 39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1] 다른 랍비 문헌은 그 수를 460과 480으로 추정하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일 수 있습니다.[2] 오늘날의 지역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회당들은 유사한 배경과 선호도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어떤 형태의 노예제나 노역에서 해방된 많은 가족들이 "해방된 자들의 회당"을 채웠습니다. 알포드(Alford)는 이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로 티베리우스에 의해 로마에서 추방된, 해방된 유대인의 후손들이었다고 믿었습니다.[3] 일부 학자들은 이 언급에 최대 5개의 회당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단 한 개의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4]

> "해방된 사람들(*Freedmen*)은 로마의 포로(또는 그 후손)로, 나중에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이 많았고 나중에 로마에서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1] Fiensy, p. 234 참조.
[2] Edersheim, *The Life …,* 1:119 참조.
[3] Alford, 2:2:65.
[4] Riesner, pp. 204-6 참조.

있으며,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이 그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1]

이 사람들은 북아프리카("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와 소아시아("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스데반 자신도 이 그룹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출신인 사울은 길리기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에 출석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해방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으로 태어났습니다(22:28).

이 회중의 지도자들은 복음을 옹호하는 "스데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마도 그도 이 회당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논쟁에서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열두 사도 중 한 명이 아니었지만, 믿음을 옹호하는 데 특출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후대 변증가들의 선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혜로운 스데반이 말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참조,눅 21:15).

"그들 [스데반을 비판한 사람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대적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2]

이 대립이 처음 발생한 장소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회당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자들이 성전(뜰)과 집집마다에서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읽었습니다(5:42). 바울은 선교 여행 중 복음을 전파한 도시에서 보통 먼저 회당에서 설교했습니다.

"전체 교회에 대한 사도들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아마도 다른 일곱 명 중 일부는 헬라파 신자들에게 사도들이 토착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랬던 것과 같은 역할을 했을지도

[1] Marshall, *The Acts* …, p. 129. 또한 Barrett, pp. 323–24; 및 Robin G. Thompson, "Diaspora Jewish Freedmen: Stephen's Deadly Opponents," *Bibliotheca Sacra* 173:690 (April–June 2016):166–81 참조.
[2] Henry, p. 1658.

모릅니다."[1]

6:11 지적인 논증으로 스데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그의 적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마 26:61, 65 참조). 헬라어 단어 *blasphemia*는 "비방, 중상,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의미합니다.[2]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모독을 모든 반항적인 죄로 정의했습니다.[3]

6:12 스데반을 고발한 자들은 유대인 "백성", 유대인 "장로들"(가문과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바리새인들)을 스데반에게 맞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병사들은 스데반을 체포하여 예수님, 베드로, 요한 및 다른 사도들에게 행한 것처럼 "공의회"(산헤드린) 앞에 데려갔습니다(4:15; 5:27; 참조, 22:30).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사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고 읽었지만,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6:13-14 스데반에 대한 "거짓" 증언은 그가 성전("이 거룩한 곳")과 모세의 율법에 대해 유대인들이 거짓이고 애국적이지 않다고 여긴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참조, 마 26:59-61). 스데반은 바리새인들의 권위, 모세의 율법, 사두개파의 주요 가르침, 즉 성전의 중요성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조, 마 5:21-48; 12:6; 24:1-2; 막 14:58; 요 2:19-21).

> "예수님에 대한 유사한 고발(마 26:61; 막 14:58; 참조, 요 2:19-22)과 마찬가지로, 그 거짓은 전체적인 날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바를 미묘하고 치명적으로 왜곡한 데에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스데반은 메시아인 예수님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유대인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자신의 태도와 메시지에

[1] Longenecker, p. 335.
[2] *A Greek-English Lexicon …, s.v. blasphemia*, p. 102.
[3] Gustaf H. Dalman, *The Words of Jesus*, p. 314.

서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 율법의 부수적인 중요성을 표현했습니다. 그 전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막 2:23-28; 3:1-6; 7:14-15; 10:5-9). 그러나 이는 성전 파괴나 율법 변경을 옹호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직접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1]

"누가에게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오랜 전통을 지닌 가르침과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사용하는 신자들의 태도가 모든 차이을 만듭니다."[2]

6:15 **누가는 "그의 얼굴"에 주목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 즉 그로 인해 드러난 그의 자신감, 침착함, 용기를 강조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본 후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났습니다 (참조, 7:55-56; 출 34:29, 35). 아마도 스데반의 청중들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스데반이 모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얼굴은 "신성한 광채"로 빛났을 것입니다.[3]**

스데반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듣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전함으로써, 천사(하나님의 전달자)처럼 보일 뿐 아니라 천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천사의 중재를 통해 맺어졌습니다(신 33:2 LXX; 참조, 히 2:2). 이제 새 언약에 대한 계시는 행동하고 심지어 외모도 천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한 사람의 말이 그분에게서 나온 것임을 청각적(스데

---

[1] Longenecker, p. 336.

[2] Francis D. Weinert, "Luke, Stephen, and the Temple in Luke-Acts," *Biblical Theology Bulletin* 17:3 (July 1987):88.

[3] Alford, 2:2:66.

반의 말)과 시각적(그의 외모)으로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7:1 "대제사장"은 아마도 그 당시의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의미하지만, 안나스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참조, 4:6).[1]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앞에 따로 서서 비슷한 혐의를 받았었습니다(요 18:13-14, 24; 마 26:57).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한, 그리스도인들이 산헤드린 앞에서 자신의 설교를 변호한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의회에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참조, 4:15, 5:27).

2. 스데반의 연설 7:2-53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은 대부분의 히브리 유대인들보다 복음에 대한 보편적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넓은 시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더 집착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그를 체포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산헤드린에서 무죄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개인적인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받아들인 새로운 예배 방식에 대한 변증(변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 "표면적으로는 스데반이 재판을 받은 혐의와 거의 관련이 없는 유대인의 역사를 지루하게 나열한 것[참조, 13:16-33]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 제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열을 알리는 미묘하고 능숙한 복음 선포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한 옛 믿음과 새 믿음의 차이를 더 날카롭게[침투적이고 집중된]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2]

누가는 이 연설을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연설로 기록함으로써, 이 새로운 예배 방식을 완전히 설명하고 옹호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제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과 행동에 헌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영광의 하나님"에

---

[1] 5:6에 대한 주석 참조.

[2] Neil, pp. 107-8.

대한 언급으로 시작(2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언급으로 끝납니다(55절).

스데반의 변론 형식은 그의 문화에서는 일반적이었지만 서구 문화에서는 드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검토하고 그 역사 속 요소 중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로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 다윗과 솔로몬 같은 뛰어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의 첫 번째 부분(2-16절)은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를 다루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비난을 반박합니다(6:11). 두 번째 주요 부분(17-43절)은 모세와 율법을 다루며, 모세를 모독했다는 비난(6:11)과 율법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한 반박(6:13)을 다룹니다. 세 번째 부분(44-50절)은 성전을 다루며, 성전을 비방한 혐의(6:13)와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바꾸실 것이라고 말한 혐의(6:14)에 대해 반박합니다. 스데반은 연설의 절정에서 그의 굳은 마음의 청취자들을 고발하는(그들에 대한 비난) 결론으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51-53절).[1] 롱게네커(Longeneker)는 스데반의 주요 주제를 땅(2-36절), 율법(37-43절), 성전(44-50절)로 요약했으며, 결론적인 고발(51-53절)을 추가했습니다.[2]

>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의 메시지가 구약의 계시와 완전히 일치하며 그 계시의 정점임을 보여 주려고 노력했습니다."[3]

구체적으로, 스데반의 목적은 또한 예수님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으로서 경험한 것과 동일한 것을 경험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그들을 이스라엘과 세계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사람들로 인정했듯이, 예수님도 이스라엘과 세계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사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 명의 족장이 하나님의 대표자로 찾아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모두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역사와도 동일

---

[1] Brian Peterson, "Stephen's Speech as a Modified Prophetic *Rib* Formula,"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7:2 (June 2014):351–69 참조.

[2] Longenecker, pp. 337–48. 스티븐의 변론 연설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은, Witherington, p. 260–66 참조.

[3] Kent, p. 66.

합니다.

스데반은 70인역(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이 성경은 그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번역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요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이 연설에는 세 가지 생각이 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1. 하나님의 계획에는 발전과 변화가 있습니다. … 2.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땅과 성전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3. 과거의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사람들을 반대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1]

하나님에 대한 스데반의 견해 7:2-16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고발했습니다(6:11). 스데반은 산헤드린에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절대적으로 정통적임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족장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재고해야 할 하나님과 족장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7:2-8

스데반은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약속인 아브라함 언약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7:2-3 스데반은 산헤드린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내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하고, 듣는 사람들을 “형제들, 아버지들”이라고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참조, 22:1). 이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형제들이었고, 민족의 연로한 지도자라는 점에서 그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시편 29:2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따왔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위엄 있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

[1] Toussaint, "Acts," p. 369. 이탤릭체와 단락 구분은 생략.

내시는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참조, 창 15:7, 느 9:7). 창세기 12:1부터 3까지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타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은 아브람이 하란에 있을 때 그에게 온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창 11:31-32). 스데반은 창세기 12:1의 70인역 번역본을 인용했습니다.[1] 랙햄(Rackham)에 따르면, 이것은 스데반의 연설에서 발견되는 15가지 역사적 문제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이전의 계시에 추가된 내용과 명백한 모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2]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르셨는지, 아니면 하란에 있을 때 부르셨는지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의 해결책이 가능합니다. 첫째,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처음 부르셨다는 유대인의 전통을 언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3] 둘째, 그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한 것을 한 사건으로 요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는 창세기 15:7을 우르를 떠나라는 아브라함의 첫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4]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유대인들에게 성지가 되었고, 스데반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그 땅을 지나치게 숭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들이 스데반과 같이 그곳에서 평생을 살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멸시한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선물인 그 땅이, 유대인들에게 정통성이 그 땅에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믿게 하는 부당한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

[1] Barrett, p. 342.

[2] Rackham, pp. 99-102. 4절, 14절, 16절, 및 43절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은, Gleason L. Archer, *Encyclopedia of Bible Difficulties*, pp. 378- 82 참조.

[3] Knowling, 2:179-80.

[4]

7:4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구체적으로는 칼대아인의 우르(참조, 창 15:7; 수 24:3; 느 9:7)를 떠나,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북쪽 끝에 있는 "하란"에 임시로 정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남쪽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스데반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창 12:5).

> "창세기(11:26, 32; 12:4)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 6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남이 아니었지만, 가장 유명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11:26)."[1]

> "스데반은 여기서 LXX와 사마리아 오경에 흔적을 남긴 오래된 유대인의 대체 전통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창세기 11:26을 달리 해석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MT와 LXX가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2]

유대교의 창시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있던 곳을 기꺼이 떠났습니다. 스데반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고 있었지만, 스데반이 지적한 것처럼,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용기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7:5 스데반은 또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상속 재산"이 없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상속 재산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대조했습니다 (창 12:7; 참조, 히 11:8). 하나님은 족장이 자녀가 없었을 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강조점은 자손을 통해 그 땅을 미래에 소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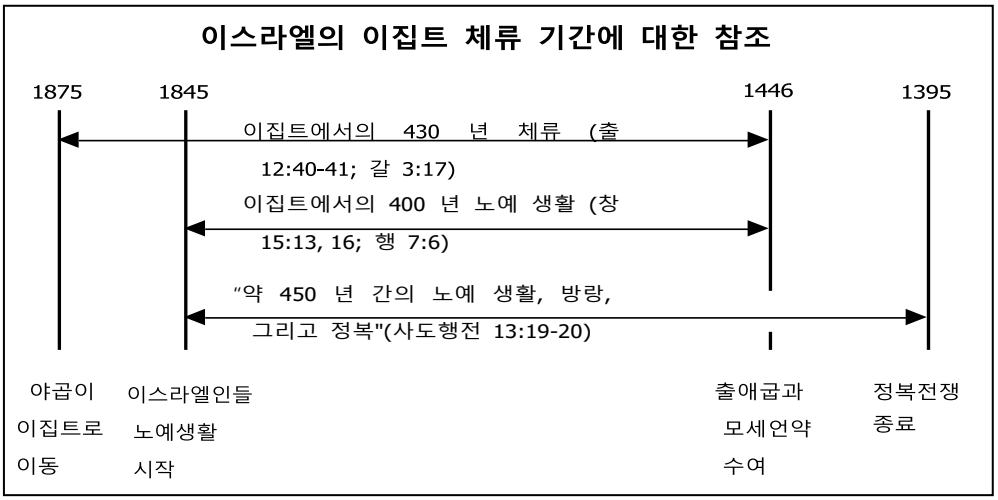
---

[1] Kent, p. 68.

[2] Bock, *Acts*, p. 284. MT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히브리 성경 24권에 대한 권위 있는 본문인 마소라 본문을 가리킵니다.

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소유했습니다(창 23:3-20), 하지만 아마도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구적이거나 완전한 소유권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7:6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창 15:13) 그들의 땅 밖에서 노예로 살며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노예 생활이 시작된 해인 주전 1845년부터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입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400년을 대략적 숫자로 해석합니다.[1]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자유를 잃고 수년 동안 그 땅 밖에서 적대감을 경험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 23:1—25:46).

7:7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민족들을 "심판"하고 (창 12:3) 결국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 15:13).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것이며, 그들이 시내산에서 그분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 3:12). 스데반의 요점은

[1] Harold W. Hoehner, "The Duration of the Egyptian Bondage," *Bibliotheca Sacra* 126:504 (October-December 1969):306-16 참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설교를 금지하고 심지어 채찍질까지 하며 그들을 압제했습니다(4:18; 5:40). 가말리엘은 그리스도인들이 옳다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5:39).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스데반은 그들을 그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7:8 스데반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 (창 17장)을 주셨음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할례를 행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은 "12족장"의 조상인 "야곱"을 낳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의 이 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강조하며 끝납니다. 산헤드린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려하여 이러한 약속을 재평가해야 했습니다.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2-4절), 후손(5절), 축복(6-7절)을 약속한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다는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표징, 즉 할례로 인치셨습니다(8절).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새로운 계시에 비추어 사라질 유대인의 관습 중 하나였습니다(참조, *6*:14).

스데반은 연설을 통해 그 당시의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고에 혁명적인 의미를 지닌 여러 가지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한 내용을 고려하면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연설은 과소평가, 또는 오히려 무언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이 이러한 의미를 파악하고 거부한 것은 연설이 끝날 때, 그들이 가능한 한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명해집니다.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7:9-16

스데반은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족에게 행하신 일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로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백성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구원자였던 요셉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놀랍도록 유사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경험을 많이 반복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셨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의 요셉의 형들과 비슷했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형들이 악한 사람들이었고, 선택받은 가족이 약속의 땅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연설 전체에서 단 한 번, 마지막 문장에서만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5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셉과 모세의 경험과 예수님의 경험을 비교하며 여러 번 간접적으로 그분을 언급했습니다.

7:9-10 "족장들"은 여기에서 요셉의 형들을 의미하며, 그들은 요셉을 시기하여(창 37:11) 그를 노예로 "이집트로 팔아넘겼"습니다(창 37:28).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요셉의 11 형제 중 한 명이 요셉을 팔아넘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창 39:2, 21)고, 요셉을 감옥에서 "구출"하시고, "파라오"(문자적으로, "큰 집") 앞에서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셨으며, 그를 "이집트"(창 41:41)와 파라오의 "모든 집"의 통치자("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는데, 이는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 "요셉을 대하는 그의 히브리인 형들의 태도는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대했던 방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1]

[1] Kent, pp. 67-68.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들은 그분을 배척하고 말 그대로 노예의 대가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파라오 아래로 높으시고, 그의 영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7:11-12 유대인의 조상들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겪었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야곱에 의해 이집트로 보내어졌습니다(창 41:54-55; 42:2, 5).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탱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요셉의 통치 아래로 데려가셨습니다. 미래에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고난을 겪을 것이지만(예루살렘 파괴 때와 또 환난기에),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인도하여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천년왕국 때에).

7:13-14 이집트를 "두 번째로 방문"한 요셉은 자신이 그들의 통치자임을 믿지 못하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파라오에게 자신의 가족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창 45:1-4). 마찬가지로, 미래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입니다 (슥 12:10-14). 요셉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척"을 "이집트"에 살도록 초대했습니다. 이들의 수는 "75"였습니다(창 45:9-10). 저는 이 숫자가 이집트에 초대된 사람들의 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로 이동하여 들어간 사람들의 수는 아마도 70명일 것입니다(창 46:26-27; 출 1:5; 신 10:22). 일부 해석자들은 75명이 이집트로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 "스데반은 LXX(칠십인역)의 수치를 인용했으며, 이는 오류가 아니었지만, 마소라 텍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5명을 포함하여 총수를 달리 계산했습니다."[1]

>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결책은 히브리어 본문이 야곱, 요셉, 요셉의

[1] Ibid., p. 69.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총 70명)를 포함하지만, 70인역은 야곱과 요셉을 제외하고 요셉의 일곱 손자(대상 7:14-15, 20-25에 언급)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창세기 46:8-26에 나오는 히브리어에서 뒷받침됩니다. 이 구절에는 야곱, 요셉, 요셉의 두 아들을 제외하고 66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1]

7:15 야곱은 요셉의 통치 아래 안전하고 축복받으며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천년 동안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날을 끝낼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그 직계 후손들처럼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위협과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두 번째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조, 9-10절).

7:16 선택받은 백성은 결국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에서 떠나 있는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고, 이제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안식처인 천국에 도달할 것입니다.

"세겜"은 스데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처음 정복한 후 요셉의 유해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수 24:32). 스데반이 이 사건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아닌 야곱이 하몰에게서 세겜에 있는 무덤을 샀다고 기록했습니다(창 33:19; 참조, 23:16; 50:13). 이는 후손이 한 일을 조상에게 돌리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참조, 히 7:9-10). 고대 근동 지역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조상이 후손의 행동에 한 측면에서 참여한다고 여겼습니다(창 9:25; 25:23; 참조, 말 1:2-3; 롬 9:11-13). 아브라함의 손자 야

[1] Toussaint, "Acts," p. 370. 또한 J. A. Alexander,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pp. 226-67 참조.

곱이 결국 그 무덤터를 구매했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요셉의 무덤터를 구매한 것입니다(참조, 히 7:9-10).

이 드러난 오류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데반은 두 사건을 하나로 압축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에브론으로부터 땅을 구매한 사건(창 23:1-20)과 야곱이 세겜에서 하몰으로부터 땅을 구매한 사건입니다.[1] 둘째, 아브라함은 실제로 세겜의 땅을 구매했지만 모세는 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참조, 창 12:6-7),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구매했습니다.[2]

스데반의 시대에 세겜은 사마리아의 영토에 속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에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 정통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피하던 땅에 묻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곳이 약속의 땅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또 다른 예입니다. 스데반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곳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2절).

스데반은 아마도 야곱이 아닌 "아브라함"을 언급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음을 상기시키려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한 가지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모세와 율법에 대한 스데반의 견해 7:17-43

---

[1] F. F. Bruce, *Commentary on …*, p. 149, n. 39.

[2] Lenski, p. 271; J. Rawson Lumby, *The Acts of the Apostles*, pp. 164-65. 또한 Wiersbe, 1:431 참조. Gleason L. Archer, "Alleged Errors and Discrepancies in the Original Manuscripts of the Bible," in *Inerrancy*, pp. 57-82 는 이들 중 21개를 반박했으며, 이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스티븐은 이스라엘의 역사 검토를 계속하며 출애굽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세를 모독(비방)하고(6:11), 모세 율법에 반대하는 말을 했다는 비난(6:13)을 반박하려 했습니다.

모세의 생애 7:17-36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정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의 비교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전의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도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선구자로서의 모세입니다.

> "요셉의 삶보다 더 구체적으로,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위대한 모세인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았습니다."[1]

7:17-18 스데반은 16절에서 잠시 앞서 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출애굽 직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민족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6-7절; 창 15:14). 이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고,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민족들을 저주할 것이라는 이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창 12:1-3, 7).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번성했지만, "다른 왕[파라오]이 일어나" "요셉"을 무시("알지 못함")했습니다(출 1:7-8).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인구가 "증가"했고, 그들에게 적대적인 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인구가 증가했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때가 차서 오셨습니다 (갈 4:4).

---

[1] Neil, p. 110.

7:19 이 새로운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유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함으로써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출 1:10, 16, 22).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모든 유대인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구원자인 모세와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7:20-22 자신의 백성을 구원한 위대한 구원자인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보존되며, 보호받으며("양육되고"), "교육받았"습니다.

> "… 율법의 기둥은 이방 땅과 이방인의 법정에서 자랐습니다."[1]

모세는 말과 행동에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약속의 땅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스데반의 연설에서 그 땅의 중요성이 더욱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많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셨고,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 마리아가 집에서 그분을 양육하셨기 때문입니다(참조, 마 1:18-21). 모세는 예수님처럼 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말과 행동"에서 강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22절).

> "…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배운 후,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B. D. 학위, 즉 '사막의 뒷편'(Backside of the Desert) 학위를 주시고,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2]

7:23-29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모세의 무모한 시도는 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 땅"으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이방인("나그네", 참조, 6절)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부당

---

[1] Ibid., p. 111.

[2] McGee, 4:539.

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지도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두 아들을" 주심으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을 구출하기 위해 스스로를 바쳤지만, 그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의 "통치자 및 재판관"으로 세우셨음을 인식하지 못한 모세의 유대인 형제들은 모세가 그들을 돕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유대인 형제들도 그를 거부했습니다. 모세의 형제들은 모세가 그들을 돕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멸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축복하기보다는 해를 끼칠까 두려워했습니다 (참조, 요 11:47-48). 모세가 당한 거부는 그가 자신의 형제들을 떠나 먼 땅에서 "아들들"을 낳고 살게 했습니다(29절). 예수님도 자신의 백성들(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 먼 땅(하늘)에서 살며 아들들(즉, 그리스도인들)을 낳고 계셨습니다.

7:30-34 "40년 후" 미디안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는 주의 천사, 아마도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31-33절; 참조, 출 3:2, 6; 4:2; 요 12:41; 고전 10:1-4; 히 11:26).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그분의 도구로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룩한 땅 밖에서 자신과 자신의 법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압제에서 해방하기 위해 그들에게로 돌아가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재림하실 때에 환난의 시기에 이스라엘을 압제에서 해방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7:35-36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통치자 및 재판관으로 거부한 바로 그

사람(27절)을 하나님은 자신의 도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를 다시 보내셨습니다(참조, 3:13-15). 모세는 "이집트", "홍해", "광야"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번째 "40년" 언급(참조, 23절, 30절, 36절)은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이 단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제들에게 거부당하며 끝난 준비 단계, (2) 이집트로 돌아오며 끝난 준비 단계, (3)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단계. 스데반의 연설이 진행될수록 예수님의 생애와의 유사점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 이집트에서 데려나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홍해),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습니다."[1]

모세가 천상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의 통치자 및 재판관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예언한 궁극적인 예언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신 18:15, 18; 참조, 3:22).

> "스데반은 '그들이 신뢰한'(요 5:45-47) 모세에 대해 자연스럽게 오래 머무르며, 백성들에게 거부당한 율법수여자(35)가 그리스도의 경험을 예고했음을 보여줍니다 (요 1:11)."[2]

모세의 가르침 7:37-43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시대를 다루었지만, 다음으로 특히 모세의 가르침, 즉 모세 율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숭배하고 정확히 따르겠다고 주장한 것이었지만, 스데반은 그들이 실제로 모세가 가르친 것을 거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1] Neil, p. 111.
[2] Blaiklock, p. 76.

7:37-38 스데반은 모세가 오실 "예언자"(신명기 18:15)에 대해 예언한 사람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다른 하나님의 말씀(계시)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Gr. 후토스 에스틴[*houtos estin*])는 37절과 38절에 나오는, 관사가 붙은 형용사적 분사로, 35절(*touton*)과 36절(*houtos*)에서 "이"(this)으로 번역된 지시 대명사의 강화된 형태입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분명히 존경했지만, 모세 자신이 "나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주목했습니다(참조, 행 3:22).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시의 끝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한 것은, 그 율법을 규율적인 측면보다 계시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보았음을 시사합니다.[1]

> "…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고대 전통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그 완성이었다. 이는 강력한 논증이었으며, 베드로의 주제(iii. 22, 23)의 계속이었다. (이 진리는 히브리서에서 유사한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더 자세히 전개될 것이다. iii. 1-6, ix. 18-20, xii. 24 참조).)"[2]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의 시간을 보냈고,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분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7:39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순종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지도력을 "거부"했습니다(민 14:3-4; 출 32:1, 23). 모세의 율법의 최종성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한 스데반의 청중들은 모세가 예언한 미래의 예언자를 거부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대신 이전의 노예의 삶으

---

[1]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p. 61 참조.

[2] Blaiklock, p. 76.

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대신 율법 아래의 이전의 속박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참조, 갈 5:1).

7:40-43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우상 숭배(금송아지 "우상")로 돌아섰고, 이 반역에서 그들의 대제사장 "아론"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셨"습니다(참조, 롬 1:24). 또한 그들을 벌로 포로로 잡아가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암 5:25-27).

그 의미는, 예수님이 주신 계시를 등지는 것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다가오는 예언자, 즉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희생제를 드린다고 해도 비슷한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 "스데반이 아모스 5:27을 인용하여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라고 말한 것은 구약과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과 LXX는 '다마스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아시리아에 의해 북부 왕국이 다마스쿠스를 넘어 유배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1세기 이상 후, 남부 왕국은 하나님에 대한 유사한 불순종으로 인해 점령되어 바빌론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구절을 대체하여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여 전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한 것입니다."[1]

이스라엘은 예수님으로부터 우상 숭배로 돌아섰고, 대제사장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스데반의 연설에서 그가 우려한 것 중 하나는 거짓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에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즐기다가, 최근에는 예수님이 사라지자 다시 우상 숭배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의 배교(이전에 믿었던 진리를 거부한 것) 때문에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고" 현재도 똑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

[1] Kent, pp. 70-71.

> 와 재판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광야의 경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예배의 집과 예배의 대상을 자신의 창조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실 때에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부터 멀리 "추방"하실 것입니다(주후 70년).

스데반은 모세를 비방했다고 고발한 사람들의 비난(6:11, 13)에 대하여, 모세가 예언한 미래의 예언자에 대해 자신이 믿는 바를 밝힘으로써 대답했습니다. 모세를 거부한 것은, 앞서 예수님의 청중들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청중들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는 예언적 계시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사랑한 자를 거부하였고, 모세의 백성은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려고만 했던 자를 경멸하고 저주하며 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들이 바로 청중이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형이었습니다."[1]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견해 7:44-50

스데반은 자신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고(6:11; 참조, 2-16절) 그리고 율법에 반대하며 말했다(6:13; 참조, 17-43절)라고 하는 일반적인 비난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성전에 반대하며 말했다는 혐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6:13).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바꾸실 것이라고 말한 혐의(6:14)는 사실 스데반의 성전에 대한 견해에서 비롯된 매우 구체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시대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과 약속의 땅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처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도 왜곡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 앞에서 행해야 할 길을 명시한 율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명시한 성막에 관한 지시는 모세가 약속의 땅이 아닌 시내 산에서 받았습니다.

---

[1] Blaiklock, p. 76.

7:44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증거의 성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에 교훈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지을 때 따라야 할 청사진("패턴")까지 주셨습니다. 증거의 성막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국지적으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증거"는 언약궤 안에 놓여 있던 모세의 율법판들을 의미합니다.

7:45 성막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팔레스타인을 정복했을 때 성막을 약속의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어 형식은 예수(Jesus)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막은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7:46 하나님은 다윗의 통치를 축복하셨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아닌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계획은 다윗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더 영광스러운 장소를 짓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할 다른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제안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 "스데반은 성전이 하나님의 인내로 용납된 왕의 변덕이라고 암시합니다."[1]

7:47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을 그렇게는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하나님의 눈에 그다지 호감을 얻지 못한 왕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7:48-50 스데반은 적절한 집을 원하시는 것이 당연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처에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신다고 재빨리 밝혔습

[1] Ibid., p. 77.

니다. 솔로몬 자신도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참조, 왕상 8:27, 사 66:1-2).

> "유대교는 하나님이 실제로 성전에 살거나 그 주변에 국한되어 계시다고 가르친 적이 없으며, 그곳에 '이름'과 임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개념이 종종 부정되었습니다. 특히 스데반에게는, 성전의 존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과거의 계시와 구속을 선호하는 백성들이 더 이상의 신성한 활동을 단호하게 거부했을 때, 이 점이 더욱 분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1]

스데반은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야 66:1과 2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이사야를 "예언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예언자로서 이사야는 모세와 같은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이사야 66:2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은 영이 겸손하고 통회하며 그분의 말씀에 떨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도전을, 청중에게 말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 "이 구절들이 스데반의 연설의 진정한 요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가 새로운 모세인 것처럼, 그분은 또한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 같습니다. 그분과 그분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2]

스데반은 산헤드린에 그들이 지나치게 숭배하는 성전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의 주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저자도 가르친 것처럼(히 8:1-2, 9:11-28)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대신하여 지명하신 분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성전에 대한 견해에는 세 가지 주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성전을 대체하실 것이다, (2) 하나님이 성전을 거부하셨다, (3) 하나님은 성전 위에 계시다. 이

---

[1] Longenecker, p. 346.

[2] Neil, p. 114. 참조, 요 2:19, 21; 엡 2:19-22; 히 9:1-10; 벧전 2:5.

세 가지 견해는 모두 스데반의 말에서 암시된 것입니다.[1]

> "물론 그는 연설 내내 예배의 장소를 높이는 미신을 약화시켰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첫 번째 위대한 계시는 성전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외국 땅인 우르, 시내, 미디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2-4, 29-34, 44-50)."[2]

스데반의 고발 7:51-53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한 자들을 비난하며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고발했지만, 이제 그는 그들에게 더 심각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한 첫 번째 연설에서 베드로는 매우 간결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4:8-12). 그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밝혔습니다(4:12). 그 기관에서 한 두 번째 연설에서 베드로는 다시 간결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5:29-32).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보내신 왕과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산헤드린을 고발했습니다(5:30-31). 산헤드린 앞에서 한 세 번째 연설에서 스데반은 더 많은 정죄의 증거를 제시하며 길게 말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응답한 죄와 "의로운 자"를 배반하고 살해한 죄를 지었다고 고발했습니다(52절).

7:51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산헤드린은 그들의 조상들이 요셉과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다른 기름부음 받은 종들을 거부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는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참조, 출 33:5; 신 9:13). 스데반의 청중들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고,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과 반응("마음과 귀") 면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1] Dennis D. Sylva, "The Meaning and Function of Acts 7:46-50,"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6:2 (1987):261-75 참조.

[2] Blaiklock, p. 77.

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배교한 자들과 비슷했으며(참조, 레 26:41; 신 10:16), 이전의 예언자들이 그들을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참조, 렘 4:4, 9:26).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대적함으로써(6:3, 5), 그들은 "성령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7:52 산헤드린 회원들은 그들의 선조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전에 "우리 조상들"(2절, 11-12절, 15절, 19절, 39절, 44-45절)과 자신을 동일시했지만, 이제 산헤드린과 거리를 두기 위해 "너희 조상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신뢰하고 순종한 족장들이었지만, "너희 조상들"은 무관심한 배교자들이었습니다(참조, 마 23:29-32).

유대인들이 예언자들을 학대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참조, 대하 36:15-16; 느 9:26; 렘 2:30).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사자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의 전령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참조, 3:14; 왕상 19:10, 14; 느 9:26; 렘 26:20-24; 눅 6:23; 11:49; 13:34; 살전 2:15; 히 11:36-38). 스데반은 산헤드린 회원들이 바로 그 "분", 즉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해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7:53 그들의 죄는 더욱 큰데,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들이 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신 33:2 LXX; 갈 3:19; 히 2:2),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신성모독자(반항적인 죄인)였지, 스데반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천사처럼(참조, 6:15) 그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가져왔지만, 그들은 그 역시 거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연설의 주요 주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미리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라고 잘못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와 현재에 너무 몰두하여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계시하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 "그는 [스데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로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오라'는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참조, 3, 15, 29, 36, 45절]. 위대한 사람들은 믿음의 모험을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모험심에 자신의 시대의 유대인들의 영을 암시적으로 대조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을 원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험한 혁신자로 여겼습니다."[1]

이 연설에서 두 번째로 관련된 주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부차적인 문제들(거룩한 땅, 모세, 성전)을 중요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나라, 우리 지도자, 우리 예배의 장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 주제인 이스라엘이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들을 거부한 주제도 스데반의 연설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다른 기름부음 받은 종들을 대했던 것처럼 그분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거부의 결과를 경험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의 생애를 특징지었던 굴욕과 그 후의 영광의 패턴을 예상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도 그 패턴을 관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 "... [스데반의 변론은] 스데반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본질을 선포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스데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경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속하실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의 증언은 어느 정도 기존 유대교 기관의 일시적 성격과 유대교가 구원의 유일한 길을 독점한다는

[1] Barclay, p. 53.

> 주장의 허무함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의 성지 또는 하나의 성전에 국한될 수 없었고, 그분의 법은 사두개파의 의식주의나 바리새파의 율법주의에 의해 위축되거나 약화될 수 없었습니다."[1]

스데반의 연설은 놀라운 통찰력을 보였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천재성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를 제어하고(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6:5, 10). 스데반의 중요성을 과장하기는 쉽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일어날 변화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명확하게 그 사실을 이해했습니다(참조, 10장). 그는 교회 역사 초기에 소수만이 보았던,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깨달은 사상가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 절기, 성전 의식을 여전히 지키고 있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실제적 의미에서,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분리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옹호한 바울의 선구자였습니다.[2]

> "그래서 그는 [스데반] 모세 율법과 성전 및 그 모든 예배의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인식했고, 분명히 가장 먼저 명확하게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논리적이고 광범위한 결과를 도출한 교리의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완전한 평등입니다... 그러므로 성 스데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을 연결하는 고리, 즉 사슬에 없어서는 안 될 고리입니다. 가말리엘이 아닌 스데반이 성 바울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 '스데반의 사역'은 12장까지 계속되며(참조, 11장 19절), 그 후 그의 더 위대한 제자이자 후계자인 바울에 의해 이어집니다."[3]

스데반이 자기의 사망 원인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4] 그러나 그의 연설을 주의 깊게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그가 이해했다고 결론지었

---

[1] Neil, p. 116.
[2] 스데반과 바울의 변론의 형식과 내용을 비교하려면, Howson, pp. 59-60 참조.
[3] Rackham, p. 87-88. 단락 구분 생략.
[4] E.g., Adolph Harnack, *The Mission and Expansion of Christianity*, 1:50.

습니다.

3. 스데반의 죽음 7:54-8:1a

스데반의 연설은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산헤드린의 태도에 혁명을 일으켰고, 그의 순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최초의 광범위한 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메시지에 대한 산헤드린의 반응을 기록하여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계속 거부당하는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 이후 복음이 왜 그렇게 퍼졌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7:54 스데반이 "항상 성령을 거역"(51절)했다는 혐의는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들을 "격분"시켰습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보복했습니다. (분노의 표시로) "이를 갈고"는 증오심에 찬 적대감을 묘사합니다.

> "폭도들의 자발적인 폭력 행위였거나, 로마인들의 특별한 허가가 있었거나, 혹은 당시 로마 총독이 없었고 통치 공백기를 이용해서 스데반이 산헤드린에서 합법적으로 처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가능성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1]

7:55 성령의 온전한 지배("충만")를 받은(참조, 6:3, 5, 8, 15)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모든 "영광" 중에 "서 계신" 환상(정신적 이미지)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실에 대한 이 환상은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요한이 본 환상과 유사합니다.

> "지상 성전을 모독했다는 비난을 받던 스데반은, 천사도 성령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 대제사장 앞에서 천사들과 온전케 된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보좌에 서서 사역하는 하늘의 대제사장의 환상을 보는 것을 허락[은혜롭게

[1] Marshall, *The Acts …*, p. 148.

주어짐]받았다."[1]

스데반이 다른 성서 기자들이 묘사한 것처럼(예: 시 110:1) 예수님을 앉은 모습이 아니라 "서 계신" 모습을 "보았다"는 특이한 사실은 여러 가지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계신 예언자이자 중보자로서의 그분의 활동과 지상에서 증인들을 통해 증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그분의 활동을 암시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해 왔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종을 시인하는 것을 봅니다. 증인의 올바른 자세는 서 있는 자세입니다. 땅의 법정에서 정죄를 받은 스데반은 하늘의 법정에 신원을 호소하는데, 그 최고 법정에서 그의 변호인은 스데반의 변호인, 즉 '파라클리트'(paraclete)로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스데반의 이 말처럼 연관성이 풍부한 단어를 접할 때, 어떤 한 가지 해석으로 그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시 110:1과 단. 7:13f.에 붙어 있던 모든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둘의 조합에서 나오는 의미를 포함하여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앉아'가 '서'로 대체된 것은 아마도 이 문맥에서 단어의 전체 의미에 그 자체로 기여하는 것, 즉 순교자이자 증인으로서 스데반의 현재 역할에 분명히 적절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2]

"서 있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스데반을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로 자신의 면전으로 환영하신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여기서 재판관으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은 스데반을 하늘로 맞이하여 그가 지상에서는 거절 당했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을 받았음을 보여 주셨습니다."[3]

---

[1] Alford, 2:2:82.

[2] F. F. Bruce, *Commentary on …*, pp. 168-69. Cf. Witherington, p. 275.

[3] Bock, "A Theology …," p. 111. Cf. idem, *Acts*, p. 312.

시편 110:1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 곳에서 메시아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위치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하나님에게 접근했음을 암시합니다.

7:56 스데반은 자신의 환상을 선언하면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묘사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말할 때 이 칭호를 사용한 유일한 경우입니다(참조, 계 1:13과 14:14에서 "인자"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경우). 이것은 다니엘이 그분의 통치의 보편적 측면과 관련하여 사용한 메시아의 칭호였습니다(단 7:13-14).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서에서 이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칭호는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자신에 대한 명칭이었습니다. 그분은 몇 주 전에 산헤드린 앞에 서셨을 때 자신을 가리켜 이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막 14:62; 눅 22:69). 스데반은 사실상 자신의 환상을 통해 예수님이 인자라는 주장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순종이나 약속의 땅에 거주하거나 성전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참조, 딤전 2:5).

7:57-58 스데반의 선언은 산헤드린에 대한 신성 모독에 해당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인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을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믿었습니다.[1] 따라서 산헤드린 위원들은 영혼의 고통으로 외치며 더 이상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스데반이 더 이상 말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신성 모독에 대한 형벌이었으며(레 24:16; 신 17:7), 산헤드린 위원들은 바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처형된 장소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

[1] Ibid.

은 현재의 다마스커스 문 북쪽의 장소이고, 더 최근의 전통은 현재의 성 스데반 문 동쪽입니다.[1] 정확한 위치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가 지금까지 기록한 세 번의 산헤드린 재판에서 첫 번째는 경고(4:17, 21), 두 번째는 채찍질(5:40), 세 번째는 돌로 치는 것(7:58-60)으로 끝났습니다. 산헤드린은 이제 가말리엘이 이전에 중재했던 조언을 포기했습니다(5:35-39). 이 공회는 로마의 승인 없이 사람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고, 유대 율법은 재판 당일에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2] 그러나 모세 율법에 규정된 대로 증인들이 첫 돌을 던졌으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히 폭도 폭력의 결과가 아니라 공식적인 조치의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산헤드린이 주도하고 통제한 군중 폭력이었을 것입니다(참조, 마 26:67-68).

모세 율법의 긍정적인 교훈이나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받을, 공식적으로 승인된 처벌 방법 중 하나는 "반역자의 구타"(rebel's beating)였습니다. 그러한 범죄자는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처벌당할 수 있었습니다.[3]

> "스데반의 메시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일반 민중을 초기 그리스도인에 대항하여 단결시키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4]

스데반이 돌로 치는 현장에 다소의 "사울"이 있었고, 그는 당국자들이 악한 일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의 옷"을 지키며 협력했습니다(참조, 8:1; 22:20). 당시 그는 "젊은이"(Gr. 네아니아스[*neanias*], 참조, 20:9; 23:17-18, 22)였지만 그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주후 68년경에 죽었고, 스데반이 주후 34년경에 죽었기 때문에 사울은 아마도 30대 초반이나 중반이었을 것이다. 예수님과 사울은 거의 같은 나이였던

---

[1] Howson, p. 61.
[2] Mishnah *Sanhedrin* 4:1.
[3] Edersheim, *The Temple*, pp. 66–67.
[4] Longenecker, p. 351.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절은 사울이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음을 암시하지는 않습니다.[1]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다소의 사울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기독교의 성장에 있어 사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아브람 사차(Abram Sachar)는 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고대의 다른 어떤 영향력 있는 종교적 인물보다 바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2]

7:59-60 스데반은 베드로가 청중에게 권면한 대로(2:21)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Gr. 에피칼루메논[*epikaloumenon*]).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을 받으소서!"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사형 집행자들을 위한 기도("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를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참조, 눅 23:34, 46; 참조, 대하 24:22; 눅 6:27-28).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께 기도한 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 "기도하다가 죽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3]

누가는 아마도 독자들이 스데반의 처형과 예수님의 처형을 연결 짓기를 바랐겠지만, 두 처형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누가가 스데반의 처형을 예수님 처형의 재연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4] 위더링턴(Witherington)은 예수님과 스데반의 수난 사이에 10가지 유사점을 나열했습니다.[5]

---

[1] Simon Légasse, "Paul's Pre-Christian Career according to Acts,"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365-90.

[2] Abram Sachar, *A History of the Jews*, p. 136.

[3] Henry, p. 1664.

[4] E.g., Charles H. Talbert, *Luke and the Gnostics*, p. 76.

[5] Witherington, p. 253.

"스데반과 예수님 사이에는 본성의 친교가 있었고, 증언의 친교가 있었고, 고난의 친교가 있었고, 마침내 승리의 친교가 있었다."[1]

스데반의 영혼이 아니라, 몸은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 "잠들었"습니다(참조, 8:1; 13:36; 요 11:11; 살전 4:13, 15; 등).

"스데반에게는 모든 끔찍한 혼란이 이상한 평화로 끝났습니다.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옳은 일이 그를 죽일지라도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 오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2]

"바울이 다른 어떤 인물보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누가의 영웅이 되듯이, 스데반은 교회 신앙의 더 넓은 의미를 처음으로 깨닫고 이방인 선교의 기초를 닦은 사람으로 명예로운 인정을 받습니다."[3]

8:1a **사울이 스데반의 처형을 적극적으로 승인한 것은 예수님 제자 박해에 대한 사울의 의지를 드러내며, 그가 열렬히 실행에 옮겼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7:58과 함께 사울을 소개하고 사울의 회심과 그 이후의 사역에 관한 다음 구절로 이어지는 전환을 제공합니다.**

"스데반에게 행해진 것이 사울에게도 행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과 사울은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저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논쟁하고 저항하며 그의 간증을 거부했습니다.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했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행 6:37). 스데반은 모세와 성소와 관습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행 xxi:28; xxiv:6; xxv:8; xxviii:17). 그들은 한마음으로 스데반에게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행 xix:29). 스데반은 도시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

[1] Morgan, *The Acts* ···, p. 142.
[2] Barclay, p. 62.
[3] Neil, p. 105.

다(행 xiv:19). 스데반은 산 헤드림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산 헤드린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았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바울도 마찬가지였다."[1]

B. 빌립의 사역 8:1b-40

누가는 다음으로 교회 확장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사건과 또 다른 중요한 증인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한 후 간접적으로 더 먼 지역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참조, 1:8). 이 장에서 빌립의 사역에 대한 기록은 6장 및 7장과 몇 가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일곱 제자의 일원이었습니다(6:5). 6장과 7장에서 시작된 박해는 8장에서도 계속되어 "큰 박해"(8:1b)가 되었고, 교회는 점점 더 사울의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1. 사마리아의 복음화 8:1b-25

빌립의 중요한 증거의 첫 번째 부분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빌립이 그곳에서 사역한 이유(1b-3절), 사역의 성격(4-8절), 사역의 효과(9-24절)를 기록했습니다.

증인들의 흩어짐 8:1b-3

이 짧은 부분은 빌립의 사역에 대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빌립의 사역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8:1b 스데반의 처형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 대한 최초의 광범위한 "박해"에 불을 붙였습니다.[2] 누가는 초기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경고(4:21)를 받고, 그후 채찍질(5:40), 순교(7:58-60), 그리고 광범위한 박해를 받

[1] Gaebelein, *The Annotated …,* 3:1:275-76.

[2] Ernst Bammel, "Jewish Activity against Christians in Palestine according to Acts,"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357-64 참조.

았음을 보여 줍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적대감의 주요 표적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믿는 유대인("예루살렘의 교회")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적대감으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더 안전한 거주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참조, 살전 2:14)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디에스파레센(*Diesparesen*)은 4절에서 다른 곳에서 씨를 뿌리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 스페이로(*speiro*)에서 유래했습니다(참조, 마 6:26; 13:3-4, 18; 25:24, 26; 눅 8:5; 12:24; 등).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들었지만, 복음 전파의 폭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교회에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위험에 관계없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게다가 박해는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열두 제자는 히브리 유대인들이었습니다.

8:2 스데반을 매장한 "경건한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매장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눅 23:50-53). 예루살렘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참조, 6:7). 그들 중 일부는 스데반의 중요성에 걸맞은 장례를 치른 것이 분명합니다. 미쉬나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애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겼습니다.[1] 그러므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해 "큰 소리로 애도"했다는 누가의 표기는 스데반의 돌에 맞은 것을 매우 불행한 일로 여긴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8:3 "파괴하고"(ravaging)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뤼마이노마이[*lumainomai*])

[1] Mishnah *Sanhedrin* 6:6.

는 신약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칠십인역 번역자들은 시편 80:13에서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괴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에서는 강간과 동의어로 "파괴하다"(ravaging)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여자를 강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사울은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사는 분명히 헬라어에서 기동 불완전 동사로, 행동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박해의 지도자였습니다(9:1-2, 29; 22:4-5; 26:11). 스데반의 처형은 사울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부추겼고, 그를 더욱 적대시하도록 부추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집집마다 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참조, 2:46; 5:42)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숙청한 사람들을 회당으로 데리고 가서(참조, 6:9) 그곳에서 신자들에게 신성 모독(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강요하여 박해하려 했다(22:19; 26:11).

빌립의 사마리아 복음화 8:4-8

8:4 박해로 인해 일부 신자들이 죽기도 했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가는 "흩어진" 신자들이 한 일을 "말씀을 전파하는 것"(Gr. 유앙겔리조메노이 톤 로곤[*euaggelizomenoi ton logon*],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경우 핍박과 흩어짐)이 매우 좋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마 16:18; 롬 8:28).

가이사랴
사마리아
욥바
룻다
예루살렘
가자

"... 신앙적으로 직면한 박해는 교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이러한 박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19-30 참조)."[1]

"...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박해 이후 교회가 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광야에서 마귀의 공격 이후 예수님의 명성이 확산되는 것을 묘사한 것과 유사합니다."[2]

"선교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두 가지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개시자의 역할과 검증자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들은 전자의 역할에서 후자의 역할로 전환합니다. 즉, 그들의 기능은 새로운 지역과 집단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확인하거나 이미 선교를 위해 열린 지역에서 전도자로 일하는 것으로 축소됩니다(참조, 8:25; 9:32~42)."[3]

8:5 "빌립"은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아니라 일곱 제자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참조. 6:5). 그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을 따라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참조, 요 4장).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요 4:9). 그들은 이들을 인종적, 종교적 혼혈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주전 722년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북부 왕국을 정복한 후 그곳에 살도록 보낸 이방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더구나 사마리아인들은 에스라 시대에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대항하여 그리심 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

[1] Bock, *Acts*, p. 317.
[2] Longenecker, p. 355.
[3] Tannehill, 2:102.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최근 부정적인 언급(7:44-50)을 고려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경만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모세와 같은 개인으로서의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1] 그곳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일부 고대역본에는 "사마리아의 한 도시"라고 되어 있는 반면, 다른 역본에는 "사마리아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도시"가 맞다고 보지만, 다른 학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2] 이 도시는 구약의 세겜에서 서쪽으로 몇 마일,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신약의 수가(Sychar)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참조, 요 4:5).

구약의 사마리아 도시("사바스테"는 헤롯 대왕이 이 도시에 부여한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그리스 이름[3])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메시아를 기꺼이 전한 것(참조, 12절)은 이전에는 예수님 제자들의 특징이 아니었던 개방성을 보여줍니다(참조, 요 4:9).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의 안전 지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한 결과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8:6-8 빌립도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귀를 쫓아내고 "마비된" 앉은뱅이와 절름발이들을 고쳤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능력의 "표적"은 사마리아인 군중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다는 빌립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빌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

[1] 이 수수께끼 같은 참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 Hengel, pp. 70–76 참조.
[2] E.g., Witherington, p. 282; Bock, *Acts*, pp. 324–25, 337.
[3] Josephus, *Antiquities of …,* 15:8:5; Howson, p. 22.

니다. 그들도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구원은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참조, 2:46-47).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 선교사로 먼저 갔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던 초기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예루살렘 도시와 연관 지었을 때 거절 당했던 것처럼 거절 당했을 것입니다 (참조, 눅 9:51-56).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거절당하는 운명을 공유한 헬라파 유대인 빌립을 그들의 전도자로 사용하셨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를 영접하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1]

마술사 시몬의 회심 8:9-13

8:9-11 **사마리아에서 사탄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던 또 다른 사람은 사람들이 시몬 마구스라고 부르기도 했던 "시몬"이었습니다. "마구스"는 "마술사" 또는 "마법사"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마고스(*magos*)의 음역입니다. 그가 행한 마술은 손재주가 아닌 마술, 즉 악마의 힘으로 사람이나 자연을 조종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인해 시몬은 큰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능력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2]**

"참의 위조품인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험한 적들 중 하나였으며, 참과 거짓, 종교와 영성주의 사이의 구별은 단번에 선명하게 그려져야 했습니다."[3]

8:12 **시몬은 자신을 내세웠지만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저는 시몬이 교회에서 최초의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

[1] Longenecker, p. 359.
[2] 시몬에 관한 초대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은, ibid., p. 358 및 Eusebius, 2:13:62-63 참조.
[3] Rackham, p. 113.

> 마지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1]

누가는 빌립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고 묘사했습니다(참조, 1:3, 6; 8:12; 14:22; 19:8; 20:25; 28:23, 31).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들을 다스리는 그분의 영적 통치에 참여하게 되며, 결국에는 그분의 미래의 지상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왕국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 있을 것입니다(참조, 1: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참조, 요일 5:1). 물 침례는 회심 직후에 거의 즉시 이루어진 것을 주목하십시오(참조, 2:38). "남녀 모두" 믿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야 성령 침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물 세례였습니다 (17절).

8:13 "시몬 자신도 믿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은 많은 학생들이 시몬이 불신자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저는 시몬의 믿음이 위선적이라고 단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2] 본문은 누가가 언급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몬 자신도 믿었다"고 말하며(12절),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 "우리는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탕자 노릇을 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자비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희망해야 합니다."[3]

사탄의 "마술"을 연습한 시몬은 빌립의 하나님이 주신 "표적과 큰 기적"

---

[1] McGee, 4:543

[2] E.g., Eusebius, 2:1:50; Calvin, 3:2:10; Alexander Whyte, *Bible Characters*, 2:119–25; McGee, 4:544, 545; Toussaint, "Acts," p. 373; Wiersbe, 1:435–36; and Witherington, pp. 288–89.

[3] Henry, p. 1666.

과 자신의 마술의 차이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의 타협 8:14-24

"... 시몬의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토록 충분히 전해집니다. 둘 다 초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돈으로 얻으려는 무서운 시도의 명백한 예로 두드러집니다."[1]

8:14-17 물론 12명의 "사도"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1장).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대표 사도들을 파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일이었습니다.[2] 히브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존재했던 적대감을 고려할 때 이것은 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에 대해 느꼈던 감정은 오늘날 대부분의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비슷했습니다.

사마리아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다고 믿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침례를 베풀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했습니다(참조, 눅 11:13).

> "'안으로'[Gr. 에이스(*eis*), 참조. 19:5]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 주님과 그의 공동체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충성을 선언하고 주님의 소유임을 암시한다..."[3]

---

[1] Lenski, p. 329.

[2] 베드로의 선교 여행 지도는 *The Nelson ...,* p. 1873 참조. Fruchtenbaum, The Book ⋯ 에는 사도행전 연구에 유용한 지도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3] Bock, *Acts*, p. 331.

> "이 시기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으며, 사마리아의 신자들은 오순절 이전의 예루살렘의 신자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1]

그러나 이 성령 침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과는 다소 다르게 일어났습니다(2장; 참조, 8:38; 10:44). 그곳에서는 성령 침례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지만, 여기서는 사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도들의 안수와 함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강력한 바람 소리, 눈에 보이는 불길, 방언이 동반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방언이 이곳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두 곳 모두 성령 침례를 통한 성령의 영구적인 내주,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침례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다.

> "그러나 만일 빌립이 주관하여 그들[사마리아인]에게 [물] 침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면 어떨까요? 의심할 여지없이 빌립과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그들에게 옮겨갔을 것이고, 그들은 두 배의 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 즉 예루살렘의 모 교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또 당시 사마리아의 새 개종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였을 두 사도가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할 때까지, 성령의 은사를 보류하셨습니다."[2]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 "두 번째 축복" 경험(즉, 중생 후 별도의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성령 침례)의 선례를 세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13과 로마서 8:9에서 규범적인 성령 침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령 침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썼습니다(롬 8:9).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침례가 나중에 구원을 뒤따랐던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구원과 성령 침례가 시간적으로 이례적으로 분리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초기에

---

[1] Kent, p. 79.

[2] Longenecker, p. 359.

사람들은 성령 침례를 그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성령을 보내 신자들 안에 영구히 내주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검증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신자들에게 성령 침례를 주셨습니다(요 14:16, 26; 15:26; 16:7).[1]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신자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일어나는 성령 침례를 바람과 불, 방언으로 식별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표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 8장에서 표적은 분명히 성령 침례를 알리지는 않았지만 빌립의 설교와 함께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침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사마리아에서 성령 침례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했을까요? 사도들의 안수(18절)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 침례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참조, 9:17; 19:6). 당연하게도, 이것이 정확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 "베드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열쇠(마 16:18, 19)를 사용하여 오순절에 3,000명의 유대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고, 조금 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10장).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이후의 모든 신자들에게 규범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사울(9:17)과 고넬료(10:44)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마리아인의 경험은 사도행전의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었습니다."[2]

8:18-19 분명히 성령이 오셔서 침례를 베푸실 때 무언가가 수반되었는데, 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시몬이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더라"). 시몬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마리

[1] Harm, pp. 30-33 참조.
[2] Kent, pp. 79-80.

아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믿습니다.[1]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몬은 방언을 본 것이 아니라 방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본 것은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손을 얹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 방언이 일어났다고 추론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2] 분명히 성령께서 이 새 신자들에게 침례를 주셨다는 관찰 가능한 증거가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성령 침례와 그에 수반되는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참조, 19:19). 이 관행, 즉 영적인 능력과 직분을 사려는 시도는 시몬의 이름(즉, simony-성직매매)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시몬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마술의 비밀스러운 힘에 대해 그에게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권능("권위")에 대한 지불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3] 시몬은 성령 침례의 독특성과 거룩함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성령 침례를 베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몬의 실수는 신학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순진한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안수가 성령 침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19절).

8:20-23 그러나 베드로의 단호한 반응은 시몬의 실수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J. B. 필립스(J. B. Phillips)는 베드로의 첫 말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너와 네 돈은 지옥에나 가라!"[4] 베드로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은은 너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라!" 자신의 요청으로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과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가혹하게 바로잡

---

[1] E.g., F. F. Bruce, *Commentary on …*, p. 181.
[2] Gromacki, *The Modern …,* pp. 87–90 참조.
[3] The Nelson …, p. 1833.
[4] *The New Testament in Modern English*.

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시몬에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바클레이(Barclay)는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제임스 데니(James Denney)가 우리가 똑똑하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훌륭하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언급했습니다.[1]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올바른 동기는 필수적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시몬의 육신(그의 죄 많은 인간 본성)이 여전히 그를 지배했습니다. "쓴 것", "속박", "불의"가 여전히 그를 특징짓는 요소였습니다(23절). 아마도 베드로는 시몬의 동기에 대한 예언자적 통찰을 받았을 것입니다(참조, 5:3).[2]

> "베드로는 시몬의 제안을 독("쓸개")과 사슬[결박, "속박"]로 묘사합니다."[3]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시몬은 사마리아 교회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초기 사례였습니다(참조, 5:1-11).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시몬도 심판하실지, 혹은 시몬이 자신의 발 아래서 죽게 될지 궁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8:24 베드로의 책망은 시몬을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엄청난 능력과 시몬 자신이 목격한 베드로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시몬이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은

---

[1] Barclay, p. 68.
[2] Witherington, p. 287.
[3] Robertson, 3:108.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시몬이 진정한 신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진정한 신자였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시몬이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행했습니다. 악마주의에서 벗어난 그의 배경은 그의 행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반면, 시몬의 잘못은 어느 정도 무지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점을 제외하면, 저는 그를 또 다른 아나니아로 봅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는 아나니아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지리적, 민족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참조, 엡 5:15-21).

사마리아의 다른 곳에서의 전도 8:25

이 구절의 주어("그들")는 베드로와 요한임이 분명합니다(참조, 14절).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동료 신자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교회 안으로 환영했습니다. 특히 요한과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한은 사마리아 마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참조, 눅 9:52-54).

이 사마리아 선교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진전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방인에게 가기를 꺼려했던 것(10장)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분명히 그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유대인과 동등하게 교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2.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빌립의 사역 8:26-40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당시 유대교에 매료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교회 확장의 방법과 방향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으며, 유대인의 가르침에 열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일반 이방인보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훨씬 더 호의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도를 한 최초의 완전한 이방인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아마도 빌립이 20년 후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의 집에서 접대를 받았을 때 저자에게 전한 말일 것입니다(xxi. 8).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은 주님 자신의 개인적인 사역에 관한 이야기(예: 요 3장과 4장)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1]

8:26 하나님의 전달자("천사", 참조, 5:19)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남쪽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누가가 "주님의 천사"(Gr. 앙겔로스 퀴리우[*angelos kyriou*])를 자신의 이야기에 도입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활동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눅 1:11; 2:9; 행 12:7, 23; 참조, 행 7:30, 35, 38; 10:3, 7, 22; 11:13; 12:11; 27:23).[2] 빌립은 많은 무리들을 성공적으로 전도하는 데 관여했기에(6절) 주님의 지시는 분명히 명료하고 정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열매 맺는 사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빌립이 이 지시를 받았을 때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사마리아나 가이사랴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40절, 21:8).

> "교회는 이방인을 복음화한다는 생각을 단순히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목적에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3]

누가는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데오빌로(1:1)를 위해 이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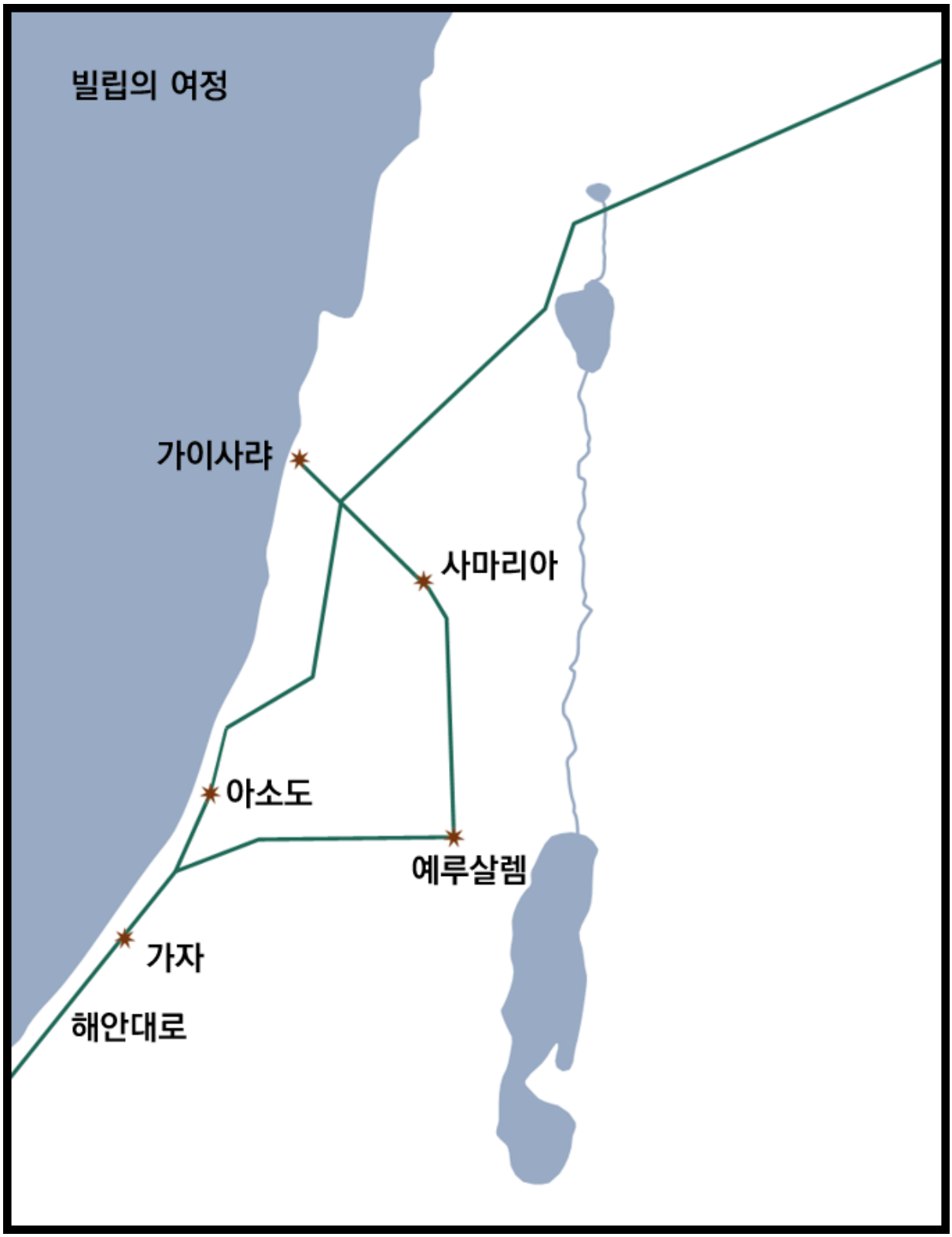
[1] Blaiklock, pp. 80–81.
[2] Longenecker, p. 362.
[3] Marshall, *The Acts …*, p. 161.

이 “사막” 지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막"이라는 단어는 길 또는 가자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 “구시가지는 '사막 가자'라고 불렸는데, 이는 이집트로 가는 길에 가자지구에서만 제대로 시작되는 사막 도로가 아니라, 이곳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1]

이 내시와 같은 여행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려면 보통 서쪽으로 유다의 언덕 지방인 셰펠라(산기슭)를 지나 해안 평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다마스커스와 이집트를 잇는 지중해를 따라 이어지는 국제 해안대로로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최남단 도시인 가자 지구를 떠날 때쯤에야 길이 사막을 통과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현대 가자지구입니다.

[1] Neil, p. 123.


빌립의 여정
가이사랴
사마리아
아소도
예루살렘
가자
해안대로

빌립이 그를 만났을 때 에티오피아 사람의 영적 상태는 사막처럼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질 때 내시는 생명수로 씻김을 받은 상쾌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8:27-28 **우리는 빌립의 순종에서 그가 성령의 다스림에 내어드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던 중 그는 간다게 여왕의(즉, 에디오피아 민족의) 모든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참조, 사 56:3-8; 시 68:31). 당시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은 현대 이집트 남쪽에 위치한 수단(즉, 누비아)에 있는 왕국을 가리켰습니다. 이 나라는 아스완(Aswan)에 있는 첫 번째 나일 강 급류와 현대 도시 카르툼(Khartoum) 사이에 위치해 있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 "어떤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면, 고대 지중해 세계 사람들은 그가 흑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헤로도토스와 다른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묘사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1]

그런데 고대에 피부색에 따른 편견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2]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그렇듯 피부색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편견과 차별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고대 그리스 역사서에는 에티오피아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민족적, 인종적 특징 때문에 에티오피아인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 또한,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들과 다른 작가들의 신화적 지리학에서도 에티오피아는 로마와는 달리 분명히 땅의 끝으로 자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가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나머지 명령(행 8:1)의 성취에 대한 예표를 미니어처로 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추측

---

[1] Tannehill, 2:109. Herodotus 2.22, 3.101; and Philostratus, *The Life of Apollonius* 6.1 참조. 또한 J. Daniel Hays, "The Cushites: A Black Nation in the Bible," *Bibliotheca Sacra* 153:612 (October-December 1996):408 참조.

[2] Witherington, p. 295.

할 자격이 있습니다."[1]

장로 플리니(Pliny the Elder)에 따르면, "간다게"는 메로에(Meroe)의 여왕들의 세습적인 이름이었습니다.[2] 따라서 이 이름은 당시 에티오피아의 정부 수반을 역임한 여왕 어머니의 칭호였습니다. 그녀의 개인 이름은 분명히 아마니타레(때로는 아만티테레로 표기되기도 함, 주후 25-41년)였습니다.[3] 에티오피아의 왕은 백성들이 그를 "태양의 아이"로 간주했기 때문에 국가의 일상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간다게(캔디스)라고 불리는 이 여왕 그룹에 대한 고고학적 조명은 1908-1909년 누비아에서 발굴한 맥이버(McIver)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시대에도 누비아 사람들은 여왕을 간다게라고 불렀고, 그녀에게 우유를 먹였으며, 비만을 왕족의 속성으로 여겼습니다..."[4]

근동의 정부 고위직에 있는 남성들이 거세당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남성이 왕실 여성과 임신한 후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70인역(예: 보디발의 내시, 창 39:1)과 다른 헬라 문헌에서 "내시"(Gr. 유누코스[*eunouchos*])라는 단어는 고위 군사 또는 정치인을 묘사하는 것으로 자주 등장합니다.[5] 따라서 이 내시는 거세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위 관리였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6] 누가는 그를 내시라고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27, 34, 36, 38, 39절). 거세된 남성은 이스라엘의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신 23:1).

이 관리는 "예루살렘에서" 야훼를 "경배하기 위해" 순례를 떠났습니다.

---

[1] Ibid., p. 290.
[2] Foakes-Jackson, p. 76.
[3] Piers T. Crocker, "The City of Meroe and the Ethiopian Eunuch," *Buried History* 22:3 (September 1986):67.
[4] Free, p. 511.
[5] Longenecker, p. 363.
[6] E.g., Barrett, pp. 425-26; Witherington, p. 296; and Bock, *Acts*, p. 341.

그는 어떻게든 그분에 대해 들었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수도 메로에로 향하는 자신의 "병거" 또는 "마차" 혹은, 브루스(Bruce)가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대로, "덮개가 달린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1] 여행하는 동안 그는 이사야의 예언(즉, 사 53:7-9; 참조, 사 56:3-6)의 칠십인역 성경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구입했을 것입니다.

> "병거는 실제로 소가 끄는 수레였으며 걷는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빌립이 그 옆으로 달려가서 탑승자를 부르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2]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구약성경(히브리 성경)의 개인 사본을 소유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3] 1세기에는 두루마리가 비쌌지만 이 사람은 두루마리를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복사한 이사야 예언서의 일부만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종교에 대한 그의 큰 관심은 분명합니다.

> "그 당시 세상에는 많은 신들과 민족들의 느슨한 도덕에 지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와서 유일신 하나님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엄격한 도덕 기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는다면 그들은 개종자라 불렸고, 만일 그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유대인 회당에 계속 출석하고 유대 경전을 읽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따라서이 에티오피아 인은 개종자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안주하게 된 이 구도자들 중 한 명임에 틀림 없습니다."[4]

---

[1] F. F. Bruce, *Commentary on …*, p. 186.
[2] Marshall, *The Acts …*, p. 162.
[3] Longenecker, p. 363.
[4] Barclay, p. 70.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유대교로의] 개종에서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을 그들의 판테온에 추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종교에 어떤 종류의 공감을 보이는 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간주되었습니다."[1]

8:29–31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에디오피아 사람의 마차에 다가갔습니다(참조, 26절).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도에 필수적입니다. 그분은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비하신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설계하셨고,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점입니다."[2]

아마도 이 중요한 관리는 아프리카로 향하는 여행대의 일원이었을 것이고 빌립도 잠시 그 일행에 합류했을 것입니다.[3] 내시의 차량은 가만히 서 있거나 천천히 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빌립이 마차에 "달려갔다"는 누가의 말은 전도자가 기꺼이 따랐거나 단순히 마차를 따라잡기 위해 달려야 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여행대의 다양한 마차 옆에는 빌립 외에 다른 사람들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다가갈 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단어 사이에 공백이 없고 구두점이 없는 다양한 언어의 문장을 해독하기 어려웠던 고대에는 흔히 쓰이던 독서 방식이었습니다.[4]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는 내용을 알아차리고 그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관리는 그가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빌립을 자신의

---

[1] Levinskaya, p. 78. 또한 pp. 120–26, "God-fearers in the Book of Acts." 참조.
[2] Witherington, p. 293.
[3] Blaiklock, p. 82.
[4] Henry J. Cadbury, *The Book of Acts in History*, p. 18 참조.

마차로 초대했습니다.

>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 교사나 부지런한 공부의 필요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성령은 공부를 불필요하게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1]

8:32-35 빌립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설명함으로써 내시의 당혹감에 대응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었다"라는 구절은 빌립이 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 그리스도인 이전의 유대교에서 메시아를 고난 받는 종의 관점에서 생각했다는 증거는 없다."[2]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사야 52:13-53:12을 자기 민족이나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시어 자신의 수난에서 그 성취를 찾았습니다(눅 22:37).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 바로 이 구절에서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사용하는 훌륭한 예입니다(참조, 벧전 1:23-25). 또한 이 이야기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 즉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 관한 이야기 사이의 유사점에 주목하십시오.

> "누가가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빌립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교차대구의 형태로 매우 신중하게 구성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 53:7-8을 인용한 32-35절은 본문의 핵심이며 경첩 역할을 합니다."[3]

---

[1] *The Nelson* ⋯, p. 1833.
[2] Longenecker, p. 364.
[3] Witherington, p. 292. 교차대구법(chiasm or chiasmus)은 수사적 또는 문학적 장치로, 단어, 문법적 구조,

8:36-38 이 대화가 이루어진 "길"은 우기에는 고지대에서 지중해로 "물"을 흘려보내는 여러 개울을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그 땅은 일반적으로 사막이었지만, 일 년 중 어떤 시기에는 물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는 이 길에서 멀지 않은 지중해에서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물 침례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물 침례를 요구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참조, 2:38, 8:12). 어쨌든 이 관리는 침례에 복종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내시가 된 자에게는 침례를 주지도 않고 유대교 개종자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신 23:1). 그 관리가 육체적 "내시"였다면, 아마도 이 때문에 빌립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례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담그기에 충분한 물이 있었습니다("그들이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38절). 이것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일반적인 침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석자들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리는 동안 두 사람이 물 속에 서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1] 이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헬라어 단어 밥티조(*baptizo*, "침례를 주다")의 일반적인 의미는 "담그다, 잠기게 하다"이며, 이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2]

> "그[빌립]는 라트론의 남서쪽 어딘가에서 마차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무루바(Murubbah)라고 불리는 좋은 시냇물이 있는데, 6월에도 침례자 친구들의 소원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깊습니다. 이 무루바는 여름에 물을 공급하는 샘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위대한 와디 수라르(Wady Surar)

또는 개념이 역순으로 반복되거나 동일한 형태 또는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함.

[1] 뿌리거나 붓는 것을 지지하는 논점을 보려면, William G. T. Shedd, *Dogmatic Theology*, 2:578-81 참조.

[2] Knowling, 2:226.

의 현지 이름일 뿐입니다."[1]

에티오피아 관리는 물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신의 믿음을 간증했습니다(참조, 2:38; 8:12).

8:39 성령께서 빌립을 내시에게로 인도하신 다음(29절), 그에게서 "빌립을 채어가셨"습니다 (39절).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첫 이방인 개종자 전도 사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했습니다(참조, 마 12:18). 하나님께서는 빌립(29절)과 내시(30절) 두 사람을 특별히 중요한 대화를 위해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빌립을 내시로부터 이끌어 내시는 장면을 매우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빌립을 마차에서 물리적으로 끌어내렸을 것입니다(참조, 왕상 18:12; 왕하 2:16).[2] 이 묘사는 주님께서 빌립을 다음에 섬길 곳으로 즉시 옮기셨음을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채어 ... 데려가다"(아르파조[*arpazo*])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붙잡다, 힘으로 빼앗아 가다 ... 이끌어 가다, 자기 자신을 간절히 요구하다 ... 빼앗거나 빼앗아 데려가다 ... 붙잡아 빠르게 데려가다 ... 사람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놀랍고 신속하게 옮기는 신성한 능력에 사용됨, 채거나 잡아서 데려가다"[3]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에서 빌립의 행동은 엘리야의 행동을 연상시키는데, 그는 신의 촉진으로 인식되는 충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장소에 나타나고 똑같이 예상치 못하게 사라집니다. 또한 슥 2-3장과 이 구절 사이에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자, 에티오피아, 아소도가 두 부분에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4]

---

[1] W. M. Thomson, *The Land and the Book*, 2:310.
[2] Jamieson, et al., p. 1092; Kent, p. 82.
[3] *A Greek-English Lexicon …,* s.v. *arpazo,* pp. 74-75. 참조, 행 23:10; 마 11:12; 13:19; 요 10:12, 28-29; 고후 12:2, 4; 살전 4:17; 유 23; 계 12:5.
[4] Neil, p. 123.

"시몬 마구스와 이 에티오피아 재무관 사이에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게하시와 이방인 나아만 사이의 대조를 떠올리게 하는 대조가 있습니다."[1]

내시는 자신의 새로운 믿음으로 기뻐했습니다(참조, 2:46-47; 8:8; 16:34). 아마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초기의 이방인 증인이자 선교사 중 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 전통에 따라 일어난 일입니다.[2]

8:40 빌립은 아마도 국제 대로를 따라 해안을 통해 북쪽을 향하며 "아소도"(아스돗)로, 더 멀리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그는 "모든" 중간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 20년 후 우리는 그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21:8). 로마 세계에서 사람들이 육로로 하루에 이동하는 평균 거리는 약 20마일이었습니다.[3] 낙타로 이동하는 경우, 보통 10시간이 걸려 25마일을 이동합니다.[4]

빌립은 사도행전에서 먼 나라에 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먼 나라는 이 책의 첫 독자들은 그곳을 땅끝으로 여겼을 정도였습니다(참조, 1:8).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땅 끝에 살았다는 확신은 고대 문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5]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2:1-8:4). 그 후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8:5-25). 이제 유대인 개종자 또는 개종에 가까웠던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개종자들은 이 시점에서 자신을 단순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종교적인 유대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

[1] Rackham, p. 120.
[2] Irenaeus, *Against Heresies*, 3:12:8–10 참조.
[3] Robert Jewett, *A Chronology of Paul's Life*, p. 138.
[4] Thomson, 2:350.
[5] Tannehill, 2:109. Homer, *The Odyssey* 1.23; Herodotus 3.25, 3.114; Strabo, *Geography* 1.1.6, 1.2.24 참조.

이 유대교 안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 즉 신실한 남은 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실체, 즉 그리스도인 교회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참조, 엡 2-3장).

C. 사울의 사명 9:1-31

누가복음은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선교를 확산시킨 핵심 인물과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발전에 중요한 사건들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10장)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발전시킵니다. 누가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에 중요한 세 인물을 묘사합니다. 스데반, 빌립, 그리고 이제 절정에 달한 사울입니다. 그는 사울의 회심과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이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했으며, 사울 자신은 이러한 사건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울(바울)은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두 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세 번째로 자신의 회심과 소명의 이야기를 다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가 반복된 것은 그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1]

> "이 기록들은 요약본이며, 누가는 자신의 스타일과 방식으로 이 기록을 작성했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2]

사울은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주요 도구가 되었습니다.

1. 사울의 회심과 부르심 9:1-19a

누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주권적인 인도를 보여주기 위해 다소의 사울의 회심과 부르심을 기록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교회 초기 확장기에 일어난 가장 기적적이고 중요한 회심의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방인의 주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의 소명도 마찬가지로 극적이었습니다.

---

[1] Ernst Haenchen, *The Acts of the Apostles*, p. 327 참조.

[2] Witherington, p. 309.

"사울의 회심은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같았다."[1]

사울의 다마스쿠스 길에서의 회심 9:1-9

"의심의 여지 없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2]

"이 구절에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3]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은 마차에서 일어났지만, 다소의 사울의 회심은 먼지 속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4]

9:1-2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참조, 8:3), "사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게 된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5]

"*apeiles* ['위협']과 *phonou* ['살인']의 분사적 소유격은 위협과 살인이 사울의 숨결 자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쟁마가 전투의 냄새를 맡는 것처럼, 그는 다른 이들의 죽음에서 이미 흡입한 살인(살기)을 남은 제자들에게 내뿜었습니다. 그는 흡입한 것을 내뿜었습니다."[6]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로마 감독관들은 "대제사장"에게 엄격한 종교적 범죄자이며 산헤드린의 관할권 밖으로 도망친 유대인들을 처벌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7] **사울은 아마도 안나스나 가야바(참조, 4:6)인 대제사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도망친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을 체포할 법적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 "대심문관"은 분명히 모세(민 25:1-5), 비느하스(민 25:6-15), 엘리야(왕상 18장),**

---

[1] Howson, p. 68.
[2] Timothy J. Ralston,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Paul's Conversion," *Bibliotheca Sacra* 147:586 (April-June 1990):303.
[3] Barclay, p. 71. Cf. Neil, p. 125.
[4] McGee, 4:548.
[5] 이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참고문헌 1 "바울의 활동 순서" 및 Carson and Moo, p. 369 참조.
[6] Robertson, 3:113. Cf. Knowling, 2:229.
[7] Longenecker, p. 369; Kent, pp. 82-83.

맛다디아(마카베오1서 2:23-28, 42-48)와 같은 열성적인 이스라엘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청산한 선례를 따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 "사울은 그 일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용서했지만,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고전 15:9[;] 갈 1:13."[1]

당시 다마스쿠스를 다스리던 나바테아 왕은 사울과 협력했습니다. 그는 아레타스 4세(주전 9년-주후 40년)였습니다.[2]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35마일,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시리아 지방에 속해 있었고, 10개의 자치 도시로 구성된 데카폴리스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길"은 기독교의 초기 명칭 중 하나였으며(참조, 18:24-25; 19:9, 23; 22:4; 24:14, 22), 사도행전에만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생명과 구원으로 특징지어진 길을 의미했습니다. 이 칭호는 예수님이 "길"이며, 그분의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가르치신 것에서 유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요 14:6; 마 7:14).

9:3-4 다른 구절들은 사울이 눈이 멀게 된 환상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은 보통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정오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22:6, 26:13). 그러나 사울을 눈이 멀게 한 것은 태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17, 27절; 22:14; 26:16; 고전 9:1; 15:8). 사울은 이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스데반이 보았던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7:55).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울에게 그의 유대인 이름과 유대인의 언어로 말했습니다(참조, 26:14). 사울의 주의를 끌고 나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그분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박해"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울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랍비주의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항상 하나님의 책망이나

---

[1] Ironside, *Lectures on …*, pp. 203-4.

[2] F. F. Bruce, "Chronological Questions in the Acts of the Apostles,"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University Library of Manchester* 18:2 (Spring 1986):275.

지시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1]

> "그러므로 그 음성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2]

예수님의 질문으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누리는 친밀한 연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다스리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령으로 그들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참조, 요 14:17). 제자들이 겪은 고통을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9:5-6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Gr. 퀴리오스[*kyrios*])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환상에 대한 사울의 반응과 그 후의 묘사를 보면, 사울은 그에게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단순히 "선생님"이라는 경의의 표현 이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사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주인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음성"의 정체는 사울에게 완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비슷한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알아봤지만(7:55-56), 사울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록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었지만, 하늘에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십니까?'라고 물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때까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왕좌를 빼앗으려는 신성 모독

---

[1] Longenecker, pp. 370–71.

[2] Ibid., p. 371.

자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스스로 드러내시는 예수님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는 적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제자들도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자신을 박해한 일을 다시 언급하셨는데, 이는 사울의 잘못된 신학과 죄악된 행실을 두 배로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마스쿠스로 들어가서 자신의 지시를 기다리라고 자비롭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사명이 무엇이고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9:7-9 사울의 동행자들은 분명히 음성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사울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참조, 7절; 22:9; 26:14; 참조, 요 12:29). 그들은 빛을 보자 모두 땅에 엎드러졌지만(26:14), 지금은 말도 못 하고 서있었습니다. 사울이 방금 본 환상의 강렬한 빛은 그를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다마스쿠스로 이끌어 들어가 "사흘" 동안 추가 지시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사흘동안 그는 눈이 먼 상태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참조, 1:14; 누가 1:22).[1]

> "다마스쿠스에 복수심으로 들어갈 의도였던 자가 손에 이끌려 눈이 멀고 무력한 아이처럼 그 도시로 들어갔습니다."[2]

> "다른 사람들을 때리려던 사람이 오히려 맞고, 교만한 바리새인이 깊은 회개에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맹인의 인도자'였던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Felten)."[3]

"바울의 이후의 생애,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단호한 헌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마

---

[1] 금식 실천에 대해서는, Kent D. Berghuis, "A Biblical Perspective on Fasting," *Bibliotheca Sacra* 158:629 (January-March 2001):86-103; 및 Bill Thrasher, *A Journey to Victorious Praying*, pp. 141-60 참조.

[2] Barclay, p. 73.

[3] Knowling, 2:234.

> 스쿠스 도로에서 자신이 만난 주님과 같은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하기 위한 지칠 줄 모르는 노력, 그의 복수심에 찬 잔인함에 대한 후회, 그가 짓밟으려 했던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그 죄를 속죄한 것을 고려할 때, 바울의 회심을 환각, 일사병, 간질 발작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일부 성경 비평가들이 시도한 것처럼]. 그것은 모든 진정한 회심 경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1]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은 그리스도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는 멜기세덱의 계보에 속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파괴하라는 대제사장의 편지를 받은 그는 그리스도인을 교화하고 권면하기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스승 가말리엘이 경고했던, 즉 하나님과 싸우는 일을 무의식적으로 행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사울의 주님으로부터의 부르심 9:10-19a

9:10-12 분명히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온 피난민이 아니라 (22:12) "다마스쿠스"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주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고 (17절), 기꺼이 그분께 복종했습니다(참조, 삼상 3:4, 10).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다마스쿠스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면 "사울"을 만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곧은 길"은 지금도 다마스쿠스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 중 하나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냥(prey)했지만,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 "기도"(pray)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처럼 기도의 사람이었고, 회심 후에도 기도를 우선으로 삼았습니다(참조, 16:25; 20:36; 22:17). 누가는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셨다고 기록했습니다(눅 3:21; 6:12; 9:18, 28; 11:1; 22:41). 주님은 아나니아와 사울을 자신의 계시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 그들은 주님이 그들과 개인

[1] Neil, p. 128.

적으로 관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참조, 10:1-23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경우).

> "모든 환상과 기적의 요점은,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통제하고 인도하고 계시므로 사울이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특정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1]

9:13-14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친 것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이유와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은 "체포"와 "인도"에 대한 새로운 "권한"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성도들"(구별된 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조, 32, 41절; 26:10).

> "주님의 역사는 인간의 기대를 뒤엎는 사건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인간은 평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인해 인간은 인간의 계획을 무효화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께서 나타나실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에 의해 헤아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되는 교회에게도 문제입니다. 놀라움을 주는 존재로서 하나님(그리고 높임 받으신 메시아)에 대한 화자의 예리한 감각이 이 에피소드에서도 다시 나타나며, 아나니아(그리고 9:26의 예루살렘 제자들)의 반응은 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2]

9:15-16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사울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아나니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심문자(사울)는 예수님의 "선택된 도구"(바

---

[1] Witherington, p. 318.
[2] Tannehill, 2:117.

울)가 될 것이었고, 교만한 바리새인은 "이방인과 왕들"의 사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대표적 인물"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지니고"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의미입니다. 16절의 헬라어 본문에서 "나"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아나니아의 친구가 되었고 더 이상 그의 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이 '선택된 도구'로서의 특징,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누가는 13장부터 28장까지에서 역사적으로 묘사할 모든 내용의 신학적 요약[요약]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요약은 또한 바울의 자기 인식이 그의 서신에서 반영된 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1]

9:17 "아나니아"는 새로운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손으로 만지며 ("그에게 손을 얹고") 사랑이 담긴 인사("사울 형제")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사울에게 온 두 가지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키고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목적은 사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사명은 아나니아가 발표했지만, 사울에게 직접 주님으로부터 내려진 것이었습니다(22:14-16).

> "이 임무를 위해 아나니아가 선택된 것은, 다소의 사울이 12 사도들에게 의존하지 않았으며, (사마리아의 사건에서 추론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는데 사도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2]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하게 응답했을 때 성령이 사울을 "충만하게"

---

[1] Longenecker, p. 373.

[2] Kent, pp. 83-84.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회심이 다마스쿠스의 길에서 일어났고, 그와 동시에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1] "성령으로 충만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주목하십시오. 누가가 이스라엘 땅 밖에서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9:18-19a 하나님은 사울의 시력을 회복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주는 인상은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과 동일시되는 것이었습니다(참조, 8:12, 38). 그는 사흘 동안의 금식을 끝내기 전에 이 일을 행했습니다(참조, 9절). 그 후 그는 식사를 하고 육체적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자신의 회개 직후에 성경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으며, 나중에 다마스쿠스로 돌아왔다고 기록했습니다(갈 1:15-17). "아라비아"는 다마스쿠스에서 남동쪽으로 페트라를 넘어 확장된 나바테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다마스쿠스는 아라비아의 북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은 후, 그는 조용한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 재고하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이해를 받고, 바리새인의 신학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모세, 엘리야, 예수님처럼 그는 광야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아라비안 나이츠"(Arabian nights)이었습니다.[2]

2. 사울의 초기 갈등 9:19b-30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의 후속 활동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누가는 이 구절을 기록하여 독자들이 사울이 이후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이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누가는 사울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 다음에 그에게 일어

[1] Ibid., p. 85.
[2] Witherington, p. 323.

난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의 사울의 설교 9:19b-22

9:19b-20 사울의 생애에서 19b-20절이 사건의 연대기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즉시"(20절)를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회당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참조, 13:5, 14; 14:1; 17:2, 10, 17; 18:4, 19; 19:8). 이 선포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과이자 증거였으며(17절), 회심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사람이 언급된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참조, 13:33). 이 사실은 사울이 회심 직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출 4:22; 호 11:1), 이스라엘의 기름부음 받은 왕(삼하 7:14; 시 89:26), 메시아(시 2:7)를 지칭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서신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칭호를 자주 사용했습니다(롬 1:3-4, 9; 5:10; 8:3, 29, 32; 고전 1:9; 15:28; 고후 1:19; 갈 1:16; 2:20; 4:4, 6; 살전 1:10).

9:21-22 사울의 예상치 못한 놀라운 행동은 당연히 "다마스쿠스에 살던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는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했고 지금도 구원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참조, 요일 5:1). 사울은 생각과 행동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하면서 이해와 헌신이 계속 커졌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은 21절과 22절 사이 또는 22절과 23절 사이였을 것입니다.

사울의 다마스쿠스 탈출 9:23-25

누가는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을 포함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도록 핍박하던 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그 결과 때문에 치명적인 핍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9:23-24a 얼만큼의 "여러 날이 지나서"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몇 달 동안 머물렀던 것은 분명합니다. F. F. 브루스(Bruce)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기를 주후 35년경으로, 회심 시기를 33년으로 보았습니다.[1] 이것은 사울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불과 몇 달 후에 회심했

[1] F. F. Bruce, *Commentary on …*, p. 205. Cf. 갈 1:18.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1] 저는 사울이 조금 후에, 아마도 주후 34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3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날짜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가 회심한 지 3년 후에 마침내 다마스쿠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갈 1:18).

> "무능하고 명백히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는 작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그의 책을 불태우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늑대는 그려진 양[양 그림]을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짜 기독교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진짜 기독교는 항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2]

9:24b–25 사울의 적들이 다마스쿠스 성문을 "밤낮으로" 감시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울이 성문을 빠져나가려면 그 중 하나를 통과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사울의 추종자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그의 제자들"은 그를 돕기로 결정한 동정심 많은 동료 신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탈출한 "성벽"의 도시에 있는 집을 소유한 사람은 이 제자들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32-33에서 다마스커스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묘사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그를 성벽 위에 지어진 집에서 바구니에 담아("성벽의 창문을 통해") 내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글에서 이 품위 없는 퇴장을 최소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겸손과, 한때 독선적이었던 바리새인에게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에 대

[1] Cf. Harold W. Hoehner, *Chronological Aspects of the Life of Christ*, p. 143.
[2] Barclay, p. 77.

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지역 유대인들은 그의 목숨을 건 이 시도를 준비했고, 나바테아 총독은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 "다마스쿠스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던 사울의 계획은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었고, 그는 장님으로 도시에 들어와 바구니에 담겨 떠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1]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죽이려고 다마스쿠스에 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여짐 9:26-30

누가는 사마리아인의 회심(8:4-25), 사울의 회심(9:1-31), 고넬료의 회심(10:1-11:18)에 대한 각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모교회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중요한 진전이 하나님께서 조율하신 하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이며, 단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참조, 마 16:18; 행 1:8).

9:26 아마도 사울이 회심 후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곳의 신자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참조, 갈 1:18). 그들은 그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고,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들을 핍박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된 척만 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도 특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참조, 1-2절).

9:27 "바나바"는 다마스쿠스에서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새로 개종한 사람에게 기꺼이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행동은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 읽은 내용과 일치합니다(참조, 4:36-37; 11:22-30; 13:1-14:28; 15:2-4, 12, 22). 바나바는 사울에게 진정한 "위로의 아들"(4:36)

[1] Toussaint, "Acts," pp. 377-78.

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첫째, 교회는 스데반의 기도 덕분에 바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는 아나니아의 용서하는 심령 덕분에 바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가 바나바의 큰마음의 자선 덕분에 바울을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세상은 크게 남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과 남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뉘며,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대로 그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삶의 신기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1]

사울이 만난 "사도들"은 베드로와 주님의 이복형제인 야고보였습니다(갈 1:17-19). 바울은 나중에 베드로와 15일 동안 함께 머물렀다고 기록했지만(갈 1:15),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더 오래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2]

바나바는 그리스도인 회의론자들을 위해 사울의 개종이 진정한 개종이었다는 세 가지 징후를 지적했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뵈었고", 주님("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으며",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핍박하던 친척을 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모임에서 그와 함께 앉아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9:28-29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 토론하는 일을 재개했습니다. 그 자신도 스데반처럼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빌 3:5; 참조, 고후 11:22)이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예루살렘에서의 훈련과 그의 동정심이 헬라파 유대인보다는 히브리인들과 더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했

---

[1] Barclay, p. 78.

[2] 14:4에 대한 나의 주석을 참조.

습니다. 처음에 그는 도시에서 자유를 누렸지만 곧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9:30 사울은 스데반처럼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다른 신자들에게 분명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 제자들에 대한 핍박이 재발할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걱정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사울과 함께 "가이사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리 길지 않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 후 사울은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로 떠났습니다(21:39; 갈 1:21).[1] 그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로, 그리고 고향인 다소에 이르기까지 약 690마일을 여행했는데, 아라비아로의 여행은 제외한 것입니다. 아라비아로의 여행 거리는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참조, 갈 1:17-19).[2]

22:17-21에서 사울은 나중에 신자로서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 자신을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환상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바나바가 그를 추적하여 시리아 안디옥으로 데려올 때까지 길리기아 지방에 머물렀습니다(11:19-26). 이 일은 약 6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1:24-27, 12:1-9에 묘사된 사울의 경험 중 많은 부분이 이 침묵의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아마도 주후 37-43년) 동안 사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울은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선교 여행에 대해 읽은

---

[1] 다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 Finegan, *Light from …*, pp. 334–36 참조.

[2] Barry J. Beitzel, *The Moody Atlas of Bible Lands*, p. 177.

내용에 부합하는 경험을 쌓으며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사역 시작과 예수님 사역 시작 사이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참조, 9:20-35 및 눅 4:16-30). 두 사람 모두 회당에 들어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청중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청중은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물었고, 사울의 경우 청중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폭력적으로 박해한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후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폭력적인 반응을 피했습니다.[1]

3. 평화로운 교회 9:31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단수형인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등 이스라엘 땅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떠난 후 이 지역의 교회들은 더 큰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개종으로 인해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줄어든 또 다른 이유는 로마 황제의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었습니다.[2] 평화로운 상황은 효과적인 전도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참조, 딤전 2:1-4). 교회는 이 "평화" 기간 동안 네 가지를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즉, 내적 강화("세워지고"), 유대교와 대조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관계("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위로"(격려, Ge. 파라클레시스[*paraklesis*]), 수적 성장("점점 늘어났다")입니다.

이 구절 외에 사도행전에는 "갈릴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참조, 10:37; 13:31). 이로 인해 일부 주석가들은 갈릴리가 예수님 사역 기간 동안 복음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무렵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의 증거에 따르면 이 당시와 그 후에도 갈릴리에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었다고 합

[1] Witherington, p. 320.

[2] Josephus, *Antiquities of …,* 18:8:1-9 참조.

니다.[1]

이 구절은 누가의 세 번째 주요한 교회 현황 보고입니다(참조, 2:47; 6:7; 12:24; 16:5; 19:20; 28:30-31). 이 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교회 확장을 다루며 마무리됩니다(6:8-9:31). 주님은 먼저 약 3,000명의 새 신자를 핵심 제자 그룹에 추가하셨습니다(2:41). 그 후 주님은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을 더 추가하셨습니다(2:47).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은 수많은 새 신자들을 추가하셨습니다(5:14). 그리고 나서 제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읽습니다(6:7). 이제 우리는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읽습니다.

>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분의 길을 가지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를 위해 구령하게 될 것입니다."[2]

III. 땅 끝까지 나아가는 증거 9:32- 28:31

누가복음은 다음으로 교회가 이스라엘 땅을 넘어 땅 끝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1:8).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로 복음을 가져갔지만 유대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A. 시리아 안디옥으로 확장된 교회 9:32-12:24

예루살렘이 유대인 복음화를 위한 유대 문화권에서의 중심지였다면, 시리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및 현재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점점 더 퍼져 나갔고,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부분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했습니다. 가나안 해상 평야에서 베드로의 사역(9:32-43),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의 회심(10:1-11:18), 안디옥 교회의 설립(11:19-30)이 그것입니다. 그런 다음 누가는 다

[1] Barrett, pp. 473-74 참조.
[2] Ironside, *Lectures on* …, p. 228.

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려줍니다(12:1-23).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대한 또 다른 요약 서술로 이 섹션을 마무리합니다(12:24).

1. 룻다와 욥바에서의 베드로의 사역 9:32-43

누가복음은 이제 유대 지방에서 계속되는 베드로의 사역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다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애니아의 치유와 다비다를 일으킨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는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더 멀리 나아가는 데 책임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 독자들이 교회가 계속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평등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참조, 엡 2:11-3:12).

룻다에서 애니아를 치유함 9:32-35

베드로는 이스라엘 땅을 순회하며 사역을 계속했습니다(참조, 8:25).

9:32 "룻다"(현대의 롯드, 이스라엘의 국제공항이 있는 곳)는 바다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지중해 연안 평야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가는 고속도로의 교차점에 서 있었습니다.[1] 그곳에는 이미 "성도"(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가 있었습니다(참조, 13, 41절).

9:33 베드로는 룻다에서 또 다른 불구를 고쳤습니다(참조, 3:6-8; 눅 5:17-26).[2] "애니아"는 그리스인 이름입니다. 그는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가 그를 "남자"라고 불렀지만, 다비다를 "제자"(36절)라고 한 것은 그가 신자가 아니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애니아는 "마비되어 8년 동안 누워 있

[1] 위 8:4-8의 주석 부분에 있는 지도를 참조.
[2] Joshua Schwartz, "Peter and Ben Stada in Lydda,"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391-414 참조.

었다"고 했습니다.

9:34 베드로는 그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알렸습니다(참조, 1:1, 3:6).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마비환자에게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9:6; 막 2:11; 눅 5:24). 나중에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던 또 다른 마비환자에게도 들것을 들고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5:8). 헬라어 스트로손 세아우토(*stroson seauto*, "네 침대를 정돈하라")는 문자 그대로 "네 자신을 위해 펼쳐라"라는 뜻으로 침대를 만들거나 식탁을 준비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베드로를 통해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마비되었던 사람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병상에 누워 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도 고쳤습니다(28:8).

> "저는 성경에 언급된 다양한 질병은 모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죄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

9:35 "샤론"은 욥바에서 갈멜산까지 뻗어 있는 해양 평야 지대의 이름입니다. 그 남동쪽 가장자리에는 룻다가 있었고, 지중해 연안의 중심에는 가이사랴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앉은뱅이를 고치신 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과 마찬가지로, 애니아의 치유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 주님께로 돌아왔다").

누가가 이 치유를 자신의 책에 포함시킨 이유 중 하나는 이 치유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중 한 명은 다음 장에서 중요하게 등장할 이방인 고넬료였습니다.

욥바에서 다비다를 일으킴 9:36-43

---

[1] Ironside, *Lectures on* ···, p. 231.

9:36 "욥바"(현대의 야포, 텔아비브 교외)는 서쪽으로 10마일, 룻다에서 조금 북쪽으로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고대 항구였습니다(참조, 대하 2:16; 요 1:3). "다비다"(문자적으로, 가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녀는 '제자'(Gr. 마데트리아[*mathetria*])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제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여성형이 등장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그녀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놀라운 명성을 얻었습니다.

9:37-38 그녀가 "죽었"을 때, 신자들은 인근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오라는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씻고" "위층 방에 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녀를 다시 살릴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9:39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매우 흥미롭게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으러 룻다에 온 "두 사람"과 함께 욥바로 돌아갔습니다(참조, 10:7, 23). "과부들"은 다비다가 그들을 위해 만들어 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보여주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중간태는 이를 암시합니다. 그녀는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 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녀의 사역이었습니다.

> "그녀는 바느질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느질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여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용적인 은사를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

9:40-41 여기서 베드로의 절차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막 5:41; 눅 8:51-56)와 거의 동일합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고 선포했을 때, 애니아를 고칠 때(34절)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다비다 쿠미[*Tabitha qumi*])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탈리타

[1] McGee, 4:552.

쿠미[*Talitha qumi*], “어린 아이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에는 한 글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말과 행동으로 증인들을 통해 능력 있게 일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1:1-2; 참조, 요 14:12). 탄네힐(Tannehill)은 이 이야기와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1]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을 주셨습니다(마 10:8).

9:42 이 기적의 소식으로 인해 “온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었다"는 말은 “주님께로 돌아섰다”는 말과 유사합니다(35절; 참조, 11:21; 15:19).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또 다른 표현이며, 두 구절 모두 그들이 믿은 분이 주 예수님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돌이켰다"는 “믿었다”와 동일하며 누가복음은 구원을 위한 다른 조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9:43 이 구절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한 이야기(10:1-11:18)로의 지리적, 주제적 전환을 제공합니다. 베드로는 이 새로운 개종자들을 확인하고 그 마을의 교회를 돕기 위해 꽤 오랫동안(“여러 날”) “욥바에 머물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무두장이"와 함께 기꺼이 머물렀다는 것은 베드로가 다른 많은 유대인들보다 더 넓은 교제를 나누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무두장이가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받았던 것과 비슷한 신념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바 사람들의 초대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그곳으로 데려가셨는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처음에는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는 것을 사용하여 위대한 사역을 열어 가십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

[1] Tannehill, 2:126–27.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침례를 베풀라는 부르심이 왔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유용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었으며, 스승이 행한 기적(마 ix.23-26, 막 v.38-43, 요 v.6-9장)과 같은 기적의 대리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1]

2. 고넬료의 회심 10:1-11:18

많은 사람들은 앉은뱅이를 고치는 것을 큰 기적으로 여기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더 큰 기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길을 잃은 죄인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처음 두 기적을 행하셨고(9:32-35, 36-43), 이제 베드로를 통해 세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10장).

"어떤 의미에서 이 장면은 이 책의 전환점이며,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 광대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바울의 세 번의 선교 여행이 이를 강조할 것입니다."[2]

고넬료에 관한 에피소드는 사도행전에서 세 번(10장, 11장, 15장)이나 길게 언급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방인의 "부정"이라는 장애물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식생활 구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부정했고, 유대인들에게 의식적으로 부정함을 전했습니다(레 11장). 이 장애물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회에서 분리시켰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회심 이야기에서 특히 네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과, 유대교와의 관계를 떠나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에 저항했습니다(10:14, 28; 11:2-3, 8). 둘째,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인 전도와 수용에 앞장서셨고, 이방인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10:3, 11-16, 19-20, 22b, 30-33, 44-46; 11:5-10, 13, 15-17). 셋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문

[1] Blaiklock, p. 94.
[2] Bock, *Acts*, p. 380.

을 열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의 지도자인 베드로였습니다(10:23, 34-43, 47-48; 11:15-17). 넷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와의 관계를 떠나 이방인의 개종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경우를 통해 이를 검증하셨기 때문입니다(11:18).[1]

> "이방인 선교의 일차적 주체는 바울이지만, 누가는 베드로가 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수장으로서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과 그의 친구들의 경우에서 그의 행동으로 이방인을 새 이스라엘[즉, 교회]의 완전하고 동등한 회원으로 인정하는 공식 축복을 처음으로 내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2]

고넬료의 환상 10:1-8

10:1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의 원래 이름은 스트라토의 탑(Strato's Tower)이었습니다.[3] 스트라토는 시돈의 이전 왕(주전 370-358년)이었습니다.[4] 헤롯 대왕은 이 도시를 주요 항구로 건설하고 자신의 후원자이자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던 아우구스투스 시저를 기리기 위해 이름을 바꿨습니다.[5] "사바스테"는 라틴어 "아우구스투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 도시를 현대화하여 유대의 지방 수도로 삼고 웅장한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로마의 유대 총독(장관)인 본디오 빌라도도 이곳에 살았습니다. 당시 이곳은 이스라엘 땅을 위한 로마의 주요 항구이자 로마 정부와 군사 활동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6]

"고넬료"는 로마의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7]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부사관으로, 미군의 대위와 비슷한 수준의 권한

---

[1] Longenecker, p. 383.
[2] Neil, p. 137. 사울의 회심과 고넬료의 회심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서는, Howson, p. 77 참조.
[3] Josephus, *Antiquities of …,* 13:11:2; 14:4:4; idem, *The Wars …*, 1:7:7.
[4] A. T. Olmstead,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p. 411.
[5] Josephus, *Antiquities of …*, 15:8:5; 15:11:4; idem, *The Wars …,* 1:21:5-8.
[6] Hengel, pp. 55-58 참조.
[7] Longenecker, pp. 384-85 참조.

을 가졌습니다. "부대"(cohort)에는 600명의 군인이 포함되었고, 고넬료의 "이탈리아 부대"는 이탈리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1] 신약성경에서 백부장에 대한 언급은 모두 긍정적입니다(마 8:5-10; 27:54; 막 15:44-45; 행 22:25-26; 23:17-18; 27:6, 43). 고넬료는 누가복음 7:1-10의 백부장(특히 눅 7:5 참조)과 비슷하게 "로마 군대의 중추"[2]였습니다.

> "군단은 로마 군대의 연대[참조, 미군 사단]였으며, 명목상으로는 6천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군단은 10개의 코호트[미국식 대대]로 나뉘었고, 각 코호트는 다시 6세기 또는 '수백' 명의 병력[미국식 중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코호트를 지휘하는 장교를 호민관(*tribune*) 또는 그리스어로 천인대장(*chiliarch*)이라고 불렀습니다: 21:31과 23:26의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도 그랬습니다. 백인조는 백부장(*centurion* 또는 *kekatontarch*) 아래 있었습니다."[3]

고넬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이전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의 직업을 호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직업에 대해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가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점령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가 훌륭한 성품을 지녔고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의 직업 때문에 그를 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중에 처음으로 대면한 이방인이 로마 백부장이었고, 그 역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 예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마 8:11).

10:2 고넬료는 "그의 집안"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

---

[1] Barrett, p. 499 참조.

[2] F. F. Bruce, *Commentary on …*, p. 215. Cf. Barclay, p. 82.

[3] Rackham, p. 147.

외"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Gr. 토 라오[*to lao*], 즉, 유대인에게)에 대한 그의 관대함("자선을 베풀며")과 그의 끊임없는 기도(Gr. 데오마이[*deomai*], 문자적으로 "간구하다")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훌륭했습니다(참조, 마 22:37-39). 고넬료는 온전한 유대인 개종자가 되지는 않았지만(11:3), 유대인의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완전한 이방인 개종자를 "의의 개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를 덜 따르는 이방인을 "문(gate)의 개종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후자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고넬료도 후자의 개종자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을 수 있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후자의 개종자 중 한 명이었을 수 있습니다(참조, 8:27). 이러한 유형의 이방인은 복음의 씨앗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참조, 8:26-40). 바울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별개의 집단으로서 존재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1]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그들의 존재를 가리키며(참조, 행 10:2, 22, 35; 13:16, 26, 43, 50; 16:14; 17:4, 17; 18:7), 이것이 오랜 세월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내기 전에 이미 신자(즉, 구약 성도)였다고 주장합니다.[2] 어떤 학자들은 고넬료가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를 듣기 전에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구원받기 위해 복

[1] 예를 들어, *Biblical Archaeology Review* 12:5 (September-October 1986)에 다음의 제목으로 실린 일련의 글들을 참조 : "The God-Fearers—Did They Exist?": Robert S. MacLennan and A. Thomas Kraabel, "The God-Fearers—A Literary and Theological Invention," pp. 46-53; Robert F. Tannenbaum, "Jews and God-Fearers in the Holy City of Aphrodite," pp. 54-57; and Louis H. Feldman, "The Omnipresence of the God-Fearers," pp. 58-63.

[2] E.g., Calvin, 3:24:10; Gaebelein, *The Annotated …,* 3:1:283; Ironside, *Lectures on …*, pp. 245, 268.

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1]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장과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고넬료는 44절까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참조, 11:14).

10:3-4 "제 구시"(오후 3시)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입니다(참조, 3:1).[2] 따라서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을 때 기도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각각 환상을 주심으로 두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고넬료와 베드로; 참조, 사울과 아나니아). 고넬료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를 보았습니다(7, 22, 30절; 11: 13; 참조, 1:20). 여기서 "주님"은 "선생님"과 같은 존칭이지만, 백부장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보았을 때 큰 경외심을 느꼈습니다(참조, 30절). 고넬료는 천사를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천사를 구세주나 주권자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경건함(그의 "기도", 프로슈카이[*proseuchai*], 및 그의 "자선 행위", 2절 참조)에 주목하셨고 이제 그에게 더 많은 계시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 "누가는 이 이방인의 기도와 자선이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바칠 수 없는 제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기도와 자선을 유대인의 제사와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행동하셨습니다."[3]

현대 선교사들은 하나님을 찾는 비슷한 구도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외딴 부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후,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선교사들이 전한 것과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했는지 설

---

[1] E.g., John Sanders, "Inclusivism," in *What about Those Who Have Never Heard? Three Views on the Destiny of the Unevangelized*, p. 40; but see 10:43; 11:14). For refutation of this view, see Ramesh Richard, "Soteriological Inclusivism and Dispensationalism," *Bibliotheca Sacra* 151:601 (January-March 1994):85-108.

[2] Josephus, *Antiquities of* …, 14:4:3.

[3] P. F. Esler, *Community and Gospel in Luke-Acts: The Social and Political Motivations of Lucan Theology*, p. 162.

명했고, 더 많은 빛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그를 자신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10:5-6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몇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그는 그곳에서 "무두장이"인 다른 "시몬"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참조, 9:43). 무두장이들은 장사를 할 때 물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시몬이 "[지중해] 바닷가"에 살았던 이유일 수 있습니다.

10:7-8 고넬료는 "즉시"(33절) 베드로를 돕기 위해 "두 명의 종"과 영적으로 "독실한" 군사 보좌관("군사")을 보내어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의 목적에 동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자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참조, 2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 백부장은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마 8:5-13; 눅 7:1-10).

베드로의 환상 10:9-16

> "베드로는 훈련으로 인해서나 성향상으로나 지나치게 꼼꼼한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려받은 편견이 점차 엷어지고 있었지만, 이방인을 직접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고, 누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주저함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주도권을 잡으셨는지 이야기합니다."[1]

사도행전의 그리스, 로마, 유대인 독자들은 모두 꿈과 환상, 신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신들로부터, 유대인의 경우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사울과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에서 이러한 사건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독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1] Longenecker, p. 387.

신적인 허가를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1]

10:9-10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 번 기도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 번째 기도 시간인 정오("제 육시")에도 기도했습니다(시 55:17; 단 6:10). 그러나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라기보다는 최근 욥바에서 복음이 성공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참조, 9:42). 헬라어 동사 프로슈코마이(*proseuchomai*, "기도하다")의 부정(aorist) 시제는 베드로가 단지 기도할 시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확실한 어떤 것에 대해 기도하고 있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때때로 경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는 아마도 프라이버시와 신선한 바다 공기를 위해 평평한 "집 꼭대기"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누가가 베드로의 배고픔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식과 관련된 환상을 주신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아경"(Gr. 에크스타시스[*ekstasis*], 반의식 상태, 10절)에 빠져 있었고 "환상"(호라마[*horama*], 17, 19절; 11:5)을 보았습니다.

> "… 평일에는 유대인들은 오전 중반에 가벼운 식사를 하고 늦은 오후에 더 풍성한 식사를 했습니다."[2]

10:11-13 지붕의 차양이나 배의 돛과 비슷한 시트 모양의 보자기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등 온갖 종류의 "동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참조, 11:6). 부정한 음식의 문제는 베드로와 같이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 "이방인이 짜낸 우유는 유대인이 지켜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만든 빵과 기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전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즉, 이방인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통 전체가 오염되었고, 심지어 이방인의 포도

[1] Witherington, p. 341.
[2] Marshall, *The Acts …*, p. 185.

주에 코를 대는 것조차도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1]

"... 요점은 주님의 명령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 앞에 놓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에서 베드로를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음식이 깨끗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이방인 자신도 '깨끗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간단한 단계일 것입니다."[2]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모세 율법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제한을 추가했습니다.

10:14 **베드로는 주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 잡아 먹으라!"는 명령에 대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슷한 지시를 받았을 때(겔 4:14) 그랬던 것처럼 강력하지만 정중하게("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Gr. 메다모스, 쿠리에 [*medamos, kurie*]) 항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고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3] 그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막 7:14-19; 참조, 롬 14:14).**

물론 베드로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는 일관성 없는 진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대답은 그의 충동적인 성격과 이전의 행동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는 이전에도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참조, 마 16:22; 요 13:8). 이 가르침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이전의 다른 경우(예: 요 13:8-9, 21:7)에서 베드로가 보인 비슷한 극단적인 반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 길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9:5-8).

"'그분이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전혀 주님이 아니다'라는 진

---

[1] Edersheim, *The Life ···,* 1:92.
[2] Marshall, *The Acts ···*, p. 186.
[3] F. F. Bruce, *Commentary on ···*, p. 220.

> 부한 말은 단지 진부한 말이지 성경적, 신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내 삶의 다른 영역은 그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분은 내 삶의 일부분의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옥상에서 주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잡아 먹으라고 하셨을 때 누구보다 분명하게 그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행 10:14)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모든 것의 주님이셨을까요?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삶과 관련하여 그분은 전혀 주님이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1]

그리스도인은 모세 율법의 식단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현대적 형태의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금지하신 것 중 일부는 건강을 보장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예: 혼방 옷을 입는 것,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지우지 않는 것 등).

베드로는 이전에 시체와 접촉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의 금기를 어긴 적이 있는데 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반대했습니까(참조, 9:43)?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시체와의 접촉보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0:15-16 **베드로의 생각에는, 유대인의 문화적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도록 환상을 두 번 더 반복하셨습니다.**

> "세 번의 반복은 베드로에게 익숙한 해변에서의 인터뷰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참조, 요 21:15-17)."[2]

> "[베드로의 환상] 전체에 퍼져 있는 메시지는 ...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정결케 하기 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

[1] Ryrie, *So Great …*, p. 73.
[2] Blaiklock, p. 96.

에 베드로가 다음 날 그들에게 전할 정결케 하는 복음을 통해 그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라는 것입니다."[1]

"이 특별한 적용은 마가복음 7장 17-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유대인의 음식법을 무효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 그 환상의 메시지의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자신이 알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와 그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2]

저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생각하면서 요나를 떠올렸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를 니느웨에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르셨지만, 요나는 그 소명을 피하기 위해 바로 그 도시, 욥바에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은 폭풍을 보내 이방인 선원들이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보내셨고, 그들은 큰 기쁨과 평화를 경험했습니다."[3]

고넬료의 사자가 보낸 초대 10:17-23a

10:17-18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마음이 크게 당황"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사자들이 시몬 베드로가 그 집에 있는지 묻기 위해 아래에서 불렀습니다.**

---

[1] Harm, p. 35.
[2] Longenecker, p. 388.
[3] Wiersbe, 1:443.

"서서 부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매우 정중한 방식이며, 성경 시대에도 그랬고, 이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암시가 많이 있습니다[참조, 신 24:10; 행 10:17-18; 12:13, 16]."[1]

10:19-20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으로 사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 '하나님의 천사(3, 22절)', 성령(19절), 승천하신 그리스도(4, 14절)' 사이에 뚜렷한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주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어렵습니다."[2]

위의 인용문에 "하나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28절; 참조, 8:26, 29, 39; 16:6-7; 롬 8:9-11; 고후 3:17-18).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지만, 온건한 정통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의 집에 기꺼이 들어 가지 않을 것입니다."[3]

베드로는 백부장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넬료의 사자들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동안"(19절), 그는 정결/부정 구별을 종식시킨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을 것입니다(참조, 29절; 막 7:19).

10:21-22 **베드로는 아마도 관습대로 집 바깥의 계단을 이용하여 지붕에서 내려와 그들이 서 있던 문 밖에서 사자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넬료를 "온 유대 민족(Gr. 에트노스[*ethnos*])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자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2절 참조)으로 묘사했다. 그들은 자기 주인에 대한 묘사를 통해 가이사랴로 돌아갈 때 베드로와 동행하고자 원했던 것**

---

[1] Thomson, 1:192.
[2] Longenecker, p. 389. 또한 Neil, p. 139 참조.
[3] F. F. Bruce, *Commentary on* ⋯, p. 217.

이 분명합니다.

10:23a 그들의 의도를 알게 된 베드로는 사자들을 안으로 "초대"하고 그들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고, 즉시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앞서 베드로는 음식에 대한 그의 꼼꼼함에 대해 항의했으면서, 동시에 직업으로 인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 사람의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도된 아이러니도 있을 수 있습니다!"[1]

베드로의 고넬료 방문 10:23b-33

10:23b-24 베드로는 지혜롭게도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 여섯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11:12). 총 일곱 명의 신자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여행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30절).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가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영적 안녕에 대해 모범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참조, 27절). 본문에는 고넬료가 베드로가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 가장 저명한 사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측할 만한 근거는 없지만(참조, 5절),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0:25-26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는 많은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일이었다(참조, 9:43; 10:14). 다른 경우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상의 전달자에게 반응한 것처럼 고넬료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천사와 마찬가지

[1] Witherington, p. 351.

로 이 경배를 거부했습니다(참조, 계 19:10; 22:8-9).

> "... 시몬 베드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그곳의 베드로 동상에게 하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에 입을 맞추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1]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 시민들로부터 비슷한 환대를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경배받기를 거부했습니다(14:11-15).

10:27-29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거나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2] 이방인은 음식을 먹고, 준비하고, 심지어 음식을 다룰 때 유대인이 따르는 엄격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십일조를 하거나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 "모든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눈 이 거대한 구분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었다고 안전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3]

> "사회적 관습보다 일반인을 더 구속하는 것은 없습니다."[4]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음식이 가득 담긴 보자기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즉,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거나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고넬료를 찾아왔습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의 설명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유대인의 전통을 거스르도록 그를 설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1] McGee, 4:556.
[2] Mishnah *Demai* 3:4.
[3] Edersheim, *Sketches of …,* p. 86.
[4] Robertson, 3:141.

"유대인의 음식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이방인과의 사회적 접촉을 피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었는데, 그러한 구별은 유대인 종족주의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1]

"그[베드로]는 변명으로 메시지를 시작할 때 강론[설교]의 첫 번째 규칙을 위반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친절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모욕입니다. ... 만약 특별히 당신이 가정부라면, 어떤 방문객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의 첫 마디가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집에 들어왔다'였다면 기분이 어떠할까요?"[2]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신속하고 겸손하게 자신이 이전에 이방인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틀렸다고 설명했습니다(29절).

"... 그리스도인 설교자나 교사는 어떤 사람도 보통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3]

10:30-33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에 나타난 천사(2절)는 "빛나는 옷"을 입은 "남자"(30절)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상은 백부장의 "기도"와 "자선 행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구원을 얻어낼 수 없는 것들이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들입니다. ...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얻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4]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즉시"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 응답을 훌륭하게 했

---

[1] Kent, p. 93.
[2] McGee, 4:557.
[3] Morgan, *The Acts ···*, p. 218.
[4] McGee, 4:555.

습니다(참조, 베드로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14절). 그런 다음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과 손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준비되고 수용적인 청중이었습니까!

누가는 고넬료의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세부 사항을 반복하여 설명했습니다(참조, 11:4-10). 이것은 강조를 강화하는 그의 이중 스타일의 또 다른 예입니다. 다른 예로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반복하는 것과 바울이 베드로가 행한 것과 같은 유형의 기적을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1]

고넬료에게 전하는 베드로의 메시지 10:34-43

이 때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청중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참조, 14:15-17; 17:22-31). 이 설교는 베드로가 2:14-40, 3:11-26에서 설교한 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전체적으로 유대인보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연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조는 적절했습니다. 또한 이 연설에는 구약성경에 대한 암시가 많이 있지만 구약성경에서 인용한 구절은 없습니다.

10:34 "입을 열어"는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소개하는 문구입니다(참조, 8:35; 18:14; 마 5:2; 13:35).

> "... 누가가 보기에 베드로가 하려던 말은 수 세기에 걸친 인종적 편견을 없애는 데 참으로 중대한 것이었습니다."[2]

베드로가 이제야 깨달았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내용이었습니다(예: 암 9:7; 미 6:8).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수 세기에 걸친 잘못된 교만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

[1] 14장의 노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주석 참고.
[2] Longenecker, p. 392.

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이 계시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편애를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니"[1](참조, 신 10:17; 대하 19:7; 욥 34:19),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인종에 근거하지 않고(참조, 요 10:16), 아들을 통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했습니다(참조, 36, 38, 42, 43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종 차별을 행할 때마다 사도행전 10장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10:35 하나님은 온전하게 받아들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43절, 참조, 11:17). 그러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첫 번째 수용에 응합니다.

10:36 이 모든 구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손님들에게 선포한 내용을 일종의 머리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세 가지 주요 강조점은 첫째, 앞으로 전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계시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화평"를 가져오는 메시지였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주"이십니다. "만유의 주"는 이교도의 신에 대한 칭호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절한 칭호로 받아들였습니다.[2]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다"는 베드로의 새로운 통찰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구절의 주요 내용일 것입니다.

>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므로, 베드로는 고넬료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점 중 하나입니다."[3]

---

[1] 또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 역자주
[2] Ibid., p. 393; Barrett, p. 522.
[3] Bock, "A Theology …," p. 105

"예수님의 주되심(36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주되심 때문에 그분은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의 사역을 하셨습니다(38절). 주님으로서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고 선포하는 증언의 대상이 되셨습니다(42절). 그분은 모든 예언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고 증언한 분이십니다(43절). 다시 [2:21, 32-39; 5:14; 9:42에서와 같이] 주되심은 구원의 담지자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 즉 과거(마귀를 쫓아내는 일), 현재(죄 사함을 주시는 일), 미래(심판자로 섬기는 일)에 대한 일을 포함하는 권위를 설명합니다."[1]

이 장에서 "주"가 항상 "주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4절에서는 단순히 존칭으로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문맥은 각 경우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 존경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10:37 베드로는 청중을 위해 나사렛 예수님의 경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어떤 지식은 상식으로 전제하되 누가가 베드로의 이전 연설에서 기록한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어떤 연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경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리뷰입니다. 베드로의 청중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 사항은 적절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요약은 초기 그리스도인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가 영향을 받은 마가복음과 동일한 일반적인 개요를 따랐습니다.

누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누가복음-사도행전의 다른 모든 연설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의 메시지를 요약했으며, 독자들에게 중요한 요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요점에는 이사야 61:1의 성취(38절, 참조, 눅 4:14-30), 사도적 증거의 중요성(39-41절, 참조, 행 1:8), 부활 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먹고 마신 것(41절, 참조, 눅 24:41-43)이 포함되었습니다. 베

[1] Idem, "Jesus as ⋯," p. 149.

드로가 언급한 "이 일"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었습니다.

10:38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것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참조, 눅 3:21-22), 즉, 하나님의 공식적인 기름부음 받은 자(메시아)가 되실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눌린" 많은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억눌린 사람을 고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된 표현(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과장된 진술)입니다.[1] 이것은 "번영 복음"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인용하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2] 예수님의 선행과 초자연적 기적은 "그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합니다(참조, 창 39:2).

10:39 사도들은 설교에서 자신들이 예수님 사역의 "증인"임을 자주 언급했습니다(2:32; 3:15; 5:32; 10:41; 13:30-31). 이는 청중들에게 엄청난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지방"에서 행하신 일과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분류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3:15; 4:10; 5:30; 7:52)과 이방인(4:27)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는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 얼마나 끔찍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는지를 강조합니다.

> "십자가가 신성한 상징이 된 지 16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 바울 시대에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나 생각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공포와 혐오를 불러일으켰는지 깨닫기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crux*)라는 단어는 교양있는 로마 사회에서는 언급할 수 없는 단어였고(시세로, 『프로 라비리오 16』), 심지어 십자가형에 처해 사형 선고를 할때에도 그 선고문은 고대식 표현을 사용했으며 그것은 일종의 완곡한 표현의 역할을 했습니다..."[3]

---

[1] 3:2의 주석 참조.
[2] 5:16의 주석 참조.
[3] F. F. Bruce,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p. 271.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인간의 죄를 최악으로 드러낸다."[1]

10:40-41 예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참조, 17:31).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중에는 베드로 자신도 있었는데, 그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이 실제로 살아 계셨다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부활의 현현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이 의무는 부적합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오랜 교제와 선교 사역을 함께 함으로써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2]

10:42-43 베드로는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41절)을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마태복음 28:19-20의 지상명령에 대한 예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서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가르치다').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모든 사람("산 자와 죽은 자")을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못했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참조, 행 17:31). 용서받으려면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참조, 5:14; 9:42; 11:17). 베드로는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가르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예: 사 53:11; 렘 31:34; 겔 36:25-26; 등). 메시아(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심판자"가 될 것이며,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참조, 요 5:27). 만

[1] 익명.
[2] Marshall, *The Acts …*, p. 193.
[3] Wiersbe, 1:447.

유의 주(36절)는 또한 만인("산 자와 죽은 자", 42절)의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 사역의 보편적 유익을 강조한 것에 주목하세요.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36절)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고치러"(38절) 다니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예언자"들이 증거한 모든 사람의 "심판자"(42절)이십니다(43a절).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니다(43b절).

"이 간단한 개요[34-43절]는 ... 아마도 사도적 복음 선포가 분명하게 드러난 가장 초기의 형태인 케리그마(*kerygma*)의 가장 분명한 신약의 예일 것입니다."[1]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심 10:44-48

10:44 베드로는 이 기회에 청중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참조: 2:38; 3:19). 그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주자마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즉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47절; 11:15; 참조, 2:4) 침례를 주셨습니다(11:16; 참조, 1:5).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11:17).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개종자가 되거나, 물 침례를 경험하거나, 할례를 받거나, 죄들에서 돌이키거나, 심지어 죄들에서 돌이키겠다고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2]

---

[1] Kent, p. 94.

[2] "주권 구원"(Lordship Salvation)에 대한 잘 알려진 비판은, Roy B. Zuck, "Cheap Grace?" *Kindred Spirit* 13:2 (Summer 1989):4-7 참조.

여기서 성령 침례는 사도의 안수 없이도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참조, 8:17-19), 그리고 나중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19:6), 여기서는 사도들과 성령 침례를 동일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유대인의 외적인 의례와 별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 침례의 연관성입니다.

> "고넬료에 대한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이 시대의 표준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인간의 중재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 외에 다른 조건 없이, 또 지체없이 성령이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10:45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외적인 증거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46a절, 참조, 11:15-16). 이 반응은 베드로의 유대인 동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 이유는 방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10:46a 아마도 베드로와 그의 유대인 동료들은 이 이방인들이 아람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을 것인데, 아람어는 유대인들이 말하고 이해하는 언어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즉시 이해했을 것이며,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오순절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 침례의 증거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tongues)이 언어(languages)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 "베드로는 그들을 위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넬료 자신이 이 경험을 얻기 위해 기도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는 방언을 말하는 현상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1] *The New Scofield …,* p. 1179. 참조, 롬 8:9.

(이 주제에 대해 베드로와 고넬료가 침묵했던 것을 주목하세요)."[1]

10:46b-48 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물 침례를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믿음의 간증으로 물 침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령 침례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표시였고, 물 침례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나 유대인 공동체로의 입교, 전통적인 유대인 식습관의 채택 등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경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물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의 문제입니다."[2]

누가가 9:32-10:48에 기록한 사건은 주님께서 이방인을 포함하도록 교회를 더욱 확장하실 때를 대비해 베드로를 준비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마 16:19; 참조, 엡 2:14).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이방인 세계의 오순절"[3]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분 보시기에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유대인은 교회에 들어올 때 이방인보다 본질적인 이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참조, 엡 2:11-3:12).

에디오피아 내시는 함의 후손, 사울은 셈의 후손, 고넬료는 야벳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참조, 창 10장).[4] 따라서 누가는 8-10장에 나오는 그들의 회심 기록을 통해 인류의 모든 분류가 동등하게 교회에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앞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이 아니라 고넬료의 회심이 이방인을 향한 교회의 문을

---

[1] Gromacki, *The Modern …,* p. 91.
[2] Ironside, *Lectures on …*, p. 257.
[3] F. H. Chase, *The Credibility of the Acts of the Apostles*, p. 79.
[4] McGee, 4:545.

여는 계기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방인 내시의 회심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구원의 사례였습니다. 반면에 고넬료의 회심은 여러 이방인이 관련된 공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라합, 룻, 나아만 등 개별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방인들을 성령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내시는 그리스도인이자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회심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시는 아프리카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을 것이고, 고넬료는 이스라엘에 살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광범위했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신자들의 단체를 형성하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2장에서는 그 단체에 유대인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10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도 포함될 것이라고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 단체(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전제조건은 수세기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인종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되는 것과 (종교적으로) 유대인이되는 것의 뚜렷한 차이점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표징은 유대인들을 위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서 누가는 지중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과정을 서술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 11:1-18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행한 행동은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가는 독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받아들이신 것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 구절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이 받아들여짐이 대사명의 성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교회로 데려오신 일을, 예전에 사마리아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 대해 행하셨던 일(8:14-25)과 마찬가지로 인식했습니다. 누가는 이 인식을 이 구절에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식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별을 증명하고 교

회의 세계적 사명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행위에 대한 비판 11:1-3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유대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형제들"(1절)과 "유대인 신자들"(2절)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판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응답을 통해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참조, 15절).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접촉한 것, 특히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을 반대했습니다(3절). 누가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와 함께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한 것 같습니다(10:48). 베드로를 괴롭혔던 금기 사항이 유대인 형제들도 괴롭혔습니다(참조, 10:28). 그들은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 보일 반응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우려를 느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행동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는 더 많은 박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참조, 7:54-8:3).

> "11:3에서 예수님을 비판한 사람들의 미묘한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함께 머물렀다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면한 것과 같은 비판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제기된 비판입니다."[1]

> "베드로가 어떤 종류의 교황이나 지배자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2]

> "에티오피아인이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받아들여진 것은 한 가지 일이었지만, 빌립이 주장한 원칙이 할례를 받은 사도들에 의해 고넬료의 경우에 승인된 것은 또 다른 일이었고, 이는 분명한 진전이었다."[3]

자기 행동에 대한 베드로의 변호 11:4-17

누가는 독자들에게 이 사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베드로가 비판자들에게 이

---

[1] Tannehill, 2:137.
[2] Robertson, 3:152.
[3] Knowling, 2:263.

사건을 다시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하나님의 주도권(8, 9, 12, 15, 16, 17a)과 자신이 하나님에 대항할 수 없는 무력함을 강조했습니다(17b).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14절; 참조, 10:43).

베드로는 교회의 "시작"을 언급하면서 오순절의 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15절, 참조, 2:4). 그가 언급한 것은 분명히 "성령" 침례입니다(16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언급하며 가이사랴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은사", 즉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17a절).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전제 조건으로 밝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17a절). 성령 침례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 이후에 따르는 경험이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 "베드로의 변명은 자신이 한 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1]

베드로를 비판한 사람들의 평결 11:18

베드로의 설명은 그를 비판한 사람들을 만족시켰습니다. 유대인 형제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하신다는 데 동의했고, 더 이상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강해졌으며, 믿지 않는 유대인과 믿는 유대인 사이의 유대감은 약해졌습니다.

> "회개"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회심을 요약한 것입니다. "회개"는 믿을 때 방향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회심의 요약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1] Toussaint, "Acts," p. 382.

> 대상이 무엇인지 강조합니다. 믿음은 사람, 즉 예수님을 향합니다. 회개는 믿음이 수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생각이나 방향을 바꾸고, 자신을 구원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믿음의 사람은 찬송가 작가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희망은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과 의로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인식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메타노에오(*Metanoeo*, '회개하다')는 사도행전 2:38과 3:19에서 유대인 청중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라고 부르는 데 사용되며, 사도행전 17:30과 26:20에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부름이나 응답을 묘사하는 데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메타노이아(*Metanoia*, '회개')는 누가복음 24:47에 나오는 대사명의 요약적인 용어입니다. 또한 이 용어는 사도행전 5:31 (유대인들에게), 11:18 (고넬료에 대해), 20:21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 26:20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한 바울의 메시지)에서도 구원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1]

그러나 베드로의 설명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들 중 소수만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개체인 교회를 창조하셨고, 수 세기 동안 해오셨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사람들은 이제 옛 모세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아래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고, 유대교의 제약 속에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더 큰 문제, 특히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에 대한 반대는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15:1; 참조, 갈라디아서).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화의 의미와 그 변화가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독교는 [베드로의 비방자들에 의해] 개혁된 유대교로 받아들여졌으며, 유대교의 후계자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2]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비그리스도인

---

[1] Bock, "Jesus as …," p. 154.

[2] Blaiklock, p. 97.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총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한편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새로운 태도는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개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유대교의 생활에서 점점 더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 "베드로가 첫 번째 이방인[사도행전의 에티오피아 내시]을 개종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 선교에서 돌파구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인의 개종은 사적이며 고립된 사건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한 것을 보면, 고넬료의 개종은 다음 이야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돌파구적 이유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침례를 받아들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활동 중에 이방인과 자유롭게 교제할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1]

3. 안디옥 교회의 선도적 활동 11:19-30

이제 장면은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안디옥은 교회가 지구의 가장 먼 곳까지 대대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2] 누가복음은 이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선도적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 "예루살렘 모교회가 베드로가 첫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인 행동을 승인한 것을 서론으로,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인, 즉 이방인 세계로 교회가 확장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다시 한 번,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익명의 신자들이 한 역할을 강조합니다."[3]

안디옥 교회의 영적 선도 역할 11:19-26

11:19 **누가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박해"를 다시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합니**

---

[1] Tannehill, 2:137.

[2] 시리아의 안디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negan, *Light from …,* pp. 337-40 참조.

[3] Neil, p. 143.

다. 이는 그가 8:4-11:18에서 방금 묘사한 것과 논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평행하게 진행된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선교를 기록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1]

누가는 이미 스데반이 처형된 결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퍼졌다고 지적했습니다(8:4). 이제 우리는 그 사건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던 반면, 다른 그리스도인 피난민들은 가이사랴 북쪽의 "페니키아" 지역, "키프로스"섬 (참조, 4:36; 21:16), 그리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유대인인 그 제자들은 ("오직") 다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박해"는 교회에게 좋았습니다. 박해는 교회로 하여금 죽는 대신 성장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조건은 일반적으로 박해보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에 더 유리합니다(딤전 2:2-4).

[1] Longenecker, p. 400; Kent, p. 97.

11:20 "그들 가운데 몇" 유대인들이 안디옥 근처이자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와,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에서 안디옥를 방문했습니다(참조, 2:10; 6:9; 13:1). 안티오크는 이 당시 로마 세계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1]

이 유대인들은 사업으로 그곳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안디옥은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오론테스 강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페니키아 북쪽에 위치한 로마의 수로-길리기아(Syro-Cilicia) 지방의 수도였으며, 그 당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구 밀집지 중 하나였습니다. 인구는 50만에서 80만 명에 달했으며, 그 중 약 7분의 1이 유대인이었습니다.[2]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3] 안디옥은 또한 쾌락주의자들의 안식처로 악명 높았습니다.[4]

> "로마의 풍자 작가 유베날(Juvenal)은 '시리아의 오론테스 강에서 나오는 하수가 오랫동안 티베리 강으로 방류되어 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안디옥이 너무 부패하여 1,300마일 떨어진 로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5]

>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도시에서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 큰 도약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6]

> "그리스도인 역사에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로마 제국의 다른 어떤 도시도 시리아의 안디옥만큼 교회 초기 역사와 운명에 큰 역할을 한 곳은

[1] Josephus, *The Wars* …, 3:2:4.
[2] Longenecker, p. 399; Neil, p. 143.
[3] Josephus, *The Wars* …, 7:3:3.
[4] Longenecker, p. 399; Barclay, pp. 93–94. 이 도시의 배경 설명은, Rackham, p. 165 참조.
[5] Toussaint, "Acts," p. 383.
[6] Barclay, p. 94.

없습니다."[1]

헬라파 유대인들 중 일부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은 교회의 선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진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와 고넬료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다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의 전도자들은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메시아)라는 칭호는 "주"(주권자, 구세주, 신)라는 칭호만큼 중요한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많은 이방인들은 카이사르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11:21 누가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증언에 대한 주 예수님의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구약의 의인화 표현입니다(참조, 사 59:1; 66:14).[2] 초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야훼와 동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수의 신성은 교회의 초기 역사에 나중에 추가된 개념이 아닙니다.[3] 이 전도 활동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아마도 이 이방인들은 에티오피아 내시와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4]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아니라 이교도에 대한 불만으로 "좋은 소식"(20절)에 마음을 열었던 이교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5] 아마도 두 유형의 이방인들이 모두 응답한 것 같습니다.

"믿음(*pisteusas*)과 회개(*epestrepsen*)의 결합은 사도행전에서 구원을

[1] Longenecker, p. 399. Cf. Alford, 2:2:126.
[2] 의인화는 신, 동물, 또는 물체에 인간적인 특성이나 행동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3] Robertson, 3:157.
[4] Longenecker, p. 401.
[5] Neil, p. 144.

표현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방식입니다."[1]

11:22-24 사도들은 이전에 사마리아인들의 구원을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구원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8:14-15) 다시 한 번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대표자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이 관찰자를 선택하는 것을 분명히 통제하셨습니다. "바나바"(참조, 4:36-37)는 안디옥의 일부 전도자들처럼 키프로스 출신으로, 이 임무에 적합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더 넓은 마음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사람이었고(4:36), "선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 "그는 디아스포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신뢰를 받았고, 교회에서 히브리와 헬레니즘의 요소들을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했습니다."[2]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으며, 그의 이름("위로의 아들", 4:36)에 걸맞게,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주님께 진실하게 남아있으라"[3]고 격려했습니다. 주님께 진실하게 남아있지 않는 것은 신자들에게 분명히 선택 사항입니다(참조, 13:43; 14:21-22). 믿음과 선한 행위에 대한 인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4] 바나바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섬긴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상당수")이 신자가 되었습니다("주님께 더해졌다"). 전통에 따르면, 누가는 안디옥 출신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2세기의 반-마르시온 서문(Anti-Marcionite Prologue)은 누가를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5] 또한, 4세기의 유세비우스는 "안디옥에서 태어난 누가"라고 기록

---

[1] Bock, "Jesus as …," p. 149.
[2] Marshall, *The Acts …*, p. 202.
[3] 또는 "주께 붙어있으라" – 역자주
[4] Valdés, 1:542–43 참조.
[5] 해당 텍스트의 영어 번역은, T. W. Manson, *Studies in the Gospels and Epistles*, p. 49 참조.

하고 있습니다.[1] 그러므로 누가는 개종자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제자 양성은 주로 일대일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같은 강조점이 나타납니다. 일대일 제자 양성은 분명히 괜찮지만,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의 성장은 영적 은사의 발견과 발전에 훨씬 더 유리하며 따라서 효과적인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는 안디옥의 상황이 초기 교회에 심각한 위기였기 때문에 바나바를 그렇게 빛나게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본 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에 무엇을 보고할지 여부에 많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방인 전도가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25 안디옥 교회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은 사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과, 이때 바나바는 사울이 갔던 "다소"로 사울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9:30). 사울은 이 일에 이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방인들을 복음화할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조, 22:21). 더욱이 그는 이미 사역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쌓아왔는데, 회심 이후로 약 9년 정도가 지났을 것입니다.[2]

일부 성경 학자들은 다소에 있는 사울의 가족이 그를 상속에서 제외시켰다고 추측합니다(참조, 빌 3:8). 또한 그가 다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후서 11:23-27에서 언급한 고난 중 일부를 겪었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고난에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아마도 이방인 전도를 시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일부는 사울이 고린도후서 12:1-4에서 언급한 계시를 다소 근처에서 사역할 때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는 다소에 거주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에

[1] Eusebius, 3:4:85.

[2] 이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록 1 "바울의 활동 순서"를 참조.

매우 활발히 참여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11:26 바나바는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후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9:27). 이제 바나바는 사울을 다소에서 약 90마일 떨어진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일 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며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10년 후인 주후 43년, 오순절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관찰자들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문자적으로, "그리스도 당에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 추종자들")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교회의 또 다른 발전을 언급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적 유대인들과 이교도 이방인들과는 별개의 집단으로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참조, 고전 10:32).[1] 하우슨(Howson)은 안디옥에 있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름을 처음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2]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 번만 등장하며, 이 세 경우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지칭하기 위해 이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참조, 26:28; 벧전 4:16). 마찬가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언급을 보면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그 이름["그리스도인"]에 포함된 세 가지 요소를 주목하십시오. (i) 이 이름에는 메시아, 즉 기름부음 받은 자와 같은 의미의 유대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i) 이 이름은 명사 '그리스도'에서 그리스어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iii) 또한 형용사 어미 'ians'(라틴어, *iani*)에서 라틴어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성은 십자가에 쓰인 제목의 언어를 떠올리게 합니다."[3]

---

[1] Stephen J. Strauss, "The Significance of Acts 11:26 for the Church at Antioch and Today," *Bibliotheca Sacra* 168:671 (July–September 2011):283–300 참조.

[2] Howson, p. 99.

[3] Thomas, p. 47.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개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 "그들[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 이름으로 부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야 명확하게 깨달은 통찰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교는 단지 유대교의 변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1]

안디옥 교회의 물질적 선도 역할 11:27-30

11:27 "예언자"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대언, 참조, 고전 14:1-5)을 받은 사람으로,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계시를 받고 발표하는 능력(미래를 말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예언은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일하기도 했습니다(대상 25:1).

> "유대인들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예언의 영이 사라졌다고 믿었지만, 메시아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예언이 다시 번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 시대[즉, 성취의 시대]의 도래를 경험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말한 종말론적 예언자라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참조, 3:22; 7:37), 예언을 교회 내에서 살아있는 현상으로 보았으며 (참조, 13:1; 15:32; 21:9-10), 예언을 사도직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사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참조, 고전 12:28; 엡 4:11)."[2]

11:28 하나님은 나중에 누가가 여기에 기록한 "아가보"가 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참조, 21:10).[3]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 (주후 41-54년)에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일련의 심각한 기근과 흉년이 발생했습니다.[4] 로마인

---

[1] Longenecker, p. 402.
[2] Ibid., p. 403.
[3] Eusebius, 3:6:87-92 참조.
[4] F. F. Bruce, *Commentary on …*, p. 243. 같은 책, "Chronological Questions …," pp. 278-79; 및 Longenecker, pp. 403-4 참조.

들은 헬라어 단어 오이쿠메네(*oikoumene*, "세계", 문자적으로 "사람이 사는 세계")를 사용하여 로마 제국의 광대한 영토를 과장하여 표현했습니다(참조, 눅 2:1).

11:29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호 자금을 보내며 그들에 대한 사랑과 단합을 나타냈습니다. 누가는 이전에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대해 보인 사랑과 관대함을 기록했습니다(2:42; 4:32-35). 이제 그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회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의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보였음을 밝혔습니다. 기부는 자발적이며 각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참조, 고전 16:2; 고후 9:7).

11:30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선물을 전달할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 선물을 "장로들"(Gr. 프레스뷔테로이[*presbyteroi*])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연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참조, 딤전 5:1),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딛 1:5). 공식적인 지도자들이 선물을 분배할 책임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곱 사도를 세운 것처럼 장로들을 세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장로들은 유대 회당에서 경배를 인도하는 감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조직 구조는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도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누가가 여기서 언급한 방문은 아마도 유대 지방이 심각한 기근을 겪었던 주후 46년경에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1] 이 소위 "예루살렘 기근 방문"은 아마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1-10에서 언급한 방문일 것입니다.[2]

---

[1] Josephus, *Antiquities of …*, 3:15:3; 20:2:5; 20:5:2.

[2] F. F. Bruce, *Commentary on …*, p. 244; Marshall, *The Acts …*, p. 205; Longenecker, p. 405; Neil, p.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지도력과 가르침을 제공하여 사역을 도왔듯이, 이제 안디옥 교회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참조, 갈 6:6). 누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외부의 이방인 교회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 이 "구호"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된 과정을 요약하면, 지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제국의 주요 도시에 도달했고, 이방인을 포함한 그리스 문화권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자는 앞의 이야기, 특히 2장과 8장에서의 줄거리를 정리하여, 선교의 새로운 단계를 묘사하기 위해 그들을 한 폭의 태피스트리로 엮어 냈습니다."[1]

4.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 12:1-24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기근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과 로마 정부의 박해가 심해지면서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점점 더 심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초자연적으로 보호하고 축복하셨음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계속 거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부분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때문에 교회는 이방인의 땅에서 더욱 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1-23절은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죽음에서 구출하시고, 헤롯이 죽습니다.

초자연적으로 구출받은 베드로 12:1-19

>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된 사건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사도행전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생생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나 그 전후의 사건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체에서 다소 고립되고 중요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146; Witherington, p. 375.

[1] Tannehill, 2:146.

그러나 그 표면 아래를 살펴보시면,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유대 경전에 등장하는 다른 이야기들을 반영한 것으로, 단순한 기적의 생생한 기록 그 이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독특하고 생생하게 묘사된 사건은 다른 유사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할 때 전형적인 사건으로 그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게 하며, 그 능력은 과거에 반복적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1]

12:1-2 "그 무렵"은 아마도 11:30에 언급된 바나바와 사울이 기근을 겪은 시기를 의미할 것입니다. 만일 그 일이 주후 46년에 일어났고,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주후 44년에 사망했다면(성경 외의 증거가 있음), 누가가 12장에서 언급한 사건들은 기근이 닥쳤을 때의 방문보다 약 2년 전에, 그리고 아마도 11:27부터 30까지 전체가 그보다 약 2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누가는 유대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선교를 묘사한 부분(2:42-12:24)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계속된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된 두 가지 일화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2]

"헤롯 왕"은 로마 황제 가이우스가 주후 37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한 헤롯 아그립바 1세입니다. 가이우스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클라우디우스는 아그립바의 영토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추가하여, 아그립바가 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모든 영토를 다스리게 했습니다.[3]

아그립바는 주후 41년부터 44년까지 3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으며[4](참조, 23절), 그의 본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았으며,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인들로부터의 호감과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냈습니

[1] Ibid., 2:151.
[2] Longenecker, p. 407.
[3] Josephus, *Antiquities of ···,* 19:5:1.
[4] Ibid., 19:8:2; idem, *The Wars ···*, 2:11:6; F. F. Bruce, "Chronological Questions ···," pp. 276-78.

다.[1] 요세푸스는 아그립바를 "가장 큰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2] 헤롯 아그립바는 칼리굴라의 친구였으며, 헤롯 대왕은 아우구스투스의 친구였습니다.[3]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감에 따라(참조, 11:18), 헤롯은 일부 신자들을 학대하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참조, 마 20:23)를 참수함으로써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요세푸스는 대제사장 아나누스(Ananus, Ananias)가 야고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썼습니다.[4] 아나누스는 분명히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사도의 죽음입니다. 야고보는 누가가 언급한 두 번째 그리스도인 순교자입니다(참조, 7:54-60).[5]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이제 종교적 동기에서 정치적 동기로 확대되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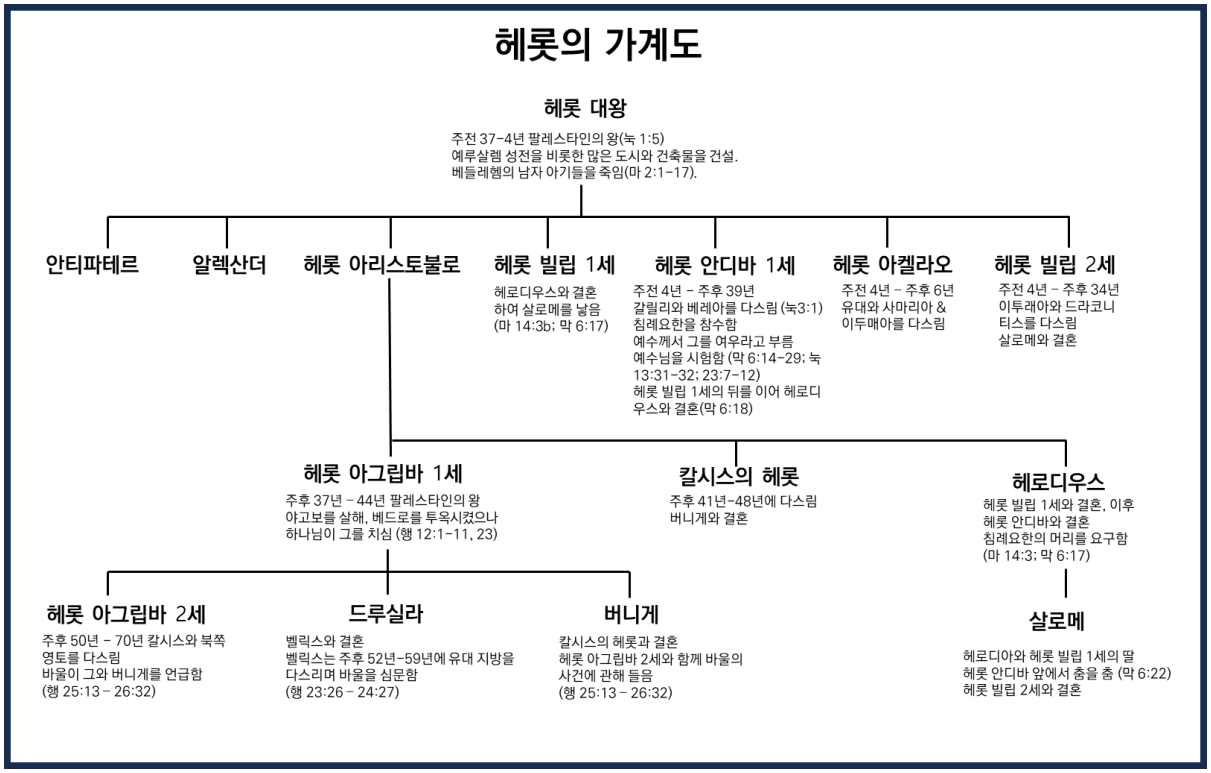
[1] Josephus, *Antiquities of …,* 19:7:3-5; idem, *The Wars …*, 2:16:4. 헤롯 아그립바 1세의 간략한 전기는, Alford, 2:2:130, 혹은 Longenecker, pp. 407-8 참조.

[2] Flavius Josephus, *Against Apion*, 1:9.

[3] Howson, p. 23.

[4] Josephus, *Antiquities of …*, 20:9:1: 각주 b.

[5] Eusebius, 2:9:58 참조.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사도의 지위나 권위를 영속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1장).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활 때에 열두 사도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1]

12:3 "무교절"은 매년 봄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축제였습니다. 이 절기는 모세 율법에 따라 모든 유대인 남성이 참석해야 하는 예루살렘의 일 년에 세 번 있는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오순절 날(2장)과 마찬가지로,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을 보였을 때 예루살렘은 애국심 강한 유대인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도자이며 이방인들과 친교를 나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10장).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베드로의 세 번째 체포 사건이었습니다(참조, 4:3; 5:18).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러한 박해는 그들이 한 어떤 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1] Bock, *Acts*, p. 422.

인기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12:4 "네 분대의 군인"-각 분대를 구성하는 네 명의 군인이 6시간씩 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면서 이전처럼 도망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5:19-24). 교대할 때마다 두 명의 군인이 베드로에게 쇠사슬을 묶고 나머지 두 명은 감방 문을 지켰습니다(6, 10절). "유월절"은 8일 동안 계속되는 유월절과 무교절 축제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12:5 그의 체포자들은 아마도 베드로를 로마의 안토니아 요새에 투옥했을 것입니다. 감옥은 성전 울타리의 북쪽 벽과 그 벽의 서쪽 끝에 서 있었습니다.[1] 그러나 모두가 배워야했던 것처럼, "감옥"은 "기도"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 열렬히("강렬하게,"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석방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2]

> "교회는 유일한 무기인 기도를 사용했습니다."[3]

12:6 베드로의 재판과 처형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날 밤", 그는 감방에서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죽음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그는 잠을 편히 잘 수 있었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기도했어야 할 시간에 "자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참조, 마 26:36-46; 눅 22:45). 그는 불면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하나님은 그가 잠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늙을 때까지 살 것이라고 암시하셨기 때문에(요 21:18)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로마인들은 죄수의 오른손을 간수의 왼손에 묶었지만, 베드로의 양손은 각각 양쪽의 다른 간수에게 묶여 있었습니다.[4] 헤롯은 베

---

[1] 3:12-15절 위의 주석 근처에 있는 헤로데의 성전 지역 도면을 참고.
[2] 기도에 대한 도움이 되고 동기를 부여하는 몇 가지 주석은, Hiebert, pp. 30-32 참조.
[3] Kent, p. 102.
[4] Barclay, p. 101; Longenecker, p. 409.

드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2:7 다시 "주님의 천사"(Gr. 앙겔로스 퀴리우[*angelos kyriou*])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방문했습니다(5:19; 참조, 8:26; 12:23). 또한 빛이 그의 감옥을 밝혔습니다("비추었다")(참조, 9:3). 천사는 베드로를 "깨워" "빨리 일어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베드로의 경비병들은 사건 내내 잠을 잤습니다.

> "누가는 베드로의 탈출을 초자연적인 방문자에 의한 신적 개입, 즉 기적으로 분명히 간주합니다(참조, 눅 2:9)..."[1]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은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었지만, 천사를 부른 것은 기도였다"[2]라고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12:8-9 "천사"는 베드로를 지도하며 부모처럼 옷을 입고 감옥 밖으로 "따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어리둥절해서 자신이 정말 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10:10, 참조, 9:10). 누가는 이 사건을 마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석방을 조율하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참조, 5:18-20; 16:23-29). 이 이야기를 그 이하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12:10-11 감옥에서 나와 천사의 인도에 의해 혼자 남겨진 베드로는 자신의 석방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베드로의 간증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감옥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 여기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마 16:18).

---

[1] Neil, p. 149.

[2] Wiersbe, 1:452-53.

하나님께서는 왜 헤롯이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죽이지 못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 "그 대답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현대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주님께서 어떤 훌륭한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떠나 죽음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겨두신 다른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님이 잘못된 사람을 데려가시고 잘못된 사람을 남겨 두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이것은 우리의 우주가 아니라 그분의 우주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교회 안에서 움직입니다."[1]

12:12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요한[유대인 이름] ... 마가[헬라인 이름]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팔아 교회에 주었지만(4:37),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공동 생활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13:5). "마가"는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바나바의 사촌(골 4:10)으로,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동반자로 실라를 선택했을 때 바나바와 함께 키프로스로 여행했습니다(15:37-39). 마가는 나중에 바울과 다시 동행했고(골 4:10; 빌 24), 베드로와도 동행했습니다(벧전 5:13). 초대 교회 전통에 따르면 마가는 자신의 이름을 딴 복음서를 썼고,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사로 봉사했으며, 이집트 알렉산

[1] McGee, 4:562.

드리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1]

12:13-16 이 재미있는 사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매우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길에서 온 사람들을 마당으로 들여보내는 "대문"(10:18)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발견한 로데(문자적으로 장미를 뜻함)의 기쁨은 그녀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들여보내는 대신 집 안으로 "달려가" 그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그렇게 직접적이고 극적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로데에게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고 애썼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 사람이 정말 베드로인지 믿을 수 없어 그를 들여보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베드로의 수호자 "천사", 즉 그를 지키기 위해 특별히 보내진 천사가 나타났다고 믿었을 것입니다(15절; 단 10:21; 마 18:10).[2] 또 다른 설명은 "천사"를 베드로가 보낸 인간 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3] 세 번째 가능성은 그리스도인들이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했고 사도의 영이 그들을 찾아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4]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12:17 누가가 여기서 언급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형제였습니다(참조, 15:13; 21:18; 갈 1:19; 2:9, 12; 약 1:1). 그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라졌습니다("그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성경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유대를 떠났을 것입니다(참조, 고전 9:5). 그날 밤 예루살렘의 다른 많은 신자들은 마리아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야고보와 다른 형제들"). 베드로는 그들도 자신이 석방되었다

[1] Eusebius, 2:15:64-65, 5:8:188.
[2] Calvin, 1:14:7; Lenski, p. 481 참조.
[3] Henry, p. 1682.
[4] 추가적인 의견은 Witherington, p. 387 참조.

는 소식을 확실히 알게하고 싶어 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성전으로 돌아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설교를 재개한 적이 있었습니다(5:19-21).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고(9:29-30), 이번에는 베드로가 그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마리아인 및 이방인과 어울리고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라는 이유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고린도와 로마는 베드로가 분명히 방문했던 두 곳이며(고전 1:12; 9:5; 벧전 5:13), 여러 교부들은 그가 유대인 디아스포라 전역에서 사역했다고 기록했습니다.[1] 베드로는 안디옥에도 갔을 수도 있으며(갈 2:11-21), 우리는 그가 비록 방문자로서만 예루살렘 공의회(15:7-11, 14)를 위해 다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12:18-19 당국이 베드로의 감방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작지 않은 소동"(리토테스, 참조, 14:28; 15:2; 17:4, 12; 19:23-24)이 있었던 것은 당연합니다.[2] "헤롯"은 "간수들"이 베드로의 탈출에 협조했거나 태만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죄수의 탈출을 허용한 로마 간수들은 의도된 처벌을 받았습니다.[3] 이 간수들은 "처형장으로 끌려가" 처형당했습니다. 그 후 헤롯은 "유대"(Judea, 예루살렘 주변 지역의 옛 유대식 이름)를 떠나 로마의 유대 지방의 명목상(이름만) 수도였던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체면을 살리기 위해 유대인의 삶의 중심지를 떠나기로 한 결정에 베드로의 탈출이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당국도 교회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약성서에는 가이사랴와 유대 지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사도행전 xii,

[1] 많은 출처를 보려면 Longenecker, p. 411 참조.
[2] 리토테스는 긍정을 그 반대의 부정으로 표현하는 아이러니한 과소 표현입니다. 이 경우의 의미는 '큰 혼란이 있었다'입니다.
[3] Barclay, p. 101; Witherington, p. 389, 각주 107.

19; xxi. 10). 이것은 엄격하게 랍비적 견해를 가진 저자의 친밀한 친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구성의 초기 날짜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후대에 가이사랴는 유대에 속한 것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1]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구출된 이유는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의문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대한 계시는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야고보를 구원하신 그분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야고보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야고보의 죽음도 그분의 뜻의 나침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위대한 드러남의 때에 모든 일이 옳았다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2]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초자연적 죽음 12:20-23

헤롯은 베드로를 믿지 않는 유대인의 적으로 여겼으나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헤롯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적이었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 많은 유대인 로마 지도자를 죽이셨습니다.

12:20 헤롯 왕은 가이사랴 북쪽 지중해 연안의 "두로와 시돈"에 사는 신하들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 도시들은 헤롯 왕의 "지방"에 속해 있던 갈릴리에 식량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헤롯 왕의 좋은 편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한 작가는 에스겔 27:17과 28:4에서 헤롯 왕과 두로 왕의 유사점을 지적했습니다.[3] 헤롯의 "시종"(집안 관리인, Gr. 코이토노스[*koitonos*])인 "블라스도"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12:21-23 요세푸스는 누가보다 이 사건을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헤롯이 가

[1] Edersheim, *Sketches of …*, p. 71.
[2] Morgan, *An Exposition …,* p. 454.
[3] Mark R. Strom, "An Old Testament Background to Acts 12. 20-23," *New Testament Studies* 32:2 (April 1986):289-92.

이사랴의 야외 극장에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축제 날에 은옷을 입고 두로와 시돈 및 다른 지방의 관리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반짝이는 겉옷에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자 극장에 있던 아첨꾼들이 그를 신이라고 칭송하며 칭찬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심한 복통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수행원들이 그를 극장에서 끌어내야 했고, 5일 후 그는 사망했습니다.[1]

의사 누가는 헤롯의 내장 발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요세푸스보다 더 의학적으로 그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한 작가는 헤롯이 맹장염을 앓다가 회충에 의한 복막염으로 이어졌다고 했고,[2] 다른 작가는 촌충에 의한 낭종으로 진단했습니다.[3]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인, 즉 헤롯의 교만입니다(참조, 사 42:8; 단 4:30).

>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로 끝났다."[4]

> "베드로를 구원하신 주님의 천사는 이제 박해자 헤롯을 치실 것이었습니다다. 그는 베드로를 '쳤었고', 우리는 동일한 신성한 방문이 생명을 위한 것이거나 죽음을 위한 것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립바는 주님의 천사가 때린 압제자 바로와 산헤립의 신약적 대형입니다."[5]

맥기(McGee)는 헤롯을 "적그리스도의 축소판"으로 보았습니다.[6]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 12:24

헤롯과는 달리,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 곧 복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축복의 결과로 "계속 성장하고 번성"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유대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

---

[1] Josephus, *Antiquities of …*, 19:8:2; cf. 18:6:7; idem, *The Wars …,* 2:11:6.
[2] Marshall, *The Acts …*, p. 213; cf. Longenecker, p. 413.
[3] Neil, p. 152.
[4] Barclay, p. 103.
[5] Rackham, p. 381.
[6] McGee, 4:565.

에서도 계속 번성했습니다. 이 구절은 누가가 역사 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그의 또 다른 경과 보고입니다(참조, 6:7; 9:31). 교회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교회 내부의 부패와 다툼도 교회를 죽이지 못했습니다(5:1-11; 6:1-7). 종교적 적들도 교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4:1; 8:1, 3; 11:19). 로마 관리들조차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1-23절). 다음 절에서는 소아시아로 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부의 문조차도 그것을 제압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예언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마 16:18; 행 1:8). 하나님의 목적이 승리할 것입니다!

B. 키프로스와 소아시아로 확장되는 교회 12:25-16:5

누가는 예수님이 유대인과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오셨다고 기록했습니다(눅 4:14-30).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사도들을 통해 이방인 세계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선교가 전개되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 사역이 유대인 사역과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애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파견된 선교사들이 한 많은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파견된 선교사들이 한 일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두 선교의 배후에 계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세계적으로 교회를 세우시려는 그분의 전세계적인 계획의 두 가지 측면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현재 부분(12:25-16:5)은 단순히 소아시아(현대 튀르키예 서부)로 교회의 지리적 확장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로 회심 전후에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통하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을 다루신 것의 정당성을 보여줍니다. 교회와 유대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독립된 실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충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새로운 몸을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루살렘 공의회(15장)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여기서 이방인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구절(16:5)은 이러한 사건과 문제를 요약합

니다.

1. 바나바와 사울의 신성한 임명 12:25-13:3

누가는 이 구절을 기록하여 다음에 이어지는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세계 사역은 유럽과 세계의 역사를 바꿀 운명이었다."[1]

12:25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의 선물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11:27-30), "바나바와 사울"은 바나바의 사촌인 '요한 ... 마가'(12:12)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골 4:10). 안디옥과 "예루살렘" 사이의 왕복 거리는 약 560마일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앞선 이야기(11:19-30)와 이어지는 내용을 연결해 줍니다. 여기서 요한 마가에 대한 언급은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앞부분(12:1-24)과 뒤의 내용을 연결합니다. 그 효과는 독자들에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 주로 이방인이었던 안디옥 교회와 주로 유대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모두에서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13:1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다섯 명의 저명한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어 구조에 따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는 예언자(대언자 및 미래를 말하는 사람)였고, "마나엔"과 "사울"은 교사(성경 해설자)였습니다. 이 목록에서 "바나바" 앞과 "마나엔" 앞에 헬라어 분사 *te*가 등장하여 다섯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교사의 사역은 예언자들의 사역보다 덜 무의식적인 선포와 설교를 포함하며, 받아들여진 사도적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고전 12:28-29; 엡 4:11). 이것이 나중에 신약의 일부가 된

[1] Blaiklock, p. 102.

책들이 사용되기 전에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1]

"바나바"(참조, 4:36-37; 9:27; 11:22-30)는 예언자와 교사들 중에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목록에서 그의 이름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과 그의 인격적 자질에 대한 다른 언급이 이를 암시합니다. "시므온"은 유대인 이름이지만, 이 사람의 별명 또는 가족명인 '니게르'는 로마식 이름이며, 이는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으로 피부색이 검은 사람임을 암시할 것입니다. 라틴어 니게르(*niger*)는 "검은"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의 시몬이라고 생각합니다(눅 23:26). 이 가설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만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루기오"(Lucius)는 일반적인 로마인 이름이었습니다. "누가"(Luke)는 그의 그리스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참조, 11:20). 그가 이 책을 쓴 누가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측근으로서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이 루기오가 이 책을 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2]

"마나엔"은 "헤롯 대왕"의 양형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3] 분봉왕 헤롯 대왕은 침례 요한을 참수하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 안티바였습니다(막 6:14-19; 눅 13:31-33; 23:7-12). "사울"은 분명히 새로 온 사람이었습니다(참조, 7:58-8:3; 9:1-30; 11:25-30). 이 지도자 명단은 안디옥 교회가 국제적인 교회였으며,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여러 연설자들을 선물로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작은 무리에는 그리스도인의 통합적인 영향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땅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

[1] Bock, *Acts*, p. 439.

[2] E.g., John Wenham, "The Identification of Luke," *Evangelical Quarterly* 63:1 (1991):32– 38.

[3]

문에 '함께함'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1]

13:2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는 배보다 움직이는 배의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을 섬기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기회가 있을 때 이미 그분을 섬기고 있는 그분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사역은 교회에 대한 것이지만, 주로 "주님"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목하십시오(참조, 골 3:24). 이 맥락에서 "금식"은 의심할 여지없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주 두 번 금식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관습을 이어갔을 것입니다."[2]

"성령"은 아마도 이 예언자들 중 한 명 이상을 통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참조, 8:29; 10:19; 13:4). 누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보다 덜 중요했습니다(참조, 4절).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만약 누가가 성령께서 이 선교사 소명을 어떻게 주셨는지 밝히셨다면,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선교사 후보자들은 똑같은 유형의 인도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추측했습니다:

"... 이것은 신성한 경배의 예배에서 예언자 중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3]

---

[1] Barclay, p. 105.
[2] Kent, p. 108.
[3] Neil, p. 154. George W. Murray, "Paul's Corporate Evangelism in the Book of Acts," *Bibliotheca Sacra* 155:618 (April–June 1998):189–200 참조.

13:3 "그들"은 아마도 지도자들과 함께 전체 회중을 가리킬 것입니다(참조, 14:27; 15:2).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아마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을 것입니다(참조, 14:23; 느 1:4; 눅 2:37). 그들은 아마도 기도하는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1] 또한 그들은 "그들에게 안수"했는데, 이는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동일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참조, 9:17). 그런 다음 그들은 안디옥에서의 임무에서 그들을 놓아주어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평생 섬김에 대한 임명이 아니라 특정한 사역을 위한 위임이었습니다.[2]

>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함으로써 다른 직분자들은 그들에게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대표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사업과 전체 회중을 상징적으로 동일시합니다.[3]

"이 짧은 단락(13:1-3)은 누가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이룹니다. 지금까지 이방인과의 접촉(일반적으로 선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은 거의 우연에 가까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빌립은 성경을 읽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될 줄 모르고 낯선 길을 따라 파송되었고, 베드로는 할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에 놀랐으며, 안디옥 선교사들은 이방인을 복음화할 의도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록 그 계획이 여전히 성령에 기인하지만(2절),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유대인(제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구에 유대인 요소가 있었지만) 지역으로의 광범위한 복음 전도 여행이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지역 교회의 두 동료가 그것을 실행하도록 위임받습니다."[4]

---

[1] Calvin, 4:12:16 참조.
[2] Marshall, *The Acts* …, p. 216.
[3] Neil, p. 154.
[4] Barrett, pp. 598-99.

2. 키프로스 선교 13:4-12

누가는 교회가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된 것을 기록하고 교회가 성장한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바나바와 사울의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 "… 바울의 사역 기록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의 여행(사도행전 11—20)과 그의 시련(사도행전 21—28)."[1]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서 첫 번째 주요 선교 활동을 시작했을 때(8:9-24),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 대규모 전도 활동을 진행할 때 거짓 예언자이자 마술사인 바-예수를 만났습니다. 누가는 독자들이 이 두 사건의 유사점을 주목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 행한 첫 번째 전도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행한 두 번째 전도 활동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인도하셨다는 결론을 내리기를 원한 것이 분명합니다.

13:4 누가는 그 이후의 모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성령"께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언급했습니다(참조, 1:1-2). 이 선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오론테스 강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곳 근처에 위치한 안디옥의 항구인 "실루기아"(Seleucia)에서 출발했습니다. "키프로스"섬(깃딤, 창 10:4; 등)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행 4:36).[2] 맑은 날에는 실루기아에서 키프로스의 산들이 보입니다.[3]

> "키프로스는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를 연결하는 해운로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매우 중요한 섬이었습니다. 키프로스는 주전 57년에 이집트에서 로마에 합병된 후, 주전 55년에 길리기아 지방에 편입되었고, 주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대신하여 제국의 사절이 통치하는 별도의 지방이

[1] Bock, "A Theology …," p. 151.
[2] 1세기 로마 세계의 육지와 바다에서의 여행 조건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려면, Jerome Murphy-O'Connor, "On the Road and on the Sea with St. Paul," *Bible Review* 1:2 (Summer 1985):38-47 참조.
[3] Howson, p. 110.

되었습니다. 주전 22년에 아우구스투스는 이 섬의 통치권을 원로원에 넘겨주었고, 다른 원로원 속주와 마찬가지로 이 섬도 총독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1]

13:5 "살라미"(Salamis)는 키프로스 동부에서 가장 큰 도시로, 실루기아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이 도시는 해안 도시로, 여러 개의 회당이 있을 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회당"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함께 모임"을 의미합니다. 살라미의 인구는 주로 그리스인이었지만, 많은 유대인도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2]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을 습관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 회당의 주요 목적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3]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키프로스에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조, 11:19). "요한" 마가는 아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조수로서" 도왔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를 떠날 때도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참조, 16:1-3).[4]

13:6-8 바나바스와 사울은 키프로스를 서쪽으로 가로질러 여행하여 결국 "바보"(Paphos)에 도착했습니다. 바보는 섬의 주요 수도였으며, 살라미 서쪽 90마일 지점에 위치해 서해안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설교에 대한 소식이 "서기오 바울"(Sergius Paulus)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

---

[1] Longenecker, p. 419.

[2] Josephus, *Antiquities of …*, 13:10:4.

[3] Edersheim, *Sketches of …,* p. 267. 17장 "회당에서의 예배" 전체 참조.

[4] Longenecker, p. 248; Toussaint, "Acts," p. 386; *The Nelson …,* p. 1843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지도를 참조하거나 다른 좋은 성경 지도책을 참조.

습니다. 그는 "총명한 사람"(Gr. 아네르 쉬네톤[*aner syneton*], 즉 예리한 지성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이해력이 있는 사람, 참조, 12절)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만나 그들의 메시지("하나님의 말씀")를 직접 "듣기" 위해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스 세계에서는 철학자, 수사학자, 또는 종교 선전가들이 도시를 돌며 공개 연설을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그들은 종종 영구적인 교수직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 듣고, 그들을 유사한 교수로 여겨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법정에서 연설을 하도록 그들을 소환했습니다."[1]

서기오 바울은 로마의 최고 관료인 총독(proconsul)이었으며, 로마 상원의 임명으로 그 섬에 파견되었습니다.[2]

"[고고학적] 발견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머물렀을 당시 키프로스의 통치자의 직책이 이 명칭이었다는 것이 정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3]

총독과 달리 행정관(procurators, governors 또는 prefects라고도 함)는 황제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언급된 행정관은 본디오 빌라도, 안토니오 벨릭스, 보르기오 베스도입니다.[4] 분명히 "바 예수"(문자적으로 "구원자의 아들")는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유대인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사탄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마술사"에 불과했습니다(참조, 8:9).

"… 사탄은 기적을 행하지만, 이는 진정한 권능이 아닌, 속이는 트릭에 불과하며, 단순하고 무지한 자들을 미혹하는 종류의 것입니다[참조, 살후 2:9-10]. 마술사와 주술사들은 항상 기적을 행해 왔습니다. 우상 숭배는

---

[1] Rackham, p. 200. 루기오 서기오 바울의 개인적 배경에 대해서는, Longenecker, p. 419 참조.
[2] F. F. Bruce, "Chronological Questions …," pp. 279-80 참조; Knowling, 2:286.
[3] Free, p. 315.
[4] 주후 6년부터 66년까지 유대 지방을 통치한 로마의 지사들(prefects)과 행정관들(procurators)을 나타내는 표를 보려면, Fruchtenbaum, *The Book* …, p. 567 참조.

> 놀라운 기적들로 살이 붙었지만, 이러한 기적들은 우리가 마술사나 우상 숭배자의 미신을 허용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1]

모세 율법은 유대인들이 마법을 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신 18:10-11). "엘루마"(현명한)는 별명인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마법사, "마술사" 또는 점쟁이를 의미합니다(Gr. *magos*, 참조, 마 2:1, 7, 16). 그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의 궁정에서 마술사들을 이겼습니다(출 7:11, 22; 8:7). 또한 엘루마는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으면 자신과 총독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 "로마 귀족의 가정에 그런 인물이 속해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2]

로마 관료들은 악명 높을 정도로 미신적이었습니다.[3]

13:9 누가는 이제 사울의 그리스 이름인 "바울"을 소개하며, 이후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를 이 이름으로 부르고,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항상 이 이름으로 자신을 밝혔습니다(참조, 14:12; 15:12, 25). 이것은 바울의 생애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것과 비교해보세요. 누가가 이 시점에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실제로 이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참조, 22:21). "바울"은 "작은"을 의미하며, 아마도 그의 키를 암시한 것일 수 있고, "바울"은 그의 유대인 이름인 "사울"(문자적으로 "요청된")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바울"은 따라서 가문명(별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우슨(Howson)은 "바울"이 사도의 로마식 이름이라고 믿

---

[1] John Calvin, "Prefatory Address to King Francis I of France," sec. 3, 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괄호로 표시된 2데살로니가 2:9-10의 인용은 그의 것입니다.

[2] Neil, p. 155.

[3] Alford, 2:2:141.

었습니다.[1] 다른 이들은 바울의 로마식 이름과 성이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2]

> "사울과 바울이라는 두 이름은 아마도 그의 부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유대인의 관습, 즉 아이에게 종교적 이름과 세속적 이름 두 가지를 주는 관습에 따라 지어졌을 것입니다."[3]

누가가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이 초기 신자들의 특징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9절; 2:4; 4:8, 31; 6:3, 5; 7:55; 9:17). 바울은 복음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을 좌절시키기 위해 계획된 신성한 기적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참조, 8:9-23; 16:16-18; 19:13-17). 주님의 참된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에게 저주를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참조, 대하 18:9-27). 이 새로운 "충만함"(Gr. 플레스테이스[*plestheis*], 헬라어 부정과거 분사)이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13:10 바울은 엘루마가 지혜로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구원자의 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바-예수는 "마귀의 아들이며" "모든 의의 적"이었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대신에, 이 마술사는 "주님의 곧은 길"을 "구부러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다룬 네 가지 사건 중 두 번째 사건입니다(참조, 8:9-23; 16:16-18; 19:13-17).

13:11 바울의 엄한 말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마술사 시몬을 대할 때 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5:3-4, 9; 8:20-23).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엘루마의 육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처럼, 자신의 경험(9장)과 같

---

[1] Howson, pp. 39, 121.
[2] Longenecker, p. 420.
[3] Archibald Robertson and Alfre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p. 341.

이 그의 영의 눈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랐을 것입니다.

13:12 이 우월한 능력의 표현은 서기오 바울에게 바울의 복음의 진리를 확신시켰고, 그는 그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4:1; 17:34; 19:18). 서기오 바울이 믿은 것은 바울의 "주님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의 딸과 다른 후손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성경 외의 증거가 있습니다.[1]

> "이 거짓 예언자의 눈이 멀게 된 것은 서기오 바울의 눈을 뜨게 한 것이었다."[2]

엘루마의 눈이 멀게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주신 결박의 능력을 바울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참조, 마 16:19).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인증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전도에 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로마의 이방인(서기오 바울)이 복음에 응답한 반면, 유대인(엘루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의 목적 전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바보(Paphos)에서 바울이 이 선교단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참조, 13절). 교회의 선교도 이방인들에게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으며, 이는 엘루마의 육체적인 실명으로 상징됩니다(참조, 28:26-27). 또한, 이것은 로마 귀족과 고위 권력자 앞에서 기독교가 처음으로 등장한 사건으로, 그리스도인 선교의 발전에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엘루마의 갈등은 구약에서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가진 예언자들이 왕과 백성들 앞에서 발표를 한 다른 사건들을 연상시킵니다(참조, 왕상 22장; 렘28-29장).

"서기오 바울의 개종은 실제로 바울의 전체 사역에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방인 선

---

[1] William M. Ramsay, *The Bearing of Recent Discovery on the Trustworthiness of the New Testament*, pp. 150–72 참조.

[2] Howson, p. 120. 이 진술은 Knowling, 2:288에서도 Felten에게 귀속되었음.

교에 새로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즉, 유대인의 독특한 입장과 무관하게 이방인들에게 직접 접근하고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위대한 혁신적 발전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14:27, 15:3). 이전에 고넬료는 유대교에 대한 사전의 헌신 없이 개종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의 개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고넬료의 개종을 그리스도인 선교의 선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를 원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사명을 받은 바울은 서기오 바울의 개종에서 이방인 선교에 수반되는 또 다른 측면을 보았고, 이 개종을 자신의 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선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누가는 사도를 항상 그의 그리스 이름인 바울로 부르고, 14:14, 15:12, 15:25 (바나바가 더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선교자들을 언급할 때 항상 바울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그의 지도력을 강조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로, 이방 세계에 대한 교회의 전도 활동의 방향을 정한 것은 바울의 통찰력이었습니다."[1]

3. 소아시아 선교 13:13—14:21a

바나바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다음으로 소아시아 남부(현재 튀르키예 서부)로 이동했습니다.

"서기오 바울와의 만남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이후 여정의 핵심입니다. 키프로스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키프로스의 일반적인 경로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 설립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동쪽(원문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바울이 아시아의 고지대에 도달하여 일시적인 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했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우리는 서기오 바울의 가족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서기오 바울의 지역적 영향력은 아나톨리아 중부(흑해, 에게 해, 지중해에 둘러싸인 아시아의 서부 반도, 튀르키예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있는 거대한 영지의 소유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련성은 바울의 총독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오래된 추측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의 면전에서 떠나 먼 비

[1] Longenecker, pp. 420–21.

> 시디아 안디옥으로 곧장 향한 이유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토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지역으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성령의 추진력만을 보았지만, 기독교는 최고 사회 계층의 조언에 따라 로마의 아시아에 들어갔습니다."[1]

밤빌리아에 도착 13:13

"밤빌리아"(Pamphylia)는 안티오쿠스의 왕국 서쪽에 위치한 로마의 주였으며, 안티오쿠스의 왕국은 길리기아(바울의 고향 주) 서쪽에 있었습니다. "버가"(Perge, 현대 페르게)는 주요 항구 도시 앗달리아(Attalia, 현대 안탈리아, 참조, 14:25-26)에서 내륙으로 12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했지만, 케스트루스(Cestrus) 강에 내륙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가에서 "요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그의 결정을 찬성하지 않았지만(15:38), 누가는 마가가 떠난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 (참조, 12:12), 질병에 대한 두려움 (참조, 갈 4:13), 버가 북쪽의 토러스 산맥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 (참조, 15:38-39) 등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 이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2] 바울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기 위해 이 산맥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바나바(요한 마가의 사촌)에서 바울로 이어지는 선교단의 지도부 변화가 그의 떠남의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이방인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과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3]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강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이 접근 방식을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요한 마가가 북쪽으로 가는 결정을 원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4] 또는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에 따라 떠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1] R. L. Fox, *Pagans and Christians*, pp. 293-94.
[2] Free, pp. 316-17 참조.
[3] Ro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p. 16.
[4] William M. Ramsay, *The Church in the Roman Empire before A.D. 170*, pp. 61-62.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의 사역 13:14-52

바울과 바나바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북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해수면에서 산적들이 횡행하는 지역을 지나 3,600피트 높이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호수가 많은 고원에 도달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썼습니다(갈 4:13). 이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에서 사역을 할 때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바울이 버가 저지대에서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주장한 윌리엄 램지(William Ramsay)의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1]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루스드라, 드로아, 빌립보,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는 제국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한 도로를 따라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디옥은 교회를 세우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어지는 로마의 도로인 비아 사바스테(Via Sabaste)가 이 안디옥을 통과했습니다.

> "안디옥은 갈라디아 남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 그리스, 로마, 동양, 브리기아의 전통이 풍부하게 융합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도시에 상당한 수의 유대인도 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2]

>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소아시아의 교통의 중심지이자 심장부에 기독교를 심었습니다."[3]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 브리기아에 속했지만, 지리적으로 비시디아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도시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리기아에 또 다른 안디옥이 있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불렀습니다.[4]

---

[1] William M. Ramsay, *St. Paul the Traveller and the Roman Citizen*, p. 93.

[2] Longenecker, pp. 422-23.

[3] Merrill F. Unger, "Pisidian Antioch and Gospel Penetration of the Greek World," *Bibliotheca Sacra* 118:469 (January-March 1961):48.

[4] Knowling, 2:289 참조.

> "이 도시는 주전 281년경,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에 의해 그의 아버지 또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16개 도시 중 하나로 설립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1]

이 도시는 로마의 갈라디아 지방에 속해 있었고, 갈라디아 지방 남부의 주요 군사 및 정치 중심지였습니다.[2] 누가는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일곱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기록했습니다. 회당 장로들, 평범한 유대인들, 개종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고위층에 속한 경건한 여성들, 이방인들, 그리고 도시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 도달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 방문 13:14-15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의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에 소아시아에는 상당한 유대인 인구가 거주했습니다. … 소아시아로 유대인 인구의 대규모 유입은 기원전 3세기 말에 안티오쿠스 3세가 메소포타미아와 바빌로니아에서 2,000 가구의 유대인 가족을 리디아와 브리기아에 정착시켜 이 지역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3]

일반적으로 회당 예배는 쉐마("이스라엘아, 들으라 …", 신 6:4)와 쉐모네 에스레(축복, 감사, 기도의 전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두 구절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에서, 다른 하나는 히브리 성경의 "예언자" 부분에서 관련 구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회당 지도자들이 지정한 유능한 사람이 연설을 했습니다. 예배는 축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당 지도자들은 지역 유대인 평신도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권면의 말"을 전할 것이 있다면 연설을 해 달라고 초대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의 전형적인 사역 패턴을 시작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

[1] Longenecker, p. 422.
[2] Ramsay, *St. Paul …*, p. 92 참조.
[3] Levinskaya, p. 138. 단락 구분 생략됨.

바울은 아테네를 제외한 유대인 인구가 많은 모든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먼저 회당에 모인 유대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듣지 않자, 그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회당에 간 이유는 그곳의 청중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기 쉬운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유일한 참 하나님을 존경했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 "물론 실용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면, 회당은 그들에게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1]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회당 설교 13:16-41

누가는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 세 번의 복음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14:15-17), 아테네에서(17:22-31)입니다. 누가는 세 번 모두 확실히 요약을 했지만, 여기서의 메시지는 이 세 번 중 가장 긴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읽을 수 있습니다.

> "그[바울]는 나중에 누가를 위해 이 설교의 메모를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이 설교에 나타나 있습니다."[2]

이 설교는 2:14-40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7:2-53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매우 유사합니다.[3] 이 설교는 세 번의 직접적인 언급으로 구분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부분(16-25절), 메시아가 거부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26-37절), 적용과 호소(38-41절)입니다.[4]

> "이 선교 설교들과, 유대 및 로마의 재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연설의 다양성은, 유대인과 헬라인, 교양 있는 사람과 교양 없는 사람 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다양한 방식을 묘사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으며, 이 설교들이 누가

---

[1] Kent, p. 115.
[2] Robertson, 3:187.
[3] 다른 두 개의 중요한 개시 연설, 즉 누가복음 4:18-21에 나오는 예수님의 연설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연설과 비교하려면, Tannehill, 2:160-62; 혹은 Witherington, p. 408 참조. 이 연설과 스데반의 연설을 비교하려면, Rackham, pp. 208-9 참조.
[4] Toussaint, "Acts," p. 389.

의 독자들이 자신의 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모범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1]

누가는 아마도 바울이 히브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했는지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연설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2]

"사도행전의 연설들은 연설자보다 청중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3]

"이 연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신중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수사학의 형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초기 유대인의 논증 패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4]

13:16 **"바울이 일어서서" "손으로" 손짓을 했다는 두 행동은 회당에서 권면을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그는 유대인 청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그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13:17-22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한 것("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다")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참조, 7:2-50; 마 1:2-17). 그는 유대인들이 고백에서 자주 강조한 다섯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17절). (2) 하나님은 족장들을 선택하셨습니다("우리 조상들"; 17절).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셨고("백성을 크게 하셨다"), 이집트에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셨으며, "광야"를 통해 인내로 인도하셨습니다 (17-18절). (4)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나안("그들의[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분배하셨다")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19절). "약 450년"(19절)은 아마**

---

[1] Marshall, *The Acts …*, p. 33.

[2] David A. deSilva, "Paul's Sermon in Antioch of Pisidia," *Bibliotheca Sacra* 151:601 (January-March 1994):32-49 참조.

[3] Barrett, p. 623.

[4] Witherington, p. 408.

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보낸 400년과 광야에서 보낸 40년,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10년을 합한 기간을 의미할 것입니다(주전 1845-1395년; 참조, 7:6).[1] (5) 마지막으로, 여러 부족한 지도자들이 이어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실한 왕 "다윗"을 주셨습니다(20-22절). 바울이 특히 강조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22절). 이러한 특성은 다윗의 후계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나타납니다.

13:23 바울은 그 다음에 약속된 메시아("구주")가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약속"은 이사야 11:1-16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13:24-25 흩어진 유대인들은 대부분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 설교자들은 종종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의 오심"을 예고하고 준비한 침례자 요한으로 시작했습니다 (참조, 막 1:2-8).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선구자일 뿐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눅 3:15-18).

> "침례자 요한을 메시아로 믿는 그의 추종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외부로 퍼져 나간 종파를 형성하여,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에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9:3-5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이 요한의 역할을 메시아의 선구자로만 강조한 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2]

13:26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전에, 바울은 다시 한 번 청중을 그룹으로 나누고(참조, 16절) 그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

[1] 7:2-8에 대한 주석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체류 기간에 대한 언급" 다이어그램을 참조. 다른 본문 독법에 기반한 다른 설명은 Eugene H. Merrill, "Paul's Use of 'About 450 Years' in Acts 13:20," *Bibliotheca Sacra* 138:551 (July-September 1981):246-57 참조.

[2] Neil, pp. 158-59.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복음("이 구원의 메시지")이 유대인("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방인("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27–31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이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참조, 고전 15:3-5). 그는 이러한 모든 사건이 구약의 예언들("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선언들")의 성취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27, 29절). 그는 또한 예수님께 제기된 혐의에 대해 그분이 무죄임을 지적하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그를 처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28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후, 바울은 예수님의 매장도 언급했습니다(29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특히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원하신 증거로 강조했으며(30절), 사도들이 그분의 부활을 개인적으로 증언한 것을 강조했습니다(31절; 참조, 2:32; 3:15; 5:32; 10:39-41).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신원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게 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개인적으로 "증언"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참조, 2:32; 3:15; 5:32; 10:39-41; 13:30-31). 바울의 요점은 다윗의 약속된 후계자,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참조, 33절).

13:32–37 바울은 구약의 세 가지 메시아적 구절, 즉 시편 2:7 (33절), 이사야 55:3 (34절), 시편 16:10 (35절; 참조, 2:27)을 인용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구약성경 구절들은 모두 "예수님"의 "일으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연설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33절과 37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2:7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으키신 것을 비슷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30절과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말했습니다.

> " '처녀 무덤'(요 19:41)은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자궁'과 같았습니다."[1]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그분의 본질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윗 계보의 통치자로 삼으셨을 때 그분을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시 2:7).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을 때 솔로몬을 그분의 아들로 선언하셨습니다 (참조, 삼하 7:10-14).

일부 해석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뜻했다고 믿습니다.[2] 이 구약성경 구절들에는 예수님이 다윗 계보의 왕으로 즉위하신 것과 관련이 있지만, 30-37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음을 강조한 것을 보면, 바울은 이 구절들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다윗 계보의 왕임을 증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 예수님이 다윗 계보의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 많이 언급했습니다.

> "바울은 예수님이 지금 다윗 계보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다윗의 아들이 재림하실 때 영원히 다스릴 위치에 있다고만 말했습니다."[3]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34절, 사

---

[1] Wiersbe, 1:458.

[2] Blaising,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p. 177; 및 Saucy, *The Case …*, p. 68 참조.

[3] Rogers, "The Davidic … Acts-Revelation," p. 75.

55:3; 참조, 2:25-32). 구약 성경 구절에 언급된 축복("자비")은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썩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다윗이 시편 16:10에서 말한 거룩한 분임을 증명합니다(35절).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일으키시고 그의 후손 중에서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일으키심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히 것입니다.[1]

13:38-39 바울은 역사적 검토를 결론지으며 독자들에게 권면과 호소를 했습니다(참조, 15절). 그는 이제 두 종류의 청취자들을 "형제들"(38절, Gr. 안드레스 아델포이[*andres adelphoi*])로 지칭하며 그들을 묶어서 말했습니다. 복음에 응답하는 데 있어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유일한 조건)은 "죄들의 용서"(참조, 2:38; 10:43)을 받고 "모든 것에서 해방"(즉, 의롭다 함을 얻음)을 얻게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 "행 13:38-39에서 '*dikaiothenai*'('죄들의 용서')와 '*dikaioutai*'('모든 것에서 해방됨')의 번역은 어렵습니다. … 일관성을 위해 이 두 동사는 이 [NET2] 번역에서 모두 '의롭다 함을 얻다'로 번역되었습니다."[2]

의롭다 함(칭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법적 선언입니다(참조, 신 25:1). 그는 청중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이것뿐입니다.[3]

---

[1] Cf. Neil, p. 159.

[2] NET2 성경의 39절 주석. NET2 성경은 2019년판 NET2 (New English Translation) 성경을 가리킴.

[3] 의롭다 함(칭의)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의롭다(옳다)고 선언하는 행위. 이는 유리한 법적 판

"사도는 죄의 용서와 의를 서로 연결하여,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동일한 것임을 보여줍니다."[1]

"바울의 메시지 적용에서(요약 형태의 복잡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독특한 주제인 '죄의 용서', '의롭다 함', '믿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사도행전에서 그에게 귀속된 첫 번째 연설에서 그의 현존하는 서신 전체와 마찬가지로 울려 퍼집니다."[2]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모세 율법과 무관한 의롭다 함과 죄 사함의 진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이 첫 번째 선교 여행 후 곧바로 여기서 말한 동일한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그는 로마서에서 이 주제를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논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13:40-41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박국의 경고를 적용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믿지 않고 조롱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인용한 하박국 1:5은 유다의 불순종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될 이방 민족의 유다 침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자신의 세대가 비슷한 징벌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전한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심판(눅 21:24, 즉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세대에 전달되었습니다."[3]

물론 더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거부한 믿지 않는 "조롱하는 자들"은 영

결이다.

[1] Calvin, 3:11:22.

[2] Longenecker, p. 427.

[3] Pentecost, "The Apostles' …," p. 140.

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침례자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긍정적 주제와 병행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 즉 가나안 사람들, 사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빌라도에 대해 경고하는 말을 엮어 넣었습니다. 이제 그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비슷한 도전을 제시합니다."[1]

바울의 메시지의 결과 13:42-52

13:42-43 바울의 메시지는 그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설득력이 뛰어났지만(참조, 18:4; 19:8, 26; 26:28; 28:23; 고후 5:11, 갈 1:10), 성령도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주 동안에도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23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13:44-45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거의 온 도시")을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닌 "질투"가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충만하게" 하고 지배하여 다시 박해를 일으켰습니다(참조, 5:17).

"우리는 (불행히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인기 있는 방문 설교자를 듣기 위해 온 외부인들이 자신의 자리가 모두 차지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분노를 드러낼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때 유대인 공동체가 자신의 회당이 이방인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느꼈을 짜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2]

"유대인 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1] Neil, p. 160.
[2] F. F. Bruce, *Commentary on …*, p. 281.

> 주어지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1]

유대인들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며 "모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13:46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자들에 대해 "담대하게" 대응했습니다 (4:29 참조). 복음이 이방인보다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메시아의 지상 왕국이 도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참조 3:26).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신 메시아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큰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방문한 도시에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하는 것을 거의 항상 실천했습니다(참조 13:50-51; 14:2-6; 17:5, 13-15; 18:6; 19:8-9; 28:23-28; 롬 1:16).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는 그로 하여금 다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게 했습니다.

> "이제 처음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동료들처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예를 따랐고, 처음으로 바울은 그들을 등지고 순수한 이방인 선교에 집중할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2]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스스로를 "영생에 합당하지 않다"(즉, 구원과 그 혜택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3]

---

[1] Longenecker, p. 429. Cf. Blaiklock, p. 106.
[2] Neil, p. 160. Cf. 18:5-6; 및 28:25-28.
[3] Witherington, p. 415.

보통 바울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것을 거부했고, 그 중 소수만이 믿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3:47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의 사명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의무를 설명했습니다. 그와 바나바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종은 이사야 49:6에 언급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완벽한 종인 예수 그리스도는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줄" 궁극적인 "이방인의 빛"이었습니다(참조, 눅 2:28-32).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가 이방인의 빛이었던 것처럼(창 46:3; 눅 2:29-32),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그러했습니다(참조, 마 5:14-16).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출 19:5-6; 사 49:6),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마 28:19-20).

13:48-49 누가는 복음 전파의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에 기인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1:1-2). 그리스도인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밀을 거두기만 한 것입니다. 48절은 예정(predestination)에 대한 강력한 진술입니다. "영생에 예정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었다"(참조, 엡 1:4, 11).

> "믿음에 관한 인간의 책임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획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납니다."[1]

좋은 소식은 빠르게 퍼지며, 복음의 좋은 소식은 그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 "이 말씀의 전파는 13장과 14장에 언급된 도시들에 대한 사도들의 선교 활동과 함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루었던 문제의 원인이 된 소위 유대주의자들의 소요를 초래했을 것입니다."[2]

---

[1] Kent, p. 114.

[2] Longenecker, p. 430.

13:50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지역 주민들을 통해 선교사들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경건한 ["경배하는"] 귀부인들"과 "도시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기 위해 동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참조, 10:2).

> "… 회당 경배는 유대교를 따르는 많은 이방 여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부유한 부인들이 제국의 다른 대부분의 지역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1]

13:51 "발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분리를 표현하는 생생한 표현이었습니다(참조, 마 10:14; 눅 9:5, 10:11). "이고니움"(현재의 코니아)은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브리기아 갈라디아에도 속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비아 사바스테의 남동쪽 지점을 여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듯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당한 추방은 그 씨앗을 흩뿌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2]

13:52 이 구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일 수도 있고, 안디옥에서 새로 회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두 그룹을 모두 지칭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함은 이 제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박해에 대한 언급(50절)을 두 번의 기쁨 언급(48절, 52절)이 둘러싸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이는 선교사들의 기쁨이 박해의 불편함을 넘어섰음을 암시합니다(참조 16:24-25).

---

[1] Neil, p. 161.
[2] Henry, pp. 1689-90.

이고니움에서의 사역 14:1-7

"14장은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인 선교 활동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다른 모든 모험은 예루살렘과 대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1]

14:1-2 **"이고니움"은 브리기아 지역의 그리스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 지역은 그 지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램지(Ramsay)는 바울과 바나바가 10월 말이나 11월에 이고니움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겨울을 보냈다고 계산했습니다.**

"... 이고니움은 로마 행정부의 한 지역으로 리카오니아와 통합된 후에도 이고니움 주민들은 스스로를 프리기아인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루스드라와 더베는 루카오니아-갈라티카의 도시들이었지만, 이고니움은 스스로를 프리기아-갈라티카의 도시로 여겼고, 이 세 도시는 모두 로마의 갈라티아 지방에 속해 있었습니다."[2]

"... 로마는 이 지역에서 자신의 권위의 보루로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루스드라를 선택했지만, 이고니움은 대부분 그리스의 기질을 유지하며 로마의 영향에 다소 저항적이었지만, 나중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도시를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3]

"이고니움"이라는 이름은 "형상"(image)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인 *eikon*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와 아테나는 대홍수 이후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인류를 재창조했습니다.[4]

이고니움은 "과수원 및 농장들의 한가운데 있는 정원 같은 곳이지만 사막

[1] Foakes-Jackson, p. 121.
[2] Knowling, 2:301.
[3] Longenecker, p. 431.
[4] Ibid., pp. 431-32.

> 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고니움 역시 에베소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세계를 연결하는 주요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수원 산업과 농산물로 인해 번화한 상업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1]

이고니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전도 방법을 따랐습니다(13:14). 그들은 먼저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동일한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헬라인") 모두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참조, 13:43).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선동했고, 이 이방인들은 그들과 함께 선교사들을 반대했습니다 (13:50).

14:3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점차 심해지는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고니움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참조, 13:46) 증언하고, 그들의 성공을 "주" 예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문구는 복음 메시지를 묘사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음을 강조합니다(참조, 20:24-32). 바울과 바나바도 그곳에서 많은 기적("표적과 이적")을 행하여 그들의 메시지를 확인시켰습니다(참조, 2:43; 4:30; 5:12; 6:8; 8:6, 13; 15:12; 갈 3:5; 고후 12:12; 히 2:3-4).

> "... '기적적인 표적과 놀라운 일'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예언의 성취(참조, 2:19)로, 예수님(참조, 2:22)과 초기 교회(참조, 2:43; 4:30; 5:12; 6:8; 7:36)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의 개종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남부 갈라디아'에서 쓰여졌다고 가정할 때), 바울은 성령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그가 전하고 그들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증거로 인용합니다(참조, 갈 3:4-5)."[2]

---

[1] Merrill F. Unger, "Archaeology and Paul's Visit to Iconium, Lystra, and Derbe," *Bibliotheca Sacra* 118:470 (April-June 1961):107-108.

[2] Longenecker, p. 432.

14:4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12 사도와 바울을 묘사하기 위해 "사도"라는 단어를 기술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 모든 신자들을 묘사하기 위해 비전문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덜 자주 사용했습니다(예: 14절; 참조, 롬 16:7; 고후 8:23; 빌 2:25). 사도직분을 가진 사람은 13명뿐이었지만, 그보다 더 많거나 적은 은사를 가지고 사도의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자 직분을 가진 사람도 몇 명 있었지만, 예언자 사역을 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1]

14:5-7 "이고니움에서의 선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보다 예루살렘에서의 선교의 패턴을 더 밀접하게 따르고 있습니다."[2]

"바울은 결코 구석에 숨어 소수의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서도 그는 그 도시의 철학자들을 자신의 주위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고니움을 철저히 복음화했습니다."[3]

"이방인과 유대인 및 그들의 지도자들"이 복음 전파자들을 박해하는 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을 "돌로 치려는 시도"는 유대인의 공식적인 처형 시도보다는 폭도들의 폭력 행위로 보입니다(참조, 7:58-59).

"그러한 법적 돌로 치는 처형을 승인하려면 정규 히브리 법정이 필요했을 것이며, 로마 식민지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4]

"바울과 바나바는 이 폭도들에게 돌로 맞을 (린치당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언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언제 떠날지 항상 아는 설교자는 현명한 설교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갈릴

---

[1] John E. Johnson, "The Old Testament Offices as Paradigm for Pastoral Identity," *Bibliotheca Sacra* 152:606 (April-June 1995):182-200 참조.
[2] Tannehill, 2:176.
[3] Lenski, p. 565.
[4] Foakes-Jackson, p. 128.

> 리에서 특별한 여행을 하는 동안 주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주신 지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마 10:23)."[1]

박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로마의 갈라디아 주에 속한 지리적 지역인 "루가오니아"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루가오니아"는 "늑대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이 그들의 사역의 다음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정치적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6월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 "이 점에 대해 누가의 정확성은 한때 심한 의문을 받았습니다. 이고니움도 루가오니아의 도시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많기 때문에, 이고니움과 루스드라 사이에는 국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신중하게 연구한 영국 학자 윌리엄 램지(William Ramsay)는 이고니움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루카오니아에 속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누가의 정확성을 강력하게 옹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가의 기록은 바울이 루카오니아를 방문한 시점에서는 정확했고, 또 주후 37년부터 72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점에서는 정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3]

누가는 여기에서 회당 전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이 너무 적어서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빌립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가능성은 누가가 이 부분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 부분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의 사역 14:8-20a

14:8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루스드라"(현대의 졸데라)는 로마의 식

---

[1] Robertson, 3:207.

[2] Ramsay, *The Church …,* p. 68.

[3] Kent, p. 116. 램지의 저서, *St. Paul …*, pp. 110-11으로부터 인용함. Cf. idem, *The Bearing…*, pp. 35-52

민지였습니다.[1] 이곳은 갈라디아의 요새 도시 중 가장 동쪽에 위치했습니다.[2] 루스드라는 이고니움에서 남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로마 제국에서는 20마일은 하루의 일반적 여행 거리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 멀리 갈수록 문명에서 더 멀어졌다."[3]

누가는 절름발이 남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했습니다(참조, 3:1-10; 9:33-35).

"누가는 독자들이 이 절름발이 남자의 치유와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치유한 일(참조, 3:1-8) 사이의 유사점을 인식하기를 원한 것이 분명합니다..."[4]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누가는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부여한 치유 능력(요 14:12)을, 그의 주인공이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와 공유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능력이 드러났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눅 7:22)."[5]

"… 고대 역사가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순환이나 패턴을 찾아내고 믿었으며, 이를 통해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에 대해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6] 이러한 사고방식은 헬레니즘 시대의 여러 역사가들에게 특징적이었으며, 특히 폴리비우스에게서 두드러졌습니다 …"[7]

14:9-10 치유받은 사람의 "믿음"에 대해 언급한 다른 유사한 언급들과 마찬가지로,

---

[1] 13:14-15에 대한 주석 참조.
[2] 갈라디아의 도시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negan, *Light from …,* pp. 340-45 참조.
[3] Barclay, p. 115.
[4] Longenecker, p. 435.
[5] Neil, p. 163.
[6] Footnote 273: "See the discussion by [G. W.] Trompf, *[The] Idea of Historical Recurrence [in Western Thought],* of Polybius, pp. 78 ff., and of Luke, pp. 170 ff."
[7] Witherington, p. 423.

이 남자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치유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를 온전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종을 통해 그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예: 마 9:28-29; 막 9:22-24). 그의 믿음은 그가 치유를 받은 요인이었습니다(참조, 막 6:5-6). 사실, "치유되었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구원받았다"를 의미하는 소조(*sozo*)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자는 영적으로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문맥을 보면 그는 아마도 육체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 "...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의 은사, 즉 표적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약성경도 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신분 증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표적의 은사가 그들의 신분 증명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한 것은 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1]

14:11-12 누가가 원주민들이 그 지역의 "루가오니아 방언"을 사용했다고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선교사들이 반대하기 전에(14절)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이 그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은 적어도 세 가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라틴어(공식 행정 언어), 헬라어(제국의 일반적인 언어), 그리고 현지 원주민 언어인 "루가오니아어"입니다.[2]

고고학자들은 루스드라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한때 그곳에 살았던 빌레몬(Philemon)이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 바우키스(Baucis)를 방문한 전설

[1] McGee, 4:571. Cf. 17:11.
[2] Neil, p. 163.

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1] 이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하기 전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현지인들은 이 "신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들의 우두머리 신이었고, "헤르메스"는 그의 전령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주민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마인들은 주피터라고 불렀음)로 인식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위엄 있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최고의 연설가"이었기 때문에 그를 헤르메스(로마의 머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전설에 따르면, 헤르메스는 웅변을 발명했고, 달변가였습니다. 해석의 과학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hermeneutics"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2]

사탄은 박해로 그리스도인의 증언을 방해할 수 없다면, 칭찬을 시도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박해는 많은 설교자들을 파괴했고, 너무 많은 칭찬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켰습니다. 기적의 문제 중 하나는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게 한다는 것입니다.

14:13 이교도들은 그리스 신들에게 "제물로 바칠" 소와 같은 동물들을 양털로 만든 "화환"으로 장식한 다음 제사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14:14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며, 이 경우 신성모독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참조, 막 14:63). 보통 그들은 목선에서 약 4-5인치 정도를 찢었습니다.[3]

14:15-18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말한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누가는 이방인 청중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설교의 일부를 보존했습니다(참조, 13:16-41; 17:22-31).

---

[1] F. F. Bruce, *Commentary on …*, p. 291; Marshall, *The Acts …*, p. 237; Longenecker, p. 435; Free, p. 318. 오비드의 변형에 나오는 이야기의 번역본은, Witherington, pp. 421–22 참조.

[2] Robertson, 3:210.

[3]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죽음 소식을 듣고 옷을 찢는 방법에 대해서는, Edersheim, *Sketches of …,* pp. 173–74 참조.

"이방인 청중에게는 한 단계 더 뒤로 돌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선포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1]

예전에는 ("지나간 세대들에서") 하나님은 주로 창조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셨습니다.(참조, 롬 1장). 이제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들에게 더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가 이방인들이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룹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처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또 다른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분명히 루스드라 출신이었습니다(참조, 16:1-2; 20:4; 딤후 1:5). 그는 유대인 어머니와 할머니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참조, 16:3; 딤후 1:5). 이는 그곳에 몇몇의 유대인들이 거주했음을 시사합니다.

"바울의 이 연설은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한 연설(17:22ff.)을 제외하면, 순수한 이방인 청중을 대상으로 한 그의 설교 기술의 유일한 예시입니다. 이는 그가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복음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이 연설은 안디옥의 회당에서 한 설교(13:16ff.)에서 볼 수 있듯이, 청중들이 성경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유대인과 유대교 신자들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과는 크게 다릅니다. 여기에서, 아테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연의 계시, 즉 우주의 섭리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우상 숭배에서 모든 존재의 창조주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로마서 1:19ff.와 2:14f.에서 이 주장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9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 주장이 성공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

14:19-20 **적대적인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

[1] Marshall, *The Acts* ···, p. 238.

[2] Neil, p. 164.

대중의 정서를 뒤집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루스드라 주민들을 설득하여 선교사들이 신이 아니라 속임수꾼이며 죽어야 할 자들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참조, 28:4-6; 마 12:24). 며칠 전만 해도 루스드라의 주민들은 사도들을 천사보다 더 잘 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도들을 동물보다 더 나쁘게 대했습니다.

"실망한 열성분자들은 모순된 행동으로 쉽게 이끌려갑니다."[1]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이 돌로 맞은 후 죽었고 부활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2] 그러나 본문은 단지 관중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참조, 고후 11:25). 젊은 디모데가 바울의 죽은 듯한 몸 주위에 모인 제자들 그룹에 서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언사이드(Ironside)는 이 때 바울이 셋째 하늘로 끌어올려졌다고 믿었습니다(고후 12:2-4).[3] 이 이론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빠른 회복을 묘사한 부분(20절)은 하나님의 종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참조, 1:1-2). 바울은 용기 있게 루스드라로 돌아갔지만("그 도시로 들어갔다"), "다음 날"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20절).

"존 웨슬리의 조언은 '항상 군중을 직면하라'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도시로 곧바로 돌아간 것보다 더 용감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4]

바울과 바나바는 약 60마일 더 남동쪽으로 이동해 갈라디아 지방 동쪽 경계에 위치한 "더베"(노간주 나무를 의미하며, 현대의 케르티 휘윅)로 갔습니다.[5]

---

[1] Kent, p. 117.
[2] E.g., Lumby, p. 264; 및 McGee, 4:573.
[3] Ironside, *Lectures on …*, pp. 341–42.
[4] Barclay, p. 118.
[5] M. Ballance, The Site of Derbe: A New Inscription 참조.

더베에서의 사역 14:21a

더베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제자가 되었습니다(참조, 20:4). 누가는 사도들이 그곳에서 경험한 일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바울의 후기의 동역자 중 한 명인 가이우스의 고향이었습니다 (20:4). 아마도 가이우스는 이때 회심한 것 같습니다.

더 큰 도시인 "안디옥"과 "이고니움"은 더 영향력 있는 교회를 낳은 것 같지만, 더 작은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는 지도자가 된 젊은이들(즉, 디모데와 가이오)을 더 많이 배출했습니다.

> 이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으로, 큰 교회가 종종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작은 교회들이 인력을 많이 공급하는 것"입니다.[1]

4.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옴 14:21b-28

14:21b-22 선교사들은 이번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만 선교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그들은 더 동쪽의 안티오쿠스 왕국이나, 바울이 다소에서 머물렀던 동안에 이미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이는 길리기아 지방으로 더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소는 더베에서 동쪽으로 약 16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루스드라, 이고니움,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발걸음을 되돌려, 그곳에서 새로 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참조, 18:23).[2] 사도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던 바로 그 도시들로 돌아오는 이 여행에서, 그들은 전도보다 제자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 회심한 사람들에게 그들도 박해("많은 환난"; 참조, 갈 4:13; 6:17; 딤후 3:11)를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

[1] Longenecker, p. 438.

[2] David F. Detwiler, "Paul's Approach to the Great Commission in Acts 14:21-23," *Bibliotheca Sacra* 152:605 (January-March 1995):33-41 참조.

왕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즉 지금의 통치(교회에서)와 나중의 통치(지상 왕국에서; 참조, 1:3, 8:12)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겪지 않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딤후 3:12).

14:23 사도들이 "지명"한 "모든 교회"(단수)의 "장로들"(복수)은 각 교회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각 교회에는 한 명 이상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참조, 20:17; 빌 1:1). 이 마을들 중 일부에는 결국 여러 개의 지역 교회가 생겼을 수 있지만, 선교 초기 단계에서는 각 마을에 한 교회만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이 기본적인 행정적 필요성에 나중에 더 발전된 교회 질서 개념을 강요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1]

아마도 이 지역 사회에 있던 회당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일부 장로들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장로의 자격 요건은 이 장로들이 직분을 맡은 시점과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그 자격을 명시한 시점 사이에 발전되고 더 구체화되고 다소 엄격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딤전 3장, 딛 1장).

본문은 이 장로들이 어떻게 임명되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맥상 주어인 바울과 바나바를 지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cheirotonesantes*, "임명하고")는 때때로 손들기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2] 따라서 일부 해석자들은 이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장로들을 선출했다고 믿습니다(참조, 6:3).[3] 또 다른 가능성은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들을 선택했고, 교회에

[1] Neil, p. 166. Cf. 딤전 3장; 및 딛 1장.

[2] Liddell and Scott, *Greek-English Lexicon*, s.v. *cheirotoneo*; *cheirotoneia*; Arndt and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s.v. *cheirotoneo; cheirotoneia*; Kent, p. 118.

[3] E.g., Calvin, 4:3:15; Ramsay, *St. Paul …*, pp. 121-22; Lenski, pp. 585-86; Kent, pp. 118- 19.

있는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표시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했습니다(11:30). 1:26 이후에 신약 성경에 제비뽑기를 한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제비뽑기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26의 제비뽑기는 성령이 모든 신자들에게 내주하셔서 제비뽑기보다 더 나은 인도를 해 주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 "바울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교제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확신임을 나타냈다."[1]

이 구절은 교회가 장로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모든 교회는 성숙해짐에 따라 장로를 두어야 함을 보여줍니다.[2]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에 얼마나 중요성을 두었는지 다시 한 번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먹지도 않고 갔습니다(참조, 13:3). 또한 그들은 새로 회심한 사람들을 "그들이 믿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거나 교회 개척자들이 때로 유혹받는 것처럼 권위주의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14:24-26 "비시디아"는 갈라디아 로마 주도의 최남단 지리적 지역이었습니다. "밤빌리아"는 갈라디아 남쪽과 안티오쿠스 왕국 동쪽에 위치한 주였습니다. 더베와 마찬가지로 "버가"는 선교사들이 방문한 장소 중 하나이지만, 누가복음은 이 장소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참조, 13:13-14).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후 버가에서 남쪽으로 10마일 떨어진 항구 도시인 "앗달리아"로 내려가, 그곳에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 "고대 항구는 해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내륙에 위치한 더 크고 중요한 도시의 위성 도시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여기에

---

[1] Barclay, p. 119.

[2] Alexander Strauch, *Biblical Eldership*, pp. 164-68 참조.

> 서 앗달리아를 언급한 것은 시리아 안디옥의 항구인 실루기아를 언급한 것(13:4)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중요한 의미는 없을 것이며, 시리아로 돌아가는 항해의 출발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1]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기록된 연대기적 참고 자료는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 여행을 완료하는 데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석가들은 그들이 약 1년에서 거의 2년 동안 걸렸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최소 500마일을 해상으로, 700마일을 육로로 여행했습니다. 베이트젤(Beitzel)은 바울이 이 여행에서 총 약 1,400마일을 이동했다고 추정했습니다.[2]

14:27-28 누가는 이 전도 사역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신중하게 기록했습니다(참조, 1:1-2). 바울과 바나바는 놀라운 일을 성취했지만(26절), 그 공로를 하나님께 신중하게 돌렸습니다. 그들의 성공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도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 우리는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위해 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확신에서 일할 때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3]

하나님이 유대인과 동등하게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누가의 초기 독자들에게는 특히 흥미로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이전에 가자 도로, 가이사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믿음의 문"을 통해 교회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9, 고린도후서 2:12, 골로새서 4:3에서도

---

[1] Longenecker, p. 439.
[2] Beitzel, p. 177.
[3] Barclay, p. 120. Cf. 고후 5:20.

> 문(door)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은 누가가 다음 장에서 기록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논란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아마도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기 전(15장), 시리아 안디옥에 머물고 있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막 세운 새로운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지침을 주려고 그 편지를 쓴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주후 40년대 후반, 아마도 주후 49년경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영감받은 첫 서신으로 보입니다.[1]

> "누가가 바울을 서신 작성자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사도행전은 시작과 선교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바울의 서신은 이미 설립된 회중들[과 개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는 누가가 묘사하고자 하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누가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 내에서 교회 생활의 추가적인 발전을 기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2]

바울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이 일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던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기 위해 누가가 기록한 몇 가지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1. 베드로와 바울은 모두 사도행전에 기록된 세 번의 중요한 여행에 참여했다. 베드로: 8:14ff; 9:32—11:2; 15:1-14 (갈 2:11 참조); 바울: 13:2—14:28; 15:36—18:22; 18:23—21:17.
>
> 2. 사역 초기 두 사람 모두 절름발이를 고쳤다. 베드로: 3:2ff; 바울: 14:8ff.
>
> 3. 둘 다 고통받는 사람과 육체적으로 접촉하지 않고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5:15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림자, 19:11에 나오는 바울에게 손수건과 앞

[1] 이 노트의 마지막에 있는 부록 5 "바울 서신" 참조.
[2] Witherington, p. 438.

치마를 가져온 사람들. [본문에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4. 둘 다 초기 교회의 성장과 순결을 방해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정죄했다(5:1-11); 바울은 엘루마를 눈멀게 했다(13:6-11).

5. 둘 다 자신의 설교를 요약한 긴 연설을 적어도 한 번씩 [재]생성 했다. 베드로: 오순절(2:14-40); 바울: 안디옥(13:16-42).

6. 둘 다 자신의 선포에서 부활을 주요 강조점으로 삼았습니다. 베드로: 2:24-36; 3:15, 26; 5:30; 10:40, 41; 바울: 13:30-37; 17:3, 18, 31; 24:15, 21; 25:19; 26:8, 23.

7. 둘 다 마귀들을 쫓아냈다. 베드로: 5:16; 바울: 16:18.

8. 둘 다 안수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전달했다. 베드로: 8:17; 바울: 19:6.

9. 둘 다 마술사들과의 조우에서 승리했다. 베드로: 8:18ff; 바울: 13:6ff.

10. 둘 다 죽은 자를 살렸다. 베드로: 9:36ff; 바울: 20:9ff.

11. 둘 다 중요한 증언 사역을 위해 자기들을 지시하는 환상을 받았다. 베드로: 10:9ff; 바울: 16:6ff.

12. 둘 다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 베드로: 12:7ff; 바울: 16:25ff."[1]

백스터(Baxter)는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비교했습니다:[2]

베드로	바울
첫 설교 2장	첫 설교 13장

[1] Harm, p. 40. 또한 *The Nelson …,* p. 1841에 있는 차트 참조.
[2] Baxter, 6:12.

앉은뱅이 치유 3장	앉은뱅이 치유 14장
마술사 시몬 8장	마술사 엘루마 13장
그림자의 영향 5장	손수건의 영향 19장
안수 8장	안수 19장
베드로가 경배 당함 10장	바울이 경배 당함 14장
다비다를 일으킴 9장	유두고를 일으킴 20장
베드로가 옥에 갇힘 12장	바울이 옥에 갇힘 28장

5. 예루살렘 공의회 15:1-35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방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와 유대교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부 그리스도인들, 특히 보수적인 유대인 신자들은 기독교는 유대교 내의 한 파벌, 즉 참된 신자들의 파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 "사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교의 확산을 막는 법은 없었습니다. 티베리우스(주후 19년)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고 그 중 4,000명을 사르디니아의 산적들과 싸우기 위해 보낸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은 완전한 자유뿐만 아니라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1]

다른 그리스도인들,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은 이러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유대교 내의 한 파벌이 아니라, 유대교와 별개의,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별개의 집단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누가가 이 장에서 기록한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관련 문제들을 설명하고 그 중요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회의를 자세히 묘사했

[1] Edersheim, *The Life* ⋯, 1:71.

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15장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믿습니다.[1] 이 장은 구조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사도행전의 중심에 위치합니다.[2]

> "이 주석서(위더링턴의 주석서) 전체에서, 우리는 누가가 사료를 제시하는 방식, 특히 민족지학적, 지역적 관점에서 사안을 다루는 경향에서 고대 역사 기록의 관습을 따르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문제가 길게 다루어진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교회 내의 주요 민족적 분리(유대인과 이방인)를 어떻게 처리해야 두 그룹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수 있고, 교제가 계속될 수 있으며, 교회가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누가는 매우 보수적인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분리가 극복될 수 있고 실제로 극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3]

바울과 바나바의 예루살렘 귀환 15:1-5

15:1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참조, 14:26-28). 그들은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할례도 포함되었습니다. 참고로, 할례는 남성에게만 행해졌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믿음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미혼 여성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은 창세기 17:14와 출애굽기 12:48, 49와 같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그들의 신학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구원에 있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복형제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

[1] E.g., H. Conzelmann, *Acts of the Apostles*, p. 121; 및 Witherington, p. 439.
[2] Marshall, *The Acts …,* p. 242.
[3] Witherington, p. 439.

고보가 그들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주장했습니다(참조, 15:24; 갈 2:12). 당시 안디옥에 있던 베드로는 그곳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이 사람들과 타협했습니다. 바나바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행위의 모순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갈 2:11, 13-14).[1]

이 상황은 초기 교회 역사상 네 번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아나니아와 삽비라, 5장), 두 번째는 불평(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대우에 대한 불평, 6장), 세 번째는 시몬 마구스의 성직 매매(8장)였습니다. 이제 교리적 논쟁이 머리를 들었습니다("갈라디아 이단", 15장). 이 문제는 그 자체로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 보아도,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 즉 복음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2 이 상황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열띤 논쟁과 토론")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토론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모든 문제를 맡겨 판결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는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흔히 행해지던 것이었습니다.[2]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증인으로 동행하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15:3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선교사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키프로스와 소아시아에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자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연속되어 일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대한 헌신 없이 직접 개종

[1] 일부 학자(예: Howson, p. 177)는 이 대립이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에 일어났다고 믿음.

[2] Witherington, p. 451.

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49년 주후에 교회에 개종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존재한 것은 그다지 뉴스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1]

15:4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주님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목하십시오("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참조, 14:27).**

15:5 **그 모임에 있던 "일부"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높게 여기는 "바리새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직면했던 것과 똑같은 반대를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니게 된 사람들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과 신학에 관한 특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2]**

"... 유대 지방에서 [로마에 대한] 민족주의적 압력이 커지고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유산에 대하여 불충실하다고 여겨지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또한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참조, 살전 2:14-16).

구약성경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공유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창 22:18; 26:4; 28:14; 사 49:6; 55:5-7; 습 3:9-10; 슥 8:22). 구약의 예언자들은 또한 이방인의 구원이 마지막 날에(사 2:2; 11:10; 25:8-9; 슥 8:23) 회복된 이스라엘의 증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사 2:3; 60:2-3; 슥 8:23).

"이 [위에서 언급된 계시]는 유대인의 전도 활동의 근본 전제였으며(참조, 미슈나 *피르케 아보트* 1:12; 마 23:15),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2:39)와 고넬료의 집에서의

[1] Longenecker, p. 443.
[2] Kent, p. 122, 각주 3 참조.
[3] Marshall, *The Acts* ···, p. 249.

설교(10:35)에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상응하는 확신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축복을 관리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지정된 대리인이며, 이 민족과 그 제도를 통해서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고 그분의 은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1]

베드로의 증언 15:6-11

15:6 명백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12절, 22절).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전체 구절을 공개적인 절차로 해석했지만, 일부는 이 구절을 공개 포럼 중에 열린 사적인 모임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했습니다.[2]

15:7-9 먼저 각 측의 대변인들이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제시했습니다("많은 논쟁"). 그런 다음 "베드로가 일어나" 몇 년 전("오래 전에")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즉,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복음을 들을" 사람으로 그를 선택하셨음을 모인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우리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은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15:10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행동이 옳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면, 의식을 진행하는 유대인은 그 이방인이 이제 "하늘의 왕국의 멍에를 메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참조, 마 23:4; 갈 5:1). 베드로는 이 "멍에", 즉 모세 언약이 견딜 수 없고 불필요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참

[1] Longenecker, pp. 440-41.
[2] E.g., Kent, p. 123.

조, 마 11:29-30).

15:11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한 것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의 우월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일시적으로 빠졌던 믿음에서 분명히 회복된 것이 분명합니다(갈 2:11-14). 구원은 "은혜"(11절)와 "믿음"(9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 15:12

이 두 이름의 옛 순서가 여기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회원(4:36-37; 11:22)으로서, 자신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역사하셨음을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참조, 고전 1:22).

> "그것은 그들의 성공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보고였으며, 그 의미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었습니다."[1]

야고보의 증언 15:13-21

15:13-14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형제이며, 야고보서의 저자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12:17; 갈 1:19; 2:9, 12).[2] "시므온"은 베드로의 유대인 이름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베드로의 유대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애정을 암시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구원 경험을 전했고, 야고보의 "처음으로"라는 언급은 교회 초기에 발생한 그 경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1] Longenecker, p. 445.

[2] Richard Bauckham, "James and the Jerusalem Church,"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415–80 참조.

> "...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to onomati autou*, 문자적으로, '그의 이름을 위해') 취한 '백성'(laos)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1) 이전에는 이스라엘에만 사용되던 호칭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하고, (2) 고넬료의 회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베드로의 말에 동의한 것입니다."[1]

15:15 야고보는 청중들에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유대교를 떠난 이방인의 구원을 지지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예언자들"이란 아마도 야고보가 인용하기 시작한 아모스도 포함된 12 소예언서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모스나 다른 예언자들도 이방인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참조, 롬 11:12). 야고보는 그 당시 이방인의 구원이 이러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미래의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교를 떠나지 않은 이방인의 현재 구원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2:16 참조).[2]

15:16-17 야고보는 그 다음에 아모스 9:11-12를 대표적인 예언으로 인용했습니다. 야고보는 청중 중 엄격한 유대인들도 수용할 수 있는 구약 성경 역본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모스서 인용은 히브리어 본문과 의미에서 다르고, 70인역의 형식과 다르지만, 4QFlorilegium(1:12)의 본문과 동일합니다. 이는 에세네파의 번역입니다.[3]

> "아모스의 구절은 주로 다윗 제국의 회복을 언급하지만, 메시아 왕국 ([']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 눅 1:32)도 언급하고 있습니다."[4]

아모스는 "이 일들 후에"(즉, 환난기 이후, 참조, 암 9:8-10) 메시아의

---

[1] Longenecker, p. 446.

[2] Heater, pp. 147-57; and Bock, "Evidence from …," pp. 195-96 참조.

[3] J. A. de Waard, *A Comparative Study of the Old Testament Text in the Dead Sea Scrolls and in the New Testament*, pp. 24-26, 47, 78-79.

[4] Robertson, 3:230.

(두 번째) 강림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는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것이며(천년 동안), 그 아래에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그리고"(and)는 "심지어"(even)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이 접속사의 부가 설명적 사용).

> "이 구절 [14-17절]을 면밀히 살펴보면 야고보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생각의 진행이 드러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방문하여 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각자 자신의 순서에 따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축복이 먼저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부르신 후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오심으로 다윗의 성막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즉, 다윗 언약에서 약속한 대로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 재건이 '예전처럼'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아모스 9:11). 즉, 축복은 지상적이고 민족적이며 교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넷째, 남은 자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즉, 왕국이 세워진 후에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진리는 이사야 2:2; 11:10; 40:5; 66:23 등의 구절에서도 가르쳐지고 있습니다."[1]

야고보가 아모스의 예언(암 9:11-12)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세 가지 주요한 해석이 있습니다.[2] 일부 해석자들은 야고보가 이방인들이 교회에 포함된 것이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한 것이라고 의미했다고 믿습니다.[3] 이러한 해석자들(일반적으로 무천년주의자)은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견해는 아모스의 예언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의 예언은 "다윗의 장막"에 관한 것이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을 의미하기 때문입

---

[1] Pentecost, *Thy Kingdom …*, pp. 145-46. 또한, Gaebelein, *The Annotated …,* 3:1:293도 참조.

[2] Charles Zimmerman, "To This Agree the Words of the Prophets," *Grace Journal* 4:3 (Fall 1963):28-40; Kent, p. 126 참조.

[3] E.g., Henry, p. 1695; Lenski, pp. 608-11.

니다.

둘째, 일부 해석자들은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실 때 이방인들도 포함하실 것이라고 의미했다고 믿습니다.[1]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떠나서 이 일을 행하실지 여부였으며, 이러한 해석은 그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견해는 충분히 멀리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야고보가 이방인들이 현재 교회에 포함된 것은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참조, 롬 16:25; 엡 3:9).[2] 즉, 유대교를 떠나 이방인들이 현재 구원을 받은 것은 아모스가 미래에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해 말한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 "즉,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참조, 롬 10장].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면, 주님이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온 세상이 축복을 받는 때, 즉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입니다."[3]

15:18 야고보는 아마도 아모스의 예언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 이사야 45:21의 인용문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성전을 대체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도

---

[1] E.g., F. W. Grant, *The Numerical Bible*, p. 100.

[2] E.g., Chafer, *Systematic Theology*, 4:267–69; 5:328–29; and *The New Scofield …,* p. 1186. 또한, Kenneth R. Cooper, "The Tabernacle of David in Biblical Prophecy," *Bibliotheca Sacra* 167:672 (October–December 2011):402–12 참조.

[3] Ironside, *Lectures on …*, p. 356. Cf. Wiersbe, 1:463.

15:16-18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1]

"공의회 결정에 야고보가 기여한 가장 큰 공헌은 이방인의 개종에 대한 논의를 개종자 모델에서 종말론적 모델로 전환한 것입니다. ...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개의 동심원적인 그룹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회복된 이스라엘(즉, 다윗의 재건된 장막)이 있을 것이며, 그 주변에는 이방인들(즉, '남은 자들')로 구성된 그룹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축복을 공유할 것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남아 있을 것입니다."[2]

이 본문(15-18절)에 대한 전형적인 비세대주의적 이해는 야고보가 메시아의 왕국이 왔고 아모스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은 야고보가 메시아의 왕국의 첫 단계가 왔고 아모스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믿습니다.[3]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지상에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규범적 세대주의자들은 메시아 왕국을 전적으로 미래의 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아모스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될 것을 예언했다고 믿고, 야고보는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아모스의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첫째,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스라엘을 대체한다고 믿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비세대주의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별개의 존재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점진적 세대주의), 아니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규범적 세대주의)를 결정해야 합니

[1] Marshall, *The Acts* ⋯, p. 131.
[2] Longenecker, p. 446.
[3] Saucy, *The Case* ⋯, pp. 76-80 참조.

다. 저는 증거가 다윗 왕국이 지상 왕국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 돌아오셔서 그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믿습니다.[1] 그러나 저는 또한 예수님의 초림 때에 메시아로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는 현재 하늘에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지만, 재림하실 때 지상의 다윗의 왕좌에서 모든 인류를 다스리기 위해 돌아오실 것입니다.

15:19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유대인 개종자의 요구사항, 즉 할례와 모세 율법 준수를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5:20 이방인 개종자들이 유대인들의 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네 가지 일을 " 삼가라"고 권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산헤드린보다 분쟁 해결에 더 능숙하고, 야고보가 가말리엘보다 문제 해결에 더 능숙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성령으로 충만함(통제)에 기인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상에게 더럽혀진 것들" (참조, 고전 10:14-22); 둘째, 음행(Gr. 포르네이아스[*porneias*], "성적 부도덕 행위"). 이방인 개종자들은 또한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인" 동물(피가 배출되지 않은 동물)을 먹지 않아야 했고, 네 번째로, "피"(생명의 본질; 참조, 창 9; 레 17:11)를 피해야 했습니다.[2] 이 네 가지 제한은 유대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윤리적·도덕적 문제와 관습을 포함했습니다.

한 저자는 여기서 "목 매어 죽인 것"이 아니라 "숨을 막아 죽이는 것"을 의미하며, 사도들의 의도는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일반적인 출산 조절 방법인 영아 살해를 금지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3] 이는 소수의 견해로,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1] Toussaint, "Acts," pp. 394–95 참조.

[2] David Instone-Brewer, "Infanticide and the Apostolic decree of Acts 15,"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2:2 (June 2009):301–21.

[3] Toussaint, p. 395 참조.

"금지의 본질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네 가지 모두 어느 정도 이교도[또는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관성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쾌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은 악의 외관조차 피하기 위해 이러한 관습을 완전히 피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과 금지의 목적[참조, 15:29; 21:25]은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사이의 일치를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1]

15:21 **이러한 제한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모세 율법의 교사들은 "대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유대인들의 엄격한 규율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이러한 규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념을 무시하면, 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키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될 뿐입니다(참조, 고전 8:13).**[2]

"만약 이방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할 좋은 기회가 있었다면 바로 이때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를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것을 강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3]

야고보는 이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이방인 개종자들을 모세 율법 아래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더 효과적인 증거를 하고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더 조화로운 교제를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행사를 제한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한 것입니다(참조, 고전 9:19-

---

[1] Charles H. Savelle, "A Reexamination of the Prohibitions in Acts 15," *Bibliotheca Sacra* 161:644 (October–December 2004):468.

[2] Idem, "Acts 15:21: Moses Is Preached and Read in the Synagogue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65:4 (December 2022):707–17도 참조.

[3] Charles C. Ryrie, "The End of the Law," *Bibliotheca Sacra* 124:495 (July–September 1967):243. Cf. 막 7:18–19; 눅 16:16; 요 1:17; 행 10:12; 롬 7:6; 10:4; 14:17; 고전 8:8; 고후 3:6–11; 갈 3:19, 23; 4:9–11; 5:1; 6:2; 골 2:17; 히 7:12; 9:10.

23).

"요약하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두 가지 유형의 '필요한' 질문이 제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할례와 유대적 율법의 신학적인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거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를 위해, 그리고 디아스포라 전역에 걸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선교를 위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특정 관습을 삼가야 하는 실용적인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승인되었습니다."[1]

판결의 공식적인 형식화 15:22-29

15:22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 공의회의 판결을 구두로 확언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갈 두 명의 증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과 의회를 대표하는 네 명의 사람을 공식 문서와 함께 보내는 관습은 고대 그리스-로마 문헌에서 확인되어 있습니다.[2] 많은 곳에서 구두 증언이 서면 증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3] "유다"는 유대인의 이름이므로 그는 히브리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고, "실라"는 그리스 이름이므로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두 부류를 대표했습니다.

유다는 요셉 "바사바"와 같은 성을 가졌으며, 맛디아와 함께 유다 이스카리옷을 대신할 후보로 고려된 인물입니다(1:23). 따라서 일부 해석자들은 유다와 요셉이 형제라고 믿었습니다.[4]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실라의 로마 이름인 실루아노(고후 1:19)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22, 27절). 그는 예언자(32절), 안디옥에서 활동한 설교자(32절), 로마 시민(16:37), 유능한 문필 조수(살전 1:1; 살후 1:1; 벧전 5:12)였습니다. 실라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1] Longenecker, p. 448.
[2] Witherington, p. 467.
[3] Ibid., p. 469.
[4] E.g., Kent, p. 127.

서 바울의 주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40절).

"주후 49년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내린 결정은 교회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관대한 결정 중 하나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이 민족에게만 전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던 공의회는, 그들 민족 내에서 그 모든 성공이 그들 자신에게 더 큰 어려움을 의미하는 다른 그리스도인 선교의 진전을 방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1]

"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의회가 따랐던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첫째, 문제가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토론을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객관성과 지혜로 신뢰받는 사람이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넷째, 결정에 일치된 의견을 추구했습니다. 다섯째, 성령의 일치를 지키는 태도가 공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오늘날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2]

15:23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보낸 "편지"의 목적지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전역에서 행해진 광범위한 선교 활동을 밝히 보여 주지만, 누가는 이 활동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디옥"으로의 선교에 대해 알고 있지만, 누가는 시리아 주변 지역의 복음화 활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길리기아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는 독자들에게 그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지역에 이미 이방인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수도로, 주후 72년까지 로마가 단일 지방으로 관리했습니다.[3]

15:24-29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은 할례를 주장했지만 (1절), 예루살

[1] Longenecker, p. p. 450.
[2] The Nelson ⋯, p. 1848.
[3] Neil, p. 175; *The New Bible Dictionary*, s.v. "Cilicia," by E. M. B. Green, p. 233.

렘 교회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24절). 그들은 자신의 권위로 말하여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도달했습니다(25절).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인 "바나바와 바울"을 소개했습니다(25-26절).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도달한 결정에 성령의 통치가 작용한 것을 느꼈습니다 (28절).[1]

> "이 편지는 성령이 그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의 만장일치를 성령의 역사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15:28). 이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나타내기 위해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조화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2]

안디옥에 결정 전달 15:30-35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한 의식을 거쳐야 한다는 거짓 교사가 계속해서 그 견해를 전파했지만, 이제 그 견해는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여행은 약 560마일에 달했습니다(참조, 11:30-12:25; 갈 2:1-10).

6. 이방인 교회들을 굳건하게 함 15:36-16:5

누가는 교회의 확장의 이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와 소아시아에서 세운 교회들을 강화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

[1] 29절의 고대 대문자 본문과 서방 본문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C. K. Barrett, "The Apostolic Decree of Acts 15:29," *Australian Biblical Review* 35 (1987):50-59 참조.

[2] Kent, p. 128.

교회의 다음 주요 발전의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에게 해 주변의 지방으로 갔는데, 그 중 일부는 지금 우리가 유럽 대륙이라고 부르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 15:36-41

15:36-39 일부 주석가들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요한 마가에 대한 "심각한 의견 차이"를 과대평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1] 본문은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의견이 달랐다고 기록하지만, 일부 주석가들이 추론한 것처럼 서로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명시적 언급이나 암시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현명한지 여부에 대해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각자의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이별은 우호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2]

바울은 나중에 바나바(고전 9:6)와 요한 마가(골 4:10; 몬 24; 딤후 4:11)에 대해 존경과 감탄을 담아 썼습니다. 그들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결정은 분명히 복음의 더 큰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동료 선교사로 참여했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넓은 지역을 여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죄라고 잘못 믿지만, 본문에는 이러한 의견 차이가 죄라는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바나바가 요한 마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은 바울이 그 일을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칭찬할 만하고 자비로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종들은 실패한 후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기꺼이 준 자비로운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역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15:40-41 "바울"과 "실라"는 교회의 축복을 받고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사들이 먼저 육로로 북쪽의 "시리아"를 지나, 바울이 태어나고 이전

[1] E.g., Neil, p. 176; Blaiklock, pp. 118–19; Barclay, p. 128; Robertson, 3:241; Whyte, 2:141.
[2] Lenski, pp. 634–35 참조.

에 사역했던 "길리기아"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그 로마 지방에 있는 젊은 "교회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1]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은 이전 장들의 유대인 중심 분위기와 대비되어 이방인 중심의 분위기를 더욱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바나바 아래에서 섬겼고(13-14장) 이방인 전도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후(15장), 이제 선교의 공식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합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 16:1-5

16:1 "바울"과 실라는 서쪽으로 여행 중이었으며, 아마도 길리기아 문(현대의 Gülek Bogaz)이라는 협곡을 통해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4세기 전에 이 고개를 통해 동쪽으로 진군하여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습니다.[2] 이 경로는 그들을 길리기아 서쪽, 갈라디아 남쪽, 밤빌리아 동쪽에 위치한 안티오쿠스 왕국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루가오니아 갈라디아로 계속 진행하여, 먼저 "더베"로, 그리고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은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으로, 바울이 그 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추측합니다(참조, 고전 4:17). 본문에는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인은 팔레스타인 내부보다 외부에서 더 흔했습니다.[3]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는 모두 진실한 유대인이었고, 디모데에게 히브리 성경(딤후 1:5; 3:15)을 가르쳤습니다.[4] 유니게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

[1]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지도를 보려면, Longenecker, p. 249; Toussaint, "Acts," p. 397; 혹은 *The Nelson …,* p. 1855 참조.
[2] Blaiklock, p. 120.
[3] F. F. Bruce, *Commentary on …*, p. 322.
[4] Levinskaya, pp. 12-17 참조.

니다. 디모데는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첫 번째 여행에서 그가 차지했던 자리를 메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 "그[바울]는 항상 새로운 세대를 훈련시켜 앞으로의 일과 다가올 날들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1]

16:2 "그리스도인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인격이 중시된 것은 초기 교회 역사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2절,] vi. 3, x. 22, xxii. 12)."[2]

16:3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시킨 것은 그 의식이 그의 구원이나 성화에는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참조, 고전 7:19).[3]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참조, 고전 9:20-22; 롬 14:13-15).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디모데가 반유대인(half Jewish)이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여행했다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참조, 고전 9:20). 유대인들은 유대인 어머니를 둔 할례를 받지 않은 아들을 모세 언약을 어긴 배교자로 여겼습니다.[4] 바울은 여기서 문화적 민감성을 보였습니다.

16:4 바울의 사역 중 일부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제정된 지침("규례")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16:5 이 다섯 번째 경과 보고는 소아시아로의 교회 확장에 관한 부분을 마무리합니다(12:25-16:5; 참조, 6:7; 9:31; 12:24; 19:20; 28:31). 교회 역사의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데, 이 확장 단계에서 교회는 유대인 위주에서 이방인 위주의 구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1] Barclay, p. 129.
[2] Blaiklock, p. 120.
[3] 성화는 누군가나 무언가를 특별하고 거룩한 목적에 따라 따로 구분하는 행위를 말함.
[4] Bock, *Acts*, p. 523.

C. 에게해 연안으로 확장된 교회 16:6-19:20

이 장에서 설명하는 선교 활동은 로마의 주요 도로가 연결되는 에게해(Aegean) 연안의 중요한 도시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이어지는 장에서 우리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등 다섯 개의 중요한 도시에서 바울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도시는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 그리스 자유 도시였던 데살로니가, 고대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 활발한 상업 항구였던 고린도, 동양 종교에 헌신하는 헬레니즘화된 인구 가운데 있는 에베소 등 각기 다른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활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1]

1. 마케도니아로의 부름 16:6-10

누가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지금의 유럽으로 복음을 더 서쪽으로 전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케도니아 사람에 대한 바울의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 "... 이 부분[6:6-10]은 바울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선교사들을 새로운 사역 지역으로 인도했음을 압도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2]

> "그[누가]의 주제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특히 제국의 세 큰 지방인 마케도니아, 아가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가 급속히 확장된 것이며, 그는 그들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서 교회가 확고히 세워진 것을 묘사하고 있다 ... 이 세 큰 지방은 각각 에게해의 북쪽, 서쪽, 동쪽 해안을 포용했으며, 모두 하나의 큰 로마 제국의 일원이었고, 모두 하나의 위대한 헬라 문명을 향유했다. ... 마케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교회의 기초는 성 바울의 업적이었으며, 그의 가장 큰 업적이었다. 16장 11절부터 19장 19절까지는 그의 생애 업적에 대한 기록이다. 그것은 49년부터 54년까지 5년 동안의 기간을 담고 있으며, 책의 구성상 복음서의 주님의 사역(눅 4:16-17:10 또는 18:30)과 사도행전 전반부의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성 베드로의 사역(2:14-

[1] Foakes-Jackson, p. 148.
[2] Marshall, *The Acts …*, p. 261.

11:26)에 해당한다."[1]

16:6 브리기아는 지리적 지역이었고 갈라디아는 로마의 한 지방이었습니다. 브리기아는 갈라디아의 일부이자 갈라디아 서쪽에 위치한 "아시아" 지방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지방은 더 큰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했던 로마의 여러 지방 중 하나였습니다. 소아시아는 고대 아나톨리아 및 현대 튀르키예 서부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아시아 지방의 일부를 복음화했습니다(18:19-19:20). 그러나 아직 그곳에 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비아 사바스테(Via Sabaste) 길을 따라 서쪽으로 아시아 지방의 주요 도시이자 수도인 에베소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때 "성령"이 어떻게 아시아의 문을 닫았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가 아니라 바울을 인도하신 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참조, 13:1-3).

> "바울의 선교 여정은 주요 목표의 세부 사항을 실행하는 데 있어 전략적인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성의 놀라운 조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특히 여기서 두드러집니다."[2]

> "바울은 환상이나 꿈(참조, 9절, 23:11)을 보았을 수도 있고, 내면의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 실라(15:32)가 감동을 받아 경고의 말을 전했을 수도 있고, 상황(예: 유대인의 반대)에 의해 계획을 변경해야 했을 수도 있으며, 나중에 섭리의 지배적인 개입으로 인정했을 수도 있습니다."[3]

16:7-8 바울은 북쪽으로 시선을 돌려 "비두니아"라는 지방으로 들어가려고("시도") 했습니다. 비시디아는 흑해의 남쪽 해안을 따라 위치해 있었고 많은 로마 도시와 유대인 식민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무시아"는 브리기아

[1] Rackham, p. 272. 단락 구분 생략.
[2] Longenecker, p. 456.
[3] Neil, p. 179. "섭리"는 초자연적인 수단과 대조적으로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통제를 의미함.

와 같은 또 다른 지리적 지역이었지만,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로 가기 위해 통과한(Gr. 파렐톤테스[*parelthontes*], "옆으로 지나간"이 아님, 8절) 북서아시아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서도 누가가 "예수님의 영"(참조, 1:1-2)이라고 불렀던 성령께서 그들이 그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 특이한 성령의 호칭은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그리스도인 선교사들도 비시디아를 복음화했습니다(참조, 벧전 1:1).[1]

더 이상 북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자신이 있던 곳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이 도시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나 루스드라처럼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여행자들이 서쪽에서 소아시아로 들어가거나 소아시아에서 서쪽 더 먼 로마 지방으로 출발하는 주요 항구 중 하나였으며, 고대 트로이에서 남쪽으로 약 25마일,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585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 "그리스인들에게 산은 사람들을 보호하지만 분리시키는 반면, 바다는 무섭지만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데넬레스 해협[유럽과 아시아 터키 사이의 좁은 해협, 고전 시대에는 헬레스폰이라고도 불림] 입구에 있는 트로아는 유럽과 소아시아의 육지와 에게해와 흑해의 큰 수로 사이에 있는 중추적인 항구였습니다."[2]

16:9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긍정적인 지시를 주셨고, 누가는 "밤에 … 환상 가운데"(참조, 9:10; 10:3, 17, 19; 11:5; 12:9; 13:4)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 "바울은 꿈속의 남자가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다음 구절에서 '그들'에서 '우리'로 화자를 바꾸어 이 시점에

[1] Blaiklock, p. 123.
[2] Longenecker, p. 458.

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누가가 그 남자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마케도니아 사람 또는 마케도니아 혈통의 누가가 의료진으로서 아마도 트로아에서 바울을 만나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압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바울의 꿈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처럼 보이게 하고, 문제를 결정짓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력적인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1]

"마케도니아"는 고대(및 현대) 그리스의 대략 북부 절반을 차지했던 로마의 한 지방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케돈의 필립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16:10 **누가는 실라, 디모데 등으로 구성된 바울 일행과 함께 드로아에서 합류했습니다. 서술에서 그가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뀐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사도행전의 소위 "우리" 섹션(16:10-17; 20:5-15; 21:1-18; 27:1-28:16) 중 첫 번째 섹션의 시작입니다.[2]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제자들의 무리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세 가지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먼저 "성령"(6절), 그다음 "예수의 영"(7절),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10절)을 언급했습니다.

"역사에서 진정한 전환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마케도니아의 환상은 분명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이 때 바울의 순종으로 인해 복음이 서쪽으로 전파되었고, 궁극적으로 유럽과 서방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례에서처럼 큰 문제들

[1] Neil, p. 180.

[2] 사도행전의 일인칭 내레이션 문제에 대한 전통적, 출처 비판적, 편집 비판적, 비교 문학적 해결책에 대한 평가는, Susan Marie Praeder, "The Problem of First Person Narration in Acts," *Novum Testamentum* 29:3 (July 1987):193-218 참조. 또한 Witherington, pp. 480-86 참조.

과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1]

이 구절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대한 명확한 인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종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노력에 대해 'no' 또는 'yes'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자신에게 지혜로운 일로 보이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충족하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필요로 사도를 감화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다양하며 이는 누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가장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사역의 장소와 종류가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이라면,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그 어느 곳에서도 떨어뜨려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가 이 장소들 중 하나 이상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하나 이상의 문을 닫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의 판단력을 깨우쳐 주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가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9-15절에서] 모든 선교 사업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수행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2]

2. 마케도니아에서의 사역 16:11-17:15

누가는 예수님이 마케도니아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

[1] Longenecker, p. 458.

[2] Foakes-Jackson, pp. 151-52.

마케도니아인들은 그리스인들과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뚜렷한 민족적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로마의 노력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강한 민족주의적 독립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로마는 마케도니아 영토를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로마 산하의 지방 정부를 두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마케도니아인들의 반응에서 이러한 완고한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마음을 돌린 마케도니아 개종자들은 처음에 바울에게 적대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충실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사역 16:11-40

누가는 바울이 빌립보에 잠시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여행에서 다른 도시에서의 사도의 활동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도에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최초의 유럽 도시였습니다. 고대인들은 오늘날처럼 다르다넬스를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의 원 독자들은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 터키를 구분하는 이 좁은 수로를 건너는 것을 단순히 로마 제국 내에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16:11-12 "드로아"에서 바다로 이동한 사도 일행은 "사모드라게"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125마일을 항해하여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항구인 "네압볼리"(현대의 카발라)로 향했습니다. 빌립보는 네압볼리에서 북서쪽으로 10마일 내륙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크레니데스"(문자적으로, "샘")로 불렸던 이 도시는 마케돈의 필립을 기리기 위해 "빌립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드리아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또 다른 주요 로마 고속도로인 비아 이그나티아(이그나티아 도로)의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1] 위에서 언급했듯이 마케도니아는 네 부분 또는 구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빌립보는 이 네 구역 중 한 구역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1] 빌립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inegan, *Light from …,* pp. 350-51 참조.

> "이집트의 파윰[북부 지방]에서 고고학 발굴을 통해 ... 빌립보가 위치한 마케도니아 출신인 그곳 식민지 주민들이 바로 이 단어 *meris*['지방']를 사용하여 지방[즉, 마케도니아]의 구분을 설명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들은 누가가 마케도니아의 지리적 용어에 대해 근대에 가장 위대한 헬라어 전문가 중 한 사람[즉, 누가가 이 헬라어 단어를 마케도니아 내의 한 지역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믿었던 F. J. A. 호르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1]

> "주전 42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 근처에서 율리우스 시저의 암살자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물리친 후,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로 인해 특별한 특권(예: 세금 감면)이 주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식된' 로마처럼 되었다는 점이다... 식민지의 주된 목적은 군사적이었는데, 이는 로마 지도자들은 로마 시민과 동조자들을 전략적 위치에 정착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기원전 27년 초대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됨)는 기원전 31년 그리스 서해안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친 후 빌립보에 더 많은 식민지 주민(주로 전직 군인)을 정착시켰다."[2]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8월의 사람" 또는 "존경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호칭은 "폐하"일 것입니다.

> "신약 시대에 빌립보의 중요성은 ... 농업, 해상과 육로 모두에서 전략적인 상업적 위치, 여전히 운영 중인 금광, 로마 식민지로서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알려진 세계 전체에 졸업생을 배출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3]

누가가 빌립보의 지위를 "로마 식민지"라고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로마 식민지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

[1] Free, p. 320.
[2] Toussaint, "Acts," p. 399.
[3] Longenecker, pp. 459–60.

전에 등장하는 다른 로마 식민지들 중 누가가 식민지라고 밝히지 않은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드로아, 고린도, 프톨레마이오스 등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빌립보를 식민지로 지목했을 것이며, 이 지위를 염두에 두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도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빌립보가 누가의 고향이거나 바울 일행에 합류하기 전에 살았던 마을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있을 때 루디아와 함께 머물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15절). 누가에게 그곳에 집이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그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그곳에서 의학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는 제국에 특별한 봉사를 했다는 이유로 제국 정부가 특별한 특권을 부여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자유 시민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런 식민지에서 사는 것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로마에 있는 것과 비슷했습니다(참조, 빌 3:20).

16:13 일반적으로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데, 누가가 언급한 "기도하는 곳"은 회당이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너무 적어 회당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당을 세우는 데는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1] 이 "기도하는 장소"가 회당이든 아니든, 야훼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서쪽으로 1.5마일 떨어진 갱가이트(the Gangites) 강가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회당 예배에서 하는 일을 했습니다.

헬라어 단어 프로슈케(*proseuche*)는 기도와 "기도 장소"를 모두 묘사합니다.[2] 유대인 회당은 본질적으로 기도 장소였기 때문에 유대 문헌에서 이 "기도 장소"라는 단어가 "회당"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유

[1] Mishnah *Sanhedrin* 1:6; Mishnah *Pirke Aboth* 3:6.

[2] Levinskaya, pp. 213–25, "The Meaning of PROSEUCHE." 참조.

대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Sebomene ton theon*,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14절; 13:43; 18:7)은 회당이 없을 때 야외나 강가 또는 바닷가에서 모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1]

> "회당이 없는 곳에는 적어도 프로슈케, 즉 만남의 장소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마을 밖이나 강이나 바다 근처, 즉 정결 의식을 위해 극장 형식을 따라, 열린 하늘 아래 있었다."[2]

바울이 그곳을 찾은 날에는 분명히 남자가 없었습니다.

> "남자가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했을 때 식민지 도시 빌립보가 그 모범을 따랐다는 사실 때문일 수 있습니다."[3]

비록 남자는 없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 출신인 바울이 여성 청중에게 설교했다는 것은 그의 변화된 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이방인이나 노예, 여성이 아님을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참조, 갈 3:28).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여성 혐오자로 묘사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 "저는 그 기도 모임이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간 것과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16:14-15 참석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빌립보에 사업차 온 것으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녀의 고향인 아시아 지방의 "두아디라"는 "자주색 직물", 염료, 옷감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참조,

---

[1] Josephus, *Antiquities of …*, 14:10:23. Cf. Ps. 137:1-6.
[2] Edersheim, *The Life …,* 1:76.
[3] Lenski, p. 655.
[4] McGee, 4:583.

계 2:18-29).[1] 로마 시대에는 모든 색 중에서 자주색이 가장 존귀했기 때문에 자주색으로 염색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루디아는 의심할 여지없이 배타적이고 부유한 고객들을 상대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복음화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지만(6절),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에 사는 한 여인을 그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인 "루디아"는 그녀의 고향이 옛 루디아 왕국의 일부였던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루디아가 그녀의 이름이 아니라 그녀의 출신지일 뿐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루디아 왕국의 화폐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전 6세기 크로에수스 왕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통일된 동전을 생산했는데, 부유한 크로에수스 왕은 손만 대면 무엇이든 금으로 변한다는 마이다스 왕의 전설의 주인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는 루디아의 "마음"(14절, 참조, 고후 4:4)과 "그녀의 집안"(참조, 33절; 11:14)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에 열게 하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참조, 10:24, 44; 16:31; 18:8; 롬 16:10-11; 고전 1:16). 이 구절에서는 물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15절). 그것은 그녀의 회심 직후에 뒤따른 것입니다(참조, 33절; 8:36; 등).

루디아는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큰 집을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거처로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세계,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공공 주택 시설이 적고 불쾌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참조, 롬 12:13; 벧전 4:9).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로 이사했거나 두 도시 모두에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가끔 먼 곳에서 온 열성적인 선교사가 하는, 아프리카나 중국

[1] Richard S. Hess, *Song of Songs*, pp. 121–22 참조.

> 또는 다른 나라에서 일할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나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떠날 준비를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은 우리가 오기를 간청하고 있었고, 우리를 원하기는커녕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선교사가 틀렸나요? 그가 상황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참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 자신의 실제 상태를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의 필요를 자주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필요입니다."[1]

16:16 **누가는 복음의 보편적인 호소력과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빌립보에서 매우 다른 세 사람(루디아, 노예 여인, 간수)의 회심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 만난, 마귀 들린 "노예 여자"(참조, 또 다른 "노예 여자" 로데, 12:13)는 "점치는 일"을 통해 "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도구였습니다.[2] 그녀 안에 있는 "점치는 영"(Gr. 프뉴마 퓌토나[*pneuma pythona*])은 분명히 악령이었습니다.**

> "파이톤은 코린트 만 북쪽 파르나소스 산 남쪽 경사면에 위치한 아폴로 신전과 신탁자[조언이나 예언을 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제사장 또는 여제사장]를 지키는 신화 속 뱀 또는 용입니다. 파이톤은 파르나소스 산 기슭에 살다가 결국 아폴로에 의해 죽었다고 합니다(참조, 스트라보 지리학 9.3.12). 후에 파이톤이라는 말은 마귀들려 파이톤이 그 안으로부터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복화술사도 그 뱃속에 그런 영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참조, Plutarch *De Defectu*

---

[1] Ironside, *Lectures on …*, p. 368.

[2] Merrill F. Unger, *Demons in the World Today*, pp. 55–72; Kurt E. Koch, *Between Christ and Satan*, pp. 13–60 참조.

Oraculorum 9.414)."[1]

16:17 악령은 바울을 알고 있었고, 여자를 통해 그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렸습니다. 이 여인의 반복되는 외침은 예수님이 만났던 마귀 들린 사람들의 행동을 떠올리게 합니다(참조, 막 1:24; 3:11; 5:7; 눅 4:34; 8:28).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에게도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집단은 "구원의 길"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제우스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2] 그러나 이 여인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연관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어쨌든 여인의 외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16:18 귀신 들린 여인은 스스로를 사도들의 전령으로 임명하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들을 알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녀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존재와 공개적인 광고 활동은 선교사들이, 사람들이 그녀에게 깃든 것을 알았던 악령의 동조자임을 암시했습니다(참조, 막 1:24-25).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 악령을 "그녀에게서" 쫓아내셨습니다(막 9:14-29; 눅 4:33-35; 6:18; 7:21; 행 8:9-24; 13:6-12; 19:13-20).

> "복되신 주님께서 악령 들린 자들이 그분을 알리는 것을 친히 금하신 이유 중 하나는, 그러한 증거에 의지함으로써 그분의 거룩한 대의가 더럽혀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4]

> "존경받는 설교자가 세 명의 동료와 함께 마을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한

---

[1] Longenecker, p. 462.
[2] C. Roberts, T. C. Skeat, 및 A. D. Nock, "The Guild of Zeus Hypsistos," *Harvard Theological Review* 29 (1936):39–88.
[3] Levinskaya, pp. 98–100.
[4] Howson, p. 232.

> 소녀가 그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이 설교자다!"라고 외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는 다른 네 명의 전문직 남성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쳐다보고, 궁금해하고, 말을 걸고, 그런 남자들에 대해 온갖 종류의 이상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1]

누가는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이 사건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이 악령을 쫓아낸 동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본문은 그 여인이 선교사들과 "여러 날 동안" 동행한 후에 그가 "크게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소녀를 불쌍히 여겼다면 왜 즉시 악령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데려 오셨기 때문에 그가 악령을 더 빨리 쫓아 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다른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없이 바울은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에게 일으킨 지속적인 근심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울로 하여금 그녀에게서 악령을 쫓아내도록 이끄시는 데 사용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다른 더러운 악령을 내어 쫓을 때에도 같은 강한 헬라어 단어인 파랑겔로(*paraggello*, "명령")를 사용하셨습니다(눅 8:29; 참조, 행 1:4).

16:19-21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없이 유대인으로 인식한 바울과 실라(20절)에 대한 여인의 "주인들"의 행동은 분명히 편견에 찬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보복을 원했습니다(참조, 19:24-27).

> "최근에 수익성 있는 소유물이었던 노예가 갑자기 가치가 없어졌지만, 율법에는 마귀 내쫓음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한 재산에 대한 구제책이 없었

[1] Lenski, p. 665.

습니다."[1]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누군가를 법정에 고소했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2] 이 사건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바울에 대한 최초의 정식 기소(심각한 범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입니다. "시장"은 아고라(*agora*)였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리스도의 십자군 전쟁에 가장 큰 장애물은 인간의 이기심입니다."[3]

"동양의 [기독교에 대한] 반대는 종교적이고 신비주의적이며 오컬트적이었지만, 바울이 빌립보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 기독교가 상업적 사업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서양에서 온 기독교에 대한] 유럽의 반대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4]

두 명의 "치안관"(magistrates)이 각 로마 식민지를 통치했습니다.[5]

"누가는 … 빌립보의 통치자들을 '치안관'(*praetors*)라고 지칭합니다. 빌립보의 관리들은 보통 두 명의 두움비르(*duumvirs*)에 의해 통치되었기 때문에 이 용어는 기술적으로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비문을 보면 로마 식민지의 최고 치안관에게 '예우적 칭호'로 *praetor*라는 직함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누가도 기술적인 면보다는 교양 있는 대화의 면으로 나아갔습니다."[6]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했습니다(18:2). 그 결과 제국 전역에 반유대주의가 팽배했고, 특히 군인 수가 유난히 많았던 빌립보에서는 반유대주의가 극에 달했습니다. 빌립보에 많은 로마 시민의

---

[1] Howson, p. 232.
[2] Witherington, p. 496.
[3] Barclay, p. 135.
[4] Morgan, *The Unfolding* …, p. 368.
[5] F. J. Foakes-Jackson and Kirsopp Lake, *The Acts of the Apostles*, 4:194–95.
[6] Free, p. 321.

종교를 바꾸려고 지역 주민들이 시도하는 것은 로마 법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의 "주인들"은 바울이 선포한 "관습"에 황제가 아닌 유대인인 예수님에 대한 경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유대교를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16:20-21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에 대한 고발은 일련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6-19장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발이 등장하는 네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발은 비슷한 사건의 시퀀스 중 일부입니다. 이 시퀀스에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인들이 강제로 관리나 공회 앞에 끌려갑니다. (2) 그들은 고발당하고, 이 고발은 직접 인용을 통해 강조됩니다. (3) 그리스도인 선교를 억제하려는 시도의 결과를 듣습니다."[1]

그리스인들은 인류를 그리스인과 야만인(Barbarians)으로 구분했습니다. 야만인은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사람들을 로마인과 이방인(Strangers)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은 로마에 정복된 것을 제외하고는 로마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2]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참조, 37절).

16:22 현지 군중들이 선교사들을 고발한 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에 대한 혐의가 너무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치안관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겉옷을 벗기고 "몽둥이로 때리고" 투옥했습니다(23절; 참조, 고후 11:23, 25). 매질(채찍질; 참조, 35절)은 군인(경찰관)이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방인들이 바울을 위협하거나 해친 사례가 단 두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참조, 19:23-41). 두 경우 모두 사람들이 기득권을 잃고 있었고, 두 경우 모두 로마 관리가 바울을 옹호했습니다.

---

[1] Tannehill, 2:201–2.

[2] Howson, p. 224.

또 다른 경우에 바울은 매를 피하기 위해 로마 시민권을 호소했습니다(22:25).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매를 맞았을 수 있습니다. 키케로(Cicero)는 로마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주장하다가 채찍질을 당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1] 아마도 빌립보의 폭도들의 행동이 너무 격렬해서 바울이 호소했다면 그 혼란 속에서 바울의 호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16:23-24 "간수"는 죄수들을 위험한 범죄자처럼 대했습니다. 그의 처우는 범죄 혐의의 심각성보다 간수 자신의 태도를 더 많이 반영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경비대의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 "간수들은 대개 퇴역한 군인 출신으로, 필요에 따라 명령을 따르고 군사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2]

> "그는 단순한 간수가 아니라 감옥의 총독이었으며, 아마도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같은 백부장 계급이었을 것이며, 그의 이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3]

> "루디아가 사회 계층의 최상층에서, 노예 소녀가 최하층에서 왔다면, 로마 간수는 로마 공무원을 구성하는 건실한 중산층 중 하나였으므로 이 세 사람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이 완성되었습니다."[4]

16:25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억울하게 "차꼬"(24절; 참조, 시 42:8)에 채워진 고통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성령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와 찬송"을 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빌립보 교회의 지체가 되

---

[1] Knowling, 2:350.
[2] Longenecker, p. 464.
[3] Rackham, p. 288.
[4] Barclay, p. 136.

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빌 3:1; 4:4)고 권면한 것이 이 기회에 그들에게 자신의 모범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열린 최초의 성스러운 콘서트였습니다."[1]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자신들처럼 상황에 의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결국 기독교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을 뛰어넘어 가장 깊은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에게는 낯선) 그리스도를 아는 데 무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2]

16:26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큰 지진"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종들과 다른 모든 죄수들을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어 주셨습니다(참조, 5:18-20; 12:3-11). 일부 고대 작가들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전역에서 지진이 드물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3]

"왜 죄수들이 탈출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반동양(semi-Oriental)의 폭도들이 지진으로 인해 당황했을 것이고, 그들이 안전을 위해 돌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간수가 스스로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즉시 경비병에게 불빛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회는 매우 빨리 사라졌을 것입니다..."[4]

16:27 "로마 법에 따르면 죄수의 탈출을 허용한 간수는 죄수가 받았을 형벌과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했다(유스티니아누스 법전 9.4.4)."[5]

이 간수는 공개 처형이라는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려 했습

---

[1] Ironside, *Lectures on …*, p. 381.
[2] Ibid.
[3] Ovid, *Metamorphoses* 9.782–83; 15.669–78; Lucian, *Lover of Lies* 22.
[4] Knowling, 2:351.
[5] Longenecker, p. 464. Cf. 12:19.

니다. 그는 "죄수들이 탈출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수들이 어떻게든 탈출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셨는데,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거나 바울과 실라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참조, 눅 23:40-43).

> "... 다른 죄수들도,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유대인 마법사 두 사람의 마법의 힘이라고 믿었던 간수만큼이나 겁에 질려 있었을까요? 이것이 그들이 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1]

16:28 다른 죄수들이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감옥에 남아 간수의 자살을 막음으로써 간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었다는 점입니다. 간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불신자의 자살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초래합니다. 신자에게 자살은 주님을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영원한 상급을 감소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믿음의 순간에 거저 받은 영생의 선물을 그대로 유지합니다(요 5:24-25; 6:37-40, 47; 11:25-27)."[2]

16:29-30 바울과 실라의 "간수"에 대한 사랑은 그들이 치안관, 경비, 간수로부터 받았던 증오와는 대조적으로 간수의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간수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들었거나,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참조, 17절), 복음에 반대하는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24절). 이제 그는 죽음과 맞닥뜨렸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3] 가능성이 낮은 또 다른 가능성은 간수가 자신의 육체적 위험으로부터의

---

[1] Neil, p. 184.
[2] Valdés, 1:568.
[3] William Hendriksen,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Philippians and Exposition of Colossians and Philemon, p. 13 참조.

구출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들이 간수가 정확히 말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어떻게 하면 내가 명백히 강력한 두 마술사를 잘못 대우한 결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복음 메시지의 서두로 사용합니다(31절)."[1]

"지진은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과 함께 일하신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그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무엇을 더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간수가 참여하여 저지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증거 앞에서 간수는 반대편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2]

"...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렸고, 더 심한 쇠사슬은 그 자신에게서 풀렸습니다. 그는 등불을 요구했지만 진정한 열은 그의 마음속에 켜졌습니다.'(Chrys[ostom]., Hom[ilies]., xxxvi)"[3]

16:31 **이 문맥에서 "믿다"는 주권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들은 간수에게 방금 생생하게 보여진 것입니다.**[4]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으므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에서도 믿음은 우리가 믿는 분에 의해 우리 안에서 깨어나고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에 가장 합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과 접촉한다는 것은 그분과 그분만을 구원으로 신뢰하도록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신은 범죄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을 신뢰하지

---

[1] Neil, p. 185. See Witherington, pp. 821–43, "Appendix 2. Salvation and Health in Christian Antiquity: The Soteriology of Luke–Acts in Its First-Century Setting."

[2] Bock, *Acts*, pp. 541–42.

[3] Knowling, 2:351–52.

[4] 31절에 대한 *The NET2 Bible* 주석.

않는 것입니다."[1]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주권 구원(Lordship Salvation)에 대한 질문을 가장 명확하게 제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님(주인)으로 삼아야 할까요? 다시 말해, 구원을 받으려면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예수님의 통제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완성된 사역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 그분을 개인의 주인으로 온전히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2]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삶을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3]

주권 구원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는 두 개의 분리된 순차적 행위나 연속적인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신앙 행위입니다. 주권 구원관에 대한 몇 가지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늘날 일부 서클에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적 주권(sovereign Lordship)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생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4]

> "대부분의 경우 현대의 '전도자'는 죄인이 지옥을 피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개인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회중에게

---

[1] Lenski, p. 681.

[2] E.g., Lewis S. Chafer, *Salvation*, pp. 42–53; ibid, *Systematic Theology*, 3:384–88; Ryrie, *So Great …*; Hodges, *Absolutely Free!*; Toussaint, "Acts," p. 400; and Constable, "The Gospel …".

[3] E.g., John Murray, *Redemption—Accomplished and Applied*, pp. 95–116; K. L. Gentry, "The Great Option: A Study of the Lordship Controversy," *Baptist Reformation Review* 5 (1976):49–79; John R. W. Stott, "Must Christ be Lord to be Savior? Yes," *Eternity*, September 1959, pp. 15, 17–18, 36–37; Marshall, *The Acts …*, p. 273.

[4] John R. W. Stott, *Basic Christianity*, p. 114.

확신시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부하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홀에 절하고 그분을 마음과 삶으로 모시지 않으면서도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는 것입니다."[1]

"명확한 지식이 없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주장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없는 곳에서는 회개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2]

"우리가 가르칠 때(그것이 마태복음이든, 로마서든, 신약의 다른 책이든, 심지어 구약과 비교해서도), 우리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고 가르칩니다."[3]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에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의 행위보다 전적으로 뛰어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4]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길 필요는 없다고 믿는 훌륭한 복음주의 학자들과 해설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Arthur W. Pink, *Studies on Saving Faith*, pp. 12-13.

[2] J. I. Packer,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p. 73. Cf. pp. 71-73.

[3] John MacArthur Jr., *Justification by Faith*, p. 10. 또한, idem,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및 idem, *Faith Works: The Gospel According to the Apostles*, pp. 73-85 참조.

[4] James M. Boice, *Foundations of the Christian Faith*, p. 427.

"구원과 성화 모두와 관련하여 이 질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만 전하는 메시지와 믿음에 삶의 헌신을 더한 메시지는 둘 다 복음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중 하나는 거짓이며 복음을 왜곡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갈 1:6-9)."[1]

"자신이 선택한 대로 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은혜의 다른 어떤 측면만큼이나 무한하고 완전합니다."[2]

"사도행전 전체를 충실히 읽어도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3]

"만일 제자도가 구원과 같다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을 계속하면 참으로 내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 안에서 계속해야 합니다. 제자도를 위해서는 계속함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제자도와 구원이 동일하다면 구원을 위해서도 지속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선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엡 2:8-9). 믿음의 순간에 영생을 얻습니다(요 3:36). 지속성은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4]

"제자도의 조건과 영생을 값없는 선물로 제공받는 것을 혼동하는 것은 가장 큰 해석상의 실수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계 22:17)는 말씀은 분명히 무조건적인 혜택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지 않으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은 완전히 조건적인 관계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

---

1 Ryrie, *Balancing the ...*, p. 170.
2 Lewis. S. Chafer, *Grace*, p. 345.
3 Everett F. Harrison, "Must Christ Be Lord to Be Savior? No," *Eternity*, September 1959, p. 16. Cf. also pp. 14 and 48.
4 G. Michael Cocoris, *Lordship Salvation—Is It Biblical?* p. 16.

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혼란과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1]

"현대 자유주의에 따르면, 신앙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과 같으며, 적어도 그리스도를 삶에서 주인으로 삼음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구원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우리 자신의 순종으로 얻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율법주의의 승화된 형태일 뿐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 자신의 순종이 희망의 근거입니다."[2]

"... 저는 주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중요성을 설교합니다. 저는 믿음 뒤에 따르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생은 선물이며, 제가 하는 일이나 제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습니다."[3]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누가는 그들이 그분에 대해 무엇을 믿었다고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구원에 관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0장, 16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심판할 전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진 구원의 신성한 중보자라는 점에서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공로로부터 승천하신 주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신성한 분배자이십니다."[4]

신약의 다른 구절들(2:38-39; 3:19-26; 4:12; 8:12, 35; 10:43; 13:38-39;

---

[1] Hodges, *The Gospel* ⋯, p. 37.
[2] J. Gresham Machen, *Christianity and Liberalism*, p. 143.
[3] Charles R. Swindoll, "Dallas's New Dispensation," *Christianity Today*, October 25, 1993, p. 15.
[4] Bock, "Jesus as ⋯," p. 151.

요 20:28; 롬 10:9-13; 고전 12:3; 고후 4:5; 약 1:1; 2:1; 벧전 3:15; 벧후 3:18; 유 4, 21, 25; 계 19:16) 역시 이 증언을 확증합니다.[1]

예수님의 전적인 주되심에 복종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롬 6:12-14; 12:1-2). 그러므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비현실적입니다.[2]

>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서 주님이 여호와를 뜻하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서론, p. lxxii를 참조하세요."[3]

빌립보 간수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할 권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분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바울과 실라를 "선생님들"(문자적으로 "주님들", Gr. 퀴리오이[*kyrioi*], 30절)이라고 호칭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믿어야 할 "주님"(퀴리온)는 오직 한 분, 즉 예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구절에서 '주'라는 단어는 '레이건 대통령을 믿으라'는 현대식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그의 직책입니다. 이는 그의 지위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주님'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지위와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냅니다."[4]

---

[1] 또한, William D. Lawrence, "The New Testament Doctrine of the Lordship of Christ" (Th.D. dissertation, Dallas Theological Seminary, 1968) 참조.

[2] S. Lewis Johnson Jr., "How Faith Works," *Christianity Today* 33:13 (September 22, 1989):21-25에서는 주권 구원의 문제에 관해 Ryrie, MacArthur, Hodges의 저술을 비교함. Thomas G. Lewellen, "Has Lordship Salvation Been Taught throughout Church History?" *Bibliotheca Sacra* 147:585 (January-March 1990):54-68에서는 주권 구원이 교회사를 걸쳐 가르쳐지지 않았다고 결론을 냄. 복음 전파의 역사에 대한 MacArthur의 해석은, MacArthur, *Faith Works*, pp. 235-58 참조. 주권 구원에 대한 훌륭한 반증을 보려면, Wilkin, *Confident in …*, pp. 179-86 참조.

[3] Rackham, p. 462, n. 1.

[4] Cocoris, *Lordship Salvation …*, p. 15. Cocoris의 John MacArthur's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간수가 잃어버린 바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간수가 믿기만 하면 간수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간수의 집안의 다른 식구들도 그가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개별적으로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참조, 15절; 8:36). 개인 구원은 항상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요 3:16; 등).

이 구절은 믿음이 중생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1]

>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간수에게 '구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2]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중생이 믿음보다 선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참조, 롬 8:8).

> "[로마서 8장] 8절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내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가장 분명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중생이 믿음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3]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의 내면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역사가 중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음의 은사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는 믿음과

---

entitled "John MacArthur Jr.'s System of Salvation"에 대한 출간되지 않은 비평문은 매우 유용함.

[1] R. Bruce Compton, "The *Ordo Salutis* and Monergism: The Case for Faith Preceding Regeneration, Part 1," *Bibliotheca Sacra* 175:697 (January–March 2018):34–49; idem, "… Part 2," *Bibliotheca Sacra* 175:698 (April–June 2018):159–73 참조.

[2] Hodges, *Absolutely Free!* p. 219. See René A. López, "Is Faith a Gift from God or a Human Exercise?" *Bibliotheca Sacra* 164:655 (July–September 2007):259–76.

[3] S. Lewis Johnson Jr., *Discovering Romans*, p. 128.

중생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6:32 바울은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계속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언급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충분히 나이가 많고 믿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16:33-34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침례의 물로 그를 씻겼습니다. 간수는 더 이상 바울과 실라를 자물쇠와 열쇠로 가둘 필요가 없었고, 필요한 시간에 당국에 인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범법자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대했습니다. 그 후 기쁨이 이 집에 가득 찼다는 사실도 주목하십시오(34절).

> "참된 회개의 증거 중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곳이라면 어디든 회복하고 보상하려는 사랑의 열망입니다."[1]

> "간수의 회심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회심 중 하나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처벌하는 억압적인 제도의 일원이 회심한 것입니다."[2]

16:35-36 "관리들"(로마의 간수들)은 다음 날 아침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는 명령을 가지고 간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끼를 묶은 막대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치안관"은 바울과 실라를 재판에 회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어지럽힌 것에 대해 교훈을 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16:37 로마 정부는 로마 시민들에게 공개 재판과 구타와 같은 모욕적인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3] 바울은 이제 자신과 실라의 시민권을 유리

---

[1] Wiersbe, 1:469.

[2] Tannehill, 2:204. Cf. 행 10.

[3] A. H. M. Jones, *Studies in Roman Government and Law*, p. 54. Cicero, *Pro Rabirio* 12. Cf. Josephus,

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체포되기 전에 시민권을 알리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을 수도 있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알렸을 수도 있습니다. 치안관들은 바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참조, 22:27).

>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전형적인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 목판의 왁스칠한 표면에 새겨진 자신의 출생과 시민권을 증명하는 공인된 사본인 유언장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1]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거짓으로 주장한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2] 여기서 바울의 주장은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국도 바울의 동료 신자들을 학대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의심할 여지없이 개인의 영광이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 자신이 한 일을 요구했습니다(참조, 빌 1:18).[3]

16:38-39 로마 시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로마 관리들은 상관들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이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고소를 제기하지 말 것을 온유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울이 노예 여인을 고쳤다는 이유로 여론이 여전히 그들에게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빌립보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게다가 현지 "치안관"들은 바울 일행을 성난 현지 주민들로부터 보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40 바울은 즉시 빌립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모인 이 그룹은 빌립보 교회의 핵심을 형성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후에도 바울에게 기쁨의 원천이자 다른 신자

The Wars …, 2:14:9.

[1] Witherington, p. 501.

[2] Robertson, 3:264.

[3] Ryrie, *Biblical Answers …*, pp. 18-19.

들에게 격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참조, 빌 1:3; 4:10-16).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 17:1-9

17:1 바울과 실라, 또한 어쩌면 다른 사람들("그들")은 빌립보를 떠나 이그나티안 도로를 따라 남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가는 바울 일행을 "우리"가 아닌 "그들"이라고 다시 한 번 묘사한 것으로 보아(참조, 20:5-6) 누가는 빌립보에 머물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떠났을 수도 있고 빌립보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1] 다음에는 그가 베뢰아에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17:14).

바울과 실라는 이그나티안 도로를 따라 33마일(말로는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암비볼리"(Amphipolis)에서 하룻밤을 묵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스트라이몬 강 어귀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서남서쪽으로 27마일을 더 이동하여 "아볼로니아"(Apollonia)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아 이그나티아를 따라 서쪽으로 35마일을 더 이동하여 에게해의 테르마익 만에 위치한 "데살로니가"(현대의 살로니카)에 도착했습니다.[2]

본문에는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하룻밤만 머물렀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이야기에서 이를 유추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지만, 아마도 그 두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한동안 머물렀던 데살로니가에서 사도들의 사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이자 수도였으며 빌립보에서 약 1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는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략적 중심지였습니다(참조, 살전 1:7-8).

"데살로니가는 [다소와 아테네처럼] '자유 도시'였기 때문에 선출된 시민

[1] Howson, p. 240.

[2] 데살로니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inegan, *Light from …,* pp. 351-52 참조.

> 의회가 있었고, 자체적으로 동전을 주조할 수 있었으며, 성벽 안에 로마 주둔군이 없었다."[1]
>
> "지역 치안관들은 그곳 시민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토 내에 고정 주둔한 로마 병사 주둔지도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로마 관직의 휘장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2]

17:2-3 바울은 지역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세 안식일"(참조, 13:5, 14, 14:1)만 "논증"한 것이 분명하지만(참조, 살전 4:1; 살후 2:5), 데살로니가에 더 오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3] 우리는 바울이 그곳에서 천막을 만들며 자신을 부양했고(살전 2:9; 살후 3:7-10), 빌립보 교인들이 그에게 두 번의 금전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빌 4:15-16). 아마도 그는 처음 3주 동안은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한 후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토론"(Gr. 디엘렉사토[*dielexato*], 참조, 17절; 18:4, 19; 19:8-9; 24:25), "설명"(디아노이곤[*dianoigon*]), "증거"(입증, 파라티테메노스[*paratithemenos*]), "선포"(카탕겔로[*katangello*])로 묘사했습니다. 이 용어들은 바울이 청중들의 질문과 의구심을 신중하게 다루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복음 역사의 사실들이 성경이 예언한 것을 확인시켜 주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주제는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선포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유대인 청중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그들의 "성경"이 가르친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참조, 3:18; 13:30, 34; 눅 24:13-27; 고전 15:1-4).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성경을 사용했습니다.

---

[1] Wiersbe, 1:470.
[2] Howson, p. 257.
[3] Cf. ibid., pp. 254–55.

"바울의 메시지에서 성경 해석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17:2, 11)."[1]

17:4 바울의 토론은 회당 예배에서 "몇몇 사람"을 "설득"(에페이스테산 [*epeisthesan*]) 했습니다(참조, 26:28; 28:23). 개종자들은 주로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참조, 살전 1:9), 그 중 다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헬라인들"(참조, 10:4; 13:43; 16:14)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야손(5절), 아리스다고(골 4:10), 세군도(20:4)가 이 새 신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으뜸가는 여인들"은 상류층에 속했을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 도시의 지지도자 남성의 아내였을 수도 있습니다.[2] 어느 경우이든 복음이 데살로니가 사회의 지도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7:5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갈라디아에서 그랬던 것처럼(13:45, 50; 14:2, 19) 이곳에서도 바울을 가혹하게 대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바울의 메시지의 인기와 효과에 다시 한번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유형의 한량들(loungers)는 그레코-로마 도시의 아고라나 포럼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연설자가 연설하는 연단 주위에 모여서 돈을 낸 사람에 따라 박수를 치거나 야유를 보냈습니다..."[3]

AV 번역자들은 이 사람들을 "천박한 종류의 음란한 사람들"로 묘사했습니다.[4] "야손"은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16:15, 40)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던 바울의 호위무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야손은 바울이 로마서 16:2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

---

[1] Tannehill, 2:206.

[2] Marshall, *The Acts …*, p. 277.

[3] Merrill F. Unger, "Historical Research and the Church at Thessalonica," *Bibliotheca* Sacra119:473 (January-March 1962):41.

[4] AV는 공인 킹제임스 역본을 가리킴.

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17:6-7 유대인 적대자들은 선교사들에게 혁명적인 가르침, 즉 "다른 왕", 즉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참조, 살전 3:13; 5:1-11; 살후 1:5-10; 2:14).

> "'문명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자들이 이곳에 도착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칭찬 중 하나입니다. ...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행동에 나설 때 그것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 모두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1]

예수님 사역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황제 타도를 주장했다는 비슷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눅 23:2; 요 18:33-37).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카이사르"(Caesar)외에는 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참조, 요 19:15). 야손은 도망자들을 숨겨준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발견된 여러 비문들은 그 도시의 통치자들을 누가가 여기서 사용한 바로 그 단어("도시 당국자"[2], 참조. 8절)인 정치가로 묘사합니다.[3] 이 중 하나는 아직도 서 있는 이그나티아 길 위에 있는 갈레리우스 아치(Arch of Galerius)에 있는데, 주후 3세기 후반에 로마가 페르시아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비문입니다. 이 비문이 발견되기 전 비평가들은 누가가 데살로니가를 다스리는 도시 당국자(*politarchs*)가 있다고 쓴 것은 오류라고 했습니다. *politarch*는 마케도니아에서만 도시 권력자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던 칭호였습니다.[4]

> "이 용어는 다른 곳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한때 그것을 무지의 표시로 일축했습니다. 현재 현대 살로니카에는

---

[1] Barclay, p. 139.
[2] 한국어 성경에서는 "읍장", "시청 관원", "당국자" 등으로 번역되었음-역자주.
[3] E. D. Burton, "The Politarchs," *American Journal of Theology* 2 (1898):598-632.
[4] Free, p. 321 참조.

16개의 비문이 남아 있으며, 대영 박물관에는 한때 아치형 통로의 일부였던 돌에 새겨진 비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 용어임이 분명합니다. 교육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누가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빌립보의 관리들을 '치안관'(praetors)라고 불렀고, 비문에도 마찬가지로 로마 식민지의 행정관들에게 주어지는 정중한 호칭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

17:8-9 도시의 관리들은 재판에 회부할 선교사들을 찾지 못했습니다(6절). 그래서 그들은 야손과 그의 친구들에게 바울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마을을 떠날 것을 보증하는 보석금("서약")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문제가 계속되면 야손은 돈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탄이 자신의 귀환을 방해했다고 썼습니다(살전 2:18). 그가 돌아오지 못한 것은 적들의 이러한 전술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하게 사역을 계속했고, 바울은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살전 1:7-10; 2:14-16).

베뢰아에서의 사역 17:10-15

17:10 두 번째로 "바울"은 "밤"을 이용해 도시를 떠났습니다(참조, 9:25; 마 10:23). 그는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그나티아를 떠나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서쪽으로 약 45마일 떨어진 "베뢰아"(현대의 베리아)를 향해 동쪽 해안로를 통해 남쪽으로 갔습니다. 베레아는 아스트레우스 강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마케도니아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반감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이 도시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 지

[1] Blaiklock, p. 129.

역의 "회당"을 방문하여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7:11 베뢰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질투심으로 반응하지 않고(참조, 5절), 바울의 설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히브리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의 "매일" 성경 공부의 모범은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종교적 진리를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유대인들처럼 성경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상한" 회의론자 중 다수는 바울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17:12 여기에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 개종한 유대인 개종자가 보통의 소수보다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방인들도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명한 그리스 여자들"(참조, 4절)과 "남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함께 여행한 소바더도 개종자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20:4).

17:13 바울이 베뢰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베뢰아에서 쫓아내기 위해 데살로니가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전술을 채택한 것이 분명합니다(참조, 5, 9절). 그들은 선교사들에게 소동을 "선동한" 혐의를 씌웠지만(참조, 6절), 실제로는 평화를 어지럽힌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17:14-15 누가는 바울이 베뢰아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갔는지 아니면 육로로 갔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를 추격하는 자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의 호위병들은 바울을 배에 태우려고 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바다까지" 데려갔을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육로로 아테네까지 동행했을 수도 있습니다.[1]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바다로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2] 어쨌든 그는 베뢰아에서 남남서쪽으로 195마일 떨어진 "아테

[1] Henry, p. 1705; Kent, p. 138.
[2] Howson, pp. 264, 265.

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는 동행했던 베뢰아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도 곧 합류하라는 지시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새 개종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뒤에 남아 있었거나 되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18:5). 그들은 바울의 요청에 따라 베뢰아를 떠났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바울과 다시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참조, 살전 3:1).

> "...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어졌습니다(살전 3:2). 그러나 실라는 마케도니아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며(참조, 18:5), 아마도 빌립보로 가서 그곳의 젊은 회중으로부터 선교사들을 후원할 돈을 헌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빌 4:15). 그 사이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했고(18:1),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돌아올 때 합류했습니다(18:5, 살전 3:6)."[1]

이렇게 바울의 마케도니아 복음 전도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마무리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은 남쪽으로 남하하여, 이웃하고 있던 로마의 아가야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 "지금까지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그리스까지 여섯 도시에서 도피하거나, 급히 도망치거나, 위험에 처하거나, 사법 조치의 위협을 받고 떠났습니다."[2]

3. 아가야에서의 사역 17:16-18:17

누가는 현대 그리스 남부의 아가야 지방을 뒤덮고 있던 이교도의 어둠 속으로 복음과 교회가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이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사역 17:16-34

누가가 기록한 이야기의 이 부분은 바울이 그곳에서 이교도인 그리스인들에게 설교하

---

[1] Longenecker, p. 471.

[2] E. M. Blaiklock, *Today's Handbook of Bible Characters*, p. 507.

게 된 선교사들의 경험, 설교 자체, 설교의 결과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예비 사역 17:16-21

17:16 "아테네"는 에게해의 사론만에 있는 피레우스 항구에서 내륙으로 5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바울이 방문하기 500년 전인 페리클레스 시대(주전 461-429년)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느헤미야서 사건이 일어났고(주전 445-420년경), 포로기 이후 예언자(학개, 스가랴, 말라기)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여전히 그리스 세계의 문화적, 지적 중심지였습니다.[1] 바울은 오늘날에도 아테네에 남아 있는 많은 신전과 신상들을 관찰했습니다. 오늘날 이것들은 주로 예술적 가치 때문에 관심을 끌지만,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우상"이자 경배의 장소였습니다.

> "아테네에는 그리스의 다른 모든 신상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신상이 있었고, 아테네에서는 사람보다 신을 만나는 것이 더 쉬웠다고 합니다."[2]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양육받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념으로 인해 이 모든 우상 숭배를 혐오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관찰"하는 동안 "그의 영이 그의 안에서 격동하였다"고 합니다.

> "세상의 지적 자본이 우상숭배를 생산하고 있었다."[3]

> "제일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척하는 자들은, 제일로 우상들의 노예였습니다..."[4]

> "그리스 종교는 인간의 속성과 자연의 힘을 신격화한 것에 불과했다. 물론 짐승을 신으로 섬긴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보다는 나았을지 모르지만, 인

1 아테네에 대한 추가 정보는, Finegan, *Light from* ⋯, pp. 352-58 참조.

2 Barclay, p. 141. Cf. Howson, p. 280. 18명의 그리스와 로마 신들의 목록은, Charles H. Dyer and Gregory A. Hatteberg, *The New Christian Traveler's Guide to the Holy Land*, p. 179 참조.

3 Toussaint, "Acts," p. 402.

4 Henry, p. 1705.

간을 본래의 위치보다 더 높은 자리로 끌어올릴 실질적인 힘은 없었다. 오히려 끊임없이 더 타락해 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1]

"바울은 바티칸에 있는 루터의 흉상처럼 아테네에 있는 집처럼 편안했습니다."[2]

17:17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장터에서"(Gr. 아고라[*agora*]; 참조, 렘 20:9)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도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단순히 이교도 이방인("우연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고라는 아테네 시민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은 철학자들이 모여 자신의 견해를 토론하고 논쟁하는 장소였으며, 파르테논 신전이 여전히 서 있는 아크로폴리스 서쪽과 화성 언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7:18 "에피쿠로스 철학자"는 에피쿠로스(기원전 341-270년)의 제자로, 쾌락이 인간의 가장 큰 선이며 가장 가치 있는 추구라고 믿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고통, 불안한 열정, 두려움,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평온과 자유라는 의미에서 쾌락을 의미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신은 인간사에 관심이 없으므로 조직화된 종교는 나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신들이 내세에서 악인을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3] 에피쿠로스의 추종자들은 또한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며 죽음은 인간의 존재의 종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불가지론적 세속주의자들과 비슷했습니다.[4] 이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학파 중에 상당히 현대적인 시인 중 한 명은 A. C. 스윈번(Swinburne, 1837-1909)입니다.

---

[1] Howson, p. 281.
[2] Charles R. Swindoll, *Paul*, p. 204.
[3] Howson, p. 285.
[4] Bock, *Acts*, p. 561. Blaiklock, *Today's Handbook* …, pp. 509-10도 참조.

"주후 200년경 에피쿠로스 학파인 디오게네스가 쓴 모토는 이 신념 체계를 요약한다: '신 안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죽음에서도 느낄 것이 없으며, 선[쾌락]은 얻을 수 있고, 악[고통]은 견딜 수 있다'"[1]

"... 에피쿠로니즘은 현대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고대 사조로 가장 공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2]

스토아 학파는 키프로스 사람이었던 제노(주전 340-265)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스토아 학파"라는 이름은 제노가 아테네에 살 때 가르쳤던 특정 회랑(Gr. 스토아[*stoa*])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급자족과 합리주의를 강조했으며, 상당히 오만하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신이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는 범신론자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운명론자였습니다.[3] 그들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철학을 제시한 근대 시인 헨리(W. E. Henley, 1849-1903)는 그의 시 '인빅터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스토아 학파 역시 이상주의자였습니다.[4]

"기독교는 겸손의 학교이고, 스토아주의는 교만의 교육이었다. 기독교는 삶의 규율이다. 스토아주의는 죽음을 위한 견습에 지나지 않는다."[5]

"복음이 맞서 싸워야 했던 두 가지 적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두 가지 지배 원리, 즉 쾌락과 교만이다."[6]

---

[1] Witherington, p. 514.
[2] Rackham, p. 304.
[3] Blaiklock, *Today's Handbook* …, p. 510 참조.
[4] 바울의 가르침과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을 비교한 내용은, David A. deSilva, "Paul and the Stoa: A Comparison,"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8:4 (December 1995):549-64 참조.
[5] Howson, p. 284.
[6] Ibid., p. 286. 에피쿠로스주의와 스토아주의에 대한 훌륭한 논의는, Merrill C. Tenney, *The New Testament: An Historical and Analytic Survey*, pp. 106-8 참조.

놀링(Knowling)은 철학의 세계에서 스토아 학파를 바리새파에, 에피쿠로스 학파를 사두개파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철학자들 앞에 섰을 때 마치 철학적 산헤드린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았다고 썼습니다.[1]

"잡동사니를 줍는 사람"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 스페르몰로고스(*spermologos*)는 새가 씨앗을 줍듯이 다른 사람의 사상을 줍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청중들은 그가 다양한 출처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의 조각을 주워 모아 삶의 철학을 만들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새로운 신("낯선 신들")을 선포했다고 비난했지만, 그의 비평가들은 부활에 대한 그의 언급 (Gr. 아나스타시스[*anastasis*])을 사람, 아마도 예수님의 여성 짝에 대한 언급으로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낮습니다.[2]

17:19-20 "아레오바고"(Gr. 아레이오스 파고스[*Areios Pagos*], 그리스 전쟁의 신 아레스의 법정[또는 평의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시대에 아테네 사람들은 이 용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우선 아레오바고 공의회가 고대에 사업을 수행했던 아레스 언덕(즉, 라틴어로는 마르스 [로마 전쟁의 신]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둘째, 아레오바고 평의회로 알려진 약 3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그룹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아고라의 왕실 현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3]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장소를 가리키는가? 누가의 묘사는 모호하지만, 저는 문맥을 고려할 때 사람들(평의회)을 선호합니다.[4]

---

[1] Knowling, 2:366, 370.
[2] Bock, *Acts*, p. 562.
[3] Barclay, pp. 141-42.
[4] Knowling, 2:368-69 참조.

아레오바고 평의회는 아테네의 종교, 도덕,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원들은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정적들은 그가 아테네에서 이상한 사상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그를 독살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정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17:21 누가는 아테네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에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매료되었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문장을 삽입했습니다. 한 아테네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우리 아테네 사람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항상 미루고 법령을 만들며 새로운 것이 있는지 시장에 물어봅니다."[1]

그들은 바울보다 '잡동사니를 줍는 자들'이라는 죄가 더 컸지만, 바울의 신념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 17:22-31

누가는 아마도 바울의 연설을 지적인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의 표본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참조, 13:16-41; 14:15-18; 20:18-35).[2] 이 연설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언급하며 자기의 주장을 시작하였고, 청중을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17:22 바울은 청중을 "매우 종교적"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아첨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그들이 신들에 대한 경외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올림포스의 모든 신은 아고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의 종교심은 훨씬 더 깊었습니다(사도행전 17장 22절). 모든 공공 장소

---

[1] 데모스테네스 (384-322 B.C.), Clarence E. N. Macartney, *Paul the Man*, p. 107에서 인용함.

[2] Dean W. Zweck, "The Areopagus Speech of Acts 17," *Lutheran Theological Journal* 21:3 (December 1987):11-22 참조. 이 연설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은, Witherington, p. 518 참조.

와 건물이 마찬가지로 성소였습니다."[1]

바울은 다시 한 번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맞게 표현하는 원칙을 따랐고, 사람들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곳 그들을 만났습니다(참조, 고전 9:22).

"바울은 진정으로 회유하는 톤으로 시작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쫓아내려고 계산한 것이 없었습니다."[2]

17:23 **바울은 청중들이 경배는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특정한 신, 즉 야훼에 대해 더 많이 말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아테네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또는 바울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제단을 쌓아 기리고 있는 신, 즉 "알 수 없는 신"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일부 영어 번역본처럼 "알 수 없는 신" 앞에 부정관사 "an"이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바울은 신에 대한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과 적어도 한 신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야훼께서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참조, 요 4:10; 7:37-38; 등). 바울은 자신이 목격했던, 알 수 없는 신을 향한 우상이 대부분의 아테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야훼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야훼는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지진에 놀라면 어떤 특정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언어로 표현된 알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데 익숙했다고 라틴의 한 작가가 말했듯이, 아테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비문이 새겨진 제단을 통해 참 신에 대한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그 제단은 이방 작가들[즉, 파우사니아스와 필로스트라투스]과 영감받은 역사가 [누가]

[1] Howson, p. 274.
[2] Morgan, *The Acts …*, p. 327.

에 의해 언급된 것들입니다."[1]

"버가모에서 '알 수 없는 신들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제단에는 특별한 신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단은 혹시라도 도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신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2]

"롬 2:14-16에서와 같이, 그[바울]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셨지만, 이것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이제 마침내 복음에서 그분의 특별 계시에 의해 명확히 밝혀지고 조명되었다는 것입니다."[3]

17:24 참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므로 인간이 만든 "성전"은 그분을 담을 수 없습니다(참조, 왕상 8:27).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참조, 7:48-50). 이것은 에피쿠로스의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조화를 이루었지만, 스토아학파의 범신론을 수정했습니다. 에우리피데스(Euripides)를 비롯한 일부 그리스 철학자들은 신전에는 이교도 신들이 실제로 모셔져 있지 않다는 데 동의했지만, 많은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4]

17:25 참 하나님은 또한 만물을 지탱하시며, 그분은 그분을 지탱하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초월자이시면서 내재자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존재에 참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사에 관심이 없다는 에피쿠로스인들의 믿음과 스토아학파의 자족주의와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17:26 그리스인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인종적으로 우월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

---

[1] Howson, p. 281.
[2] Blaiklock, *The Acts …*, p. 140. Adolf Deissmann, *Paul*, pp. 287-88도 참조.
[3] Neil, pp. 190-91. Cf. 14:15-17.
[4] Bock, *Acts*, p. 565.

들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인종이 본질적으로 우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민족들의 "때"(민족들의 흥망성쇠 시기)와 "경계"를 결정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민족들의 정치와 군사 문제에 대한 주권자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17:27 하나님께서 시간과 경계를 정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그분의 주권을 깨닫고 그분을 "찾게" 하는 것이었습니다(참조, 롬 1장; 요 6:44; 12:32). 바울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일부 그리스 철학과 조화를 이루지만 다른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모순됩니다.

> "사도행전 17장에는 이교도 세계가 창조주를 찾는 데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안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분을 찾지 못했다고 더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1]

17:28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와 일치하는 사상을 표현한 그리스 작가 두 명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Epimenides, 주전 600년경; 참조, 딛 1:12)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2] 길리기아의 시인 아라투스(Aratus, 주전 315-240년경)와 그보다 앞선 클레안데스(Cleanthes, 주전 331-233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그의 자손이다."[3] 바울이 이러한 인용문을 인용한 목적은 청중이 진리에 대해 계속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7:29 따라서 우상 숭배는 비논리적이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

[1] Blaiklock, *The Acts …*, p. 142.

[2] 그의 시 *Cretica* 로부터 발췌, Longenecker, p. 476에 의해 인용됨.

[3] Aratus' *Phaenomena* 5 및 Cleanthes' *Hymn to Zeus*로부터 발췌, 같은 책에서 인용됨.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형상"이나 우상이 될 수 없고, 우상을 만드는 지상의 재료인 "금이나 은이나 돌"로 구성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30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금처럼은 죄가 있는 존재로 보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전의 계시에 응답하지 않은 죄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때 가져온 더 큰 계시를 고려할 때, 그들에게는 더 큰 죄가 있습니다(참조, 히 1:1-2). 하나님은 상대적인 의미에서만 "무지의 시대"(즉, 사람들에게 계시가 제한적이었을 때; 참조, 3:17; 14:16; 롬 3:25; 벧후 3:9)를 "눈감아 주셨"습니다.

성육신 전에는 사람들이 불신자로서 죽고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지금은 더 많은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육신 이후에는 사람들의 죄는 더 커졌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하나님의 더 큰 계시에 대해 성육신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무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계시하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더 커진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제한된 이해를 고려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바울은 인류 전체를 다룰 수 있는 복음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창조주

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우주적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연설의 내적 충동은 (저자의 관점에 내재된) 포괄적 복음, 누가복음 2:30-32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포괄적 구원 목적에 상응하는 복음의 기초로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1]

"성경은 구원을 위해 회개를 요구하지만,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거나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성경적 회개는 하나님(행 20:21), 그리스도(행 2:38), 죽은 행위(히 6:1), 죄(행 8:22)에 관한 마음이나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 또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자동적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2]

17:31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다가올 심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로 이어집니다(회개를 촉진합니다). 바울은 청중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과거 사역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재 사역에서 하나님을 구속주로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미래의 사역에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보여 줍니다."[3]

위어스비(Wiersbe)는 바울의 연설이 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약했습니다. (1) 하나님의 위대함: 그분은 창조주이시다(24절); (2)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은 공급자이시다(25절); (3) 하나님의 정부: 그분은 통치자이시다(26-29절); 그리고 (4) 하나님의 은혜: 그분은 구세주이시다(30-34절).[4]

바울이 죄(우상 숭배, 29절), "의"(31절), 심판(31절; 참조, 요 16:5-11;

[1] Tannehill, 2:211.
[2] Cocoris, *Lordship Salvation* …, p. 12.
[3] McGee, 4:591.
[4] Wiersbe, 1:473.

> 롬 1-3장)을 언급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참조, 7:13; 시 96:13; 요 5:22, 27), 인자(단 7:13)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 신들과 같은 우상이나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 심판의 대리자로 세우신 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예수님이 인류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증거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심판자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자신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하셨습니다(요 5:22, 25-29).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 17:32-34

바울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육체적 부활의 가능성을 믿지 않았습니다.[1]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마침내 육체에서 해방되는 무덤 너머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고 믿었습니다(예: 플라톤주의자).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모두 무덤 너머에는 형벌이 없다고 믿었습니다.[2]

> "그리스 종교는 가장 아름다운 모든 형상을 경배함으로써 현세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현세의 허무를 전제하며, 또 죄가 황폐화시킨 모든 것의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일 뿐인 부활은 진정한 그리스인에게 아무런 매력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사상에 치명타를 주었고, 이것이 거짓되고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부활과 그 주요 교리인 복음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3]

바울의 설교에 대한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전형적이었습니다. 일부는 조롱하고, 일부는 미루고, 일부는 믿었습니다. 신자들 중에는 바울을 조사했던 아레오바고 평의회 위

---

[1]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견해에 대해서는, N. Clayton Croy, "Hellenistic Philosophies and the Preaching of the Resurrection (Acts 17:18, 32)," *Novum Testamentum* 39:1 (1997):21-39 참조. 또한 부활의 가능성을 거부한, 아레오바고 건국 당시 아폴로의 견해에 대해서는, Witherington, p. 532 참조.

[2] Knowling, 2:380.

[3] Jamieson, et al., p. 1116.

원인 "디오니시우스"와 신약성경에는 다시 나오지 않는 "다마리스"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세비우스는 디오니시우스가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1] 그리고 크리소스톰은 그의 책 『제사장직에 관하여』에서 다마리스가 디오니시우스의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2] 바울은 후에 스테바나의 가정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썼으므로(고전 16:15) 그와 그의 가정은 누가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개종자였을 수 있습니다. 또는 스테바나는 고린도에 살았지만 바울의 초기 아가야 사역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성경 연구자들은 고린도전서 1:18-2:5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사도가 아테네에서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믿었다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3] 이 구절에서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교할 때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썼습니다(고전 2:2). 또한 아테네에 이어 다음 목적지인 고린도에 "두렵고 큰 떨림으로"(고전 2:3)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설교했지만, 누가의 설교 요약이 전체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가정할 때, 상당한 시간을 자연계시와 철학에 대해 논의하는 데 보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한 말이 아테네에서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해석가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테네에서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4] 게다가 구원받지 않은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판적이고 헌신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진술은 아테네에서 행한 설교를 포함하여 사역의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을 높이려는 그의 일반적인 헌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1] Eusebius, 3:4:85, 4:23:159.
[2] Foakes-Jackson, p. 167.
[3] E.g., Neil, p. 193.
[4] 위 21절의 주석에 있는 데모스테네스의 인용문을 참조.

이 구절이나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아테네에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언급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는 초대 교회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서술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사실과 사건만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16-34절)에서 그는 바울이 교양 있는 이교도들에게 설교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복음의 전파가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를 언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한 시기는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 복음이 아테네에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 "그 다음 세기에 아테네 교회는 보블리오, 쿼드라투스, 아리스티데스, 아테나고라스 등의 주교와 순교자를 그리스도인 교회에 주었고, 3세기에 그곳 교회는 평화롭고 순수했다. 4세기에 아테네의 기독교 학교는 바실과 그레고리를 그리스도인 교회에 주었다."[1]

도널드 마이스너(Donald Meisner)는 사도행전 12:25-21:16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여행 기록의 구조가 교차대구라고 주장했습니다.[2]

교차대구법(Chiasmus)는 "두 개 이상의 요소(단어, 구, 문장, 단락 또는 더 긴 섹션)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후 해당 요소를 역순으로 제시하는 문체"입니다.[3]

작가들은 본문의 섹션의 구조에서 중심 요소를 강조하거나 쌍을 이루는 요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마이스너가 보기에 12:25-21:16 교차대구의 중심 부분은 17:16-34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 "선교 여행 이야기의 교차대구 구조는 여정의 모든 장소 중에서 아테네가 복음이 땅

---

[1] Morgan, *The Acts …,* p. 332.

[2] Donald R. Meisner, "Chiasm and the Composition and Message of Paul's Missionary Sermons" (S.T.D. thesis,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 1974), pp. 273–322; and idem, "The Missionary Journeys Narrative: Patterns and Implications," in *Perspectives on Luke–Acts*, pp. 199–214.

[3] Ronald E. Man, "The Value of Chiasm for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Bibliotheca Sacra* 141:562 (April–June 1984):146.

> 끝까지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중간 지점임을 암시합니다. ... 아레오바고 연설은 ... 누가가 기록한, '이방인의 사도'가 이방인에게 전한 유일한 설교입니다(짧은 루스드라 설교[14:15-17]를 제외하면). ... 그리스 세계의 영적 수도에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이제 그리스-로마 세계의 제국적 수도로 눈을 돌렸다. 누가는 아테네에서의 클라이맥스 이후에야, 바울이 에베소(19:21)와 예루살렘(23:11)에서 모두 언급한 로마로 가야 할 필요성에 대한 바울의 표현에 주목했습니다."[1]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라고 설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로 소개했습니다. 아테네의 지성적인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임명하신 온 인류의 검증된 재판관으로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 18:1-17

실라와 디모데는 아테네에서 바울과 다시 합류한 것이 분명합니다(살전 3:1).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기 전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냈고(살전 3:2), 실라는 마케도니아의 어딘가로 갔으며(18:5), 아마도 빌립보였을 것입니다(참조, 빌 4:16). 바울은 이 동료 선교사들 없이 고린도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했습니다(18:5; 살전 3:6).

바울의 고린도 도착 18:1-4

18:1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고린도"는 로마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으며,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주전 146년에 고린도를 완전히 파괴했지만, 1세기 후인 주전 46년에 재건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남서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북부에서 남부 반도인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이동하는 육로 교통은 고린도 근처에서 육교를 건너야 했습니다.

---

[1] Meisner, "Chiasm and …," pp. 315-16. 단락 구분 생략.

하역업자들은 고린도의 항구 도시인 서쪽의 레케움(Lechaeum)이나 동쪽의 겐그레아(Cenchrea)에서 다른 항구로 이동하는 소형 선박들을 목제 롤러를 이용해 육로로 운반했습니다. 그들은 더 큰 배의 화물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두 항구 사이의 거리는 3.5마일이었습니다. 선장들은 펠로폰네소스 해협 남쪽 끝에 있는 위험한 말레아 곶 주변으로 200마일을 항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선호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는 상업 활동으로 끊임없이 북적거렸고,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항구를 괴롭히는 모든 악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1]

> "이 도시는 여러 면에서 그리스에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새로운 종교 단체를 설립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2]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 고린도는 아테네의 약 20배에 달하는 도시로 인구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3] 이 도시는 부도덕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그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수많은 창녀와 아프로디테 신전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그리스의 사랑의 여신으로, 이곳의 신봉자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부도덕을 조장했습니다.[4] 한때 1,000명의 매춘부를 거느렸던 그녀의 신전은 도시 외곽의 1,857피트 높이의 암석대지인 아크로코린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성적인 문제가 왜 괴롭혔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5장; 등).

> "주전 5세기부터 '고린도화하다'(Corinthianize)라는 동사(코린티아제스타이[*korinthiazesthai*])는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는 뜻이었는데, 바울 시대에도 그 평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5]

> "고린도의 명성은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라는 동사가 음행을 행하는 데

---

[1] 고린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negan, *Light from …,* pp. 358–63 참조.
[2] Witherington, p. 538.
[3] Longenecker, p. 480.
[4] Dan P. Cole, "Corinth & Ephesus," *Bible Review* 4:6 (December 1988):20–25 참조.
[5] Longenecker, p. 480.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고린도 소녀들'이라는 문구가 창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1]

고고학자들은 선원의 신 멜카르트, 음악과 시의 신 아폴로,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등에게 헌정된 신전의 유적들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에 살았던 회당, 족구장, 에라스투스라는 사람에 대한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참조, 롬 16:23).[2]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고전 2:1-5). 아마도 이 도시의 악한 평판과 동료 일꾼들이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긴다는 것은 지방 대학 도시의 분위기를, 번성하는 상업 대도시의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3]

이것은 마치 바울이 보스턴을 떠나 라스베가스에 도착한 것과 같았습니다.

18:2a 고린도에 도착한 후 바울은 한 유대인 부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도(Pontus) 출신"이었습니다. 본도는 흑해 연안의 비두니아 동쪽(현대 튀르키예 북부)에 있는 소아시아의 로마 지방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의 다른 이름은 브리스가(롬 16:3; 고전 16:19; 딤후 4:19)로, 후자가 더 격식 있는 이름입니다. 누가는 일반적으로 구어체의 작은 형태의 이름(예: 실라, 소바드로, 브리실라, 아볼로)을 사용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그들의 정식 이름(예: 실루아노, 소시바더, 브리스가, 에바브로디도)을 선호했습니다.[4] 그러나 바울은 가끔 더 유명한 형태의 이름(예: 아볼로, 에바브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의

[1] Ladd, "The Acts ⋯," p. 1158.
[2] Free, p. 322.
[3] Neil, p. 194.
[4] Knowling, 2:383.

이름은 신약성경에서 남편의 이름 앞에 자주 등장합니다(예: 18:18-19, 26; 롬 16:3; 딤후 4:19). 이것은 그녀가 아굴라보다 더 높은 사회 계층 출신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어떤 면에서 남편보다 우월하다고 여겼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여기서 아굴라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로마의 작가 수에토니우스(Seutonius)는 로마 시민이 아닌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한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을 언급하며, 이 추방 시기를 주후 49-50년으로 기록했습니다.[1]

> "로마의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지속적인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클라우디우스]는 그들을 도시에서 추방했습니다."[2]

> "일반적으로 수에토니우스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 공동체의 폭동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이름을 잘못 썼고 아마도 그리스도가 실제로 로마의 반군 지도자라고 잘못 생각했을 것입니다(수에토니우스는 주후 69년에 태어났으며 사건 이후에 상당히 많은 글을 썼습니다)."[3]

주전 139년과 주후 19년에도 로마에서 유대인이 추방된 적이 있습니다.[4]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포드(Alford)는 당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믿었습니다.[5]

18:2b-3 바울은 재정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

[1] F. F. Bruce, "Chronological Questions …," pp. 280-82; Henry Bettenson, ed.,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 p. 2. 클라우디우스에 대한 흥미로운 묘사는, Blaiklock, *The Acts …*, pp. 149-50 참조.
[2] Suetonius, "Claudius," XXV, *Twelve Caesars*, Kent, p. 141에서 인용됨.
[3] Ibid., pp. 141-42.
[4] Levinskaya, pp. 28-29.
[5] Alford, 2:2:200.

(참조, 20:34; 고전 4:12; 9:1-18; 고후 11:9; 살전 2:9; 살후 3:7-10).

> "가끔씩 받는 헌금(빌 4:15ff)을 제외하고, 바울의 실천은 교인들의 자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통해 자급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1]

"천막 제작자"는 천막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가죽 제품을 만들고 수리했습니다.[2] 바울을 천막 제작자라기보다는 "가죽 장인"(Gr. 스케노포이오이[*skenopoioi*])으로 묘사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에서 염소 가죽으로 만든 직물인 '실리시움'을 생산하는 일반적인 "기술직"였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히브리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동시에 장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3] 장사꾼들은 종종 건물 1층에 가게를 차리고 위층에 살았습니다.

> "바울은 랍비였지만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모든 랍비는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는 설교와 가르침으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일과 노력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일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일을 사랑하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강도질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것과 세속적인 장사를 함께 하는 것이 훌륭하니, 이 둘의 실천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을 잊게 하지만, 일이 없는 모든 율법은 결국 실패하고 죄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랍비들이 모든 존경할 만한 기술직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4]

18:4 바울은 고린도에서 평소의 전도 전략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안식일마다" 지역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방인)" 모두와 "토론"(Gr. 디엘레게토[*dielegeto*], 17:2, 17; 18:19; 19:8-9; 20:7, 9; 24:12, 25)하고 "설득하

---

[1] Neil, p. 195.
[2] Murphy-O'Connor, p. 41.
[3] Neil, p. 195.
[4] Barclay, p. 147. 또한 Edersheim, *Sketches of …,* ch. xi: "Trades, Tradesmen, and Trades' [*sic*] Guilds"; and R. F. Hock, *The Social Context of Paul's Ministry*, p. 67 참조.

려고"(에페이텐[*epeithen*], 13:43; 19:8, 26; 21:14; 26:28; 28:23) 힘썼습니다.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1년 반 사역 18:5-11

18:5 아마도 "실라"가 빌립보에서 금전적 헌금을 가지고 돌아왔다면, 바울은 생업을 그만두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참조, 빌 4:14-16; 고후 11:9).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발전에 대한 고무적인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참조, 살전 3:6-10). 그러나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살전 2:3-6; 4:13-5:11).[1]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돌아온 직후 데살로니가전서를 썼고, 그 직후 역시 고린도에서, 아마도 주후 50년대 초에 데살로니가후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참조, 11절).

18:6 바울의 유대인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 "모독"했습니다(참조, 13:45; 26:11; 마 12:24-31). 자신의 "옷"을 털어서 그곳의 먼지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신발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13:51)과 같은 것, 즉 거절을 상징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5절; 참조, 겔 33:1-9). 따라서 그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을 전도하는 데 관심을 돌렸습니다(13:7-11, 46; 14:2-6; 17:5; 참조, 19:8-9; 28:23-28).

18:7 "디디오 유스도"는 로마 사람으로, 바울이 "회당"에서 만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이름이고 디디오와 유스도는 각각 성과 가족명이기 때문에, 그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가이오라고 언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참조, 롬 16:23; 고전 1:14).[2]

18:8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는 가이오와 함께 바울이 개인적으로 "침례를

[1]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그들을 떠난 시점과 아가야에서 그들과 재회한 시점 사이에 실라와 디모데의 불분명한 행적에 대한 논의를 보려면, Howson, pp. 302–3, n. 1 참조.

[2]

준"(고전 1:14) 고린도의 신자들 중 한 명입니다. 그리스보의 "온 집안"을 포함하여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18:9 또 다른 "밤에 본 환상"은 이제 바울의 두려움을 가라앉혔습니다(참조, 23:11; 27:23-24).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많은 사역이 그렇듯 시작은 험난했지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침묵"하지 않고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18:10 주님은 자신의 택하신 자들이 고린도에서 회심하기 전("이 성에 많은 사람이 있다")에도 그들을 볼 수 있었지만, 바울은 볼 수 없었습니다.

>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전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복음 전파에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위해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책임은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책임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1]

18:11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렀던 시기는 아마도 주후 50년 가을부터 52년 봄까지였을 것입니다. 이 기간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전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개척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는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회의 하층민 출신이었습니다(참조, 롬 16:23; 고전 1:4-8, 26-29; 7:18; 12:13). 바울은 이 시기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리오 앞에 서게 된 바울 18:12-17

[1] Wiersbe, 1:477.

18:12 그리스 중부 델파이에서 발견된 비문을 통해 갈리오의 "아가야 총독" 임기 시작을 51년 7월 1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 "갈리오"는 스페인 출신의 저명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의 형이자 네로의 가정교사였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그를 유난히 유쾌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말했습니다:

> "갈리오만큼 모든 사람에게 유쾌한 인간은 없다."[2]
>
> "내 동생 갈리오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3]

또 다른 그리스 작가는 그의 재치를 언급했습니다.[4] 총독은 로마의 한 지방의 통치자로, 그의 법적 결정은 제국 전역의 다른 총독들에게 선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사건에 대한 갈리오의 결정은 로마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대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또는 우리가 아는 한 다른 사도들)이 로마의 지방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심판대"(Gr. 베마[*bema*], 12절)는 갈리오가 공식적인 선언을 한 장소였습니다.

> 그것은 "... 총독 관저 앞의 아고라(장터)에 세워진 크고 높은 단으로, 그가 사건을 재판하는 포럼 역할을 했습니다."[5]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묘사할 때 같은 헬라어 베마를 사용했습니다(고후 5:10; 참조, 마 27:19).

---

[1] F. F. Bruce, *Commentary on ⋯*, p. 374; idem, "Chronological Questions ⋯," pp. 282–83; Deissmann, p. 282 참조.

[2] Seneca, *Naturales Quaestiones* 4a, Preface 11, Longenecker, p. 485에서 인용됨.

[3] Barclay, p. 148에서 인용됨.

[4] Dio Cassius, *History of Rome* 61.35, Longenecker, p. 485에서 인용됨. Marshall, *The Acts ⋯*, p. 297도 참조. 갈리오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보려면, Alford, 2:2:203 참조.

[5] Longenecker, p. 486.

18:13 바울에 대한 고린도 유대인들의 혐의(12절)는 빌립보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혐의와 동일했습니다(16:21; 17:6-7, 13). 그들은 바울이 새로운 종교("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를 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개종시키는 것(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시도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는 개종시킬 수 없었습니다.

18:14-16 갈리오에게 이 유대인들의 고발은 로마법을 위반하지 않는 종교적 논쟁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분쟁이 아니라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재판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갈리오는 이 모든 것에 상관하지 않았다"(Gallio cared for none of these things)라는 AV 번역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갈리오가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사실 갈리오는 절대적으로 공평했고 자신이 관할권이 없는 분쟁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교회(종교)와 국가(시민) 문제를 혼동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1]

갈리오의 판결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사실상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의 판결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입니다.[2] 이후 공식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 내의 한 종파로 간주했지만,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별도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독이었던 갈리오의 바울 사건에 대한 판결은 빌립보와 다른 지역의 치안관들이 내린 판결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컸습니다.

18:17 "그들 모두"는 이 행사에 참석한 이방인 청중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갈리오의 유대인들에 대한 조바심에 고무된 그들은 자신들의 반유대

---

[1] McGee, 4:594 참조.

[2] Witherington, p. 555.

주의적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보의 뒤를 이어 회당의 지도자가 되었거나(8절), 그와 함께 회당의 지도자로 봉사했던 "소스데네"를 구타했습니다(참조, 13:15). 이 소스데네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의 편지를 쓰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고전 1:1), 다른 소스데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은 흔한 것이었습니다.[1] 갈리오는 이 시위가 앞으로 유대인들이 종교적 차이로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갈리오의 판결은 네로가 로마를 불태운 기독교를 비난한 서기 64년까지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2] 또한 이 판결은 약 7년 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로마 관리들에게 바울을 대적하도록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하도록 고무시켰을 수도 있습니다(25:11).

4. 아시아 사역의 시작 18:18-22

바울은 이전에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16:6). 이제 주님은 그에게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서 에베소와의 첫 접촉을 기록했는데, 이는 나중에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19장).

18:18 바울은 갈리오의 판결("여러 날 더") 이후에도 고린도에 머물며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7마일 떨어진 고린도 항구 도시인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출발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했습니다. 누가는 실라와 디모데가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 바울은 서둘러 가이사랴를 향해 항해하면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서

[1] Knowling, 2:391.
[2] 이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록 6: "신약 시대의 로마 황제들" 참조.

방 본문에 따르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아마도 그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면, 그는 서기 52년 4월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해상 항해를 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였으며, 바울이 고후 11:25에서 언급한 세 번의 난파 중 하나가 에베소와 가이사랴 사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1]

"서방 본문(W)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진 여러 사본, 고대 라틴어 역본, 키프리안과 같은 라틴 교회 저술가들의 인용문으로 대표됩니다."[2]

이 의문스러운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지만, 누가는 바울이 "서원"을 했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선택 사항이었던 이 서원에는 무엇보다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 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서원을 했습니다(참조, 레 27장). 따라서 서원은 헌신이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안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3]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는 그가 그 시스템의 어떤 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의 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 그가 원한다면 모세 율법의 일부를 지킬 자유도 있습니다."[4]

유대인들은 질병나 다른 고난을 당했을 때 종종 서원을 했습니다.[5] 서원을 한 사람은 서원이 끝나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예루살렘의 놋제

---

[1] Neil, p. 199.
[2] Finegan, *Light from …,* p. 441.
[3] Lenski, p. 762는 아굴라가 서원 했다고 믿음.
[4] Fruchtenbaum, *The Book …*, p. 236.
[5] Josephus, *The Wars …*, 2:15:1.

단에서 희생 제물과 함께 번제로 드렸습니다(참조, 민 6:1-21).[1] 한 견해에 따르면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여인의 뜰에서 제의적으로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2] 또 다른 가능성은 바울이 한 서원이 사적인 것이었으며, 이 경우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3]

> "바울이 서원을 했다는 이유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설교한 사람이므로 서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바울을 위해 작은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여, 은혜 아래서 서원을 하고 싶다면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싶지 않다면 서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서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아무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서원을 하고 싶다면 그것은 그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자유입니다."[4]

구약 시대에도 서원은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서원을 하기 직전에 "겐그레아"를 떠나 시리아로 향할 때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시 머리를 잘랐을 것입니다. 그가 겐그레아에서 서원을 마치고 머리를 자른 다음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갔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아이언사이드(Ironside)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서원을 했다고 믿었습니다.[5] 이것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을 유대인의 관습과 분리하려는 시도일 수 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분명히 다른 유대인의 관습을

---

[1] Mishnah *Nazir* 1:1—9:5; 및 Josephus, *The Wars …*, 2:15:1 참조.
[2] Edersheim, *The Temple*, p. 374.
[3] Knowling, 2:392–93 참조.
[4] McGee, 4:594. Cf. Marshall, *The Acts …*, p. 300.
[5] Ironside, *Lectures on …*, p. 421.

실천했습니다(참조, 21:17-36). 이것은 아마도 나실인의 서원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서원이었을 것입니다.[1]

겐그레아는 에게해에 있는 고린도의 동쪽 항구였습니다. 나중에 그곳에 교회가 있었거나 이 시기에 이미 교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롬 16:1).

18:19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이자 주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2] 바울 당시에는 인구가 20만에서 25만 명 정도였으며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3] 에게해 연안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 "고린도와 에베소 사이의 항해보다 에게해를 건너는 항해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도시는 번성하고 평화로운 두 지역인 아가야와 아시아의 수도이자 바다 반대편에 위치한 두 개의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4]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그들", 참조, 18절)는 에베소에 남아 있었지만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전도를 한 후 시리아로 이동했습니다.

18:20-21 바울의 설교에 대한 그곳 유대인들의 열린 태도는 그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21절)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그가 삶에서 자신의 계획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종속시켰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으로 번역된 이 구절은 바울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이 구절을 사용했지만 서로 다른 신을 염두에 두고 사용했습니다.[5]

18:22 바울의 배는 예루살렘의 주요 항구인 "가이사랴에 상륙"했습니다(참조, 10:1). 그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에 인사"했습니다. "올

---

[1] Bock, *Acts*, p. 586.
[2] Cole, pp. 25–30 참조.
[3] Witherington, p. 563.
[4] Howson, p. 331.
[5] Witherington, p. 558.

> 라가다"와 "내려가다"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을 오가는 거의 기술적인 용어입니다.[1] 마찬가지로 "교회"는 수식어 없이 예루살렘의 모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2]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업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내려갔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15:40-18:22). 바울은 첫 번째 여행에서 약 1,400마일을 이동한 데 비해 이번 여행에서는 약 2,800마일을 이동했습니다.[3]

누가는 바울의 세 번의 선교 여행에서 각각 한 가지 주요 연설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여행에서는 아테네에서 이방인들에게, 세 번째 여행에서는 밀레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4]

5. 아시아 사역의 결과 18:23-19:20

누가는 소아시아에서 바울의 중요한 사역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게해 동부 지역의 복음과 교회의 진전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 18:23

누가는 이번에는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활동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14:27-28)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시 보고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서기 52년 봄 또는 여름부터 53년 봄까지 안디옥에 머물렀을 것입니다.[5] 세 번째 여행길에 오른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면서 갈라디아 지방과 브리기아 지방을 거쳐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할 때와 같은 경로를 따라간 것 같습니다(15:41-16:6). 바울은 그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사역하기 위해 그곳에 들렀습니다.

> "세 번째 여정은 제한된 의미에서만 새로운 선교의 여정입니다. 처음 두 번의 여정에서는 새로운 교회 설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8:23에서 바울은 기존 교회를 강화

---

[1] Longenecker, p. 489; Neil, p. 199.
[2] F. F. Bruce, "The Church …," p. 641.
[3] Beitzel, p. 177.
[4] Witherington, p. 560.
[5] Longenecker, p. 489.

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1]

아볼로의 사역 18:24-28

이 단락의 목적은 주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2] 누가는 또한 바울이 다른 곳에서 언급했던 또 다른 중요한 주의 종을 독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고전 1:12; 3:4-6, 22; 4:6; 16:12, 딛 3:13).

18:24-26a 정식 이름은 아폴로니우스였을 "아볼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후 "에베소"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준 인상입니다. 어쨌든 그는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 신앙을 전달하고 옹호하는 은사, 열정("영이 뜨거운"; 참조, 롬 12:11)을 가진 기독교 헬라파 "유대인", "웅변가"였습니다.

"주의 도"는 기독교 신앙(즉, 복음; 참조, 9:2; 16:17; 18:26; 19:9, 23; 22:4; 24:14, 22)에 대한 또 다른 묘사입니다. 아볼로는 에베소 회당에서 "예수"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인 침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는 침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참조, 19:3).

18:26b 누가는 여기서 남편보다 먼저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이 특이한 순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3] 이 부부는 지혜롭게 아볼로를 "따로"(개인적으로) "데려가"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즉, 복음)에 대해 이후 계시를 통해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

[1] Tannehill, 2:231. Cf. Kent, p. 147.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지도는, Longenecker, p. 250; Toussaint, "Acts," p. 406; 혹은 *The Nelson …*, p. 1859 참조.

[2] Marshall, *The Acts …*, p. 302.

[3] 위의 2절에 대한 주석 참조.

>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에는 아볼로를 구약 성도들과 같은 부류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도 메시아의 구원을 소망했고 그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전환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 불완전한 형태의 신앙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1]

또 다른 가능성은 아볼로가 아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큼은 믿음에 대해 많이 배우지 못한 신약의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결혼 생활이 견고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뛰어난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페이지에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타적이고 용감했으며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롬 16:4). 그들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집에서 교회를 열었으며(고전 16:19), 두 번이나 이사한 것(2, 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죽을 만드는 일꾼으로 함께 일했습니다(3절).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 헌신했는데, 아볼로의 가르침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 "재능 있는 젊은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일은 필요하고 섬세한 일입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모든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은혜와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남성과 여성과의 만남에서 비롯됩니다."[2]

18:27-28 새로운 이해로 무장한 아볼로는 서쪽으로 가서 고린도와 "아가야"의 여러 곳에서 바울이 심은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며 사역했습니다(고전 3:6).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칭찬의 편지를 보내며 "그를 격려"했습니다(참조, 고후 3:1).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개척했을 수도 있지만(19-21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여행에서 잠시 그곳에 머

---

[1] Kent, p. 149.
[2] Robertson, 3:308.

물렀던 것으로 보아 다른 누군가가 개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교회를 심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신자들을 가르치고 유대인 반대자들을 반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개인적으로 강력한 추종자를 확보했습니다(고전 1:12; 3:4).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로 인해 생겨난 당파 정신을 장려하는 데는 책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고전 4:6, 16:12). 그는 구약성경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메시아; 참조, 8:35; 18:5; 요일 5:9) 증명했습니다.

헬라어 본문의 어순은 "은혜를 통해"(27절)가 "도움"이 아니라 "믿었다"를 수식한다는 견해를 선호합니다.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었습니다(27절; 참조, 엡 2:8-9).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 19:1-20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본질적으로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할 때 도달하려 했던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참조, 16:6).[1]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19:1-7

이것은 에베소에서의 바울 사역에서 가져온 두 가지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으로, 바울의 일반적인 사역에 대한 누가의 설명을 괄호로 묶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만난 사건입니다(19:13-20).

19:1 동쪽에서 두 개의 길이 "에베소"로 이어졌고, 바울은 더 직통 길이었던 북쪽으로 갔습니다(참조, 18:23).[2] 에베소는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방문했을 때 전성기에 도달했고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

[1] 에베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Finegan, *Light from …*, pp. 345-50 참조.

[2] Cf. Ramsay, *St. Paul …*, p. 265.

"... 성 바울 시대에 그곳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아시아 지방의 대도시였습니다."[1]

"에베소는 과거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기생충을 쫓는 일에 몰두하며 아테네처럼 명성에 기대어 살아가는 죽어가는 도시였으며, 옛 종교와 새 종교, 미신과 철학, 동양과 서양의 흥미로운 만남의 장소였습니다."[2]

에베소는 종교적 미신과 오컬트 관습의 온상이었습니다. 에베소의 명성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카이스터(Cayster) 강 하구 근처의 소아시아 서해안에 위치하여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에베소 항구에 토사가 쌓이면서 상업은 쇠퇴했지만, 에베소의 종교적 영향력은 에베소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숭배자들을 계속 끌어들였습니다. 이 웅장한 신전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유명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4세기 건축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고, 고트족이 파괴한 주후 262년까지 존속했습니다.[3] 비잔티움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527-565)는 이후 이 기둥 일부를 현대 이스탄불의 하기아 소피아의 건축에 사용했으며,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길이 425피트, 너비 220피트, 높이 60피트였어요. 127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각 기둥은 왕의 선물이었죠. 모두 반짝이는 파리안(Parian)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중 36개는 놀랍도록 금박과 상감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이 거대한 제단은 그리스 조각가 중 가장 위대한 프락시텔레스가 조각했어요. 아르테미스의 형상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검은색에 쪼그리고 앉은 가슴이 많은 형상이었는데, 너무 오래되어 어디서 왔는지, 심지어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랐죠.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에베소의 가장 큰 영광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

[1] Howson, p. 369.

[2] Blaiklock, *The Acts …*, pp. 154–55.

[3] S. D. F. Salmond,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in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3:205.

이교 신전의 수호자라는 점입니다."[1]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에 대한 바클레이(Barclay)의 설명은 최근 학계에 의해 부분적으로 불신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형상은 가슴이 많은 여인이 아니라 보석이 많은 여인의 형상였습니다. 그녀는 다산의 여신이 아니라 출산과 조산의 여신이었습니다.[2]

바울이 에베소에서 발견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아볼로"(18:25-26)와 매우 유사해 보이며, 사도행전의 일부 학생들은 그들이 구약 성도이거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3] 또 다른 가능성은 그들이 전혀 신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4] 저는 두 번째 대안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누가는 다른 곳에서 침례자 요한의 추종자들을 묘사할 때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눅 5:33; 7:18-19).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돌프 데이즈만(Adolf Deissmann)은 이들이 "열두 침례자로 구성된 교회"를 구성했다고 썼습니다.[5]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침례자 요한의 역할에 대한 다섯 번째 언급입니다(참조, 1:5; 11:16; 13:25; 18:25). 요한의 영향력이 광범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19:2 바울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물었는데, 아마도 요한을 존경한다는 그들의 주장과 성령의 결여가 분명한 그들의 모습에서 모순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믿은 이래로"(AV, 참조, 1:8)가 아니라 "너희가 믿었을 때"입니다. 헬라어 본문은 두 번째 은혜의 역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6] 바울의 질문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

[1] Barclay, p. 153.
[2] Sandra L. Glahn, "The Identity of Artemis in First-Century Ephesus," *Bibliotheca Sacra* 172:687 (July-September, 2015):316-34 참조.
[3] E.g., Kent, p. 150; Bock, *Acts*, p. 599.
[4] E.g., Longenecker, pp. 492-93; McGee, 4:597; 및 Morgan, *The Acts …,* p. 346.
[5] Deissmann, p. 227.
[6] *The New Scofield …*, p. 1192 참조.

다. 곧, 그들은 침례자 요한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내주하시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참조, 롬 8:9; 고전 12:13).

요한은 성령 침례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마 3:11; 막 1:8; 눅 3:16; 참조, 요 1:32-33). 바울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아마도 그들이 주님께서 요한이 예언한 대로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성령 침례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이들의 반응을 통해 이 제자들에 대한 첫 번째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9:3 이 발견을 계기로 바울은 두 번째 가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또 다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들은 "요한"의 물 "침례"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바울에게 그들이 성령 침례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자의 견해를 선호하는데, 교회 역사상 이 무렵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회심하는 순간 성령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참조, 롬 8:9; 고전 12:13).

> "아볼로(18:25)처럼 그들은 회개의 상징으로만 침례를 받았다."[1]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4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 제자들에게 요한의 침례가 좋았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쳤습

[1] Neil, p. 203.

니다. 성령의 침례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반되었습니다.

19:5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침례에 복종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재침례에 대한 유일한 명시적 언급입니다. 오늘날 어렸을 때 침례를 받은 후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다시 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구절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 침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신 의식입니다(마 28:19-20).

19:6 사마리아의 새 개종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제자들도 사도(이번에는 바울)가 "그들에게 [그의]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참조, 8:17). 그들은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임하심과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동일시하는 것은 먼저 비유대적 맥락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인증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하심과 바울의 안수를 동일시하는 것은 마귀적인 종교 활동이 번성하던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음을 인증하는 것이었습니다(참조, 13-19절).

요한의 제자들은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의 부여를 바울의 메시지 및 사도적 권위와 분명히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데 지체가 없었고, 베드로가 그에게 성령을 전수하기 위해 그에게 안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10:44). 그 차이의 이유는 고넬료의 경우,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셨고, 또 믿었기 때문에 사도(베드로)와의 물리적 접촉이 불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의 경우, 성령의 임재는 사도의 안수를 통해 사도, 특히 사도의 메시지와 명백히 동일시되었습니다.

이 장의 에베소에서 일어난 성령 침례와 8장의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성령 침례 사이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8장	19장
1.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인 침례를 받았다(8:4-13).	1. 아볼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파되었고, 일부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어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18:24-26).
2.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와서 제자들의 삶에서 성령의 임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8:14-16).	2.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요한의 제자들의 삶에서 성령의 임재가 분명하지 않음을 보았다(19:1-5).
3.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다(8:17).	3. 바울이 제자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다(19:6).
4.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은 마술사 시몬의 관심을 끌었다(8:20-24).	4. 바울의 사역은 유대인 마귀 쫓는 자들의 관심을 끌었다(19:13).
5. 베드로와 시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시몬은 압도당했다(8:20-24).	5. 바울과 마귀 쫓는 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마귀 쫓는 자들은 압도당했다(19:14-16).
6.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전도했다(8:25).	6.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19:10).
7. 빌립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8:6-8).	7.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19:11, 12)."[1]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회심과 성령 침례 체험이 분리된 현상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사람들 안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요 14:16-18, 26; 15:26)의 성취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성령이 중생할 때

[1] Harm, pp. 35-36로부터 각색함.

일반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교회가 인식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오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 "이 이야기는 종종 회심 후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교리의 근거로 사용되어 왔지만, 이 이야기와 실제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특별한 대우가 필요한 특이한 상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 신약 성경은 성령의 소유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요 3:5; 행 11:17; 롬 8:9; 고전 12:3; 갈 3:2; 살전 1:5f.; 딛 3:5; 히 6:4; 벧전 1:2; 요일 3:24; 4:13)."[1]

>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정해진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령은 침례 전(행 10:44), 침례 때 또는 침례 후에(8:12-16; 19:6), 사도들의 안수(8:17; 19:6)를 통해 신자들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롬 8:9). 분명히 과도기적인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한 교리 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2]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방언"에 대한 마지막 언급입니다(참조, 2:4; 10:46; 고전 12:10, 28, 30; 13:1, 8, 14).[3] 오늘날에도 이 은사가 교회에 있습니까? 일부 은사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부르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경험에 근거하여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방언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려진 언어가 아닌 횡설수설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방언, 즉 알려진 언어를 방언으로 규정한 것과는 다릅니다(참조, 고전 12장; 14장). 몇몇 사람들은 신약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유형인, 그들이 학습하지 않은 알려진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다국어 도시였습니다.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서 그

---

[1] Marshall, *The Acts* …, p. 305. 단락 구분 생략. 또한 Wiersbe, 1:481 참조.
[2] Toussaint, "Acts," p. 409. Cf. Harm, p. 38.
[3] 위의 사도행전 2장 4절에 대한 주석에서 "사도행전에서의 방언" 표를 참조.

> 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많은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동방과 서방이 그 해안을 따라 모두 만났습니다. ... 이 사람들은 이제 도시 전체에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1]

진짜 문제는 방언에 대해 신약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방언을 경험한 사람이 무엇을 경험했는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방언이 사라지거나 소멸하는 것처럼 스스로 "멈출" 것이라고 말합니다(고전 13:8, *pauo*의 중간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신약성경은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않지만, 예언이 끝나기 전에 그들이 소멸할 것임을 암시합니다(문자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끝나다", 카타르게오[*katargeo*]의 수동태, 고전 13:8).

저는 어느 한 구절도 방언이 중단될 것이라거나 사도시대에 방언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방언이 중단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구절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존재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신약의 다른 구절들은 방언이 그때에 멈출 것이며 멈추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엡 2:20, 히 2:3-4). 둘째, 초대 교회 교부들은 방언이 교회 초기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는 드물게 방언 현상이 나타났다고 기록했습니다.[2]

> "이러한 [초자연적 은사]에 관해서는 사도들의 소멸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이며, 신약성경보다 후대의 어떤 문헌에서도 교회에서 그 존재에 대한

---

[1] McGee, 4:597.

[2] Origen (ca. 185–ca. 254 A.D.), "Against Celsus," 7:8 in *The Ante-Nicene Fathers*, 4:614; Chrysostom (347–407 A.D.), "Homily 12 on Matthew," in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10:77; idem, "Homily 14 on Romans," ibid., 11:447; idem, "Homily 29 on 1 Corinthians," ibid., 12:168; idem, "Homily 6 on 1 Corinthians," ibid., 12:31; Augustine (354–430 A.D.), "On Baptism, Against the Donatists," 3:16:21, ibid., 4:443; idem, "The Epistle of St. John," 6:10, ibid., 7:497–98; idem, "The Epistle of 1 John. Homily," 6:10, ibid., 7:497–98; idem, "The Answer to the Letters of Petition, to Donatist," 2:32:74, ibid., 4:548; and idem, "On the Gospel of St. John, Tractate," 32:7, ibid., 7:195. 또한 방언 은사의 역사적 중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lvin, 4:19:6, 19; McClain, p. 409; and Dillow, *Speaking in …*, pp. 147–64 참조.

확실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정보를 성경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1]

오늘날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사주의자나 비은사주의자 모두 방언은 사탄에 의해, 심리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2] 오늘날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드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경받는 은사주의 지도자를 포함하여 오늘날 신약 시대처럼 학습하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능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제자들 각자에게 "예언"이라는 은사를 주신 것은 그들이 교회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음이 분명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인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예언과 예언에 대한 많은 언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고 주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능력이 이들에게 주어졌다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19:7 누가는 독자들에게 또 다른 핵심 그룹인 12사도를 상기시키기 위해 "약 12명"의 이 그룹을 의도했을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열두 사도와 같은 수준의 권위는 아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앞서 안디옥과 예루살렘이 그랬던 것처럼 소아시아 서부와 에게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 증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대한 바울의 일반적인 접근 19:8-12

---

[1] W. J. Conybeare, in *The Life and Epistles of St. Paul*, p. 334. 또한 Gromacki, *The Modern …,* pp. 5-29 참조.

[2] ibid., pp. 44-51 참조.

"사도행전 19장으로 갈수록 누가가 이 장과 다음 장의 자료를 자유인으로서 바울의 사역과 선교 사역의 절정을 묘사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시련이나 추방 없이 가장 오랫동안 안정된 사역 기간을 보냈으며, 이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가장 온전히 수행했습니다(22:15 참조)."[1]

19:8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표준 절차를 따랐습니다. 이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도했던 다른 도시들보다 더 관대했고, 바울은 그곳에서 "3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바울은 그곳 사람들과 "토론하고" "설득"(Gr. 디알레고메노스 카이 페이톤[*dialegomenos kai peithon*]), 즉 설득력 있게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작가가 형용사와 실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로 두 개의 실명사를 연결하여 하나의 복잡한 생각을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인 이사일의(hendiadys)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일반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참조, 1:3, 6; 8:12; 14:22; 20:25; 28:23, 31)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에 관한 전체 메시지, 즉 복음을 축약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현재와 미래에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 "폭동 없이 회당에서 석 달을 지낸 것은 바울에게는 기록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의 국제적인 특성 때문에 그곳의 유대인들이 더 관대해졌을 것입니다."[2]

19:9 결국 에베소 사람들 중 "일부"는 바울의 구원의 "도"에 대한 설교에 반응하지 않고 불신하게 되었습니다(참조, 23절; 9:2). 바울의 반대자들은 유대인임이 분명했는데, 이는 바울이 회당을 떠나 중립 지역으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 이 중립 지역은 디디오 유스도의 집이었습니다(18:7). 에베소에서 이 중립 지역은 "두란노"(문자적으로, "Tyrant", 아

---

[1] Witherington, p. 572.
[2] Toussaint, "Acts," p. 410.

마도 이 교사 및/또는 집주인의 별명)가 소유하고, 이름을 붙이고, 운영한 강의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두란노는 자신의 "학교" 또는 그 일부를 오후 시간 동안 바울에게 제공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고대 사본 중 하나인 서방 본문(즉, 코덱스 베자)은 이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고 덧붙였는데, 보통 이 시간은 낮의 더위가 지나간 후 일을 재개하기 전에 사람들이 쉬는 낮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 "오래된 일련의 사건들이 단조롭게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11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먼저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 말하게 된 것은 슬픈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가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누가의 주제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방법, 회당에 대한 세심한 배려,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득하는 프로그램, 반대의 결정화, 그리고 완전히 정당한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세심한 기록이 있습니다."[1]

19:10 바울은 두란노의 학교에서 "2년"을 더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총 3년 동안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참조, 20:31).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오순절로부터 20년이 지난 주후 53년임이 분명합니다. 이 3년간의 사역의 결과로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지역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중에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리쿠스 계곡의 히에라폴리스 교회(골 4:13)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은 분명히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참조, 골 2:1, 4:13). 아마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된 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

[1] Blaiklock, *The Acts* ⋯, p. 156.

"우리는 '두란노 학당'을 바울 활동의 중심지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지방에서 많은 이방인 문의자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때가 되면 에바브라처럼 바울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골 1:7)."[1]

"이 지방은 집중적으로 복음화되었고, 이후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2]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서 에베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살았던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후대의 교회사에 나오는 단서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지만,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고전 16:8-9). 디모데와, 나중에 사도 요한은 바울을 따라 에베소에서 사역했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세 권(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많게는 일곱 권(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신약 성경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9:11-12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참조, 막 5:27; 6:56), 베드로를 통해 보여 주셨던 것과 동일한 "놀라운 기적"을 "바울"을 통해 계속 행하셨습니다(행 5:15). 누가는 바울이 베드로와 같은 유형의 기적을 행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역 초기에 앉은뱅이를 고쳤습니다(14:8; 참조, 3:2). 둘 다 마귀를 쫓아내고(16:18; 참조, 5:16), 마술사를 물리치고(13:6; 참조, 8:18), 죽은 자를 살리고(20:9; 참조, 9:36),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16:25; 참조, 12:7).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마술사들과 종교 사기꾼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영적 전쟁에 관한 유명한 지침을 쓴 것도 에베소 교회였습니다(엡 6:10-20). 에베

[1] Neil, p. 204.
[2] F. F. Bruce, *Commentary on …*, p. 389.

소는 사탄 활동의 온상이었습니다.

"도시의 분위기는 마술과 주문, 엑소시스트, 온갖 종류의 마술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1]

"... '에베소 문헌'(에페시아 그라마타)이라는 문구는 고대에 주문과 마술 공식이 담긴 문서에 흔히 사용되었다(참조, 아테나이우스의 *데이프노티스테* 12.548;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의 *스트로마타* 5.242)."[2]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옷을 통해 에베소에서도 간접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수건"(Gr. 수다리온[*soudarion*], 혹은 "땀 닦는 천")과 "앞치마"(시미킨티온[*simikinthion*], 문자적으로 "일꾼의 앞치마")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이례적이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사람들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눅 8:44). 현대의 일부 사기꾼들이 이러한 형태의 치유를 남용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나온 천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허락하심으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존중하시기를 기뻐하셨다."[3]

"모든 기적의 역사는 전능하신 분의 직접적인 권능의 행사이며, 그분께서 그분의 평범한 법칙을 일시 중단하신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실 때 도구를 사용하실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지는 전적으로 그분 자신의 기적의 목적, 즉 받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에게 미칠 효과에 달려 있다."[4]

---

[1] Morgan, *The Acts ⋯,* p. 350.
[2] Longenecker, p. 496.
[3] Kent, p. 151.
[4] Alford, 2:2:213.

> "하나님께서 미신에서 완전히 벗어난 신앙 외에는 어떤 신앙도 존중하지 않으셨다면, 숫자 13, 달, 토끼 발 때문에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겸손히 원하신다."[1]

> "우리는 사도들이 항상 마음대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성격이 항상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반대해야 했던 죄, 미신, 무지의 특이한 형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2]

스데바의 일곱 아들 19:13-20

다음 사건은 에베소를 뒤덮고 있던 영적 어둠과 그것을 몰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복음을 더 자세히 조명합니다. 또한 바울을 강력한 연설가(8-12절)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적을 행하는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19:13 **"그런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행하신 좋은 기적들을 대조적으로 소개합니다(11절).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을 관찰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의 기적을 모방하려고 했습니다(참조, 8:18-19).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발성하는 것만으로도 마법의 힘이 있다고 잘못 결론지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일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입에 담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업 성공을 비롯한 능력의 열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가 기록한, 바울이 마귀적 능력과 세 번째로 접촉한 사건입니다(참조, 13:6-12; 16:16-18).**

>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주문에 마법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흔했으며, 특히 에베소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3]

---

[1] Robertson, 3:316.
[2] Howson, p. 371.
[3] Longenecker, p. 497. Bruce M. Metzger, "St. Paul and the Magicians," *Princeton Seminary Bulletin* 38 (1944):27-30 참조.

수년 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을 책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막지 말라, 너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눅 9:49-50; 참조, 막 9:38-40)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 대해 열두 제자 사이에 존재했던 경쟁의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정통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악령 쫓는 자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열두 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친교나 교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주변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두 제자는 퇴마사를 배제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함시키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속담이었습니다. 그분은 앞서 정반대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마 12:30): 제자는 자신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동료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악령 쫓는 자들은 불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9:14-16 "스게와"는 "유대인 대제사장"이거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였을 수 있습니다(참조, 5:24).[1] 브루스(Bruce)는 그가 자칭 제사장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2] 위대한 자라고 주장한 시몬 마구스와 비교해보십시오(참조, 8:9).

> "… 그[스게와]가 누구든지 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직분을 맡은 유대인 대제사장은 아니었으며, 대제사장 가문 출신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교도 종파 중 하나의 자칭 '대제사장'이었으며, 자신을 유대인으로 위장하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스게와의 "아들들"("그들", 15절) 중 두 명 이상이 퇴마에 가담했다가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집에서 탈출한 것을

[1] Henry, p. 1713.
[2] F. F. Bruce, *The Book …*, p. 390.
[3] Neil, p. 205.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 "예수라는 이름은 마치 잘못 사용된 흉기처럼 그들의 손에서 폭발했고,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에 손을 댈 때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1]

19:17 이 사건에 대한 소식 보고로 "유대인과 헬라인"(이방인)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19:18-19 고대에 어떤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법사의 주문 의식과 주문의 힘이 비밀로 부쳐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법의 비밀은 공개되면 그 힘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심한 에베소 마술사들이 이러한 "관행"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책"을 불태운 것은 그 내용에 대한 공개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거부를 상징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에베소에서 발견한 마법의 텍스트 중 일부는 현재 대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2] 누가는 그가 언급한 "은" 동전에 대해, 그 가치를 판단할 만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것은 드라크마(drachma)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은화 5만 개는 많은 돈과 많은 개종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드라크마였다면 그 가치는 50,000일치 임금에 해당하며, 현재의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미워하면서도 그 죄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입니다. 죄를 떠나려고 해도 미련이 남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에는 깨끗하고 마지막 단절로만 충분할 때,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3]

19:20 앞 구절에 묘사된 회개의 결과로 교회는 더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

[1] Longenecker, p. 498.
[2] Free, p. 324.
[3] Barclay, p. 157.

> 커졌습니다(참조, 5:1-11). 누가는 이 여섯 번째 경과 보고를 통해 자신의 책의 다른 섹션의 끝을 알렸습니다. 방금 마친 부분(16:6-19:20)은 에게해 주변의 로마 지방에서 교회가 확장된 것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상당한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된 편지를 그 교회에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마도 주후 56년 봄 즈음에 고린도전서를 썼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여행했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에베소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행 18:5; 고전 4:17; 16:10-11; 행 19:22). 디모데가 고린도를 방문한 후 바울은 고린도에 소위 "고통스러운 방문"(고후 2:1; 12:14; 13:1-2)을 한 후 에베소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방문 후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또 다른 "심각한 편지"를 썼습니다(고후 2:3-4; 7:8-12; 12:18).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두 개의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중 첫 번째 서신은 에베소를 활동 거점으로 삼았던 몇 년 동안 쓴 것입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교회들과도 접촉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서 옥중 서신(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을 썼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투옥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1] 누가의 목적은 바울의 사역이나 교회의 성장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우리에게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 진출하는 과정을 기록하고(1:8),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 반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마 16:18).

> "여기 자유인으로서 바울의 사역에 대한 기록의 절정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주로 고난과 여행, 시련에 관한 내용입니다."[2]

D. 로마로의 교회 확장 19:21-28:31

"이 패널[사도행전의 이 부분]은 19:21-22의 프로그램 진술로 시작하여 28:31의

[1] Ben Witherington III, "The Case of the Imprisonment That Did Not Happen: Paul at Ephesu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60:3 (September 2017):525-32 참조.
[2] Idem, *The Acts …,* p. 583.

요약 진술로 마무리됩니다. 이 여섯 번째 패널에서는 세 가지 특징이 독자를 즉시 사로잡습니다: (1) 사도행전 전체 자료의 1/3을 차지하는 패널의 불균형적인 길이, (2) 바울의 변호 연설이 두드러진 점, (3) 서술 부분에서 '우리' 섹션의 우위(참조, 20:5-15; 21:1-18; 27:1-28:16). 그 길이가, 제시된 자료의 신학적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누가의 변증적 목적, 특히 다섯 가지 변증에서, 그리고 필연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교하게 묘사할 수밖에 없는 내러티브의 목격자적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참조, 16:11-40의 빌립보 일화). 여기에 서술된 사건들은 대략 56년부터 62년까지를 아우릅니다."[1]

"사도행전의 이 결말은 [세 번째] 복음의 결말과 놀라운 평행을 이룹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의 수난과 그 직후의 모든 준비가 매우 상세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바울의 '수난'은 책의 나머지 부분과는 그 규모에 있어서 불균형적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사실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상태로 끝나며, 마찬가지로 제1부 마지막에 베드로의 '수난'은 구출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서, 복음에서의 부활과 유사점이 있습니다."[2]

1.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 19:21-21:16

사역의 이 시점에서 바울은 로마로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로마(이방인) 세계의 중심까지 교회를 확장하셨는지 보여주기 위해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계획 19:21-22

이 짧은 단락은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어지는 내용의 배경이 됩니다.

19:21 **바울은 소아시아 및 에게해 지역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 후, 아직 도달하지 않은 이방인 지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참조,**

[1] Longenecker, p. 499.
[2] Rackham, p. 358.

롬 15:23). 단기적인 목표도 있었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롬 1:15; 참조, 눅 4:43; 9:22, 51). 로마서 15:24에서 그는 로마에서 로마 제국의 가장 서쪽 국경인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스페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복음이 궁극적으로 제국의 중심부에 도달하여 그곳에서 모든 곳으로 퍼져나간 후에 교회의 확장에 대한 기록을 끝내려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성경 연구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한 결정이 실수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동료 유대인을 돕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 복음화 사명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1] 대부분의 해설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영 안에서'(*en to pneumati*)라는 구절은 인간의 영이나 성령을 가리킬 수 있지만, 적어도 후자가 포함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인간의 결정으로 돌리면서 로마로의 여행을 신적 필연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상할 수 있는데, 특히 바울이 로마도 '반드시[Gr. *dei*]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두 여행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암시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20:22-23에서 바울은 동일한 결정을 언급하며 자신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과 성령께서 다가오는 고난에 관해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강한 결심 그 이상을 나타냅니다."[2]

> "누가는 *en to pneumati* ["성령 안에서"]와 *dei* ["반드시"]를 결합하여, 이 프로그램적인 진술에서 이방인 선교의 여파와 로마로 확장된 선교도 이방인 선교 자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3]

---

[1] E.g., Gaebelein, *The Annotated …,* 3:1:299-300.
[2] Tannehill, 2:239.
[3] Longenecker, p. 500.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바울이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마에 도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1]

"성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으며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 이르게 된 방식은 그가 원하거나 계획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계획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라도, 동일한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게 됩니다."[2]

"... 바울이 보기에 로마는 예루살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인 선교의 중심지로 (그리고 자신의 사도적 책임을 계승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누가의 관점은 바울과 달랐지만 누가의 관점에서도 예루살렘 기독교는 더 이상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기독교가 그 임무를 맡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3]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포함한 에게해 지역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가난한 유대 성도들을 위한 돈을 모아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참조, 24:17; 고전 16:1-4).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참조, 롬 15:30-3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결심("결단")했습니다. 바울은 신변의 위험 가능성 때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19:22 **바울은 "디모데"(참조, 18:5, 고전 4:17, 16:10-11)와 "에라스도"를 보내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섬기도록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또한 가난한 유대 성도들을 위한 모금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그의 도착을 준비했습니다(참조, 고전 16:1- 9). 이 에라스도는 바울이 로마서 16:23에서 언급**

[1] F. F. Bruce, "Paul's Apologetic ⋯," p. 380.
[2] Rackham, p. 359.
[3] F. F. Bruce, "The Church ⋯," p. 661.

한 것과 같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4:20에서 언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섬긴 다른 사람으로는 실라와 디도가 있지만 누가는 그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라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15:40과 18:5에 기록된 사건 사이에 9번 등장하지만, 누가는 그 이후에는 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자신의 신실하고 적극적인 동료였다고 기록했습니다(참조, 고후 2:13; 7:6, 13-14; 8:6, 16, 23; 12:18; 갈 2:1, 3; 딤후 4:10; 딛 1:4). 그러나 누가는 그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몇 달 더 "아시아에 머물렀으며", 아마도 이 기간 동안 다음 사건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 19:23-41

이 사건은 복음이 에베소 사회와 종교에 미친 영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여줍니다(참조, 13-20절). 누가는 아마도 독자들이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사건을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포함시킨 또 다른 이유는 변증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 "누가가 이 예화를 제시한 목적은 분명히 변증적인 것인데, 이는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religio licita*)라는 그의 주장(참조, 패널 5 [16:6-19:20])과 바울의 변호 연설에서 강조된 주제(패널 6, 특히 22-26장)를 예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치적으로, 바울에 대한 아시아 통치자(Asiarchs, '지방의 관리들', NIV)들의 우호적인 태도와, 그를 변호한 도시 서기관의 개입에 관한 누가의 보도는, 바울과 기독교가 제국의 공적 삶을 위협했다는 혐의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이다."[1]

19:23 기독교, 즉 "그 길"("the Way"; 참조, 9절; 9:2; 16:17; 18:25, 26; 22:4; 24:14, 22)은 에베소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그 지역의 이교 숭배에

[1] Longenecker, p. 502.

타격을 줄 정도였습니다.

"카시디(Cassidy)는 '그 길'이라는 표현이 '예수를 믿는 공동의 신앙에 기반한, 사회적으로 응집력 있는 운동으로서의 제자들을 나타낸다'고 정확히 지적했다. 누가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이 주로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의 교회(9:2; 22:4 참조)와 에베소 및 그 인근 지역의 교회(19:9, 23 참조)와 관련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운동이 서쪽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지역을 초월한(translocal) 성격을 띠고 있고, 유대 문화의 중심에서도, 로마화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인 에베소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1]

누가가 기록한 "큰 소동"은 바울 개인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복음이 에베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공동체의 변화가 전체 문화를 어떻게 뒤흔드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본문이다. 변화는 기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며, 복음의 진전을 막기 위한 반작용을 유발한다."[2]

19:24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방인들이 숭배하던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의 여신은 최소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인들이 다이아나(Diana)라고 부르던 사냥의 여신으로, 활을 든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로, 장신구로 장식된 독신 여신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산의 여신이 아니라, 산모를 도와주는 여신이었습니다.**[3]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 숭배는 전적으로 아시아의 것이었고 그리스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리스 식민지 주민들은 두 신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을 찾아내어 다이아나를 자신들의 아르테미스와 동일시하려고 시도했습니

[1] Witherington, *The Acts …,* p. 584.
[2] Bock, *Acts*, p. 614.
[3] Glahn, pp. 316–34 참조.

다."[1]

고대 세계에는 적어도 33개의 다른 아르테미스 숭배 장소가 있었지만, 에베소의 사원은 에베소 사람들의 아르테미스 숭배의 주요 중심지였습니다.[2] 주후 2세기 중반에 글을 쓴 파우사니아스(Pausanias)는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숭배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널리 행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3]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으며, 많은 역사가들은 이 신전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 신전은 도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피온 산의 경사면에 위치했으며, 은행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배와 부도덕한 의식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약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신전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큰 그리스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 "그 사원은 길이 425 피트, 너비 220 피트였으며, 기둥의 높이는 60 피트였습니다. 기둥의 수는 127개로, 각각은 왕의 선물이었으며, 그 중 36개는 장식과 색상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접이식 문은 사이프러스 목재로 만들어졌으며, 하늘로 열리지 않은 부분은 삼나무로 지붕이 덮여 있었고, 계단은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단일 포도나무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의 가치와 명성은 그곳이 서아시아의 부의 대부분이 보관된 보물창고였기 때문에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이 성전보다 더 많은 경외감, 열정, 그리고 미신이 집중된 종교적 건축물은 없었을 것입니다."[4]

이 사원의 중심에는 여성을 닮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다른 물건들(35절 참조)도 트로이, 페시누스, 엔나, 에메아스에

---

[1] Knowling, 2:417.
[2] Ladd, "The Acts …," p. 1161. Strabo, *Geography* 4.1.5.
[3] Pausanias, *Description of Hellas* 4.31.8, Witherington, *The Acts …,* p. 587에서 인용됨.
[4] Howson, p. 423.

서 신성한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1]

> "위에서 이 상징적인 형태를 취한 형상은 아래쪽에 형체 없는 블록으로 끝났습니다. 재료는 목재였습니다. 각 손에는 금속 막대가 있었습니다. 옷은 신비로운 문양으로 덮여 있었고, 사원 내부에 서 있던 작은 신전은 앞쪽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상이 아무리 투박하더라도, 그것은 가장 높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2]

에베소의 은세공인들은 아르테미스를 수호신으로 모시고, 다른 제품들 중에서도 여신의 형상이 들어 있는 소형 "은 신전"을 만들어 여신의 신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결과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아르테미스에 대한 관심과 그녀의 조각상 시장이 쇠퇴했습니다. 이러한 장신구를 만드는 길드의 지도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 "순례자들이 에베소로 오면 기념품을 가져가길 좋아했습니다. 이 은세공인들은 기념품으로 구매되거나 팔리는 작은 은제 신전 모형을 만들었습니다."[3]

또한 숭배자들은 신전을 방문할 때 이 모형을 헌납물로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교회에 촛불을 사서 켜놓고 떠나는 것과 유사합니다.[4]

19:25–27 데메드리오의 말은 복음이 아시아 지방에 얼마나 깊이 퍼졌는지와 그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적의 성공을 인정하는 비판자의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명백히 데메드리오가 이 시위를 조직한 동기는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숭배만큼이나, 아니면 더 큰 동기로, 재정적 손실이 작용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처녀 여신으로서, 순결의 주요 후원자로 알려졌

---

[1] Longenecker, p. 502 참조.
[2] Howson, p. 424. 고대 에베소 동전에 등장하는 이 형상의 사진은, p. 374 참조.
[3] Barclay, p. 160.
[4] Ramsay, *The Church …,* p. 134; Witherington, *The Acts …,* p. 590.

었습니다.[1]

"… 이익 집단은 지역 애국주의로 위장되었으며, 이 경우 종교적 열정이라는 가면을 쓰기도 했습니다."[2]

"이와 같은 명예와 수치심에 민감한 문화에서, 공개적인 굴욕을 당하거나 단순히 금전만 밝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은 명성을 망치고 생계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3]

"길드와 그들이 비순응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기한 문제는 신약 성경의 배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길드는 노동조합이 아닌 사회 단체로, 주로 사회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고대 사회에 많이 존재했습니다. 은행가, 의사, 건축가, 양모와 린넨 제품 생산자, 염색공, 금속, 돌, 흙 작업자, 건축가, 목수, 제과사, 이발사, 시체 처리사, 운송 노동자 등 다양한 길드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4]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 보인 유일한 다른 항의도 재정적 손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참조, 16:16-24). 이익 추구는 여전히 복음의 확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갑을 밟고도 '아얏!'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는 없다."[5]

19:28-29 **아르테미스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의 시민의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에베소의 전반적인 상업적 쇠퇴를 고려할 때, 은세공인들의 항의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불러일으켰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폭도들의 폭력 행위였습니다(참조, 왕상 18:26). 시위대 중 상당**

---

[1] Ibid., p. 587.
[2] Neil, p. 207.
[3] Witherington, *The Acts …,* p. 592.
[4] Blaiklock, *The Acts …*, p. 158.
[5] McGee, 4:600.

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의 주요 대로인 아르카디아 거리는 항구에서 대극장까지 이어졌으며, 주동자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여 시민들을 모아 야외 "극장"으로 행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에베소의 아르카디아 대로와 대극장의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이 극장은 소아시아와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큰 극장으로, 코레서스 산기슭에 위치해 있었으며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1] 그 반원형 디자인은 로마의 야외 극장 특유의 구조였습니다.

"가이우스"는 일반적인 그리스 이름입니다. 이 가이우스는 20:4, 로마서 16:23, 고린도전서 1:14에 언급된 같은 이름의 인물들과는 다른 인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가이우스는 "마케도니아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그리스어 사본에는 마케도니아인은 "아리스다고"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가이오는 20:4에 언급된 더베의 주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후반부에 등장합니다(참조, 20:4; 27:2).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19:30 은세공인들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는 에베소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극장에 모인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위험을 감지하고 그가 폭력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19:31 "아시아의 관원들"(the Asiarchs)은 이 로마 지방의 도시들의 정치 지도자였던 교육받은 시민들이었습니다.

> 그들은 "아시아 지방의 도시에서 영향력 있는 부유한 사람들로서, 주로 경기의 조직과 황제 경배와 관련된 의식을 담당하는 지방 의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아시아의 관원은

[1] Salmond, 3:205.

제국 숭배의 '대제사장'으로 불렸습니다."[1]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바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그들의 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제국에서 적절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관원들도 바울이 다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지도자가 아시아의 관원들과 친구인 종파는 국가에 위험할 수 없다."[2]

바울이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은밀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9:32 누가가 언급한 군중의 "혼란"은 은세공인들의 특정 불만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흥분된 분위기에 휩쓸려 모인 것 같습니다. "모임"(assembly)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참조, 39, 41절)는 *ekklesia*로, 보통 "교회"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의 사용은 "교회"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 즉 특별한 목적을 위해 대중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를 잘 보여줍니다. 이 경우 모임의 특별한 목적은 바울의 설교에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19:33-34 "알렉산더"에 대한 군중의 반응은 그에게 뚜렷한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유대인 사회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군중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믿지 않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참조, 18:12-17). 그러나 고린도의 갈리오와 마찬가지로, 이 군중들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두 종교 모두 우상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군중은 아마도 알렉산더가 동료 유대인으로서 바울을 옹호하려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인물(딤전 1:19-20; 딤후 4:14)일 수 있지만,

[1] Neil, p. 208. 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ongenecker, pp. 503-4; 및 Lily Ross Taylor, "The Asiarchs," in Foakes- Jackson and Lake, 5:252-62 참조.

[2] Haenchen, p. 578.

"알렉산더"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다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1]

19:35-36 "도시 서기관"(Gr. 호 그람마튜스[*ho grammateus*])는 현대의 시장과 같은 직분으로, 지역에서 선출된 행정관으로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록 보관소 관리인이며, 의회에서 법령 등을 낭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2] 따라서 그는 이 시위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 모임에서 네 가지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신전에 있던 아르테미스의 형상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르테미스"가 "손으로 만든" 여신이라고 생각할 위험은 전혀 없었습니다(참조, 26절).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는 지금도 좋은 조언입니다. 이 도시 서기관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을 이유는 없지만, 그는 현명하고 외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전 수호자"라는 칭호는 로마가 제국 숭배의 신전을 소유한, 선택된 도시들에게 수여한 영예였습니다.[3] 에베소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19:37 둘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처벌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으며 아르테미스를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을 향해 신전을 약탈하고 다른 신들을 모독했다는 비난을 흔히 제기했습니다(참조, 롬 2:22).[4]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고발했지만(26절), 바울은 아르테미스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함으로써 그녀를 모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8-39 세 번째로,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 "직공들"이 "누구에"(즉, 바울)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상대방을

---

[1] Josephus, *Antiquities of …*, 4:8:10 참조.
[2] Alford, 2:2:219.
[3] Neil, p. 208.
[4] Josephus, *Antiquities of …*, 4:8:10.

"법정"에 고발해야 했습니다. 이 종류의 불만을 다루는 법정은 에베소에서 한 달에 세 번 열렸습니다.[1] "총독"(proconsul)은 지방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19:40-41 넷째, 도시 서기관은 시민들에게 지방 당국이 폭동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도시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폭동"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논리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군중(Gr. 에클레시아[*ekklesia*], 집회)은 흩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롬 16:4). 바울이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고 쓴 것(고전 15:32)과, 죽을 적인 적을 마주하고 생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쓴 것(고후 1:8-11)도 이 사건을 떠올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간 것이, 이 지역사회의 특징이었던 아르테미스에 대한 열정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참조, 계 2:1-7).

> "에베소에서의 폭동 이야기(23-41절)는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위험이 되지 않으며, 다원주의 사회에서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들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형사 고발이 있을 때만 법정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2]

바울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방문 20:1-6

>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다시 방문한 이 기록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간략한 사역에 대한 기록으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요약한 부분(참조, 19:8-12)보다 훨씬 더 간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쓰여진 고린도후서와 로마서에서 언급된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과 역사적 암시를 통해 어느 정도 내용을 보충할 수

[1] F. F. Bruce, *Commentary on …*, p. 402.
[2] Marshall, *The Acts …*, p. 314.

있습니다."[1]

20:1 폭동 직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경유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19:21). 그는 북쪽으로 드로아로 이동했으며, 그곳에서 기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사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고후 2:12). 그러나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로 인해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디도를 보내 엄한 편지를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는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고후 2:3-4; 7:8-12; 12:18).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머물지 않고 서쪽으로 이동하여 "마케도니아"로 갔고,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만났습니다(고후 7:5-8). 디도로부터 고린도에서의 상황이 좋다는 보고를 받은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어느 곳에서, 아마도 주후 56년 가을에 고린도후서를 썼을 것입니다(참조, 고후 12:14; 13:1-2).

20:2 마케도니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일루리곤 지방에서 바울이 행한 사역은 그가 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 또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참조, 롬 15:19). 여기에서 "그리스"는 아가야 지방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을 수도 있지만, 로마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선교 여행을 재개한 후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딛 3:12).

> "격려[Gr. *parakalesas*]로 번역된 단어는 꾸짖음에서 위로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격려는 가르침, 호소, 확인, 경고, 교정을 포함합니다."[2]

20:3 "3개월"은 주후 56년부터 57년까지의 겨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기간 대부분을 고린도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이오(디디오 유스도?)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롬 16:23; 참조, 행 18:7).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는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서신에서 그

---

[1] Longenecker, p. 506.

[2] *The Nelson* ⋯, p. 1858.

는 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로마에서 더 서쪽의 스페인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롬 15:24).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모으는 일에도 바빴습니다(롬 15:26). 그는 분명히 겐그레아에서 시리아의 가이사랴로 배로 이동한 후, 거기서 육로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의 봄 축제 중 하나를 지키기 위해 여행할 계획이었습니다(6, 16절). 그러나 도중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음모를 알게 되자, 그는 계획을 변경하고 "마케도니아"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참조, 9:23, 29; 17:14; 23:12; 고후 11:32).

> "외국 항구에서 유대인 순례자 선박이 시리아를 향해 출발하여 유월절에 참석할 순례자들을 실어 나르곤 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런 선박에 승선할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선박에서는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다에 던져 죽이고 그의 행방을 영원히 감추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1]

20:4 누가가 여기서 언급한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지방("베뢰아"와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지방("더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자들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동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바더"는 로마서 16:21에 나오는 "소시바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아가야 지방과 고린도 교회를 대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누가는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누가는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20:5-6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빌립보"로 여행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누가를 만났는데, 누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참조, 16:10-40). 바울 일행은 주후 57년 봄에 빌립보에서 유월절 직후에 있는 "무교절"을

[1] Barclay, p. 161.

지켰습니다. 이 8일간의 축제는 유월절로 시작되어 무교절로 이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긴 축제를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의 동료 중 일부는 "드로아"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바울과 누가, 그리고 아마도 디도와 아가야 교회의 두 명의 대표자(참조, 고후 8:6-24)는 빌립보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누가의 존재를 나타냅니다(5-15절, 참조, 16:10-17; 21:1-18; 27:1-28:16). 그들은 빌립보의 항구인 네아폴리스(16:11)에서 드로아로 항해하여 다른 사절들과 합류했습니다. 이 항해는 "다섯 날"이 걸렸지만, 이전에 바울의 배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스까지 두 날 만에 도착한 것과 대비됩니다(16:11).[1]

드로아에서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이야기 20:7-12

"20:5부터 사도행전 끝(28:31)까지, 누가는 바울의 여행에서 기항지, 경유지, 그리고 여행에 소요된 시간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일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여행 일기에서 발견되는 세부 사항을 포함하며, 20:5-15; 21:1-18; 및 28:16에서 사용된 '우리'라는 표현은 그 목격자적 특성을 보여줍니다."[2]

"로마의 역사 기록에서는 책상 앞에 있는 역사가가 훨씬 더 받아들여 졌습니다만, 그리스의 역사 기록에서는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3]

20:7 바울이 드로아에 교회를 세웠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세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참조, 16:8-9; 고린도후서 2:12-13). 이 구절은 안식일인 일곱째 날이 아닌 "주(week)의 첫날"에 경배하기 위해 모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성경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언급한 부분입니다 (참조, 요

[1] F. F. Bruce, "Chronological Questions …," pp. 288-89.
[2] Longenecker, p. 508.
[3] Witherington, *The Acts …,* p. 605.

20:19, 26; 고전 16:2; 계 1:10).

"... 매 주일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도들의 실행은, 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는 것을 모방한 것일 수 있다."[1]

일요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로 계속 선호되어 왔습니다.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선택했습니다. 이 신자 그룹은 "빵을 떼기 위해"(Gr. 클라사이 아르톤[*klasai arton*]) 모였습니다.

"빵을 떼는 것은 아마도 성찬식이 거행되는 동안의 교제 식사를 의미할 것입니다(참조, 2:42)."[2]

"초기 교회에는 두 가지 밀접하게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찬(Love Feast)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했고, 이것은 진정한 식사였습니다. 종종 이 식사는 가난한 노예들이 일주일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을 것입니다. 애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며 앉아서 먹는 식사였습니다. 그 식사 중에 또는 식사가 끝날 때 주님의 주의 만찬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함께 하는 식사의 행복한 교제와 단합을 잃게 된 것은 매우 귀중한 것을 잃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식사는 교회의 진정한 가정적 분위기와 진정한 가족의 영을 다른 어떤 것보다 잘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3]

"빵을 떼는 것은 7절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유두고의 이야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떠나는 때문에, 공동체의 빵을 떼는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빵을 집으시고 떼셨다' (눅 22:19)고 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비슷한 작별의 식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19:21에서 시작되어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과 그 여파의 메아리는, 비

---

[1] Alfred Edersheim, *The Temple*, p. 188. 자주 행하는 주의 만찬을 옹호했던 Calvin, 4:17:44-46 참조.
[2] F. F. Bruce, *Commentary on …*, p. 408. Cf. 11절; 고전 10:16-17; 11:17-34.
[3] Barclay, pp. 162-63.

록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유사성이 어떤 중요성을 지녔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1]

누가는 바울이 연설을 시작한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는 밤새도록 계속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정까지" 가르쳤고, 그 후에도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그는 날이 샐 때까지 오랫동안 그들과 이야기했다", 11절).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노예나 종업원들이어서 밤에만 자유롭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의 시간 표현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로마인의 것입니다. 그에게 하루는 일몰부터 일몰까지가 아니라, 일출부터 일출까지였습니다(참조, 7, 11절).

"저는 교회에 제가 장황한 설교자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설교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법은 제가 직접 배웠습니다. 사실은 담배 광고에서 배웠습니다. 그 기법은 이것입니다.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길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근거는 성경에서 바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정까지 설교를 했습니다."[2]

20:8-9 누가가 "많은 등불"(Gr. 람파데스 히카니[*lampades hikani*], 문자적으로, "많은 횃불")을 언급한 것은 긴 설교와 산소 부족이 결합되어 "유두고"가 잠들게 된 것 같음을 시사합니다. "젊은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meanias*)는 다른 곳에서는 8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그가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 경우 그는 30대였을 수도 있습니다.[3] 의사 누가는 유두고(문자적으로, "행운아")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연구한 일부 학자들은 주로 다음 구절을 근거로 유두고는 단순히 기절한 것이며 바울이 그를 소생시

[1] Tannehill, 2:250–51.
[2] McGee, 4:602.
[3] Witherington, *The Acts …,* p. 607.

켰다고 결론지었습니다.[1]

"바울의 설교가 길었기 때문에 우리는 졸린 유두고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발달된 공관복음의 주제가 깨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게 합니다. 잠드는 것은 심각한 실패이며,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헌신적인 설교는 청중들에게 요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en upomone*)(눅 8:15) 헌신적인 청중이어야 합니다. 유두고는 실패하고 잠들었습니다."[2]

"저는 바울의 경험이 항상 저에게 위안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회중을 바라보며 잠든 형제나 자매를 보면,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냥 자게 두자. 바울도 그들을 잠들게 했으니까.'"[3]

"오늘날 [교회에서] 잠든 사람들에게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모든 교회는 지하에 시체 안치소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4]

20:10 **"그는 아직 살아 있다"는 번역은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는 의미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그의 생명은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의 관용어입니다.**[5] **이것은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이 행한 것과 유사한, 바울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명확한 사례로 보입니다(참조, 왕상 17:21-22; 왕하 4:34-35; 마 9:23-25; 막 5:39).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 당시 사도들을 통해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1:1-2). 이 사건과 9:36부터 42까지에 나오는 베드로가 다비다(도르가)를 살린 사건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의 패턴에 따라, 베드로는 명령함으로써

---

[1]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는 견해에 대한 반박은, Alford, 2:2:224 참조.
[2] Tannehill, 2:250.
[3] McGee, 4:602.
[4] Charles R. Swindoll, *Come before Winter*, p. 185.
[5] 10절에 대한 The *NET2 Bible*의 주석.

다비다를 살린 반면, 바울은 유두고에게 '엎드려서 (*epepesen*)' 그를 안고 그가 살아 있다고 선언했습니다(20:10). 만일 여기에서 치유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접촉에 의한 것이며, 엘리사 이야기의 패턴을 따릅니다(왕하 4:34 = 4 Kgdms. 4:34). 베드로와 바울은 부분적으로 유사한데, 그 이유는 둘 다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유형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적 능력이 교회에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습니다."[1]

만일 당신이 설교자이고 말솜씨가 좋다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은사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20:11 **그리스도인들은 3층 방으로 돌아가(참조, 9절) 모임을 재개했습니다. 헬라어 문구 *klasas ton arton kai geusamenos*, "빵을 떼고 먹었다"는 말은 주의 만찬이 아닌 평범한 식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2] 또는 여기에서는 주의 만찬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3] 그 후 바울은 "새벽까지" 이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그와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유두고의 이례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20:12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유두고가 정말로 무사하다는 것과, 신자들이 바울의 회복의 사역과 가르침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초기 신자들은 밤새도록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나도 밤새도록 들을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저 겸손한 복음 전도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볼로가 웅변가였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신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

[1] Tannehill, 2:248.
[2] Longenecker, p. 509.
[3] Neil, p. 212; Kent, p. 156.

말 멋진 일이죠!"[1]

드로아에서 밀레도로의 여행 20:13-16

"누가는 몇 마디의 간결한 말로 독자들을 고대 신화와 역사의 가장 유명한 해안으로 안내합니다."[2]

20:13-14 배들은 드로아에서 "앗소"(Assos, 현 바흐람 코이)에 도달하기 위해 렉툼 갑(Cape Lectum)을 돌아야 했습니다. 이 경로는 두 도시 사이의 20마일 거리를 연결하는 육로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로였습니다. 육로를 선택함으로써 바울은 드로아에 조금 더 머물 수 있었습니다. "미둘레네"(Mitylene) 는 소아시아 서부 최대의 섬인 레스보스(Lesbos) 섬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20:15 "기오"(Chios)는 시인 호메로스가 태어난 곳과 같은 이름의 작은 섬의 주요 마을이었습니다.[3] "사모스"(Samos)는 아시아 해안에서 에베소 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하루 항해 거리였습니다. 사모스의 가장 유명한 인물은 위대한 수학자 피타고라스였습니다. "밀레도"(Miletus)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30마일 떨어진 본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보통 바울 일행이 해안을 따라 여행한 것과 같은 작은 배들은 바람이 잦아들면 매일 밤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20:16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유월절 50일 후인 "오순절 날"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6절; 참조, 2:1). 그러므로 바울이 밀레도를 방문한 것은 주후 57년 4월 말일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상륙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카이스터(Cayster) 강에서 흘러 들어온 진흙으로 항구가 메워져 선

[1] McGee, 4:603.
[2] Blaiklock, *The Acts …*, p. 165.
[3] Knowling, 2:427 참조.

원들이 가능한 한 에베소를 피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1]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연설 20:17-35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고별 연설은 사도행전의 바울 서신에 가장 근접한 내용입니다. 연설의 일반적인 내용은 바울이 서신에서 개종자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경고하고 권면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연설의 신학적인 주제와 어휘는 바울 서신 특유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세 번의 선교 설교(13:16-41; 14:15-17; 17:22-31)와 다섯 번의 변론(22-26장)에서 비기독교인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내는 이 작별 인사는 바울의 많은 서신에서 그가 직면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마치 그의 축소판 편지처럼 읽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어디에도 바울의 서신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 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2]

"이 연설은 바울 서신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1)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과거 사역(18-21절), (2)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현재 계획(22-24절), (3)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회의 미래(25-31절)를 다루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설은 축복으로 마무리하고(32절), 청중들에게 바울의 모범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권면의 말을 덧붙입니다(33-35절). 각 섹션의 제목은 도입부 공식입니다: 18절의 '너희는 .. 알고'(휘메이스 에피스타스테[*hymeis epistasthe*]), 22절의 '또한 이제 보라'(카이 뉜 이두[*kai nyn idou*]), 25절의 '또한 이제 보라 내가 알고..'(카이 뉜 이두 에고 오이다[*kai nyn idou ego oida*]), 32절의 '또한 이제'(카이 타 뉜[*kai ta nyn*])."[3]

이것은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누가 자신의 귀로 들은 몇 안 되는 연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스 의사 갈렌(Galen)은 그의 제자들이 그의 의학 강의를 속기로 받아 적었

---

[1] Salmond, 3:204.

[2] Longenecker, pp. 511-12.

[3] Ibid., p 512. 바울이 이 연설에서 사용한 용어와 개념을 그의 서신에서 사용한 유사한 용어와 비교한 도표는, Witherington, *The Acts …,* p. 610 참조.

다고 기록했으니, 아마도 누가가 이 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1]

20:17 분명히 바울의 배는 "밀레도"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거나,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배를 갈아탔을 수도 있습니다(참조, 21:3-4, 8). 바울의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달되려면 적어도 하루는 걸렸을 것이고, 그들이 밀레도로 가서 바울과 합류하려면 적어도 하루는 더 걸렸을 것입니다.

20:18-21 바울은 먼저 이 장로들 앞에서 지난 3년간의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참조, 31절). 그는 그들에게 앞으로도 신실함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자신이 그들 가운데서 살아온 방식을 호소했습니다(참조, 살전 2:1-12). 그는 특히 "주님"을 겸손히 섬긴 것(참조, 엡 4:2), 자신의 슬픔("눈물"; 참조, 고후 2:4), 복음의 원수들("유대인들의 음모"; 참조, 19:9; 20:1)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을 선포하는 신실함("무엇이든 유익한 것"; 참조, 롬 1:16)과 끊임없는 "가르치는" 사역을 강조했습니다(참조, 19:8-10).

"집집마다"(즉, 여러 개인 가정에서, 20절) 가르치는 것은 아마도 가정 성경 교실과 가정 교회를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에 대한 이러한 변호는, 그가 부재할 때 비판자들이 다른 곳에서 했던 것처럼, 바울의 개종자들에게 그에 대한 편견을 심을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바울 연설의 첫 부분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나 문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21절)은 칭의에 필수적인 것을 아름답게 균형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참조, 26:20-23; 롬 10:9-10; 고후 5:20-6:2).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

[1] Robertson, 3:346-47.

20:22-23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또는 영 안에서) 있다고 했을 때, 그는 그곳에 역경("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참조, 3절; 9:16; 19:21). 아마도 "성령"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은 이때 이미 유대인들이 그를 그곳에서 체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계시했을 것이다(참조, 21:4, 11; 롬 15:30-31). 바울은 육체적 안전이나 편안함보다 주님께 충성하기를 더 원했습니다(참조, 빌 1:20).

> "성령께서 그의 가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고, 그가 도착했을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1]

20:24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좋은 소식의 연속이었지만, 보편적인 맥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왕국을 전파하는 것"과 동일시했습니다(25절). "은혜"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20:25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미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왕국"은 아마도 현재 그분의 영적인 하늘 통치와 천년왕국 동안 그분의 물리적인 땅 통치를 모두 포함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영역을 가리킵니다(14:22). 그러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전체 메시지의 요약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의 구속의 축복을 가리킵니다."[2]

>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것을 분명히 동일시했습니다. 다시 한 번 [참조, 20:22-24] 우리는 두

---

[1] Kent, p. 157.

[2] Ladd, "The Acts …," p. 1163 바울의 사상과 신학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James S. Stewart, *A Man in Christ* 참조.

>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 28:23, 30-31] ... 따라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사역을 조사하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 왕국의 대사였지만 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상의 다윗 왕국이 세워졌다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적 형태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메시지입니다."[1]

바울은 자신이 연설한 모든 사람이 자신을 다시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당분간 에베소로 돌아갈 계획이 없었습니다(참조, 롬 15:23-29).

20:26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참조, 렘 23:1-2)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즉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27절). 에베소와 아시아에 남아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철저하게 복음 전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참조, 겔 33:1-6).**

20:27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을 전수해 주었습니다(참조, 20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성경의 구절별 해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 계획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책임은 성도들에게 더 자세히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맥기(McGee)는 바울과 비슷한 글을 썼습니다:**

>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은퇴한 설교자입니다. 저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역을 되돌아보면, 강단에 섰을 때 제가 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강단에 다시 서더라도 이미 선포한 말씀에 덧붙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더 좋게 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저

[1] Pentecost, *Thy Kingdom* ⋯, p. 280. 단락 구분 생략.

> 는 항상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전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1]

20:28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의 향후 책임(28-31절) 때문에 도전으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장로들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했습니다(참조, 겔 34:12-16; 벧전 5:1-4). 바울은 이 장로들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친숙한 양떼의 모습을 사용했습니다(요 10:27; 21:15; 등).

"장로"(elders, 17절)라는 용어는 유대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감독자"(overseers)라는 용어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사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목자"(Shepherd)는 유대어이자 그리스어이며 그의 기능이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종합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의 영적 복지를 책임지는 나이가 많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목회(즉, 인도하고,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함으로써 그들의 책임을 다했습니다(참조, 벧전 5:1-4).

> "사도 시대에는 2세기 이후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것과 같은 장로(elders, presbyters)와 감독(bishops)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은 구분되지 않게 장로, 감독, 목자로 묘사됩니다."[2]

"성령"은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장로로 선택하도록 이끄셨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임명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또는 피를 통해 획득)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그[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다"가 될 것입니다(참조, 롬 3:25; 5:9; 엡 1:7;

---

[1] McGee, 4:604.

[2] F. F. Bruce, *Commentary on …*, p. 415.

2:13; 골 1:20).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너무 적은 책임을 지거나 너무 많은 책임을 지려는 경향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Gr. 에클레시아[*ekklesia*])"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바울 서신에서만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목적,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20:29–30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의 접촉, 특별 계시, 또는 사역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인해, 미래의 문제가 어디에서 올지 확신했을 것입니다(참조, 마 7:15; 요 10:12). 그가 예상한 것은 현실화되었습니다(딤전 1:6-7, 19-20; 4:1-7; 딤후 1:15; 2:17-18; 3:1-9; 계 2:1-7). 대부분의 교회는 외부("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와 내부("너희 가운데서도") 교제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대에 직면합니다.

20:31 이러한 목자들에게는 경계심이 필수적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주후 53년 가을부터 주후 55년 여름까지 에베소에서 수고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학자들은 그가 이 기간 중 일부를 감옥에서 보냈으며(참조, 고후 11:23), 에베소에서 옥중 서신, 적어도 빌립보서를 썼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수 의견으로, 옥중 서신이 로마에서 작성되었다는 이론만큼은 강력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참조, 19절)에 대한 언급은 바울의 사역이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기도 함을 보여줍니다(참조, 요 11:35). 특히, 그는 자신의 말로 인해 듣는 이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고통을 느끼며 권고를 전달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자신이 섬긴 사람들에게나 사역 상황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상황에도 맞서서 대처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이 인간적인 면모는 그가 직접 언급한 여기에서와 그의 서신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20:32 바울은 축복으로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세울 수 없으므로, 그 일을 하실 "하나님께",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구인 성경("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영적 성장의 원천이며, 이 장로들이 믿는 성도("거룩하게 된 사람들"; 참조, 벧전 5:1-4; 빌 1:6; 골 3:24)이기 때문에 언젠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유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20:33-35 사도는 서신에서 흔히 그랬던 것처럼 권면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본인의 생활 양식을 돌아보며 자랑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모범("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모든 일에서", 35절)을 상기시키며 자신이 교회를 이끌었던 것처럼 장로들도 따라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물질적 보상에 대한 염려 없이 봉사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정책은 다른 사람에게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자신이나 동료 사역자 또는 개종자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때 자신의 직업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 모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이나 서신에는 자신을 위해 모금을 요청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그가 현대의 기독교 사역자들이 후원금을 모으는 활동에 반대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후원자들이 모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사역자들이 스스로 일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참조, 마 10:10; 눅 10:7; 고전 9:14; 딤전 5:18). 바울은 동기(33절)와 모범(35절)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받기보다는 베풀기를 원했고, 개종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그러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 "그리스-로마 세계는 '주고받음'이라는 상호성의 원칙에 기반한 사회망에 의해 벌집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권고는 그 고리를 끊고 아무 대가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즉, 기쁜 소식을 기꺼이 받았

으니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1]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말씀(35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전이나 기록된 전통에 의해 바울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예: 눅 6:38). 바울은 종종 자신의 권고를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모범과 연관시켰습니다(참조, 롬 12-14장; 빌 2:5-11; 살전 4:1-12).

바울이 밀레도에서 떠남 20:36-38

20:36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 자세는 성경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이신 주님께 복종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 문화에서 기도의 일반적인 자세는 서 있는 것이었으므로(참조, 막 11:25), 무릎을 꿇는 것은 특별히 엄숙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참조, 21:5).[2]

20:37-38 바울에 대한 이방인 개종자들의 애정에 대한 이 기록(참조, 창 33:4; 45:14; 46:29)은 그가 곧 예루살렘에서 직면하게 될 유대인들의 증오와 대조됩니다.

"... 이 모든 장면을 통해 하나의 지배적인 감정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애정과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에 있어야 할 감정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시들거나 퇴색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3]

바울은 이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되어 로마를 떠나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로 돌아온 후에 일어났을 가

[1] Witherington, *The Acts ⋯,* p. 626.
[2] Neil, p. 215; Lenski, p. 857 참조.
[3] Barclay, p. 166.

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딤전 1:3; 3:14; 4:13).

밀레도에서 두로로의 여행 21:1-6

사도행전의 세 번째 "우리" 부분(21:1-18)은 예수님 수난의 메아리로서 바울의 수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과 바울의 로마 여행의 유사점에 주목하십시오. 두 이야기 모두 유대인들의 음모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세 번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모두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각자의 목적지로 가기로 결심했고,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1] 누가는 아마도 바울의 사역을 인증하기 위해 독자들이 예수님과 바울의 유사성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21:1-3 "고스"(Cos)는 밀레도에서 40마일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로도"(Rhodes, "장미"라는 뜻)는 남동쪽으로 90마일 더 떨어진 로도 섬에 있는 도시를 가리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서 로도의 거상인 아볼로의 거대한 동상이 로도 항구 입구에 서 있었지만,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는 폐허였습니다.[2]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동쪽으로 60마일 떨어진 "바다라"(Patara)로 계속 여행했습니다. 바울은 이 여행을 3일만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다라에서 선교사들은 동쪽으로 400마일 더 떨어진 "두로"(Tyre)로 가는 배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이 배는 곡물이나 과일을 실은 배였을 것입니다.[3]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키프로스" 남쪽으로 항해했습니다. 두로는 당시 로마의 "시리아" 지방의 일부였던 고대 페니키아(뵈니게)에 있었습니다.

21:4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이 페니키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11:19).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리스도인("제자들")들과 함께 두로

---

[1] Longenecker, p. 515.
[2] Knowling, 2:441; Alford, 2:2:234.
[3] Robertson, 3:359.

에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 "고대 세계의 해상 여행은 이용 가능한 선박을 찾고 선적과 하역으로 인한 지연을 감수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서두르다가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멈추고 이제 두로에서 일주일을 보낸 것은 모순되지 않으며, 바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1]

본문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참조, 9:16; 19:21; 20:22-24; 21:14; 23:1,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경 연구자들은 바울이 그곳으로 간 것을 비판했습니다.[2] 두로 교회의 한 명 이상의 예언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20:23) 체포될 것을 예언했고, 그의 안전을 염려한 그들은 그에게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촉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바울은 이를 금지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영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신성한 경고로 여겼습니다."[3]

>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경고보다 의무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4]

21:5-6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기 직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동료 선교사들은 헤어지기 전에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이 신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참조, 20:36).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과 의존을 반영합니다. 그런 다음 선교사들은 "배에 탔고", 그와 함께 부두까지 동행했던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1] Neil, p. 216.
[2] E.g., Darby, *Synopsis of …,* 4:89-97; Blaiklock, *Today's Handbook …*, p. 523.
[3] Kent, p. 159.
[4] Robertson, 3:360.

바울의 가이사랴로의 전진 21:7-14

21:7 "돌레마이"(구약의 악고, 현대의 아크레)는 현재 하이파(Haifa) 만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두로"에서 남쪽으로 25마일 떨어진 페니키아 최남단 항구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현지 그리스도인들("형제자매들")을 만났고, 하역자들이 배에 짐을 내리고 싣는 동안에도 그들을 만났습니다.

> "교회 가족 안에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1]

21:8-9 "가이사랴" 메리티마(Meritima)는 남쪽으로 4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고, 바울 일행은 바다나 육로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유대 지방의 수도이자 예루살렘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일곱 사람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은 20년 전에 이스라엘 해안 평야에서 복음을 전한 후 가이사랴에 정착했을 것dlqsl다(8:40; 참조, 6:5).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복음서의 빌립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네 처녀 딸"은 예언적 은사를 가지고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인도자로 봉사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참조, 대상 25:1).

초대 교회 전통에 따르면 빌립과 그의 딸들은 나중에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여성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역사에 관한 정보를 교부였던 파피아스(Papias)에게 전했습니다.[2] 누가가 이 딸들이 예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여예언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나중에 파피아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정보를 주었을 것입니다.[3]

21:10-11 아가보는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주후 46년의 기근을 예

---

[1] Barclay, p. 168.
[2] Eusebius, 3:39:126.
[3] Longenecker, p. 517; Neil, pp. 216-17.

언한 적이 있었습니다(11:26-27). 이제 그는 가이사랴로 "내려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참조, 막 9:31; 10:33; 요 21:18). 그는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예언을 시각적으로 묘사했습니다(참조, 왕상 11:29-31; 사 20:2-4; 렘 13:1-7; 겔 4장).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구약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에 해당하는 기독교적 표현입니다. 물론 아가보의 계시는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4절, 9:16). 누가가 이 예언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바울의 체포와 그 결과가 교회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된 뜻의 일부임을 독자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1:1-2; 참조, 막 10:33). 이 구절을 해석하는 일부 사람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또 다른 증거로 간주합니다.[1]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1:12 바울의 선교사 동료들뿐만 아니라 현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은 항상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계속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습니다.

21:13 그들의 "간청"(12절)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보면, 그는 체포로 인해 죽게 될지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20:3)와 다른 곳에서는 죽음의 가능성을 피했지만 여기서는 피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배 안에서 죽었다면 헌금을 전달하여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의 연합을 강화하려는 바울의 목적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다고 해서 그 목적이 좌절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결국 그의 친구들에게(14절) 주님의 뜻은 육체적 안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참조, 눅 22:42). 그는 성령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었고(19:21, 20:22),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참조, 눅 9:51).

---

[1] E.g., Gaebelein, *The Annotated …,* 3:1:302; Blaiklock, *Today's Handbook …*, p. 524.

"앞으로 닥칠 고통과 위험을 인식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기도 장면에서 하신 것과 같은 결단을 가이사랴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기도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눅 22:42)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내적 논쟁 속에서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바울의 경우 동료와 친구들은 도피라는 선택지를 제시하며 바울에게 이를 선택하라고 호소합니다. 바울은 다른 옵션을 선택합니다.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설득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21:14)라고 말함으로써 갈등은 마침내 끝이 납니다."[1]

21:14 **그를 설득할 수 없었던 바울의 친구들은 더 이상 간청하지 않고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마도 그는 가이사랴를 시험과 겟세마네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중은 그 생각을 떠올리며 그리스도의 동산 기도를 외쳤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2]

"바울은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이전 여행 중 방문한 곳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영받고 인정받으며, 이 지역들의 제자들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 큰 관심을 보입니다. 바울에 대한 광범위한 존경은 초기 선교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 즉 전도자 빌립(21:8), 예언자 아가보(21:10, 참조, 11:28), 그리고 '초기 제자'인 므나손(21:16)이 바울에게 보인 관심에서도 드러납니다."[3]

그리스도인들은 약 20세기에 걸친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에 버금가는 바울에 대한 존경심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교회 내에서 매우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는 원 독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도록 바울을 최대한 좋은 시각으로 묘사하기 위해 노력한

---

[1] Tannehill, 2:264.
[2] Blaiklock, *The Acts …*, p. 168.
[3] Tannehill, 2:262.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의 마지막 단계 21:15-16

"예루살렘"은 가이사랴에서 남동쪽으로 약 65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틀 동안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나손"(Mnason)은 교회 역사 초기에, 아마도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키프로스"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유대의 많은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인 그룹을 접대하는 데 더 개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의 중간쯤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마침내 예루살렘과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의 첫 번째 단계를 달성했습니다(19:21).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역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장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2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전개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총 2,700마일을 여행했습니다(참조, 14:28; 18:22).[1]

>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면서 임박한 고난에 대해 예언하셨고,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시고 유대인과 로마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2]

2.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21:17-23:32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로마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가 21:17-23:35에서 서술한 사건은 12일 동안 일어난 반면, 24:1-26:32에서 이어지는 사건은 2년이 걸렸습니다. 누가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 부분적으로 이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 "교회의 지리적 확장은 누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고, 오히려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의 구속사적 이동이 누가의 주된 관심사였다. 누가가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1] Beitzel, p. 177.
[2] Marshall, *The Acts …*, p. 337. Cf. Rackham, pp. 403-4.

방문 기록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것은 그 방문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복음을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1]

야고보와 장로들의 조언 21:17-26

21:17-19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한 무리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 여행에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14:27; 참조, 18:23)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이방인 형제들로부터 가져온 선물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복형제인 "야고보"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받는 지도자였지만(참조, 12:17; 15:13), 이 교회에는 장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참조, 11:30).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예수님의 이복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죽였습니다(12:2).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주된 이유였던 헌금 전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참조, 롬 15:25-27; 고전 16:1-4). 그의 목적은 주로 복음의 전파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이 촉구한 대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갈 2:10).

사도행전의 세 번째 "우리" 부분은 18절로 끝나지만, 누가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바울의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을 이야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가 다른 곳으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21:20-21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한 바울의 설명에 대해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18절)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신자가 되었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3만 명에서 5만

[1] Ladd, "The Acts …," p. 1164.

명 사이로 추산됩니다.[1] 장로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소문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리에서는 바울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받거나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보다 더 나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자녀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거나 유대교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습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를 위해 불필요하다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 "예루살렘 장로들은 다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증거를 지지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이 전도하고자 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종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울의 선교를 불신하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금기인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울의 성공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들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한 부담이었습니다."[2]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바울은 다양한 청중 앞에서 자신이 충성스러운 유대인이며 이방인을 향한 자신의 선교는 반유대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을 반대하거나 "모세"가 기록한 것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22–24 장로들의 계획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곳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물론 그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구원이 온다고 믿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따라서 그는 유대인의 문화적 관

[1] Bock, *Acts*, p. 646.
[2] Polhill, p. 447.

습을 준수했습니다(예: 이방의 부정한 땅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정결 의식; 참조, 민 19:12).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서원은 30일 미만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1]

문제의 "네 사람"은 바울이 최근에 한 것처럼 일시적인 서원을 했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18:18). 서원이 끝날 때, 그들 각자는 성전에 예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참조, 민 6:14-15). 장로들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성전 경배를 위해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제물 비용을 지불함으로써("그들의 비용")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그립바 1세도 최근 로마에서 왕위에 오르기 위해 도착했을 때 마찬가지로 유대인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냈습니다.[2]

바울은 장로들이 제안한 대로 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은 서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훼손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할례는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관습으로서의 할례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그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지만(16:3),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데 필수적인 의식으로서의 할례에는 반대했습니다(참조, 갈 2장).

21:25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방인 개종자에 대한 지시에 대해, 이전의 확신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의 요점일 뿐이었습니다(참조, 15:20, 29). 이때 바울에게 한 그들의 조언은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한 그들의 강한 신념과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21:26 유대인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에게 서원의 완성을 알리고 7일 후에 제물을

---

[1] Mishnah *Oholot* 2:3; 17:5; 18:6. Haenchen, p. 612 참조.

[2] Josephus, *Antiquities of …,* 19:6:1.

바쳤습니다(참조, 민 6:13-20). 율법에는 일주일을 기다리라는 규정이 없었지만 관습이었습니다. 바울이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거행한 것은 그가 그들의 서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참조, 고전 9:20). 몇몇 해설자들은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신념을 타협했다고 믿었습니다.[1] 그러나 이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소수의 의견입니다. 유대인들은 서원 제물(서원과 관련하여 드리는 제물)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경건의 행위로 간주했으며, 이방인의 경우 유대인과의 상징적인 동일시라고 생각했습니다.

> "사도행전 21장 26절에 보면 유대인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카이사르에게 호소하기 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 곳곳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문화의 눈에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2]

성전에서의 폭동 21:27-36

21:27-28 에베소 출신으로 추정되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분명히 불신자였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6:11, 13-14). 유대인들은 "성전"의 바깥뜰, 즉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의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울타리 너머, 즉 여인의 뜰이나 이스라엘의 뜰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들의 뜰에는 더더욱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바울과 같은 유대인 남성은 이스라엘의 뜰보다 더 멀리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방인의 신성한 울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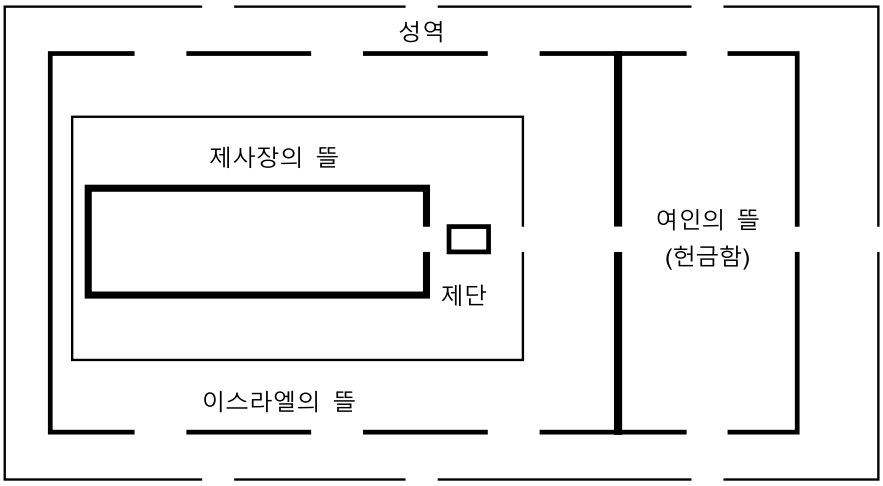
---

[1] E.g., Morgan, *The Acts …,* p. 485; idem, *An Exposition …,* p. 458..

[2] James Bryanson, *Talking About Isa*, p. 62.

즉 여인들과 이스라엘, 제사장의 뜰이 있는 구역에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1] 이 안내문은 라틴어와 헬라어로 작성되었으며 성전의 이 구역으로 이어지는 계단 밑에 있는 장벽인 소렉(Soreg)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안내문 중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2]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장벽과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잡히면 죽음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3]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이 낮은 돌 벽을 넘어 들어간 이방인, 심지어 로마 시민이라도 처형하도록 허용했습니다.[4]

21:29 "에베소 출신 드로비모"는 아시아에서 온 바울의 이방인 동행자였습니다(20:4). 아시아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드로비모가 도시에서 함께 있는 것을 "이전에도 보았"으며, 바울이 이 이방인을 "성전"의 성역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가정했습니다.

"드로비모가 자신의 의지로 금지된 지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크렘린의

---

[1] Josephus, *Antiquities of …*, 15:11:5; idem, *The Wars …*, 6:2:4; Finegan, *Light from …,* pp. 325–26 참조.

[2] Riesner, p. 194 참조.

[3] C. K. Barrett, *The New Testament Background: Selected Documents*, p. 50. 이러한 석회암 블록 중 하나의 사진을 보려면, Adolf Deissmann, *Light from the Ancient East*, facing p. 80, 혹은 Kent, p. 163 참조.

[4] Josephus, *The Wars …*, 5:5:2; 6:2:4.

사적 공간에 관광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희박합니다."[1]

21:30 바울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예루살렘 전역에 빠르게 퍼지며 열성적인 유대인 무리가 성전 뜰로 몰려들었습니다. "온 도시가 격노했다"는 표현은 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장소였지만, 그 중에서도 거룩한 도시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한 열렬한 순례자들에겐 더욱 그러했습니다."[2]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 가졌던 관점은, 신들과 아르테미스 같은 여신들을 경배하던 이방인들의 관점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3]

분명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안뜰 중 하나에서 이방인의 안뜰로 "끌고 나갔"습니다. 누가 언급한 "문"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만 출입할 수 있는 안뜰을 분리하는 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소란과, 만약의 유혈 사태로 안뜰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문을 닫았습니다.[4]

21:31-32 유대인들은 바울을 때리기 시작했고 이방인의 뜰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이나 장로들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거역한 사람들에게 흔히 행한, 이른바 "반역자 구타"였습니다 (참조, 눅 4:29; 요 8:59; 10:31).[5] 이 소동이 북서쪽 성전 지역과 연결된 안토니아 요새의 "로마" "사령관"에게 전해졌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 요새를 로마 제10군단의 병사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지휘관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23:26)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주둔한 1,000명의 병사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소동을 보고 "병사들"과 "백인대장들"(100명의 병사

[1] Marshall, *The Acts* …, p. 348.
[2] Neil, p. 220.
[3] Thomas A. Golding, "Pagan Worship in Jerusalem?" *Bibliotheca Sacra* 170:679 (July- September 2013):316.
[4] Jeremias, *Jerusalem in* …, pp. 209-10.
[5] Edersheim, *The Temple*, pp. 66-67.

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을 소집해 요새의 계단을 달려 내려가 이방인의 뜰로 달려갔습니다.

> "우리는 안토니아 요새의 '서북쪽 모서리'에 위치한, 성전으로 통하는 지하 통로와 성전 마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회랑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통해 루시아 대장은 분노한 군중에게 거의 살해될 뻔한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1]

레위 사람들은 성전 경비대를 구성했지만(참조, 4:1), 로마 군대는 도시 전체의 평화를 유지할 책임이 있었습니다.[2] 유대인들은 "지휘관과 군사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 "로마가 고집한 한 가지는 시민의 질서였습니다. 폭동은 폭동을 일으킨 민중과 폭동을 허용한 사령관 모두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3]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사역이 공공의 소동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참조, 14:19; 16:19-22; 17:5-8, 13; 19:25-34).

21:33-34 "지휘관"은 바울을 범죄자로 여겨 붙잡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바울에게 채운 "두 개의 사슬"은 아마도 바울을 두 명의 병사에게 "묶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참조, 12:6). 지휘관은 군중들로부터 바울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서로 상반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인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21:35-36 "계단"은 도시에서 요새로 올라가는 길로, 서쪽과 남쪽의 성전 마당에서 각각 이어졌습니다.[4] 35절의 계단은 성전 마당에서 요새로 이어지는 두 개의 남쪽 계단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1] Ibid., p. 37.
[2] Jeremias, *Jerusalem in* ···, pp. 211-12.
[3] Barclay, p. 172.
[4] Foakes-Jackson and Lake, 4:136.

유대인들의 분노는 바울을 즉시 찢어 버리려는 욕망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자를 없애버려라!"라는 그들의 외침은 약 27년 전 예수님에 대해 말한 그들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눅 23:18; 요 19:15; 참조, 행 22:22). 아마도 안토니아 요새는 병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에 데려간 곳일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준 감옥이기도 합니다(12:5).

유대인 무리 앞에서 바울이 변론함 21:37-22:22

"바울의 다섯 번의 변론 중 첫 번째 변론에서, 누가는 기독교의 비정치적 성격을 강조하고 (당시의 다른 메시아 운동과는 달리, 21:38 참조) 유대인들이 복음에 반대하는 주요 원인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받은 사명이라고 제시함으로써, 변증론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참조, 22:10-22)."[1]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요청하는 바울 21:37-40

21:37-38 "대장"은 바울이 3년 전에 예루살렘에 나타난 "이집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2]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추종자들을 올리브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로마인을 패배시키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던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3] 그러나 로마인은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이 남자의 추종자들을 공격해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 자신은 도망쳤습니다.

그 이집트인의 추종자들은 "암살자들"(the Assassins, 문자적으로, "단검잡이들")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망토 속에 단검을 숨긴 채 군중과 몰래 어울리며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 로마인과 친로마 유대인

---

[1] Longenecker, p. 523.
[2] Eusebius, 2:21:73-74 참조.
[3] Josephus, *Antiquities of …*, 20:8:6; 및 idem, *The Wars …,* 2:13:5.

을 몰래 찔러 죽이는 급진주의자들이었습니다.[1]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이집트인 자유투사가 더 많은 추종자를 모집하기 위해 성전 지역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으며, 그를 사기꾼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그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1:39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며,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전 뜰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로마의 도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온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다소는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고대 세계의 3대 학문 중심지 중 하나("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보(Strabo)는 철학, 문학, 일반 교육에 관한 모든 면에서 다소의 명성이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한다고 썼습니다.[2] 다소는 수십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로, 섬유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3] 또한 로마의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이자, 제국의 자유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 "고대에는 사람들이 태어난 곳의 중요성에 따라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은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의 명예에서 파생된 것이었습니다."[4]
>
> "우리는 이 사도가 태어난 시기에, 그의 아버지가 살면서 로마 시민의 권리를 누리고 있던 다소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민권이 그 가족의 출신지로서의 특권이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 오히려 이는 내전 기간 동안 영향력 있는 로마인에게 제공한 헌신의 보상으로서 그에게 주어졌을 가능성이 더

---

[1] Ibid., 2:13:3, 5; idem, *Antiquities of …*, 20:8:5, 6, 10; Eusebius, 2:20:73. 또한 Richard A. Horsley, "High Priests and the Politics of Roman Palestine,"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17:1 (June 1986):42–43; 및 Mark A. Brighton, "The Sicarii in Acts: A New Perspectiv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4:3 (September 2011):547–58 참조.

[2] Howson, pp. 18, 32에서 인용됨.

[3] Bock, *Acts*, p. 658.

[4] Witherington, *The Acts …,* p. 663.

높습니다. 내전 기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잡혀갔고, 그 후 해방되었습니다. 적절한 절차로 해방된 노예는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1]

21:40 **바울의 자격 증명은 로마 지휘관이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군중에게 말하도록 허용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호민관의 권위에 존중을 표시했으며, 교육받은 사람의 그리스어로 말했고, 상당한 명예와 지위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근거로 호민관의 행동은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그는 바울이 자신이 주장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었으며, 자신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사회적 지위인 사람을 거부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항상 매우 현명하지 않았습니다."[2]

바울은 군중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그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제스처였습니다(참조, 12:17). 바울은 그리스어가 아닌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인 아람어("히브리어 방언")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3] 이는 듣는 사람들이 그가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 22:1-21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등장한 연설은 주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심의적 수사학(deliberative rhetoric)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장에서 26장까지의 연설은 주로 방어적이고 변증적인 목적을 위한 법정 수사학(forensic rhetoric)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4]

바울은 자신의 민족과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성전에 대한 불충실함이라는 혐의에 대해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참조, 21:28). 열정적인 유대인 청중들은 바울이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특히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

[1] Howson, p. 38.
[2] Witherington, *The Acts …,* p. 664.
[3] Cf. Edersheim, *Sketches of …*, pp. 20-21.
[4] 이러한 유형의 연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therington, The Acts …, pp. 660-61 참조.

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마 10:16-20; 막 13:9-11) 성령이 주님의 종에게 즉석해서 말해야 할 말을 주시는 훌륭한 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모든 연설은 변론입니다.

> "이 부분[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여행 기록과 변호 연설의 혼합물로, 사도행전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1]

> "이 연설은 열렬한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바울로 시작되며(2-5절), 바울이 회심하여 의로우신 분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으로 이어집니다(6-16절). 이 연설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나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져 자신의 간증을 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17-21절)."[2]

22:1-2 **바울은 스데반이 사용한 것과 같은 표현으로 청중을 따뜻하고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형제들, 아버지들"(7:2).**

> "그래서 성 스데반은 다소의 사울이 있던 비슷한 집회에서 연설을 했으며, 사울은 이제 첫 순교자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죄로 기소되었습니다."[3]

아람어를 사용한 것은 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 "(적대자들의 눈에) 성 바울의 진정한 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고, 진정한 이단은 그의 복음이 말한 특권의 평등이었다. 따라서 그는 (1)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을 주장하고, (2) 그의 설교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다고 변호했다."[4]

22:3 **바울은 자신의 연설을 자신의 회심 전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통적인 배경과 당대 가장 존경받는**

---

[1] Bock, *Acts*, p. 654.
[2] Lenski, p. 900.
[3] Knowling, 2:456.
[4] Rackham, p. 407.

유대인 교사인 "가말리엘"(참조, 5:34 및 이 구절에 대한 저의 해설) 밑에서 받은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의 나이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성 크리소스톰의 설교에서 인용된 구절에 따르면, 바울은 우리 시대 주전 2년에 태어났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후 66년에 6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가정할 때입니다. 이 날짜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설교의 진위 여부는 의문입니다..."[1]

바울은 어린 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일부는 그가 이 시기를 다소에서 보냈다고 믿습니다.[3] 한 견해는 바울이 10세에서 12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4] 또 다른 견해는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13세 또는 14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5] 해석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이 구절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구문 분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배경을 언급한 이유는,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만큼 "하나님께 열성적"이었고 유대인의 유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참조, 갈 1:14).

22:4-5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분명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죽을 때까지 "박해"했기 때문입니다(참조, 9:1-2). 이것이 바로 그의 청중들이 바울에게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산헤드린("장로회")의 대리인으로서 그 일을 행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마스쿠스까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쫓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22:6-9 바울은 다음으로 자신의 회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

[1] Howson, p. 37.
[2] W. C. van Unnik, *Tarsus or Jerusalem: The City of Paul's Youth*, pp. 9, 28.
[3] E.g., Richard N. Longenecker, *Paul, Apostle of Liberty*, pp. 25-27.
[4] Howson, p. 43.
[5] Robertson, 3:386. Cf. Knowling, 2:457.

주신 초자연적인 계시를 강조했습니다. 그 계시는 그의 인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 기록은 누가(9:3-19)와 바울(26:12-18)이 우리에게 전달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다른 두 기록과 일치합니다(참조, 또한 고후 12:2-4). 이 경우에도 26장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청중에게 특히 중요했을 특징을 강조했습니다. 22장의 청중은 유대인이었고, 26장의 청중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바울이 청중에게 맞게 말을 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3-6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이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바울의 관점과 이해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 메시아였습니다. 바울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8절)라고 물었을 때, 그는 아마도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분을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참조, 9:5). 바울의 여행 동료들은 "빛을 보았고" "말하는 분의 음성"을 들었지만, 바울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9절; 참조, 9:7; 26:14; 요 12:29).

22:10-11 바울은 좋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은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다마스쿠스"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더 자세한 지시를 받기 위해 그곳으로 가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22:12-13 바울은 "아나니아"를 "[모세] 율법의 기준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며, 동료 유대인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바울은 누가가 9장에서 기록한 것보다 여기에서 아나니아의 말을 더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존경받는 유대인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바울에게 유대인의 용어로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14-15절). 바

울은 경건한 유대인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했다는 사실로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22:14-15 바울은 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누가가 9장에 기록하지 않은 몇 가지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전했습니다(9:15-16).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그에게 나타나신 분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참조, 3:14). 이 하나님의 칭호는 유대인의 고유한 표현입니다. 야훼께서는 바울이 "자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고, "의로운 자(메시아, 나사렛 예수, 8절)를 보기"를 원하셨으며, 그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게 하셨다"). 아나니아는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을 "그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시는 바울의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을 정당화했습니다.

>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졌습니다[15절],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는 눅 2:30-32와 3:6에서 이미 발표된 대로, 두 그룹을 구원에 포함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주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1]

로마서 11:13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이방인들에게만 보내진 사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조, 딤전 2:7). 사도행전은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사역을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16 16절은 물의 침례가 죄를 씻어 준다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는 일부 독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다른

[1] Tannehill, 2:280.

곳에서 물의 침례를 영적 정화의 수단으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영적 정화의 결과 및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고전 6:11; 벧전 3:21). 영적 정화의 수단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믿음을 "의로운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14절, 즉 예수님; 참조, 욜 2:32).

바울은 다마스쿠스 도로에서 아나니아의 설득으로 곧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분명히 중생을 경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신성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10절; 참조, 갈 1:11-12; 행 9:17-18). "부르며"(calling on)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피칼레사메노스(*epikalesamenos*)는 "부른 후에"(having called on)를 의미하는 부정과거(aorist) 분사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위해 주님을 부른 지 며칠 후에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 "침례는 구원의 방법(그리스도와 동일시됨)을 상징하고, 씻는 것은 그 결과(죄로부터의 정화)를 상징합니다."[1]

22:17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 그에게 사명을 확인하셨습니다(9:26-29; 갈 1:18-19). 이는 바울이 회심한 지 3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시를 내리셨을 때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유대인 군중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22:18-20 "무아경"(a trance, 환상) 속에서 부활하고 승천한 나사렛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지시를 앞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9:29-30). 대신 바울의 동료 신자들이 그를 다소로 보내는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주님의 명령과 일치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께서 증언의 장소로 정하신 곳이며, 성전은 하나

[1] Kent, p. 166. 또한 Robertson, 3:391-92 참조.

님의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비록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지만, 그곳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2:21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그에게 계시하신대로 이방인"에게로 가야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은 바울에게 "멀리 있는" 이방인, 즉 유대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참조, 2:39).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방인들에게만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F. F. 브루스(Bruce)는 바울의 연설을 서술함에 있어 누가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ydides)의 전례를 따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역사서에서 연설문을 직접 작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설자들이 말한 일반적인 의미를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썼습니다.[1] 성령의 영감으로 누가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인도를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연설을,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요약했다고 동의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 22:22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여러 번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예: 요나, 바리새인들, 마 23:15; 등). 그 계시가 바울의 청중을 분노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화나게 한 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와 그 제도를 먼저 소개하지 않고 메시아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단 중의 최고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청중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고 바울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한 이유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방아쇠가

[1] F. F. Bruce, "Paul's Apologetics …," p. 379.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대다수가 이제 예수님, 베드로, 요한, 스데반, 바울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것은 복음에 대한 최종적이고 중요한 거부입니다..."1

글라우디오 루시아 앞에서 바울이 변론함 22:23-29

22:23-24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아람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의 혼란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는 폭동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협박하고 필요시 고문하여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유형의 구타("채찍질")는 뼈나 금속 조각이 박힌 가죽 조각을 단단한 나무 손잡이에 고정해 피가 흐르게 하는 폭력적인 채찍질입니다. 채찍질은 보통 죽음이나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했습니다.[1]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선언한 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같은 유형의 구타였습니다(마 27:26; 요 18:38-19:1). 이것은 바울이 경험한 최악의 구타였을 것입니다(참조, 16:22-23; 고후 11:24-25).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바울은 또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9:16). 그 고난은 점점 예수님의 고난과 비슷해 보이며(참조, 21:11-14; 22:22),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련의 재판과 위협을 포함합니다. 재판은 훨씬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더 자세한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재판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모두 유대인 공의회, 로마 총독, 유대인 왕 앞에 서야 했습니다. 둘 다 반복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석방되지는 않았습니다."[2]

22:25 로마 법은 재판을 받기 전의 "로마" 시민들을 채찍질(라틴어 *flagellum*)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

---

[1] 로마의 네 가지 종류의 채찍 그림을 보려면, Witherington, *The Acts …,* p. 676 참조.

[2] Tannehill, 2:282.

다.[1] 바울이 석방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자제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 순교는 피할 수 없을 때만 가치가 있다."[2]

"바울은 16.37에서와 같은 이유로 사슬에 묶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그는 그들(그를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항할 법적 수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3]

22:26-28 클라우디우스 황제(주후 41-54년)의 통치 기간에는 높은 대가를 지불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이름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어떤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휘관은 그 황제 통치 기간에 시민권을 구입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국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로마 장군이나 고위 관리에게 귀중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4]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도 이런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의 아들로 태어난 바울은 이 지위를 물려받았으며, 다소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다소는 자유 도시로, 빌립보와 같은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시민은 시민권을 구입한 로마인보다 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5]

로마 시민들은 지위를 증명하는 문서를 안전한 곳에 보관했으며, 외부적으로 시민임을 나타내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임을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을 거짓으로

---

[1] Longenecker, "The Acts ⋯," p. 528. Cf. Josephus, *The Wars ⋯,* 2:14:9.
[2] Morgan, *The Acts ⋯,* p. 383.
[3] Keener, *Bible Background ⋯*, p. 390.
[4] F. F. Bruce, *Commentary on ⋯*, p. 446.
[5] 로마 시민권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Witherington, *The Acts ⋯,* pp. 679-84 참조.

주장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1]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바울] 시민 등록을 증명하는 목제 디프티크(*diploma*)를 소지하고 있을 것입니다."[2]

22:29 **병사들은 바울을 체포하기 전에("사슬로 묶다")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 범죄로 공식적으로 기소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행동으로 가득 찬 하루의 이야기는 바울이 자신이 보내어진 두 세계의 완전한 구성원임을 나타내는 이 지점에서 끝납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22:3)이자 로마 시민입니다."[3]

산헤드린 앞에서 바울의 변론 22:30—23:10

"누가가 산헤드린 앞에서 바울의 변론을 기록한 구조는 불규칙적이며, 이는 재판이 진행될 때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누가의 변증적 목적과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 기독교는 유대인의 죽은 자의 부활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참조, 23:6); (2) 바울이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 벌인 논쟁은 우선 유대인들 사이의 내부 문제로 보아야 한다(참조, 23:7-10); 그리고 (3) 이방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다(참조, 23:11)."[4]

22:30 **지휘관은 바울을 쇠사슬에서 "풀어주었"지만, 그를 구금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산헤드린("공의회")이 조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신은 이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기관이 바울을 심문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자신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유지하는 책**

---

[1] Suetonius, "The Deified Claudius," in *The Lives of the Caesars*, 2:5:25.
[2] Bock, *Acts*, p. 664.
[3] Tannehill, 2:284.
[4] Longenecker, "The Acts …," pp 529–30.

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의 죄가 경미하다면 글라우디오가 그를 석방할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에게 종교적 범죄를 적용한다면 산헤드린이 그를 재판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에게 시민적 범죄를 적용한다면 로마 지방 총독이 그를 재판할 것입니다.[1]

이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 산헤드린이 모인 여섯 번째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검토하기 위해 모였을 때(요 11:47-53)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판이었습니다(마 26:57-68; 27:1-2; 막 14:53-65; 15:1; 눅 22:66-71). 세 번째 회의는 베드로와 요한의 재판(4:5-22)이었고, 네 번째는 열두 제자의 재판(5:21-40)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스데반의 재판(6:12-7:60)이었습니다.

23:1 명백히 바울은 다시 한 번 증언을 하려고 했으며, 이번에는 산헤드린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공식적인 호칭("형제들", 문자적으로, "사람들, 형제들", Gr. "안드레스 아델포이"[*andres adelphoi*])을 사용해 이 단체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투로 드러냈는데, 이는 그의 유대교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전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고 자주 주장했습니다 (참조, 20:18-21, 26-27; 24:16; 롬 15:19, 23; 빌 3:6; 딤후 4:7).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양심을 약 23번 언급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장은 그가 말하려고 하는 자신의 행적이 히브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의 그리스도인 신앙과 행실은 그의 유대인 유산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 "물론 그는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며, 롬 7장에서 언급한 내적 영적 갈등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언급은 그의 삶의 외적인 면

[1] 산헤드린에 대한 정보는 4:5에 대한 주석을 참조.

과 율법의 요구에 따라 평가된 그의 행위의 흠없음을 의미합니다(참조, 빌 3:4-6)."[1]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잘못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양육, 훈련, 선전 활동, 즉 인생의 경험에 의해 프로그램된 마음의 일부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옳다고 믿게 된 것에서 벗어나기 전, 그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2]

23:2 바울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분노하여 병사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폭력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일까요? 아마도 아나니아는 바울을 변절자, 즉 전통적인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나니아에게 모독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두개파인 아나니아는 이미 바리새파였던 바울이 유죄라고 마음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대제사장의 부하도 예수님이 산헤드린 앞에서 증언할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참조, 요 18:20-23).

아나니아는 주후 47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서와 4:7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은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던 시절에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분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아나니아를 비열한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일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십일조를 자신의 용도로 빼앗았고, 로마인과 유대인에게 큰 뇌물을 주었습니다. 황제는 한때 그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그를 로마로 소환했지만, 그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암살까지도 저질렀습니다. 그는 또한 로

[1] Kent, p. 168, 각주 19.
[2] Philips, pp. 9-13 참조.

마에 매우 우호적이었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의 앞에 서 있고나서 9년 후인 주후 66년에 로마에 대항한 봉기에서 그를 암살했습니다.[1]

23:3 유대 법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했지만, 아나니아는 바울이 기소되기도 전에, 심지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그를 처벌했습니다. 바울은 분개하여 아나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했습니다. "회칠한 벽"은 구조적으로는 열악하지만 겉으로는 보기 좋은 벽을 의미합니다(참조, 겔 13:10-16; 마 23:27). 바울의 반응은 극단적이었지만, 그가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바울의 반응이 그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2]

> "바울은 죄악된 열정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 거룩한 열정으로 말한 것이지, 복수심에서 말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정죄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법, 자연법과 실정법에 모두 위배되는 일입니다. 법에 따라 심판할 의무가 있는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3]

23:4-5 바울은 병사에게 그를 때리라고 명령한 사람이 대제사장임을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20년 이상 예루살렘에 장기간 머문 적이 없었으며, 현재의 대제사장을 얼굴로 알아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복장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행사는 산헤드린의 정기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4] 또는 바울이 아나니아가 그를 때리라고 명령할 때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

---

[1] Josephus, *The Wars …*, 2:12:6; 2:17:6, 9; *Antiquities of …*, 20:5:2; 20:6:2; 20:9:2, 4. Cf. Wiersbe, 1:494.

[2] E.g., Gaebelein, *The Annotated …,* 3:1:304.

[3] Henry, p. 1729.

[4] Longenecker, "The Acts …," p. 531; Ger, p. 282.

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시력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1] 그러나 1절에 비추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부 주석가들이 바울의 시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인용하는 구절(갈 4:13-15)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바울이 아이러니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2] 일부 해석자들은 바울이 단순히 화를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3]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사과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4] 바울은 다른 경우에도 비슷한 열정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참조, 갈 2:11; 5:12; 빌 3:2).

"대제사장"은 다른 산헤드린 회원들보다 더 높은 의미에서 유대인의 "통치자"였습니다. 바울이 출애굽기 22:28을 인용한 것은, 그가 거부한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부 당국에 복종하는 것은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참조, 롬 13:1-7; 등). 바울은 구약에 따라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23:6 바울은 자신이 옹호한다고 공언하는 법조차 지키지 않는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술을 바꿨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다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형제들아"). 이번에는 그가 공세에 나섰습니다.

"소망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문제는 바울의 사건에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참조, 17:32).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은 히브리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부활에 달려 있었습니다.

---

[1] Alford, 2:2:253; McGee, 4:614.
[2] Marshall, *The Acts …*, p. 364; Neil, p. 228.
[3] Ironside, *Lectures on …*, p. 537.
[4] Kent, p. 168.

부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바울은 고소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 "바울은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소망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계속 되풀이합니다(참조, 24:15, 21; 28:20). 이 주제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 바울이 하는 절정의 변론에서 중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26:6-8, 23). 바울은 산헤드린 재판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단순히 도입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판의 전체적 문제를 바꾸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 노력은 후속 장면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소망과 죽은 자들의 부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의 의미는 이 주제의 후속 장면에서의 발전 과정을 고려할 때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1]

23:7-8 **바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산헤드린을 분열시켰습니다. "사두개인"는 "부활"의 가능성과 선한 "천사"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바리새인"은 이러한 것들을 믿었습니다.[2]**

23:9-10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편에 서고,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논쟁은 바울의 행적을 진지하게 조사하거나, 심지어는 그에게 제기된 혐의를 명확히 밝힐 가능성조차 배제했습니다. 더구나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로에서 (22:6-11) 또는 성전에서 (22:17-21)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한 것을 옹호했지만, 사두개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로마 지휘관은 당황하여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찢겨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요 18:28-19:15).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을 요새("병영", 참조, 21:34)에**

---

[1] Tannehill, 2:287.

[2] 4:1과 5:34에 대한 주석 참조. 사두개인들이 천사에 대해 믿었던 여섯 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Bock, *Acts*, pp. 671-2 참조. 천사와 영이 모두 죽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견해에 대한 논의는, Witherington, *The Acts …,* pp. 692-93 참조.

보호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주님의 격려 23:11

바울은 자신이 처한 이 난국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의아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그 날 밤"(Gr. 테 에피우세 뉘크티[*te epiouse nyktí*])에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고(참조, 9:4-6; 16:9; 18:9-10; 22:17-21; 27:23-24; 창 15:1), "그 옆에 서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모두 그의 인생에서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1:8). 이 계시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목적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들에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 "예수님의 증인들이 이전에 투옥되었을 때, 감옥 문이 기적적으로 열렸습니다(5:17-21; 12:1-11; 16:23-26).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확신이 기적적으로 문을 여는 것을 대신해야 합니다. 감옥에서 구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증인이 수년간의 투옥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1]

> "[주님으로부터 온] 이 보증은 다음 2년 동안의 지연과 불안 속에서 바울에게 큰 의미가 있었으며, 그를 사건의 희생자가 아닌 사건의 주인으로 보일 만큼의 침착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설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2]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 23:12-24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에 대한 음모에 관해 가장 상세하게 묘사된 부분입니다(참조, 9:23-25, 29-30; 20:3).

23:12-15 바울의 적들("유대인들"; 참조, 21:27-29)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함께 합의한 것이 분명합니다(참조, 요 16:2). 그들의

---

[1] Tannehill, 2:292.

[2] F. F. Bruce, *Commentary on …*, p. 455.

계획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로마의 "지휘관"에게 바울을 산헤드린으로 돌려보내 추가 심문을 받게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암살자들은 안토니아 요새와 산헤드린 법정 사이의 거리에서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두 건물은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음모자들은 바울의 로마 경비대가 그 과정에서 일부 동조자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 "이 맹세는 표면상 자살적이었지만, 랍비들이 외부 상황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참가자들을 처벌에서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1]

23:16-17 우리는 누가가 여기에서 언급한 것 외에는 "바울의 누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다소, 또는 다른 곳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인 그녀의 "아들"은 암살자 편이 아닌 그의 삼촌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직계 가족에 대해 언급된 것은 이것뿐입니다. 다른 저자들은 20대 및 30대의 사람들과 더 젊은 남성을 지칭하기 위해 "젊은이"(17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neanian*을 사용했습니다(참조, 7:58; 20:9). 그러나 19절은 그가 10대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울은 보호 감호에 있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가 수감되어 있던 막사에서 방문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백부장을 불러 특정 호의를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 "오늘날에는 매우 경건하고 진실하며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게 암이나 다른 질병에 대해 의사의 진찰을 받지 말고 주님이 저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제 문제를 위대한 의사(the Great Physician)께 맡겼고, 그분이 의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조카에게 '소식을 알려 주어

[1] Neil, p. 230.

서 고맙지만, 나는 주님을 신뢰하므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러한 수단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그 수단을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1]

23:18-22 지휘관은 바울의 조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대제사장이 이 암살 음모에 가담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3:23-24 지휘관은 예루살렘의 바울의 적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한 폭동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글라우디오는 그를 로마의 지방 수도로 보내기 위해 밤을 틈타 중무장한 경호대를 동원했습니다. 병사의 총 수는 *dexiolaboi* ("창병")라는 단어의 의미에 따라 270명이나 470명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병이나 말 탄 병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2] 문제는 200명의 보병과 70명의 기병 외에도 200명의 "창병"이나 200마리의 추가 말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밤 제3시"는 오후 9시였습니다. 바울이 밤에 비밀리에 도시를 떠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참조, 9:25; 17:10).

분명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신의 기록에 로마 시민의 암살 사건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바울의 경비병들은 계속해서 로마 시민에게 마땅한 존경심으로 바울을 대했습니다. 지휘관은 바울이 탈 말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불안한 시기와 유대인의 광신주의를 고려할 때, 호위대의 규모는 과하지

[1] McGee, 4:616.
[2] Longenecker, "The Acts …," p. 535; Neil, p. 231.

않습니다."[1]

벨릭스에게 보낸 루시아의 편지 23:25-30

23:25 지휘관은 바울의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을 바울과 함께 보내야만 했습니다. 누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편지"에 포함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26 사도행전에서 지휘관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된 부분입니다. 그의 그리스 이름은 "루시아"(Lysias)였으며,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참조, 22:28) 로마 황제의 이름인 "글라우디오"(Claudius)를 그의 이름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벨릭스"는 유대 지방을 포함하는 로마의 시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2]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벨릭스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참조, 1:1; 24:2; 26:25).

23:27 지휘관은 사실에 따라 자신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성전 마당에서 "구출했다"고 언급했지만, 바울을 거의 채찍질할 뻔했다는 사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에서 새롭게 언급된 것은 바울의 체포가 "유대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이는 분명히 유대인 성전 경비대를 의미합니다. 루시아는 바울을 구출했다고 썼고, 이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휘관은 바울을 체포("구출")한 후에야 그의 로마 시민권을 알게 되었습니다(21:34; 22:26-27).

23:28-30 특히 중요한 것은 루시아의 판결에서 바울은 "사형이나 투옥될 만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참조, 요 18:38). 그의 사건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의문"에 불과했습니다(참조, 18:14-15의 갈리오). 이 판결은 바울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유리한 또 다른 로마 관

[1] Ibid.
[2] Cf. Josephus, *The Wars* …, 2:12:8.

리의 판결이었고, 누가는 이 사실을 신중하게 기록했습니다(참조, 19:40; 23:9; 25:25; 26:31-32). 바울이 출두한 모든 로마 치안관들(갈리오, 루시아, 벨릭스, 베스도)은 바울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 그를 기소하려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이사랴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돌아옴 23:31-32

로마의 대규모 "병사들"은 바울을 유대 고지대와 셰펠라(산기슭)를 통해 "밤중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7마일 떨어진 "안디바드리"(Antipatris)라는 마을로 호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병들은 안디바드리에서 예루살렘의 병영으로 돌아갔지만, 남은 70명의 기병(기병대)은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남은 길을 호위했습니다. 가이사랴까지 남은 28마일은 유대인 인구가 희박한 평탄한 지형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거리를 낮에 이동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사용하셨고, 땅 끝까지 증언하기 위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3. 가이사랴에서의 사역 23:33-26:32

바울은 포로로서 가이사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누가는 주로 기독교의 합법성을 재강조하고, 여러 로마 관리들이 기독교를 면밀히 조사한 것을 묘사하며, 바울의 연설에서 주요 주제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 가이사랴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약 3장을 할애했습니다.

벨릭스에게 소개된 바울 23:33-35

23:33 이 당시 유대 지방의 "통치자"(총독)은 안토니오 벨릭스(Antonius Felix,

주후 52-59)였습니다.[1]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이 직책을 맡았습니다. 벨릭스는 낮은 신분에서 출세한 가혹한 통치자로 유명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는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 "… 안토니우스 펠릭스는 모든 종류의 잔혹함과 욕망을 행하며, 왕의 권력을 노예의 본능으로 휘둘렀다."[2]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지만, 로마의 권력자, 이 경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로부터 자유를 얻은 해방 노예였습니다. 그는 로마 지방의 총독이 된 최초의 전 노예였습니다.[3] 벨릭스는 영향력 있는 형과 이기적인 정치 활동, 그리고 세 번의 계산적인 결혼을 통해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통 유대인, 특히 로마의 주요 인물과 친로마 유대인을 암살하여 로마의 통치를 전복시키려는 테러리스트인 "암살자"들을 매우 가혹하게 대했습니다(참조, 21:37-38 및 위의 구절에 대한 주석).[4]

23:34-35 벨릭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울의 고향 "지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 외에도 자체 통치자가 있는 제국의 지역에서 왔다면, 그 지역 당국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눅 23:6-12 참조). 그러나 "길리기아"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바울을 직접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법에 따라 바울의 "고소인"들의 증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벨릭스는 바울을 총독의 공식 거주지인 "헤롯의 관저"(Herod's Praetorium)에 구금했습니다. 이 건물은 헤롯 대왕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발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는 그곳에 머물렀고, 그 후 심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총독의 궁전에

---

[1] Cf. F. F. Bruce, "Chronological Questions …," pp. 284–87; David W. J. Gill, "Acts and Roman Policy in Judaea,"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21–25.

[2] Tacitus, *The Histories*, 5:9.

[3] Barclay, p. 184.

[4] Josephus, *The Wars …,* 2:13:3.

는 수감자들을 위한 감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공식적으로 범죄로 기소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변론함 24장

"죄수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것은 그 도시에서 2년간의 투옥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두 명의 지방 총독과 한 왕에게 자신의 사건과 기독교 복음에 대해 진술하며, 주님이 그의 사역에 대해 예언하신 한 가지 측면을 성취했습니다 ["… 그는 이방인과 왕들 앞에서 내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내가 택한 도구다"](9:15)."[1]

"누가는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변론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1)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 (1-9절), (2) 바울이 이러한 고발에 대해 반박한 내용 (10-21절), (3) 벨릭스의 반응 (22-27절)을 거의 같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교활한 고발과 벨릭스의 악명 높은 잔인함과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벨릭스 앞에 출두한 것으로부터 (1) 그리스도교는 정치적 반란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2)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반대는, 유대교의 소망에 대한 정당한 성취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2]

바울에 대한 고발 제기 24:1-9

24:1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증오의 열기는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급히 떠난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닷새 뒤에"는 분명히 바울이 성전 뜰에서 체포된 후부터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참조, 11절, 21:27).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아나니아" 자신과 일부 유대인 "장로들"이 함께 여행을 떠났고,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을 대변할 특별 "변호인"을 고용한 사실에서도 분명하게

[1] Kent, p. 172.
[2] Longenecker, "The Acts …," p. 538.

드러납니다. “더둘로"(Tertullus, “Tertius”의 축소형; 롬 16:22)는 그의 로마 이름으로 보아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로마의 이방인, 즉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rhetoros*)를 번역한 것으로, 특히 웅변에 능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24:2-4 바울의 시대에는 공식 연설에서 관료들에게 아첨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합당하지 않은) 칭찬을 쏟아부었습니다. “각하”(most excellent)라는 칭호는 “벨릭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벨릭스는 잔인한 통치자였고, 그의 관할 지역에서 존재했던 “큰 평화”는 평온함이 아닌 공포의 결과였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평화를 방해하는 자라고 고발하기 전에 벨릭스를 평화의 유지자로 칭찬했습니다(5-6절).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로마 관료의 주요 책임이었기 때문에, 더둘로의 말은 벨릭스가 이 변호사에게 긍정적으로 기울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펠릭스의 “개혁”은 오히려 숙청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연사들은 보통 더둘로처럼 간결하게 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4:5 더둘로는 바울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정치적 혐의(소요를 일으키는 자), 개인적 혐의(이단), 종교적 혐의(신성모독). 그는 이 모든 혐의를 요약해 바울을 “공공의 위협”이라고 부르며 소개했습니다.

첫째, 더둘로는 바울을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로마가 세계 평화 유지를 추구했기 때문에 심각한 혐의였습니다. 유대인의 반란은 로마 관료들에게 지속적인 문제였습니다.

둘째, 더둘로는 바울을 주류 유대교의 외곽에 있는 컬트의 지도자(“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로 묘사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용인했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에는 “나사렛파”는 유대교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칭호는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독교에 대한 독특한 이름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의 믿음을 가능한 한 나쁘게 들리도록 이 이름을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 "그 [두 번째 혐의]는 바울을 메시아 운동과 연결시켰고, 로마인들은 거짓 메시아들이 어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광적인 봉기로 몰아넣어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르고서야 진정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1]

처음 두 가지 혐의는 바울이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에게도 비슷한 정치적 반역죄를 적용했습니다(참조, 눅 23:2, 5).

24:6-8 세 번째로, 더둘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모독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유대인들이 바울이 실제로 드로비모를 성전 경내로 데려갔다고 주장한 이전 혐의(21:28-29)를 완화한 것이었습니다. 더둘로는 그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둘로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했다"는 진술은 루시아의 보고서(23:27)와 일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그 자리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21:31-33). 더둘로는 아마도 그 사실을 생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유대인을 매우 나쁜 빛으로 보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혐의는 바울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유대인에게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처형할 권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24:9 바울을 고발한 모든 사람들("유대인들")은 더둘로의 고발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벨릭스가 로마의 평화를 어지럽힌 반란의 지도자들을 반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가 바울을 빨리 처형

[1] Barclay, p. 185.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1]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변론함 24:10-21

24:10 바울의 칭찬으로 시작된 소개는 진실되고 정직했습니다("수년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벨릭스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과 10년 이상 접촉해 왔으며, 처음에는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는 유대 지역에서였습니다. 바울의 도입부는 더둘로의 개시 발언보다 더 짧았습니다.

> "더둘로는 뛰어난 연설가로 알려져 있지만, 바울은 그의 말을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한 연설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2]

24:11 바울이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라고 더둘로가 첫 번째로 기소한 것에 대해 (5절), 바울은 예루살렘에 "12일"밖에 머물지 않았다고 말하며, "공공의 위협"이 될 만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고 암시했습니다(5절). 그는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돈을 가져다주고 야훼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갔다고 말했습니다(17절; 참조, 갈 2:7-9).

24:12-13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논쟁"을 벌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나 "회당" 또는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공공의 위협"이었거나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켰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5절).

24:14 바울은 두 번째 혐의인 "종교 단체를 이끌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믿음이 히브리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더둘로가 주장한 것처럼 바울과 그의 고발자 사이의 갈등이 정치적이지 않고

---

[1] Josephus, *The Wars …*, 2:13:2-5.

[2] Tannehill, 2:298.

종교적인 것임을 벨릭스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 "여기에는 두 가지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확장함] (1) 우리 민족은 그들이 종파(sect)라고 부르는 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그들과 저의 차이는, 저는 그들 중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고, 그 민족의 또 다른 종파, 즉 그 민족의 종교적 파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그 파의 수장을 따라서 나사렛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유로, 이 이유만으로 저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2) 로마 법은 모든 민족이 자신의 신을 경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종교의 다른 종파에 속하여, 그들과 마찬가지로, 내 선조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니, 그 법 아래서의 보호를 요구합니다."[1]
>
> "예언자들과 율법이 언급된 것은 메시아적 소망에 대한 언급이 의도되었음을 보여줍니다."[2]

바울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참조, 엡 2:11-22). 그의 주장은 그의 믿음이 구약에 예언된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4:15 아나니아는 사두개인으로, 사두개인들은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23:8). 따라서 벨릭스는 바울과 아나니아가 이 신학적 문제에서 강하게 의견이 달랐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함께 가이사랴로 간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유대인 전체의 신학적 보수적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분명히 이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예: 시 16:10-11; 단 12:2).

이 구절은 바울이 "의인과 악인 모두의 부활"을 믿었다는 신약성경의 유일한 언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받기 위해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예: 단

---

[1] Jamieson, et al., p. 1128.

[2] Knowling, 2:483.

12:2; 마 25:31-33, 46; 요 5:28-29; 행 10:42; 17:31; 계 20:12-15).

24:16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책망할 것이 없는 양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양심"은 죄책감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양심은 죄책감이 없는 양심입니다.

24:17-18a 바울은 더둘로가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6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그곳의 유대인들에게 "구제물"을 주고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구제물"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이 "내 민족에게" 구제물을 가져왔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1] 이 구제물은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모금을 의미합니다. "제물"은 네 사람이 서원한 비용을 바울이 지불한 것(21:23-26)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는 "정결례를 마친 후" 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를 "작당이나 소동 없이" 행했습니다.

24:18b-19 바울은 정결 예식을 질서정연하게 마친 직후에 다른 "아시아 출신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생각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닌 그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원래 고발자들("아시아 출신 유대인들")이 그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참석해야 했습니다. 산헤드린은 아마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고발"에 근거가 없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를 배제했을 것입니다.

> "로마 법은 고발을 포기한 고발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과했으며(*destitutio*), 고발자의 사라짐은 고발의 철회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그

[1] Adolph Harnack, *The Date of the Acts and of the Synoptic Gospels*, p. 74.

들의 부재는 그가 로마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받을 만한 근거가 그들에게 없음을 암시했습니다."[1]

24:20-21 바울의 현재 고발자들(아나니아, 일부 유대인 장로들, 그리고 1절에 언급된 더둘로)은 그가 그 기관 앞에 출두했을 때 산헤드린이 그를 유죄로 판결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이견은 그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벨릭스가 유대인 백성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신학적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가장 위대한 점 중 하나는 그가 자신의 변호에서 힘차게, 열정적으로, 때로는 분노의 빛을 보이며 말하지만, 그의 가장 훌륭한 행동들이 잔인하고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이나 쓴맛의 톤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2]

바울의 심문 결론 24:22-23

24:22 벨릭스는 여러 출처에서 기독교("그 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출처들은 그의 현재 아내(헤롯의 후손인 유대인), 유대에서 온 로마인과 유대인, 그리고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 온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는 바울의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고소한 자들로부터 그를 분리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루시아"는 이미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23:26-30)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벨릭스는 바울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24:23 바울이 루시아가 가이사랴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사도는 "구금"되어 있었지만, 상당한 개인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으며, 유대인 적들로부

---

[1] Longenecker, "The Acts …," p. 541.

[2] Barclay, p. 186.

터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친구들"에는 아마도 아리스다고, 누가, 그리고 복음 전도자 빌립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27:2; 21:8).

벨릭스에게 행한 바울의 후속 사역 24:24-27

24:24 "며칠 후" 벨릭스는 그의 현재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들였"습니다. 벨릭스가 특히 관심을 가진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드루실라는 주후 37-41년, 유대인의 땅을 다스린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죽음을 승인한 사람(12:1-2)이며, 베드로를 투옥한 사람(12:3-11)입니다.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로, 16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주후 57년) 19세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시리아에 속한 에메사(Emesa) 왕 아지주스(Azizus)의 아내였지만, 벨릭스가 그 결혼을 파기시키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1]

벨릭스 자신도 두 번의 결혼을 했으며, 첫 번째 부인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결혼을 정치 경력을 쌓기 위해 이용했습니다. 물론 헤롯 가문은 이두메아인, 즉 일부는 이스라엘인이고 일부는 에돔인이었습니다. 드루실라는 결국 베수비오 산의 분화로 벨릭스의 아이와 함께 사망했습니다.[2] 누군가는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말했을 때, 노예 상태가 된 왕족이 왕의 노예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3]

24:25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만났을 때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실 세 가지 죄에 대해 예언한 것과 동일

---

[1] Ibid., p. 187. 또한 Blaiklock, *Today's Handbook …*, pp. 530-31 참조.
[2] Howson, p. 601.
[3] Cf. Morgan, *The Acts …*, p. 405.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죄(여기서는 "절제"), "의로움", "심판"입니다(요 16:8-11). 벨릭스가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는 신학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개인적 도덕성과 책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들은 그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Gr. 엠포보스[*emphobos*]).

> "벨릭스는 바울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양날검을 그의 죄책감에 찔러 넣는 동안, 굳어진 죄인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까지 얼어붙은 듯 침묵을 지켰다. 벨릭스가 사도의 말에 떨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그 순간보다, 바울의 설교의 능력에 더 큰 인장이 찍힌 적은 없었다."[1]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결정을 미루기로 한 벨릭스의 결정은 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미루곤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정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보통 복음에 대해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2] 벨릭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믿게 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24:26 벨릭스가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로) 주길 바랐던 "돈"을 바울이 어디서 구했는지, 심지어 그 돈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의 투옥에 대해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지원하기 위해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참조, 23절; 27:3).[3]

> "… 지방 총독들은 법으로 죄수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 관행은 일반적이었고, 벨릭스의 경우 특히 그의 성격에 맞았습니

[1] Whyte, 2:171.
[2] McGee, 4:620-21 참조.
[3] Ramsay, *St. Paul …*, pp. 310-12 참조.

다."[1]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바울의 석방을 위해 벨릭스에게 돈을 주는 것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 "바울이 펠릭스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칭찬받을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정한 일을 하도록 뇌물을 주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가 대가 없이 정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에게 대가를 주는 것은 자신에게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2]

24:27 누가가 언급한 "2년"은 분명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금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벨릭스는 가이사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너무 가혹하게 처리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게 된 결과, 상급자로부터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죽거나 학대를 당했습니다.[3] 그의 후임인 "보르기오 베스도"(Porcius Festus)는 주후 59년부터 61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재직했습니다.[4]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벨릭스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이때 바울과 함께 있었다면, 그는 이 2년 동안 자신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작품(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참조, 눅 1:3, 행 1:1)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연구의 일부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그 당시 자신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일부를 집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학자들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감옥에서 감옥서신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집필했다고 믿습니다. 한 주석가는 누가 이 기

---

[1] Neil, p. 236. Cf. Josephus, *The Wars …*, 2:14:1.
[2] Henry, p. 1736.
[3] Josephus, *The Wars …*, 2:13:7; Idem, *Antiquities of …*, 20:8:7.
[4] Idem, *The Wars …,* 2:14:1; F. F. Bruce, *Commentary on …*, p. 474; cf. Gill, p. 25.

간 동안 바울의 지도 아래 히브리서를 썼다고 믿었습니다.[1] 이 이론 역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변론함 25:1-12

이것은 누가 기록한 바울의 다섯 번의 변론 중 가장 짧은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다섯 번의 변론을 했습니다: (1) 안토니아 요새 계단에서 유대인 무리(22:1-21); (2) 산헤드린(23:1-6); (3) 벨릭스(24:10-21); (4) 베스도(25:8, 10-11); (5) 헤롯 아그립바 2세(26:1-26). 이 심문은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한 변론과 매우 유사하지만, 여기서는 사도가 황제에게 호소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 "누가의 변증의 목적은 로마 관리들이 사건의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했을 때만 유대인의 반대에 양보가 이루어졌으며, 그 양보가 그리스도인 운동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2]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25:1-5

25:1 보르기오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더 온건하고 현명한 총독이었습니다.[3] 그가 취임한 직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결정한 것에서 그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지방"은 유대 지방을 포함하는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25:2-3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로마 법원에서 바울을 처형할 희망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사건은 너무 약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새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그곳에서 "도중에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참조, 23:12-15). 이스마엘은 벨릭스의 총독 재임 말기에 아나니아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

---

[1] Morgan, *The Acts …,* p. 394.
[2] Longenecker, "The Acts …," p. 544.
[3] Josephus, *The Wars …*, 2:14:1; *Antiquities of …*, 20:8:10-11

이 되었습니다.[1]

25:4-5 베스도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고소인들이 자기와 함께 "가서" 재판을 받으면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재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베스도와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열린 바울의 재판 25:6-12

25:6-8 "재판석"(Gr. 베마[*bema*], 6절, 또는 심판대; 참조, 10, 17절; 12:21; 18:12; 마 27:19; 요 19:13; 고후 5:10)는 베스도가 앉은 곳으로, 통상적으로 공공장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울의 "변론"(8절)에 대해, 유대인들이 제기한 "많은 심각한 혐의"는 더둘로가 제시한 것(24:5-6)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증명할 수 없었으며 증인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단순히 이를 단호히 부인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 재판은 벨릭스가 진행한 재판(24장)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요약했습니다.

25:9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는 벨릭스의 나쁜 평판을 고려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감을 살만한 어떤 행동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랐지만 (20절),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들의 호의를 얻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다소 순진하게 바울에게 재판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의 일부 혐의가 제기된 장소였습니다. 그가 바울의 허락을 요청한 사실은 바울이 일반 범죄자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으로서 총독이 존중해야 할 권리를 가진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25:10-11 바울은 이 제안을 거절했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에서의 그에게 불리한 여론이 가이사랴에서보다 재판관을 더 강하게 좌지우지할 것을 두려워했고,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참조, 25:3). 그의 "상소"는 로마에서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요청으로,

[1] ibid., 20:8:8, 11 참조.

하급 법원에서 폭력적 강요나 사형의 위험에 처했다고 믿는 모든 로마 시민의 권리였습니다.[1] 로마 시민 중 살인자, 해적, 또는 도둑질 현장에서 잡힌 자들은 이 상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2]

당시 네로는 황제였지만, 그의 통치 초기(주후 54-62년)에는 비교적 훌륭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주후 59년). 네로는 주후 62년 이후에야 비정상적인 통치를 시작하고 기독교에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3]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항소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 항소가 로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5:12 바울의 항소는 "베스도"를 유대인들로부터 면책시켜 주었기 때문에, 총독은 재빨리 그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무죄이기 때문에 그를 석방할 수도 있었지만(참조, 26:32), 바울에 대한 혐의는 정치적 선동과 성전 모독이었고, 이 두 가지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베스도가 협의한 "의회"는 4:15와 24:20에 언급된 산헤드린이 아니라 그의 조언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이클 그레이-포우(Michael Gray-Fow)는, 바울이 베스도가 자신의 청문회 요청을 존중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벨릭스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벨릭스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가 아니라 베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카이사르에게 상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4] 아마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

[1] Longenecker, "The Acts …," p. 545.
[2] Barclay, p. 189.
[3] Cf. Josephus, *The Wars …,* 2:19:1.
[4] Michael J. G. Gray-Fow, "Why Festus, Not Felix? Paul's *Caesarem Appello*,"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9:3 (September 2016):473-85 참조.

"해설자는 벨릭스와 베스도에 대해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그들은 상반된 성향을 가진 복잡한 인물들입니다. 벨릭스는 바울과 그의 메시지에 매료되었지만, 뇌물을 받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바울의 적들을 달래기 위해 노력합니다. 베스도는 대중에게 호의적인 이미지를 보여 주지만, 바울의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편애로 얼룩져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울을 석방함으로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설자가 로마 총독들을 묘사한 것은, 정치의 정글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음모에 얽힌 사람으로 바울을 묘사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력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기회가 오면,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증언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정의와 자유를 거부당하지만,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이 수완이 풍부하고 신실한 죄수를 여전히 사용하실 것입니다."[1]

예수님도 두 명의 로마 관리, 즉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티바 1세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헤롯 아그립바 2세의 베스도 방문 25:13-22

바울에 대한 고발, 특히 그의 무죄가 이 단락의 요점입니다.

25:13 "아그립바 왕"은 마르쿠스 줄리우스 아그립바 2세로, 헤롯 아그립바 1세(12:1-11)의 아들이며, 아리스토불루스의 손자,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마 2:1).[2]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안티바는 아그립바 2세의 대부이며, 침례자 요한을 참수하고 우리 주님을 재판했습니다. 아그립바 2세의 아버지인 아그립바 1세는 세베데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처형했으며, 베드로를 감금하였으나 가이사랴에서 사망했습니다(12장). 그의 아들 아그립바 2세가 바로 바울이 마주친 인물입니다. 아그립바 2세는 로마에서 자랐으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는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헤롯

[1] Tannehill, 2:314.

[2] 위 12:1-2에 있는 "헤롯의 가계도" 및 F. F. Bruce, "Chronological Questions …," pp. 283-84 참조.

왕조 중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 시기에 갈릴리 총독으로 재직했던 로마 장군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친구였습니다.[1] 그의 다른 권한 중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감독관으로, 성전 금고와 의복의 보관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임명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2]

"베스도"를 방문했을 당시, 아그립바 2세는 로마가 유대 지방의 북동쪽 영토에 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네로니아스(Neronias)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가이사랴 빌립보(구약의 단)에 살았습니다. 아그립바는 당시 30세 정도였고, 그의 여동생 "버니게"(Bernice, 라틴어로 베로니카)는 1살 더 어렸습니다. 그는 주후 50년부터 70년까지 이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아내로, 아그립바와 버니게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버니게는 처음에는 그녀의 삼촌인 칼키스의 왕 헤롯과 결혼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오빠 아그립바와 의심스러운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3] 그녀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티투스와 범죄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방탕한 삶을 마감했습니다.[4]

아그립바와 버니게는 이 때, 이웃 지방의 새로운 총독을 방문하기 위해 "가이사랴" 마리티마에 있는 베스도를 방문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그립바와 버니게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의 유대인 학살을 막으려 했습니다.[5]

25:14a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그립바와 "바울의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27절). 아그립바는 유대인의 후손이고 헤롯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 문제

[1] Josephus, *The Life …*, par. 65, 등.
[2] Idem, *Antiquities of …*, 20:9:4, 7. 또한 Howson, pp. 601, 617 참조.
[3] Josephus, *Antiquities of …,* 20:7:3.
[4] Howson, p. 600. 또한 Lenski, pp. 1002–3 참조.
[5] Josephus, *The Wars …*, 2:15:1; 2:16:4. 또한 Blaiklock, *Today's Handbook …*, pp. 5533–34 참조.

에 대해 잘 아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25:14b-21 베스도는 바울의 상황을 검토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혐의의 성격에 대해 자신의 놀라움을 고백했습니다. 그 혐의는 유대인의 "종교"(또는 "미신", Gr. 데이시다이모니아[*deisidaimonia*]; 참조, 18:15; 23:29)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베스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한 것을 이전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베스도는 이러한 고발에 대해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20절).

> "이 단계에서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혐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활이라는 주제가 들어섰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23:4; 24:21). ... 분쟁의 진정한 원인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한 데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도 모든 사람의 최종적인 부활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1]

25:22 바울의 사건에 관심을 가진 "아그립바"는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립바가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고 황제에게 보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며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유대인의 왕 헤롯 안티바 1세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습니다(눅 23:8). 그러나 바울이 아그립바와 가진 면담은 안티바 왕이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보다 그 왕을 더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참조, 눅 23:6-12).

아그립바 앞에서 바울이 변론함 25:23—26:32

이것은 바울의 다섯 번의 변론 중 가장 긴 것입니다. 이 변론은 바울에 대한 고발에

[1] Marshall, *The Acts …*, p. 388.

초점을 두기보다 복음에 초점을 두고 복음 전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가진 복음 전파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며, 그 목적에 걸맞은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설은 또한 바울이 왕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참조, 9:15).

> "누가의 기록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변증적 주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1) 바울과 유대 지방의 로마 정부와의 관계는 불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무죄가 인정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참조, 25:25; 26:31). (2)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이 바울을 반대했지만, 로마의 눈에는 그들보다 지위가 높은 유대인의 왕이 무죄 판결에 동의했습니다(참조, 26:32). 그리고 (3) 바울의 무죄는 로마와 유대인의 통치자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고위 장교들과 도시의 지도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25:23)."[1]

심문의 예비 절차 25:23–27

25:23 베스도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가이사랴의 유력한 시민들 앞에서 "아그립바와 버니게"를 기리기로 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5명의 "지휘관"이 있었는데, 각자 1,000명의 병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주둔한 부대 지휘관인 글라우디오 루시아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참조, 21:31—23:30; 24:22). 이 지휘관들 외에도, 많은 다른 "유력한 사람들"이 총독의 궁전 "강당"에 참석했습니다.

> "모든 유력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2]

아그립바와 버니게는 "화려한 행렬"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인물처럼 행동했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 모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인물은 바울이었습니다(참조, 눅 21:12).

25:24–27 이 심문을 진행한 이유를 검토하면서, 베스도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발

---

[1] Longenecker, "The Acts …," p. 550.

[2] *The NET2 Bible*의 23절에 대한 노트.

한 것처럼 "죽임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25절).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눅 23:4, 14, 22). 베스도는 "황제" (Gr. 세바스토스[*sebastos*], 참조, 21절)를 자신의 "주" (퀴리오스[*kyrios*], 적어도 그의 위엄을 의미하며,[1] 아마도 그의 신성을 의미할 수도 있음[2], 26절)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네로보다 더 높은 권위자이신 자신의 "주님"(26:15)을 이 군중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참조, 요 19:19).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네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9절, 참조, 26:32). 체면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설명한 후,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심문를 아그립바에게 넘겼습니다.

> "베스도의 이 순진한 고백은 그가 바울을 대하는 전체적인 태도가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3]

누가가 베스도의 서론을 사도행전에 포함시킨 이유는, 바울과 그리스도인이 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로마 관리가 또 한 번 증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관들에게 한 바울의 연설 26:1-23

바울은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카이사르에게 항소했을 때(25:11) 그는 다음 재판은 황제 앞에서 열릴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이것은 아그립바에게 바울의 사건을 알려서 아그립바가 그것을 이해하고 황제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청문회였을 뿐입니다.

> "바울의 이 증언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그립바와 다른 참석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장면

---

[1]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s.v. "kyrios, et al.," by Gottfried Quel and Werner Foerster, 3(1965):1039-95.
[2] Ladd, "The Acts …," p. 1171.
[3] Robertson, 3:441.

이며, 이 장은 세속적이든 영감이든 가장 위대한 문학 중 하나입니다."[1]

"사도가 말할 때 사도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완전한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의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스의 언덕 위에서 전했던 그의 메시지도 훌륭하지만 이 메시지와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2]

주님은 바울에게 이방인과 왕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9:15).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위해 원수들이 그들을 감옥에 넘기고 왕과 총독들 앞에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21:12-13).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며, 그는 이 장에 기록된 대로 이 기회를 이용해 증언했습니다.[3]

26:1 **바울은 웅변가의 자세를 취하며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손을 뻗었다"는 문구는 13:16과 21:40에 나오는 비슷한 문구와 다릅니다. 이 "변론"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바울의 모든 변론 중에서 가장 충실하고, 가장 형식적이며, 절정에 이른 변론입니다(참조, 22:1-21; 23:1-6; 24:10-21; 25:8, 10-11). 이것은 안토니아 요새 계단에서 전한 설교(22:1-21)와 매우 유사하지만, 아그립바와 그곳에 참석한 다른 로마인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그는 여기서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4]**

"바울은 이 큰 강당을 교회로 바꾸어, 설교자로서 행하였습니다."[5]

26:2-3 **바울은 왕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참을성 있게" 들어 달라고 촉구하는 관례적인 서론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짧은 "변론"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참조, 24:2-4, 10).**

"이것은 바울이 암울한 2년의 수감생활 동안 간절히 원했던 상황, 즉 지

---

[1] McGee, 4:624.
[2] Ibid., 4:626.
[3] Alister E. McGrath, "Apologetics to the Romans," *Bibliotheca Sacra* 155:620 (October-December 1998):391 참조.
[4] Witherington, *The Acts …,* pp. 735-36 참조.
[5] Lenski, p. 1020.

식이 풍부한 재판관과 본질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은 청중 앞에서 자신의 변호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1]

26:4 바울은 자신이 애국적인 유대인이며 유대인을 오도하거나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유대인("내 민족")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유대 밖에서 살았던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과는 대조적으로 히브리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출생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의 중심부에서 자랐습니다.

26:5 유대인들은 바울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의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에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례적 순결을 유지하고 십일조를 엄격하게 바치는 것이 "바리새인"의 삶을 주로 나타냈습니다(5절).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26:6-7 바울의 사역과 가르침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 하신 약속", 즉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성취였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6절). 이 약속에는 개인적인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민족적 구원과 축복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이며, 모든 유대인("우리 열두 지파")이 "밤낮으로(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기를"(실현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구세주였습니다. 그 구세주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유대인들이 그를 적대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유산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유산으로 인해 자신이

[1] Longenecker, "The Acts ⋯," p. 551.

그렇게 믿고 전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희망"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에서 성취를 찾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불충실하다고 비난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희망에 일관되게 충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7-8절은 반대자들이 이상하게도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즉 그들의 희망의 초점은 그것이 도착했을 때 거부됩니다."[1]

그런데 바울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7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오늘날 일부 이단들, 예를 들어 허버트 암스트롱(Herbert W. Armstrong)의 가르침이나 영국 이스라엘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0개 지파가 멸망했다고 그가 믿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참조, 2:9; 마 19:28; 눅 2:36; 22:30; 약 1:1; 계 7:4; 21:12).[2]

26:8 부활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신분이 그분의 부활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적절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청중 중 누구도 죽은 자의 부활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6:9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결론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구세주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26:10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라"고 투표(vote)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투표했다"("Cast my vote against them")는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고(참조, 8:1; 22:20), 문자적 표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을

---

[1] Tannehill, 2:318.

[2] 영국 이스라엘주의에 대한 설명은, Jan Karel Van Baalen, *The Chaos of Cults*, pp. 189-203 참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1] 그러나 바울이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지역 회당에 존재했던 하급 법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는 투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투표권을 가진 산헤드린의 공인 대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2]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한 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열정에 대한 보상으로 산헤드린에 선출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3]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26:11 바울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게 하거나 저주하게 함으로써 "모든 회당에서" "신성모독하게" 하려고 했습니다(참조, 고전 12:3). 그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극도로 격분"하여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이방 도시로" 쫓아가기까지 했습니다.

> "우리는 그 당시 어떤 성도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지만, 많은 성도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4]

>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능력의 살아있는 본보기로 지목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말의 형식이 아니었고, 지적인 믿음의 형태가 아니었으며,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 또한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5]

26:12-14 누가는 바울이 이전 간증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두 가지 새로운 정보를 여기에 포함시켜 기록했습니다(14절): 첫째, 다마스쿠스 길에서 바울의 "모든" 동료들이 밝은 빛으로 인해 "땅에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건이 바울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

---

[1] Blaiklock, *Today's Handbook …*, p. 478.
[2] Lenski, p. 1034.
[3] E.g., Howson, p. 64.
[4] Lenski, p. 1034.
[5] Barclay, pp. 193-94.

줍니다. 둘째, 주님은 그에게 아람어(“히브리 방언”)로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가시채"(Goads)는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막대기였습니다. “가시채를 발로 차는” 모습은 피할 수 없는 것에 반대하는 것(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것과 같은)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농경 비유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적대감의 대상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상처를 줄 뿐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 “그리스 세계에서 이것은 신에 대한 반항을 나타내는 잘 알려진 표현이었다(참조, 에우리피데스 *Bacchanals* 794-95, 아이스킬로스 *Prometheus* 324-25, *아가멤논* 1624, 핀다르 *Pythia* 2.94- 95, 테렌스 *Phormio* 1.2.27). 바울은 다소에서 또는 선교 여행 중에 이 표현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청중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질문의 함의를 보여주기 위해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반대했던 갈릴리 예언자만을 선포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그는 청중들에게 하늘의 음성에 의한 교정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그립바와 다른 사람들에게 익숙한 당시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1]
>
> “어린 소는 처음 멍에를 메면 보통 그 짐을 불편히 여기며 발로 차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소가 한 손 쟁기에 멍에를 메면, 쟁기꾼은 끝이 뾰족한 긴 막대를 소의 발뒤꿈치 가까이에 들고 있었습니다. 소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그 지팡이에 부딪혔습니다. 소가 수레에 멍에를 메고 있는 경우에는 나무 가시가 박힌 막대기를 같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요점은 소

[1] Longenecker, "The Acts ⋯," pp. 552-53. idem, *Paul ⋯*, pp. 98-101도 참조.

가 멍에에 복종하는 법을 힘들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1]

"그러므로 반항하는 것은 단순히 무능하고 해로운 어리석음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려 하셨던 정확한 교훈이며, 이방 시인들과 도덕가들이 속담에서, 또는 오히려 그것을 암시하는 농경 생활의 근거에서 끌어온 교훈입니다."[2]

바울은 이 기회에 자신의 회심 경험을 매우 생생하게 이야기하며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6:15-17 바울은 이 본문에서 다마스쿠스 길에서의 예수님 말씀(참조, 9:5-6; 22:8, 10), 아나니아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참조, 22:14-15), 바울의 예루살렘 환상에서의 명령(참조, 22:18-21)을 모두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특별한 삶의 사명과 관련하여 그에게 주신 신성한 사명을 요약하고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참조, 렘 1:7-8; 겔 2:1, 3).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그의 언급은 이방인 청중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언어는 눈에 띄게 더 성경적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어 야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사명으로 여깁니다."[3]

26:18 이 구절은 메시아의 신성한 사명을 상기시킵니다(참조, 사 35:5; 42:6-7, 16). 바울의 사명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의 사명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참조, 마 28:19-20; 골 1:12-14).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해야 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지위적(positional)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특별한 목적을

---

[1] *The Nelson …*, p. 1870. Swindoll, *Paul*, p. 27도 참조.
[2] Thomson, 1:502.
[3] Neil, p. 244.

위해 사람을 구별하십니다(참조, 엡 1:4).

바울은 산헤드린의 사도(즉, 보내어진 자)로서 다마스쿠스에 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돌아왔습니다.[1]

26:19-20 20절은 9:20-30과 갈라디아서 1:18-24에 비추어 볼 때 엄밀한 연대기적 언급보다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다"는 다시 본질적으로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20절에서 말한 회개("하나님께로 돌이킴")와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행함"의 차이에 주목하십시오.

> "회개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태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기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의의 주장에도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대면하게 되고, 그는 돌이켜 자신이 배척하던 하나님과 자신이 거절하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죄들을 고백하고 구세주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2]
>
>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 살지는 않지만 매우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독선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함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의무에 대한 성실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 주시고 결국에는 자신과 함께하실 것이라고 철저히 만족해 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자신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에게도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는 자기 자신, 육신, 종교에 대한 모든 확신을

[1] Barclay, pp. 194-95.
[2] Ironside, *Lectures on …*, p. 613.

버리고 '내 손에는 아무 값도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뒤돌아서는 것입니다."[1]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과정이 끝나는 곳이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죄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제안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용어('회개하다', '돌이키다', '믿다')를 각각 사용했기 때문에 복음의 제안을 표현하는 데 적절합니다."[2]

26:21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내용, 즉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격분하게 만들었고 바울을 체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청중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6:22-23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이 방금 회상한 모든 사건을 통해 그를 도우셨습니다(참조, 17절). 이제 바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신앙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참조, 3:18; 17:3). 23절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많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예: 사 42:6; 49:6; 53:10; 60:3)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누가가 응축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고난 받는 메시아,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직접적인 사역에 대한 생각을 거부했지만, 바울은 구약성경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신자들이 항상 선포해야 할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이라'(고전 15:3-4)는 것입니다."[3]

---

[1] Ibid., pp. 613-14.
[2] Bock, *Acts*, p. 719.
[3] *The New Scofield* …, p. 1204.

아그립바에게 바울이 호소함 26:24-29

26:24 "많은 학문"(문자적으로, "많은 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타 폴라 ... 그라마타(*ta polla ... grammata*)는 바울의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그의 지식이 "베스도"를 감동시켰음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때 "책"과 "양피지"를 가지고 있었거나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나중에 디모데에게 로마로 가져가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딤후 4:13).

그러나 총독은 바울의 신앙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열렬한 모호주의자이며 그런 어리석은 사상을 선포하는 데 목숨을 걸기에는 약간 미쳤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혼의 불멸만 믿었습니다(참조, 17:32; 25:19).[1] 따라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베스도에게 광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 "그 말은 의심할 여지없이 아이러니하고 경멸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진지하게 말한 것처럼 받아들였고,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특징인 열렬한 열심과 진정한 예의의 결합을 표현하는 고귀한 대답을 했습니다."[2]

> "베스도의 말은 바울이 한창 [연설이 한창일 때] 중간에 끼어든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연설은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3]

> "오랜 세월 동안 베스도의 대답은 자연적인 것에 너무 갇혀 초자연적인 것에 개방적이지 못하고, '실용적인 것'에 너무 갇혀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남성과 여성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4]

---

[1] Bock, *Acts*, p. 722.
[2] Conybeare, p. 621.
[3] Marshall, *The Acts …*, p. 398.
[4] Longenecker, "The Acts …," p. 554.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촉구할 때 그리스도인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26:25–27 바울은 베스도가 광기라고 부르는 것이 진리이며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한 것"(26절)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로 예언을 성취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일어났다"(Done in a corner)는 당시의 또 다른 헬라어 관용구로서, "숨겨져 있거나 은밀한 곳에서 일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1] 아그립바가 "예언자들"을 믿었다면, 바울은 그가 예수님이 그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왕을 구석에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베스도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아그립바는 그 문제를 알고 있었고, 바울은 주로 그를 겨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고가 검사가 된 것입니다.

26:28 "아그립바"는 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의 말에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기라도 했다면, 그는 베스도와 다른 로마인들의 체면을 잃었을 것입니다. 베스도는 방금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아그립바가 예언자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유대인 청중과 신민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크게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립바는 "조만간 네가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구나."라고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또는 알포드(Alford)가 그의 말을 표현한 대로, "간단히 (조금 수고로) 네가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2] 아그립바의 대답은 "네가 거의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는 AV 번역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직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1] Ibid.

[2] Alford, 2:2:283.

"그 대답은 가볍지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다."[1]

26:29 **바울은 왕에게 매우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그립바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결박"을 언급한 것은 문자 그대로, 즉 그가 말할 때 쇠사슬을 차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은유적으로, 즉 포로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언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그립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저는 알지 못하지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그립바 왕 앞에서 한 연설은 변호 연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방어 연설로 시작하고(참조, 1절), 이전의 방어 연설의 측면을 발전시키지만, 그 기능은 더 광범위합니다. 그것은 방어 연설의 주제와 앞선 내러티브의 주제를 결합하여 침례자 요한, 예수님, 사도들의 선교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를 하나님의 전개되는 목적 안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요약 진술로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 선교적 호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과거의 메시지에 대한 검토가 현재의 선포가 되어 우리 눈앞에서 그의 사명을 계속 이어갑니다."[2]

아그립바의 평결 26:30-32

아그립바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문회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참석자 모두가 바울이 완전히 무죄라는 데 동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바리새인(23:9), 글라우디오 루시아(23:29), 베스도(25:25)의 평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던 로마의 통치자 아그립바도 같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32절). 아그립바의 의견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힐 필요도 없었고 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의 전체적인 효과는 유대인들의 편파성과 불의에 맞서 로마법 절차의 정당

[1] Marshall, *The Acts* ···, p. 407.
[2] Tannehill, 2:316.

함을 강조하고, 로마법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의 행동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그가 미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범죄자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카이사르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 있었다'는 클라이맥스가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1]

"마지막으로 누가가 로마의 여러 재판소에서 바울의 심문에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이 정당한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건은 시험 케이스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리고 목회서신이 그 확실한 증거라면 누가의 최종 목적은 분명합니다."[2]

4. 로마로 가는 여정 중의 사역 27:1-28:15

누가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 복음의 확장 단계를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고, 복음이 점점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주권자이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기록하고자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로 가려는 목적이 성령에 의해 바울의 마음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수립되었습니다(19:21). 다가올 위험에 대한 어떤 경고도 바울을 그 궁극적인 목표나 중간 단계(마케도니아, 아가야,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몇 주가 몇 달로, 몇 년으로 늘어났고 바울은 연이어 위기에 직면했지만 로마에 도달할 것이라는 신적 확신이 있었습니다(23:11). 그 수단은 바울이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사도는 세부 사항을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맡기고자 했습니다."[3]

하나님은 누가로 하여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성경에 기록된 요나의 여정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는 독자들이 이러한 유사점에 주목하고 두 여행의 목적, 즉 잃어버린 바된 이방인의 구원을 연결하기 위해 이렇게 했을 것

[1] Marshall, *The Acts* ⋯, p. 386.
[2] Blaiklock, *The Acts* ⋯, p. 186.
[3] Kent, p. 184.

입니다.

이 부분의 엄청난 양의 세부 묘사는 또한 훌륭한 이야기꾼인 누가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음을 강조함으로써 클라이맥스를 구축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는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독자들에게 큰 안도감과 만족감을 주기 위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소설가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 문학적 장치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머의 오디세이에서처럼 폭풍우와 난파선은 영웅들이 상을 받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클라이맥스를 구축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과 그곳에서의 마지막 날을 자세히 묘사했는데, 이는 제3복음서 특유의 특징입니다.[1]

> "이 이야기는 모든 고전 문헌에서 고대 선박의 작동에 대해 이토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구절은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2]

이 이야기는 또한 바울의 성격과 성품에 대해 더 많은 빛을 던져줍니다. 비록 죄수였지만 그는 함께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이자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참조, 고후 12:9-10).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은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의 축복을 위해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바울이 주체가 됩니다. 여행 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단정하기도 했습니다(28:6; 참조, 눅 8:25, 23:47).

19세기 말, 스코틀랜드의 한 무리의 불신자들이 성경의 오류를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기록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가가 바울이 방문했다고 언급한 모든 장소를 방문해보도록 한 사람을 지정했습니다. 선택된 사람은 윌리엄 램지(William Ramsay) 경이었는데, 그는 이 문제를 철저히 연구한 후 누가가 모

---

[1]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행에 대한 지도는 Longenecker, "The Acts …," p. 251; Toussaint, "Acts," p. 425; 또는 *The Nelson …,* p. 1874 참조.

[2] Rackham, p. 476.

든 면에서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1] 램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기 위해 사도행전과 바울에 관한 여러 책을 썼고, 그 중 일부는 이 노트의 참고 문헌에 등장합니다.

가이사랴에서 크레타까지의 항해 27:1-8

27:1 누가는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위해 빌립보를 떠날 때부터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20:5). 그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된 2년 동안 바울을 돌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여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28:16). 사도행전의 네 개의 "우리" 섹션 중 가장 긴 부분이 여기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27:1-28:16입니다(참조, 16:10-17; 20:5-15; 21:1-18).

> "그리스 역사 기록으로서 자신의 작품의 신뢰성을 위해, 어느 시점에서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사건 중 적어도 일부에 자신이 참여했다는 것을 단순히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입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2]

학자들은 "아우구스투스 부대"("the Augustan cohort", 1,000명의 병사로 구성된 대대, 참조, 21:31)를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부대가 황제와 지방 군대 사이의 통신과 봉사를 담당한 부대였다고 생각합니다.[3] 그러나 이 부대는 로마 역사 초기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4] "아우구스투스"는 정부가 여러 부대에게 부여한 명예 칭호였으므로, 이것은 단순히 시리아 지방에 기반을 둔 아우구스투스 부대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5] 이 아우구스투스 부대는 다양한 법 집행 및 사법 기능을 수행했습니다.[6]

---

[1] Ironside, *Lectures on …*, pp. 618-19.
[2] Witherington, *The Acts …,* p. 755.
[3] E.g., Ramsay, *St. Paul …*, p. 315.
[4] Longenecker, "The Acts …," p. 557.
[5] F. F. Bruce, *Commentary on …*, p. 500.
[6] Longenecker, "The Acts …," p. 558.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했던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죄수들"보다 더 큰 특권을 누렸을 것입니다. "율리오"는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성과 배려와 자비를 보여준 또 다른 "백부장"(참조, 고넬료, 10장; 22:26; 24:23)이었습니다(참고, 마 8:5-13; 27:54; 막 15:39; 눅 7:1-10; 23:47). 10장 1절의 이탈리아 부대가 여기에 언급된 아우구스투스 무리와 동일하다면, 일부의 생각처럼 이 율리오는 나중에 비텔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근위대장이 된 율리우스 프리스쿠스(Julius Priscus)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1]

27:2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출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배"는 레스보스 섬 맞은편 드로아 남쪽에 있는 "아드라뭇데노"(Adramyttium)라는 항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배는 지중해 북동부 해안선을 따라 대부분의 항구에 정박하는 연안 선박이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누가가 한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머물렀고(참조, 19:29), 로마까지 함께 여행한 것으로 보입니다(골 4:10; 몬 24). 이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여행하는 동안 그가 존경받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2]

27:3 "시돈"은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친구들"은 아마도 그곳에 있는 교회 지체들이었을 것입니다(참조, 11:19).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군인이 동행했을 것입니다.

27:4-5 지중해의 봄과 가을에는 보통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종종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배는 북쪽으로, "키프로스" 섬의 동쪽을 향해 항해했습니다(참조, 21:3). 북쪽으로 가다가 "길리기아 해안"에 이르러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밤빌리아"를 지나 아시아 지방의 최남단 지역인 "루기아의 무라"에 상륙했습니다. 이는 약 500마일을 배

[1] Howson, p. 605.
[2] Ramsay, *St. Paul …*, p. 316 참조.

로 14일간 여행한 셈입니다.[1]

27:6 무라에서 율리오는 일행을 다른 배로 옮겼는데, 이 배는 "이탈리아로 가는" 배였습니다.[2] 이 배는 최소 276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곡물선(38절)이었습니다(37절). 당시에는 승객 여행 전용 선박은 없었습니다.[3] 이 배의 출항지는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집트는 이탈리아의 주요 곡물 공급국이었습니다.[4] 이 배들의 대규모 무리가 이집트와 이탈리아 사이, 유대, 시리아,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식량을 싣고 항해했습니다. 현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대형 선박들은 보통 갑판에서 화물칸까지 길이 180피트, 너비 50피트, 깊이 44피트였습니다.[5]

27:7-8 "니도"(Cnidus)는 아시아 지방의 남서쪽 끝, 즉 우리가 지금 에게해라고 부르는 곳이 지중해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108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 북서풍으로 인해 바울의 배는 남서쪽으로 180마일 길이의 "크레타" 섬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크레타의 동쪽과 남쪽 해안을 따라 항해한 배는 마침내 섬의 남동쪽 끝에 있는 살모네 곶을 돌아 "라세아"라는 마을 근처의 "아름다운 항구"("Fair Havens", 아마도 현대의 리메오나스 칼로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의 폭풍 27:9-26

27:9-10 선장은 아름다운 항구에서 날씨가 좋아지기를 한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금식"은 매년 가을, 때로는 10월 초순에 해당하는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바다로 여행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1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는 겨울 동안 항구가

---

[1] Eckhard J. Schnabel, *Early Christian Mission*, 2:1266.

[2] Kenneth W. Yates, "Military Leaders and Jonah in the Writings of Luke, Part 2," *Bibliotheca Sacra* 173:692 (October–December 2016):448–59 참조.

[3] Witherington, *The Acts …,* p. 759.

[4] Cf. Josephus, *The Wars …,* 2:16:4; and 4:10:4.

[5] Lionel Casson, *Ships and Seamanship in the Ancient World*, pp. 158–59.

폐쇄되었습니다.[1] 바울은 이미 세 번이나 난파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고후 11:25). 그는 배의 지도자들에게 아름다운 항구에서 겨울을 지낼 것을 권했습니다. 그 계절에 예기치 않게 자주 불어오는 강한 북풍이나 북서풍(참조, 14절)이 배를 항로를 훨씬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헹켄(Haenchen)은 누가가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0절부터 28장 10절까지 11번 또는 12번의 바다 여행을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사도가 바다로 최소 3,000마일을 여행했다고 계산했습니다.[2] 따라서 바울은 노련한 바다 여행자였으며,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27:11-12 "백부장"이 마지막 말을 했는데, 그는 바울의 조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곡물선은 비록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로마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함대의 일부였습니다.[3] 바울보다 선장("조종수")과 선주("선장")가 백부장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했지만, 크레타섬 남부 해안선을 따라 서쪽으로 약 45마일 떨어진 "뵈닉스"(Phoenix, 현대의 피네카 또는 루트로[4])만큼 바람직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 "... 이집트의 곡물에 대한 로마의 수요가 너무 커서 정부가 선주들에게 선박 손실에 대한 보험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후 항해는 때때로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5]

바울이 이 방문 기간 동안 크레타 섬에 교회를 개척할 시간이나 기회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기에 그곳에 교회

---

[1] Knowling, 2:520.
[2] Haenchen, pp. 702-3.
[3] F. F. Bruce, *Commentary on ⋯*, p. 507.
[4] Robertson, 3:462-63.
[5] Emil G. Kraeling, "The World of Paul," in *Everyday Life in Bible Times*, p. 384.

를 개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로마에서 풀려난 후 디도와 함께 크레타를 방문했을 것입니다(딛 1:5).

27:13-15 "유라굴로"("Euroquilo")는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온화한 남풍에서 "격렬한" 북동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격렬한 바람은 바울의 배를 크레타 섬과 뵈닉스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남서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 "고대의 배들은 거친 바다를 붙잡거나 맞설 수 없었습니다..."[1]

27:16-17 "가우다"(Clauda, 현대의 Gavdos 또는 Gozzo)의 "작은 섬"은 크레타섬 남쪽 약 23마일 지점에 있었습니다.[2] 그곳에는 적절한 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섬은 선원들이 뒤따라오는 작은 "거룻배"(비상시나 육지를 오갈 때 견인하는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임시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적용한 또 다른 안전 조치는 뱃머리에 밧줄을 연결하여 양쪽에서 배의 선체에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배 밑으로 단단히 당겨진 이 로프는 선체 내부 버팀목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르티스의 얕은 바다"("The shallows of Syrtis")는 아마도 배가 향했던 구레네(현대 리비아) 서쪽 아프리카 해안의 악명 높은 모래톱과 유사(quicksand)를 가리킬 것입니다.[3] 여기서 "닻"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장비"를 의미하며 모든 장비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돛과 장비 중 일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참조, 40절). 이 시기에는 나침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별과 육지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항로를 계획했습니다.

27:18-20 배는 "폭풍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며 분명히 배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선장은 밀과 다른 "화물"과 가장 필수적인 "기

---

[1] Marshall, *The Acts* ···, p. 408.

[2] 크레타섬 남부와 가우다의 지도는, Howson, facing p. 642 참조.

[3] Pliny, *Natural History*, 5:26 참조.

구"(Gr. 스큐엔[*skeuen*]; 참조, 요 1:5)를 모두 배 밖으로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식량으로서뿐만 아니라 평형을 위해 밀을 어느정도 배에 남겨 두었을 것입니다 (38 절).

27:21-26 바울은 아마도 아름다운 항구에서의 조언을 단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료 여행자들이 자신이 말하려는 것을 믿도록 격려하기 위해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가 예언하려던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방문자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것이라는 약속을 반복하면서 이전에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확신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23:11). 또한 그는 바울에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모두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 선언은 놀랍습니다. ... 이 선언은 나머지 에피소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데, 그 이유는 이 선언이 반드시 일어날 일을 결정하고, 선원들, 군인들, 바울의 행동이 그 선언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탈출 방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1]

바울은 절망에 빠진(어쩌면 뱃멀미에 걸린) 동료들을 두 번이나 격려했습니다(22, 25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언급은 적어도 그 전에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을 때 다른 승객들이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25절)은 언제나 그렇듯이 바울에게 큰 확신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매우 명확한 정의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대한 바울의 전적인 헌신을 아름답게 표현한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또한 섬기는 하나님"(23절)도 주목하십시오.

---

[1] Tannehill, 2:332-33.

"죄수가 선장이 된 것은 그가 용기가 남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1]

난파된 배 27:27-44

27:27 몰타, 이탈리아, 그리스, 크레타 섬 사이에 있는 지중해 중앙부의 고대 이름은 "아드리아" 또는 "하드리아"였습니다.[2]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아드리아 해를 아드리아 만(또는 하드리아) 또는 이오니아 해라고 부릅니다.[3] 바람과 조류로 인해 바울의 배가 지중해 중남부로부터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육지"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고, 해안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27:28 "깊이를 재다"는 그리스어로 문자적으로 "땅의 소리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물의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원들은 추를 밧줄에 묶어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가라앉은 깊이로 물의 깊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1길(fathom)은 6피트이므로 이 수심(20길과 15길)은 120피트와 90피트였습니다.

27:29 "선미에서 4개의 닻"을 내리는 것은 배가 육지를 향하게 하여 해가 뜨면 선원들이 먼저 뱃머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했다"(유코마이[*euchomai*], 29절)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의 또 다른 번역은 "고대했다"(참조, 요 1:14)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해상 항해에서 약 475마일을 여행했습니다.[4]

27:30-32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승객들과 바울, 선장, 군인들과 죄수들을 남겨두고 거룻배("함선의 소형 보트", 구명 보트)를 타고 육지로 향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배 앞의 "닻"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계획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배 안에서만 가치가 있었고, 또 배를 안전하게 정박하는 데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배를 조종하는 데 전문가

---

[1] Barclay, pp. 202-3.
[2] Lenski, p. 1085.
[3] F. F. Bruce, *Commentary on …*, p. 515; Longenecker, p. 561.
[4] Bock, *Acts*, p. 739.

였습니다. 아마도 "군인들"은 선원들이 또 다른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구명 보트를 자유롭게 표류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 "24절과 31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은 확실하며 그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1]

단순히 하나님께서 항해 중에 바울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주셨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적절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종에게 주지 않으시는 정도의 지능과 지각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불행히도 종종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발휘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참조, 눅 16:8).

27:33-37 배에 탄 모든 사람은 앞에 놓인 육지로 가는 일을 위해 힘을 얻기 위해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 음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참조, 딤전 4:4-5). 이것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구출받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식사는 일부 주석가들이 제안한 것처럼 주의 만찬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2] 당시의 상황은 누가가 사용한 용어(35절; 참조, 눅 24:30)와 마찬가지로 이 견해에 반대합니다. 모두가 바울의 모범

---

[1] Kent, p. 189.

[2] E.g., Neil, p. 252.

을 따라 음식을 먹었습니다.

> "어떤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마음은 하늘에 가 있어서 지상에서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는 바울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배고픈 사람은 유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의 일행들을 모아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1]

27:38 선원들이 배를 띄울 때 얕은 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27:39-40 전통적으로 성 바울 만(St. Paul's Bay)으로 명명된 이 모래가 많은 "해변"은 항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은 장소였습니다.[2] 이런 종류의 배에는 배의 측면에 방향타 같은 노가 있어서 배를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원들은 배가 표류할 때 이 "방향타"를 제자리에 고정해 두었다가 이제 다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배의 앞쪽에 있는 "돛"은 배의 기동성을 높였을 것입니다.

27:41 바다의 두 부분("두 바다")에서 온 해류가 이 만 입구 근처로 모여들어 모래나 진흙이 쌓인 것으로 보입니다. "암초"(reef)는 영어로 산호초를 의미하지만 헬라어 단어(토폰[*topon*])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 바울 만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누가는 아마도 모래나 진흙이 쌓인 곳을 묘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원들은 이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배를 좌초"시켰습니다. "파도가" "선미를 깨기 시작하는" 동안 배의 뱃머리는 단단히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7:42-44 "군인들"은 포로들이 탈출했다면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참조, 12:19; 16:27). "백부장"은 바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죄수들의 안전을 기꺼이 책임지려 했습니다. 사도에 대한 이 특이한 관심은 이 사람이 이 여행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의문을 제기합

---

[1] Barclay, p. 204.

[2] 지도를 보려면, Howson, facing p. 658 참조.

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동료 여행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참조, 24절). 교회 천막의 표지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잔잔한 항해가 아닌 안전한 상륙을 약속하십니다."

바울이 이 여정에서 지났던 지중해 지역을 잘 알고 있던 영국의 요트 선장이자 학자가 19세기 초에 바울의 항로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의 책은 그의 경험과 발견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흥미진진한 읽을거리이며, 누가의 언급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1]

이 유난히 극적이고 생생한 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상황을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특히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갈릴리의 바람과 파도를 통제하시는 능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보내신 적이 있었는데(눅 8:22-25), 지금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음부의 문이 그 교회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마 16:18). 이 장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몰타에서 바울이 보존됨 28:1-6

28:1-2 "멜리타"(피난처라는 뜻, 바울과 동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라고도 불리는 "몰타"는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몰타의 길이는 약 18마일, 폭은 8마일입니다. 또한 크레타 섬에서 서쪽으로 약 500마일, 아프리카에서 북서쪽으로 18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페니키아 출신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누가는 이들을 바바로이(*barbaroi*, "원주민")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리스 문화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참조, 롬 1:14). 그러나 난파선 희생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원주민들은 야만인이나 문화가 없는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

[1] James Smith, *The Voyage and Shipwreck of St. Paul.*

28:3 바울은 장작을 모으며 유용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섬겨주기를 기대하며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나무를 주울 때 자신도 모르게 작은 "독사"를 잡았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잠자고 있었을 독사는 불의 "열기"에 깨어났습니다. 물론 독사는 특정 종류의 뱀을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독사가 현재 몰타에 없다는 사실은 바울의 방문 이후 이 종류의 뱀이 멸종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1] 독사는 일반적으로 물린 대상을 물고 있지않고 공격했다가 후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뱀은 여전히 다소 무기력한 상태였고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뱀은 송곳니로 바울의 "손"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마주친 세 번째 생명의 위협 상황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바다의 폭풍과 난파선이었습니다.

28:4-6 "이 사람들은 재난이, 죄와 형편없는 철학과 나쁜 신학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2]

사람들은 이전에도 바울을 "신"으로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14:8-18). 아마도 이곳에서도 그들에 대한 반응은 루스드라에서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아마도 바울이 한 말의 배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기적적으로 고치시기까지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참조, 23:11, 27:24).

"바울은 일부러 이 독사를 집어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3]

---

[1] Ramsay, *St. Paul …*, p. 343 참조.
[2] Robertson, 3:479.
[3] McGee, 4:635

"마가복음 16:18[과 누가복음 10:19]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울의 경험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독으로 인해 어떤 악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일부러 뱀을 집어 들고 그 약속을 보호 수단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1]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함 28:7-10

28:7-8 하나님은 바울을 기적적으로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의 아버지도 고치도록 하셨습니다(참조, 3:1-10; 눅 4:38-44). "섬의 지도자"는 보블리오가 몰타의 로마 총독이었음을 나타내는 칭호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2]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영국인 윌리엄 도비 장군이 몰타의 총독을 지냈습니다. 그는 제가 1949년 영국에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기적의 이야기에서 기도와 안수가 결합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렌즈키(Lenski)는 바울이 병자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 기도했다고 믿었습니다.[3] 그러나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열병은 아마도 몰타, 지브롤터 및 기타 지중해 섬에서 흔한 몰타 열병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이 미생물은 몰타 염소의 우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열병은 보통 4개월 동안 지속되었지만 때로는 2, 3년까지 지속되기도 했습니다."[4]

28:9 이 치유에 대한 소문이 "섬" 전역에 퍼졌고 바울은 "질병"을 앓고 있는 다른 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의사 누가는 육체적 회복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

---

[1] Ibid., 4:636.
[2] Longenecker, "The Acts …," pp. 563, 564.
[3] Lenski, p. 1104.
[4] *The Nelson* …, p. 1873.

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치유 사례를 본문에 포함하신 것 같습니다. 바다 항해와 난파 사고로 인한 육체적 피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고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칠 수 있었습니다(참조, 딤후 4:20).

"바울은 치유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었지만, 육체의 가시를 영원히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치유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그는 주님처럼 자신을 구하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을 구했습니다."[1]

28:10 **바울은 신은 아니었지만 참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몰타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유익을 주었고,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존경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였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의 섬김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도 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참조, 마 6:33; 빌 4:19).**

"바울이 몰타에서 치유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치유한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눅 4:38-40). 두 경우 모두 한 개인의 치유에 이어 한 지역의 '모든' 또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치유가 뒤따릅니다. 치유자를 접대하는 사람의 친척인 개인은 열병에 '사로잡힌(seized, 쉬넥소메네[*sunexomene*], 쉬넥소메논[*sunexomenon*])' 상태입니다. 안수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여전히 그의 증인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으며, 치유자를 맞이하는 사람과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의 한 장면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치유에 대한 설명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교차대구적 관계를 암시합니다."[2]

---

[1] Barclay, pp. 207–8.

[2] Tannehill, 2:341–42.

몰타에서 로마로의 여행 28:11-15

28:11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몰타 섬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2월 중순에 배가 다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부장은 몰타의 한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있던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 아마도 곡물선을 타고 항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발레타(Valetta)는 이 항구들 중 가장 큰 항구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아직 약 210마일을 더 가야 했습니다.

누가가 이 배의 이름("쌍둥이 형제")에서 따온 이 배의 앞머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유일한 배의 이름입니다. 쌍둥이 형제는 그리스에서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두 신, 카스토르(Castos)와 폴룩스(Pollux)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들은 제우스와 스파르타의 여왕 레다의 아들들로 제우스가 신으로 변신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쌍둥이자리는 이들을 상징하는 별자리로,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쌍둥이자리를 본 사람은 행운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1] 아마도 누가는 이전 장과 이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와 이교도들이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신들의 보호를 대조하기 위해 이 쌍둥이 형제를 언급했을 것입니다. 배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누가의 기록이 목격자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배를 탈 준비를 하면서 바울이 누가를 향해 '우리에게는 쌍둥이 형제보다 더 훌륭한 보호자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상상됩니다.

28:12 "수라구사"(Syracuse)는 시칠리아 섬의 동쪽 해안에 서 있었습니다. 수라구사는 번화한 항구이자 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

28:13 "레기온"(현대의 레기오 디 칼라브리아)은 시칠리아 반대편 이탈리아 "부츠"의 "발가락" 끝 근처에 있었으며, 약 수라구사에서 7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도 중요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보디올"(현대의 포체올리)는 "부츠"의 "정강이"에서 북쪽으로 약 200마일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

[1] Toussaint, "Acts," p. 429.

이곳은 나폴리 만에서 가장 보호받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우 큰 항구였으며 당시 많은 이집트 밀 선박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부두 노동자들이 화물을 하역했습니다.

28:14 그곳에 교회("어떤 형제자매들")가 있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보디올에는 유대인 식민지가 있었습니다.[1] 아마도 로마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를 개척했거나 유대인 개종자들이 개척했을 것입니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매우 관대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7일간" 머물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로마에 이르렀다"는 구절은 바울의 목표 도시에 도달하고자 하는 누가의 열망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참조, 15-16절). 그러나 누가는 바울이 아직 갈 길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도착 소식을 전할 만큼 푸테오가 가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28:15 바울의 도착 소식은 보디올에서 약 125마일 떨어진 로마에 먼저 전해졌습니다.[2] 로마에서 온 신자들의 일행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사람들이 가장 자주 다니는 길"인 아피아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3] 그들은 33마일 남쪽으로 이동하여 휴게소인 "세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몇몇은 기다렸고, 더 활기찬 사람들은 남쪽으로 10마일을 더 가서 시장 마을인 "아피온 시장[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로마 기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3년 전(서기 57년), 세 번째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그들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의 사역을 오랫동안 고대하던 바울에게 이 인사들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롬 15:22-29). 그는 이 환영단으로부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환대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몰타

---

[1] Josephus, *The Wars …*, 2:7:1; Idem, *Antiquities of …*, 17:11:1.
[2] Lenski, p. 1109.
[3] Howson, p. 667.

에서 출발한 전체 여행은 아마도 3주가 걸렸을 것입니다.[1]

> "그것[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커지는 일행]은 거의 승리의 행렬이 되었다[참조,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2]

바울은 보디올와 네압볼리 사이에 있는 로마 시인 버질(Virgil)의 무덤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버질은 그의 시에서 구원자를 기대했고,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3]

이 구절은 누가의 복음 전파에 대한 기록을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1:8). 바울은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네힐(Tannehill)은 누가가 바울의 로마 항해를 기록한 목적은 기독교와 이교도 사회 사이에 가능한 협력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4] 이것이 누가의 목적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은 약 2,250마일에 달하며 4개월 이상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5]

5. 로마에서의 사역 28:16-31

누가가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을 기록한 목적은 바울이 그곳에서 증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23:11; 27:24). 로마에 이미 교회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로마 사역이 누가의 목적에 중요했던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롬 11:13; 딤전 2:7). 이방인의 사도는 이제 이방인 세계의 중심부에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6]

---

[1] Bock, *Acts*, p. 746.
[2] Neil, p. 256.
[3] Longenecker, "The Acts …," p. 569.
[4] Tannehill, 2:341.
[5] Beitzel, p. 177; Bock, *Acts*, p. 746.
[6] 로마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Finegan, *Light from …,* pp. 363-77 참조.

"이방인들은 로마를 땅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1]

로마에서의 바울의 상황 28:16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카이사르에게 상소하였으며, 그의 백부장 호위병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로마 경비병이 있는 개인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참조, 30절).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우리" 부분의 끝입니다(16:10-17; 20:5-15; 21:1-18; 27:1-28:16).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한동안 바울과 함께 머물렀고 바울에게는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등 다른 방문객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몬 24, 골 4:14) 서신을 쓸 때 함께 있었습니다. 이 투옥은 아마도 A.D. 60년부터 62년까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참조, 30절). 따라서 사도행전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 오순절로부터 29년 후인 주후 62년경에 끝납니다.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바울의 첫 번째 회의 28:17-22

28:17-20 바울은 즉시 증거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로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로마에 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온 이유에 대해 그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1세기 로마의 유대인 인구는 10,000명에서 60,000명 사이로 추정됩니다.[2]

의심할 여지없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보내기 전에 그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예루살렘 암살자들처럼 적대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

[1] Bock, *Acts*, p. 726.
[2] Levinskaya, p. 182.

니다. 바울은 죄수 신분 때문에 회당에 갈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는 자신의 영역에서 소수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무죄 판결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폭동을 막기 위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3일"만에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 "28:17-20에 나오는 바울의 진술은 사도행전 22-26에 나오는 앞선 재판 이야기와 옥중 연설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진술은 화자가 그 긴 이야기에서 독자들이 가장 기억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제시합니다."[1]

바울은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1) 그는 유대인이나 그들의 "관습"을 "거스른 적이 없다"(17절). (2) 유대의 로마 당국은 이미 그를 무죄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를 "사형에 처할" "근거가 없었다"(18절). (3)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유대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지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 어떤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19절). (4) 바울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스라엘의 소망", 즉 구원자와 구원에 관한 약속, 20절;참조: 23:6; 24:21; 26:6-8)에서 비롯된 것이다.

28:21-22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이 관하여 완전히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로마의 유대인들은 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건에 대해 듣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 "아마도 로마의 유대인들은 그 사건에 대해 무지한 채로 있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메시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로마에서 일시적으로 추방당했던 사실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18:2 노트)."[2]

아마도 유대인 지도자들은 로마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상대로 제

---

[1] Tannehill, 2:344.

[2] Marshall, *The Acts* ⋯, p. 423.

기한 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석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유대교 내의 "종파"로 간주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두 번째 회의 28:23-29

28:23 이 단락에서 누가의 관심사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하나님의 왕국"과 "예수님에 관한 것")과 그의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라는 용어는 사도행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의미, 즉 현재와 다가올 시대 모두에서 메시아의 통치를 의미할 것입니다(참조, 1:3; 8:12; 14:22; 19:8; 20:25; 28:31).

> "그[바울]는 유대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소망의 성취라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의 결정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반대가 있다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1]

> "로마에서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설교했을 때와 같이, 패배할 수 없는 희망과 정복될 수 없는 사랑의 예가 있을까요?"[2]

28:24-27 누가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특징적인 반응을 기록했습니다(24절; 13:46; 18:6; 참조, 롬 11:7-10). 렌즈키(Lenski)의 해석은 낙관적이며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 "우리는 바울의 모든 경력에서 누가가 23절에서 묘사한 날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계 수도에

[1] Tannehill, 2:347.
[2] Barclay, p. 211.

있는 11개 회당의 랍비들과 지도자들 중 절반을 개종시켰습니다!"[1]

바울의 이별의 말은 이사야 6:9-10에서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유대인 청중들이 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참조, 마 13:14-15; 막 4:12; 눅 8:10; 요 12:40-41). 바울은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시대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경 구절이 성령에 대한 언급으로 소개되는 모든 경우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으로 묘사됩니다(참조, 1.16; 4.25). 이런 식으로 기록된 말씀은 역동적이고 '살아 있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2]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돌이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주목하십시오."[3]

28:28-29 28절은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를 요약합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목격한 바울은(24절) 이제 다시 "이방인"에게 사역의 초점을 맞춥니다(참조, 13:46-52; 18:6; 롬 1:16). "이방인의 때"(눅 21:24)가 지나고 메시아의 재림으로 현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복음을 믿는 대다수는 이방인이 될 것입니다(참조, 롬 11:19-26).

"누가복음-사도행전은 기본적으로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은 선교의 미래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이야기는 항해 중 바울에 대한 이방인들의 우호적인 반응과 로마 유대인들의 대조적인 반응에 대한 보도로 이 언급을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27-28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선교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성찰을 인식할 때 사도행전의 결

[1] Lenski, p. 1132.
[2] Polhill, p. 543.
[3] The NET2 Bible의 27절 노트.

말이 갑작스럽고 부적절하다는 인상은 상당히 줄어듭니다."[1]

복음에 대한 이방인의 반응 28:30-31

바울이 공식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은 그가 로마에서 "2년 동안"(서기 60-62년)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분명합니다.[2]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고(Gr. 케릿소[*kerysso*], 전령으로서 선포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Gr. 디다스코[*didasko*],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 누가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언급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1:6),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언급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28:31). 23절은 31절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엄숙하게 증언하는 것이 포함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는 그분에 대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바울은 로마 당국의 방해 없이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신뢰성과 긍정적인 가치에 대한 누가의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 "방해받지 않고"라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로, 그는 바울의 활동을 통해 교회가 이제 행진하고 있으며 그 무엇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중요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십자가는 현장에 있습니다."[3]

> "누가는 자신의 책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1세기 사도적 복음 선포가 그리스도 안의 왕국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이야기를 시작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행 1:11)."[4]

이 구절은 누가의 일곱 가지 경과 보고(2:47; 6:7; 9:31; 12:24; 16:5; 19:20; 28:30-31) 중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 "이방인의 사도의 생애와 사역을 연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가지는 무엇인가

---

[1] Tannehill, 2:343. 또한 Ladd, "The Acts …," pp. 1177-78 참조.
[2] F. F. Bruce, "Chronological Questions …," pp. 289-90.
[3] Neil, p. 30. 참조, 마 16:18.
[4] Longenecker, "The Acts …," p. 573.

> 요?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의 놀라운 가능성이 아닐까요?"[1]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 이후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학자들 사이에는 예상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 당국이 바울을 정죄하고 사형에 처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로마 당국이 바울을 석방하고 로마를 떠났다고 믿습니다. 후자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은 신약의 다른 책에서 바울의 활동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바울의 생애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계속했을 경우에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기 340년경에 사망한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 "그는 자신의 대의를 변론한 후, 설교 사역을 위해 다시 파송되었고, 그 도시[로마]를 두 번째 방문한 후 순교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2]

> "클레멘트에서 유세비우스에 이르는 전통은 두 번의 투옥과 그 사이에 최소 1년의 자유 기간을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밀레도에서 병든 드로비모가 떠난 사건(딤후 4:20)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중에 일어났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그때 드로비모는 함께 있었기 때문이며(행 20:4; 21:29), 또 그가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나타나기 위한 여행 중이었을 수도 없는데, 이는 밀레도를 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투옥에서 풀려난 후 사역과 여행을 했던 공백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3]

누가가 언급한 2년 동안(28:30)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안 감옥 서신(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석방되어 로마를 떠난 후 그는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그는 아마도 서기 63년에서 66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썼을 것인데, 마케도니아가 그 장소였을 수도 있지만 어디서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4] 그는 나중에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에 대해 이야

---

[1] Thomas, p. 83.
[2] Eusebius, 2:22:74.
[3] *The New Scofield* …, p. 1208.
[4] Conybeare, p. 747.

기했습니다(딤전 3:14; 4:13). 바울은 또한 같은 시기에 일루리곤이나 마케도니아에서 크레타 섬에 있던 디도에게 디도서도 썼습니다(참조, 딛 3:12; 딤후 4:10).

아마도 바울은 주후 62년에서 67년 사이에 그가 갈망하던 스페인을 방문했을 것입니다(롬 15:23-24).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다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교부들의 기록에는 그가 스페인을 방문했다는 몇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1] 바울은 네로 통치 기간인 서기 68년 순교하기 직전 로마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딤후 1:16-18; 4:14, 19; 딤전 1:20).[2] 아마도 도시 지사의 권한 아래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을 것입니다.[3] 그는 매질 당한 후에 도시 밖에서 참수당하고 로마 지하 카타콤에 묻힌 것이 분명합니다.[4]

지리학자 배리 베이첼(Barry Beitzel)은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난 후 귀국하여 사망할 때까지 최소 2,350마일을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바울이 사역 기간 동안 총 13,400 항공 마일(까마귀가 날아가는 거리)을 이동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5]

> "...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남긴 선교 상황과 교회의 모범이 된 바울의 용기와 신실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기회를 가리킵니다. 또 유대인 선교에서의 위기를 강조합니다. 유대인의 거부와 로마의 투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환영하고 '모든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바울이 선교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울의 유산에 대한 결론적인 그림입니다."[6]

> "단순히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도행전의 미완성된 성격처럼 보이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는 천사들의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이 시대의 복음화 사역이 완성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

[1] ibid., pp. 738-39, 746 참조.
[2] Ibid., p. 741.
[3] Ibid., p. 767.
[4] Ibid., pp. 781, 783.
[5] Beitzel, pp. 176-77.
[6] Tannehill, 2:356.

려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1]

[1] Ironside, *Lectures on …*, p. 651.

부록 1

바울의 활동 순서

연도	사건	참조구절
	다소에서 출생	행 22:3
	예루살렘에서의 초기 생활과 가말리엘의 신학 교육	행 22:3
34	예루살렘 밖에서 스데반의 돌팔매질에 참여	행 7:57—8:1
34	예루살렘 기독교인 박해를 이끔	행 9:1
34	예루살렘을 넘어 다마스쿠스까지 기독교인 박해를 이끔	행 9:2
34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회심	행 9:3-17
34	다마스커스에서 침례 받음	행 9:18
34	다마스커스에서 설교	행 9:19-22
34	아라비아 여행	갈 1:17
34	다마스쿠스로 귀환	갈 1:17
37	예루살렘 여행	행 9:26; 갈 1:18
37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남 예루살렘에서 설교	행 9:27-29; 갈 1:18-19
37	가이사랴를 경유하여 다소의 여행	행 9:30; 갈 1:21
37-43	다소와 그 주변에서의 사역	행 11:25
37-43	셋째 하늘 방문	고후 12:2-4
43	바나바의 초청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동	행 11:26
43	시리아 안디옥에서의 사역	행 11:26
47	기근 구호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	행 11:30; 갈 2:1-10
47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행 12:25

47-48	안디옥에서 계속되는 사역	행 13:1-3
48-49	바나바와 요한 마가와의 첫 선교 여행	행 13:4-4:27
48	키프로스에서의 사역	행 13:4-12
48	소아시아로의 항해	행 13:13
48	버가에서 떠난 요한 마가와 헤어짐	행 13:13
48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	행 13:14-52
48-49	이고니움 사역	행 14:1-5
49	루스드라 사역	행 14:8-19
49	더베 사역	행 14:20-23
49	아달리아로 돌아감	행 14:24-25
49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감	행 14:26
49	시리아 안디옥 사역	행 14:27-15:2
49	베드로 책망	갈 2:11-14
49	갈라디아서 기록	
49	바나바와 함께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여행	행 15:3
49	예루살렘 공회	행 15:4-29
49	바나바, 실라, 유다와 함께 시리아 안디옥으로 귀환	행 15:22, 30
49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실라, 유다와 헤어짐	행 15:31-33
49-50	시리아 안디옥에서의 사역	행 15:35
50	요한 마가에 대한 바나바와의 의견 분열	행 15:36-39
50	키프로스로 돌아간 바나바, 요한 마가와 이별	행 15:39
50-52	실라 및 다른 이들과의 두 번째 선교 여행	행 15:40—18:22
50	시리아, 길리기아 사역	행 15:41
50	더베, 루스드라 사역	행 16:1a
50	바울과 실라에 합류한 디모데와 동역	행 16:1b-3

50	갈라디아 교회 사역	행 16:4-6
50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들어가지 못함	행 16:7-8
50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봄	행 16:9-10
50	누가와 함께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네압볼리로 가는 항해	행 16:11
50	빌립보 사역	행 16:12-40
50	빌립보에 남은 누가와 헤어짐	참조, "우리" (행 16:12)와 "그들"(행 17:1)
50-51	데살로니가 사역	행 17:1-9
51	베뢰아 사역	행 17:10-15
51	베뢰아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짐	행 17:14
51	아테네 사역	행 17:16-34
51	고린도 사역	행 18:1-17
51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교제	행 18:2-3
51	실라, 디모데와 재회	행 18:5
51	데살로니가전후서 기록	
52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에베소로 여행	행 18:18
52	시리아로 간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헤어짐	행 18:18-19
52	에베소 사역	행 18:19-21
52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감	행 18:21-22
52-53	시리아 안디옥 경유	행 18:23a
53-57	세 번째 선교 여행	행 18:23b—21:19
53	갈라디아 사역	행 18:23b; 19:1
53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사역	행 18:24
53	아굴라와 프리실라의 아볼로 사역	행 18:26
53	아가야에서의 아볼로의 사역	행 18:2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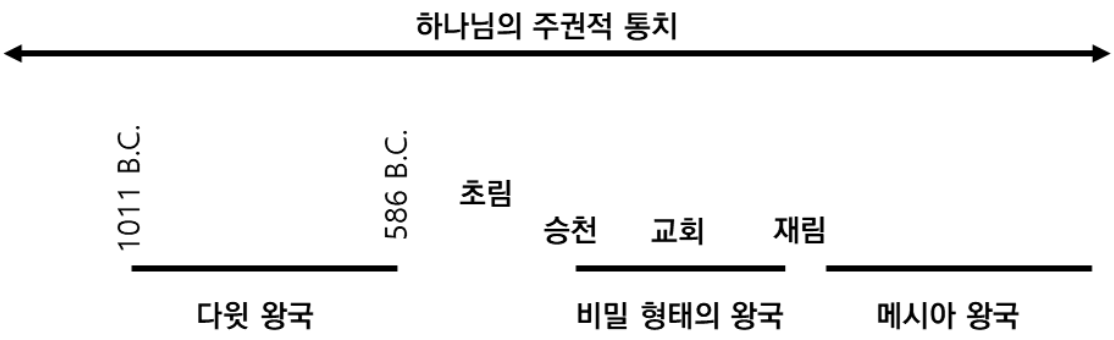
53-56	에베소와 아시아 사역	행 19:1—20:1
53-56	고린도에 보내는 "이전 편지" 기록	고전 5:9
56	고린도전서 기록	
56	고린도로의 "고통스러운 방문"과 귀환	고후 2:1; 12:14; 13:1-2
56	고린도에 보내는 "가혹한 편지" 기록	고후 2:3-4; 7:8-12; 12:17-19
56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파송함	행 19:22
56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는 여행	
56	디도를 기다림	
56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여행	행 20:1
56	마케도니아에서 디도와의 재회	
56	고린도후서 기록	
56	마케도니아 사역	행 20:2
56	그리스(아가야와 고린도) 사역	행 20:2-3
56-57	로마서 기록	
57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누가와 함께 마케도니아와 빌립보로 귀환	행 20:3-4
57	누가를 제외한 그의 동료들의 드로아 여행	행 20:5
57	누가와 함께 한 드로아 여행	행 20:6
57	드로아에서의 사역	행 20:7-12
57	누가와 다른 형제가 배를 타고 여행하는 동안 육로로 앗소로 여행	행 20:13
57	누가와 다른 형제와 함께 배를 타고 밀레도로 여행	행 20:14-16
57	밀레도 사역	행 20:17-38
57	누가와 다른 형제와 함께 밀레도에서 가이사	행 21:1-7

	랴까지 두로를 경유하는 여행	
57	가이사랴 사역	행 21:8-14
57	예루살렘으로 여행	행 21:15-16
57	예루살렘 사역	행 21:17-23:30
57	교회에 보고	행 21:17-26
57	성전에서 체포 당함	행 21:27-40
57	성전 안뜰에서의 연설	행 22:1-21
57	예루살렘에서의 투옥	행 22:22-23:30
57	가이사랴로 여행	행 23:31-35
57-59	가이사랴 사역	행 24:1-26:32
57	벨릭스 앞에서 변론함	행 24:1-27
59	베스도 앞에서 변론함	행 25:1-12
59	아그립바와 베스도 앞에서의 변론함	행 26:1-32
59-60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함께 로마로 여행	행 27:1-28:16
59	크레타 섬 여행	행 27:1-13
59	난파 당함	행 27:14-44
59-60	몰타 사역	행 28:1-10
60	몰타에서 로마로 여행	행 28:11-16
60-62	로마 사역	행 28:16-31
60-62	옥중 서신 작성	
62	로마에서 석방	
62	에게 해 지역으로 귀환	
62-66	디모데전서, 디도서 기록	
67	체포	
67-68	로마 투옥	
67	디모데후서 기록	
68	로마에서 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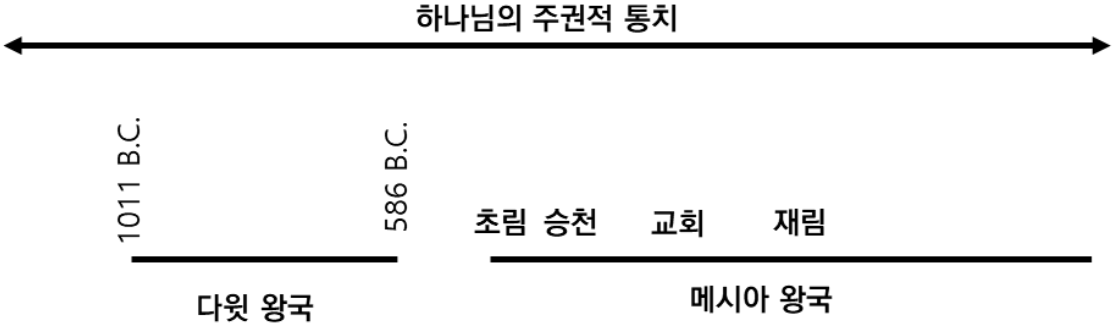
부록 2

하나님의 왕국 관점

전통적 세대주의



점진적 세대주의 및 전천년 언약주의



부록 3

메시아 왕국에 대한 관점

관점	시작되었는가?	몇 단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대리자
비-천년주의	예	하나	하늘 혹은 새땅	교회
전천년 언약주의	예	둘	하늘(이미) 땅(아직)	교회 교회
점진적 세대주의	예	둘	하늘(이미) 땅(아직)	교회 이스라엘
전통적 세대주의	아니오	하나	땅	이스라엘

부록 4

사도행전의 설교와 연설[1]

화자	경위와 청중	도시	참조구절
베드로 (1)	유다의 대체자를 선택	예루살렘	1:16-22
베드로 (2)	오순절 날의 표적	예루살렘	2:14-36
베드로 (3)	성전에서 앉은뱅이를 치유함	예루살렘	3:12-26
베드로 (4)	산헤드린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함	예루살렘	4:8-12
가말리엘	산헤드린 앞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예루살렘	5:35-39
스데반	체포된 후 산헤드린 앞에서	예루살렘	7:2-53
베드로 (5)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가이사랴	10:34-43
베드로 (6)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교회에서 변론	예루살렘	11:4-17
바울 (1)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함	비시디아 안디옥	13:16-41
바울 (2)과 바나바	사도들을 경배하고자 했던 무리들에게	루스드라	14:15-17

[1]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New Testament, p. 355으로부터 각색함. 복음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로 표기함.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화, 설교, 연설에 관한 큰 표는, Fruchtenbaum, *The Book* …, pp. 557- 65 참조.

베드로 (7)	교회 공회	예루살렘	15:7-11
야고보	교회 공회	예루살렘	15:13-21
바울 (3)	마르스의 언덕에서 아테네인들에게	아테네	17:22-31
데메드리오	바울의 복음전파에 방해받은 장인들	에베소	19:25-27
도시 서기관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	에베소	19:35-40
바울 (4)	에베소 장로들의 모임	밀레도	20:18-35
바울 (5)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들에게	예루살렘	22:1-21
바울 (6)	산헤드린 앞에서 변론함	예루살렘	23:1-6
바울 (7)	벨릭스 앞에서 변론함	가이사랴	24:10-21
바울 (8)	베스도 앞에서 변론함	가이사랴	25:8, 10-11
바울 (9)	헤롯 아그립바 2세 앞에서 변론함	가이사랴	26:1-23
바울 (10)	폭풍 가운데서 배 탑승자들에게	지중해 크레타와 몰타 사이	27:21-26
바울(11)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증언함	로마	28:17-20, 25-28

부록 5

바울 서신

기간	서신	기록 장소	연대
첫 번째 선교여행 이후	갈라디아서	시리아 안디옥	A.D. 49
두 번째 선교여행 도중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	A.D. 51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	A.D. 51
세 번째 선교여행 도중	고린도전서	에베소	A.D. 56
	고린도후서	마케도니아	A.D. 56
	로마서	고린도	A.D. 56
1 차 로마 투옥 도중	에베소서	로마	A.D. 60-62
	빌립보서	로마	A.D. 60-62
	골로새서	로마	A.D. 60-62
	빌레몬서	로마	A.D. 60-62
1 차 로마 투옥과 2 차 투옥 사이	디모데전서	마케도니아?	A.D. 62-66
	디도서	마케도니아?	A.D. 62-66
2 차 로마 투옥 도중	디모데후서	로마	A.D. 67

부록 6

신약 시대의 로마 황제

황제	주요 사건	기록된 성경
아우구스투스 (31 B.C.–A.D. 15)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는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눅 2:1).	
티베리우스 (A.D. 15–37)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수행되었다(눅 3:1; 20:22, 25; 23:2; 요 19:12, 15).	
칼리굴라/가이우스 (A.D. 37–41)	헤롯 아그립바 1세가 팔레스타인의 왕으로 임명됨(행 12:1)	마태복음 (A.D. 40–70)
클라우디우스 (A.D. 41–54)	광범위한 기근(행 11:28) 프리실라와 아굴라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행 18:2)	야고보서 (A.D. 45–48) 갈라디아서 (A.D. 49) 데살로니가전후서 (A.D. 51)
네로 (A.D. 54–68)	바울이 그의 재판을 호소함(행 25:11). 통치 초기에 기독교를 선호했지만 서기 64년에 로마가 불타 버렸을 때 그는 기독교인을 비난하고 그때부터 그들을 박해했다. 바울과 베드로를 처형했다(초기 기독교 전통에 따름).	고린도전후서 (A.D. 56) 로마서 (A.D. 57) 누가복음 (A.D. 57–59) 옥중서신들 (A.D. 60–62) 사도행전 (A.D. 60–62) 디모데전서 (A.D. 62–66) 디도서 (A.D. 62–66) 마가복음 (A.D. 63–70) 베드로전서 (A.D. 64) 디모데후서 (A.D. 67) 베드로후서 (A.D. 67–68) 유다서 (A.D. 67–80)
갈바 (A.D. 68–69)		히브리서 (A.D. 68–69)
오토 (A.D. 69)		
비텔리우스 (A.D. 69)		
베스파시안 (A.D. 69–79)	로마에 대한 유대인 반란 진압(A.D. 70 년).[1]	
티투스 (A.D. 79–81)	베스파시안의 아들로, 유대인과의 전쟁에서 아버지를 도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A.D. 70년).[2]	
도미티안 (A.D. 81–96)		요한복음 (A.D. 85–95) 요한1,2,3서 (A.D. 90–95) 요한계시록 (A.D. 95–96)
네르바 (A.D. 96–98)		
트라얀 (A.D. 98–117)		

[1] Josephus, *The Wars . . .,* 3권과 4권 참조.

[2] Ibid., 3–7권.

참고문헌

Albright, William Foxwell. The Archaeology of Palestine. 1949. Revised ed. Pelican Archaeology series. Harmondswroth,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s, 1956.

Alexander, Joseph Addison.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n.d.

Alexander, L. C. A. "Luke's Preface in the Context of Greek Preface- Writing." Novum Testamentum 18 (1986):48-74.

Alford, Henry. The Greek Testament. 4 vols. New ed. Cambridge: Deighton, Bell, and Co., 1883, 1881, 1880, 1884.

Allen, Roland.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2nd American ed., Chicago, Moody Press, 1959.

Allis, Oswald T. Prophecy and the Church. Nutley,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45.

Anderson, J. Kirby. Moral Dilemmas: Biblical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Ethical Issues. Swindoll Leadership Library series. Nashville: Word Publishing, 1998.

Anderson, Robert. The Silence of God. 8th e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07. The Ante-Nicene Fathers. Edited by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 10 vol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4.

Archer, Gleason L. "Alleged Errors and Discrepancies in the Original Manuscripts of the Bible." In Inerrancy, pp. 57-82. Edited by Norman L. Geisler.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0.

_____. Encyclopedia of Bible Difficultie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Arndt, William F., and F. Wilbur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Bailey, Mark L., and Thomas L. Constable. The New Testament Explorer. Nashville: Word Publishing Co., 1999. Reprinted as Nelson's New Testament Survey.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9.

Baker, Bruce A. "The New Covenant and Egalitarianism." Journal of Dispensational Theology 12:37 (December 2008):27-51.

Ballance, M. The Site of Derbe: A New Inscription. Anatolian Studies series. London: British

Institute of Archaeology at Ankora, 1957.

Bammel, Ernst. "Jewish Activity against Christians in Palestine according to Acts."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357-64. Edited by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5.

Barclay, William.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Daily Study Bible series. 2nd ed. Edinburgh: Saint Andrew Press, 1962.

Barker, Kenneth L. "The Scope and Center of Old and New Testament Theology and Hope." In Dispensationalism, Israel and the Church: The Search for Definition, pp. 293-328. Edited by Craig A. Blaising and Darrell L. Bock.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2.

Barnhouse, Donald G. God's River. Vol. IV in Exposition of Bible Doctrine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8.

Barrett, C. K. "The Apostolic Decree of Acts 15.29." Australian Biblical Review 35 (1987):50-59. .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1.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series. Edinburgh: T. & T. Clark, 1994.. The New Testament Background: Selected Documents. New York: Harper & Row, 1961.

Bartchy, S. S. "Community of Goods in Acts: Idealization or Social Reality?" In The Future of Christianity: Essays in Honor of Helmut Koester, pp. 309-18. Edited by B. A. Pears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Bauckham, Richard. "James and the Jerusalem Church."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415-80. Edited by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5.

Baxter, J. Sidlow. Explore the Book. 1960. One vol. e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0.

Beitzel, Barry J. The Moody Atlas of Bible Lands. Chicago: Moody Press, 1985.

Bellshaw, William G. "The Confusion of Tongues." Bibliotheca Sacra 120:478 (April-June 1963):145-53.

Berghuis, Kent D. "A Biblical Perspective on Fasting." Bibliotheca Sacra 158:629 (January-March 2001):86-103.

Berkhof. L. Systematic Theology. 4th ed. revised and enlarg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41, 1959.

Bettenson, Henry, ed.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 2nd ed. Lond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1967.

Blaiklock, E. M. The Acts of the Apostles.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series. London: Tyndale Press, 1959; reprint 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9.

_____. Today's Handbook of Bible Characters.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1979.

Blaising, Craig. A. "The Extent and Varieties of Dispensationalism." In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pp. 9-56. By Craig A. Blaising and Darrell L. Bock. Wheaton: Victor Books, 1993.

_____. "The Fulfillment of the Biblical Covenants Through Jesus Christ." In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pp. 174-211. By Craig A. Blaising and Darrell L. Bock. Wheaton: Victor Books, 1993.

_____. "The Kingdom of God in the New Testament." In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pp. 232-83. By Craig A. Blaising and Darrell L. Bock. Wheaton: Victor Books, 1993.

Blum, Edwin A. "The Apostles' View of Scripture." In Inerrancy. Edited by Norman L. Geisler.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0.

Bock, Darrell L. Act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seri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_____. "Evidence from Acts." In A Case for Premillennialism: A New Consensus, pp. 181-98. Edited by Donald K. Campbell and Jeffrey L. Townsend. Chicago: Moody Press, 1992.

_____. "Jesus as Lord in Acts and in the Gospel Message." Bibliotheca Sacra 143:570 (April-June 1986):146-54.

_____. Proclamation from Prophecy and Pattern: Lucan Old Testament Christolog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2. Sheffield, Eng.: JSOT Press, 1987.

_____. "The Reign of the Lord Christ." In Dispensationalism, Israel and the Church: The Search for Definition, pp. 37-67. Edited by Craig A. Blaising and Darrell L. Bock.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2.

_____. "A Theology of Luke-Acts." In A Biblica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pp. 87-166. Edited by Roy B. Zuck. Chicago: Moody Press, 1994.

Boice, James Montgomery. Foundations of the Christian Faith.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86.

Brighton, Mark A. "The Sicarii in Acts: A New Perspectiv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4:3 (September 2011):547-58.

Bruce, Alexander Balmain. The Training of the Twelve. 8th ed. N. c.: A. C. Armstrong and Son, 1894; reprint ed.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71.

Bruce, F. F. "Chronological Questions in the Acts of the Apostles."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University Library of Manchester 68:2 (Spring 1986):273-95.

_____. "The Church of Jerusalem in the Acts of the Apostles."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University Library of Manchester 67:2 (Spring 1985):641-61.

_____. Commentary on The Book of Act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series. Reprint 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4.

_____.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series. Exeter, England: Paternoster Press, 1982; reprint 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3.

_____. "Paul's Apologetic and the Purpose of Acts."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University Library 39:2 (Spring 1987):379-93.

Brunner, Emil.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hurc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3.

Bryanson, James. Talking About Isa. N.c.: HIS Publishing Group, 2016. Burns, J. Lanier. "A Reemphasis on the Purpose of Tongues." Bibliotheca Sacra 132:527 (July-September 1975):242-49.

Burton, Ernest DeWitt. "The Politarchs." American Journal of Theology 2 (1898):598-632.

Butcher, J. Kevin. "A Critique of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Journal of the Grace Evangelical Society 2:1 (Spring 1989):27-43.

Cadbury, Henry J. The Book of Acts in History. London: Black, 1955. Cairns, Earle E.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3rd e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8.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series,

volumes 20 and 21.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Campbell, Donald K. "Paul's Ministry at Ephesus—A Devotional Study." Bibliotheca Sacra 118:472 (October-December 1961):304-10.

Capper, Brian. "The Palestinian Cultural Context of Earliest Christian Community of Goods."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323-56. Edited by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5.

Carroll, J. Response to the End of History: Eschatology and Situation in Luke-Acts. Atlanta: Scholars Press, 1989.

Carson, Donald A. Exegetical Fallaci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Carson, Donald A., and Douglas J. Moo.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2nd ed. Grand Rapids: Zondervan, 2005.

Cassidy, R. Society and Politics in the Acts of the Apostles. Maryknoll: Orbis, 1987.

Casson, Lionel. Ships and Seamanship in the Ancient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Catalog of Oral Roberts University. Tulsa, Okla.: Oral Roberts University, 1973.

Chafer, Lewis Sperry. Grac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22.

_____. He That Is Spiritual. Findlay, Ohio: Dunham Publishing Co., 1819.

_____. Salvat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17.

_____. Systematic Theology. 8 vols. Dallas: Dallas Seminary Press, 1947- 48.

Chambers, Andy. Exemplary Life: A Theology of Church Life in Acts.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12.

Chase, F. H. The Credibility of the Acts of the Apostles. London: Macmillan Co., 1902.

Chisholm, Robert B, Jr. "Joel." I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Old Testament, pp. 1409-24. Edited by John F. Walvoord and Roy B. Zuck. Wheaton: Scripture Press Publications, Victor Books, 1983.

Cocoris, G. Michael. Evangelism: A Biblical Approach. Chicago: Moody Press, 1984.

_____. "John MacArthur, Jr's, System of Salvation: An Evaluation of the Book,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Glendora, Calif.: By the Author, 1989.

_____. Lordship Salvation—Is It Biblical? Dallas: Redencion Viva, 1983. Cohen, Shaye J. D. "Was Timothy Jewish (Acts 16:1-3)? Patristic Exegesis, Rabbinic Law, and Matrilineal Descen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5:2 (June 1986):251-68.

Cole, Dan P. "Corinth & Ephesus." Bible Review 4:6 (December 1988):20- 30.

Compton, R. Bruce. "The Ordo Salutis and Monergism: The Case for Faith Preceding Regeneration, Part 1." Bibliotheca Sacra 175:697 (January-March 2018):34-49.

_____. "The Ordo Salutis and Monergism: The Case for Faith Preceding Regeneration, Part 2." Bibliotheca Sacra 175:698 (April-June 2018):159-73.

Constable, Thomas L. "Acts." In Surveying the Gospels and Acts, pp. 219-71. Edited by Paul D. Weaver. [Schroon Lake, N.Y.]: Word of Life, 2017.

_____. "The Gospel Message." In Walvoord: A Tribute, pp. 201-17. Edited by Donald K. Campbell. Chicago: Moody Press, 1982.

_____. "What Prayer Will and Will Not Change." In Essays in Honor of J. Dwight Pentecost, pp. 99-113. Edited by Stanley D. Toussaint and Charles H. Dyer. Chicago: Moody Press, 1986.

Conybeare, William John, and John Saul Howson. The Life and Epistles of St. Paul. London: N.p., 1851; New 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4.

Conzelmann, H. Acts of the Apostl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Cooper, Kenneth R. "The Tabernacle of David in Biblical Prophecy." Bibliotheca Sacra 167:672 (October-December 2011):402-12.

Criswell, W. A. Act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Crocker, Piers T. "The City of Meroe and the Ethiopian Eunuch." Buried History 22:3 (September 1986):53-72.

Croy, N. Clayton. "Hellenistic Philosophies and the Preaching of the Resurrection (Acts 17:18, 32)." Novum Testamentum 39:1 (1997):21-39.

Culver, Robert Duncan. "Apostles and the Apostolate in the New Testament." Bibliotheca Sacra 134:534 (April-June 1977):131-43.

Dalman, Gustaf H. The Words of Jesus. Translated by D. M. Kay. Edinburgh: T. & T. Clark, 1909.

Dana, H. E., and Julius R. Mantey. A Manual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New York:

Macmillan, 1955.

Darby, John Nelson. Meditati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London: G. Moorish, n.d. . Synopsis of the Books of the Bible. 5 vols. Revised ed. New York: Loizeaux Brothers Publishers, 1942.

Dean, David A. "A Study of the Enthronement of Christ in Acts 2 and 3." Th.M. thesis, Dallas Theological Seminary, 1992.

Deere, Jack. Surprised by the Power of the Spiri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3.

Deissmann, Adolf. Light from the Ancient East. 4th ed. Translated by Lionel R. M. Strache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5.

_____. Paul: A Study in Social and Religious History. Translated by William A. Wilson. Harper Torchbook ed. New York: Harper and Row, Harper Torchbooks, 1957.

Derrett, J. D. M. "Ananias, Sapphira, and the Right of Property." In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Volume One. Leiden, Netherlands: Brill, 1977.

deSilva, David A. "Paul and the Stoa: A Comparison."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8:4 (December 1995):549-64.

_____. "Paul's Sermon in Antioch of Pisidia." Bibliotheca Sacra 151:601 (January-March 1994):32-49.

Detwiler, David F. "Paul's Approach to the Great Commission in Acts 14:21-23." Bibliotheca Sacra 152:605 (January-March 1995):33-41.

de Waard, J. A. A Comparative Study of the Old Testament Text in the Dead Sea Scrolls and in the New Testament. Leiden, Netherlands: Brill, 1965. A Dictionary of the Bible. Edited by James Hastings. 1898 ed. 4 vols. S.v. "The Chronology of the New Testament," by C. H. Turner, 1:403-25.

Dillow, Joseph C. The Reign of the Servant Kings. Miami Springs, Fla.: Schoettle Publishing Co., 1992.

_____. Speaking in Tongues: Seven Crucial Question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5, 1980. "Doctrinal Statement of Dallas Theological Seminary." Dallas Theological Seminary 1988-89 Catalog.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 Edited by Henry Bettenson. Second ed. Londo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Dodd, C. H. According to the Scriptures. London: Nisbet, 1952.

Dunn, James D. G. Baptism in the Holy Spiri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0.

Dyer, Charles H., and Gregory A. Hatteberg. The New Christian Traveler's Guide to the Holy Land. Chicago: Moody Publishers, 2006.

Edersheim, Alfred. The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 2 vols. New American 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5.

_____. Sketches of Jewish Social Life in the Days of Christ. Reprint 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4.

_____. The Temple: Its Ministry and Services As They Were at the Time of Jesus Christ. Reprint 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2.

Edgar, Thomas R. "The Cessation of the Sign Gifts." Bibliotheca Sacra 145:580 (October-December 1988):371-86.

_____. Miraculous Gifts. Neptune, N.J.: Loizeaux Brothers, 1983.

Ehrman, Bart D. A Brief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New York and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_____. The New Testament: A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Early Christian Writings. 3rd ed. New York and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004.

English, E. Schuyler. "Was St. Peter Ever in Rome?" Bibliotheca Sacra 124:496 (October-December 1967):314-20.

Esler, P. F. Community and Gospel in Luke-Acts: The Social and Political Motivations of Lucan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Twin Brooks series. Popular 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4.

Falk, Daniel K. "Jewish Prayer Literature and the Jerusalem Church."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267-301. Edited by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5.

Fee, Gordon. "The Genre of New Testament Literature and Biblical Hermeneutics." In Interpreting the Word of God, pp. 105-27. Edited by Samuel J. Schultz and Morris A.

Inch. Chicago: Moody Press, 1976.

Feldman, Louis H. "The Omnipresence of the God-Fearers." Biblical Archaeology Review 12:5 (September-October 1986):58-63.

Fiensy, David A. "The Composition of the Jerusalem Church."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213-36. Edited by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5.

Finegan, Jack. The Archaeology of the New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_____. Light from the Ancient Past: The Archeological Background of Judaism and Christianity. 2nd e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Foakes-Jackson, F. J. The Acts of the Apostles. Moffat New Testament Commentary serie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31; reprint ed. 1960.

Foakes-Jackson, F. J. and Kirsopp Lake. The Acts of the Apostles. Part I of 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vols. 4 and 5.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5

Fox, R. L. Pagans and Christians. New York: Knopf, 1989.

Free, Joseph P. Archaeology and Bible History. 6th ed. Wheaton: Scripture Press, 1950, 1959.

Fruchtenbaum, Arnold G. The Book of Acts. Ariel's Bible Commentary series. San Antonio: Ariel Ministries, 2020.

_____. "Israel and the Church." In Issues in Dispensationalism, pp. 113-30. Edited by Wesley R. Willis and John R. Master. Chicago: Moody Press, 1994.

_____. Israelology: The Missing Link in Systematic Theology. Tustin, Calif.: Ariel Ministries Press, 1989.

Fung, Ronald Y. K.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serie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8.

Gaebelein, Arno C. The Acts of the Apostles: An Exposition. New York: Our Hope, 1912.

_____. The Annotated Bible. 4 vols. Reprint ed. Chicago: Moody Press, and New York: Loizeaux Brothers, Inc., 1970.

Gangel, Kenneth O. "Paul's Areopagus Speech." Bibliotheca Sacra 127:508 (October-December

1970):308-12.

Gentry, K. L. "The Great Option: A Study of the Lordship Controversy." Baptist Reformation Review 5 (1976):49-79.

Ger, Steven. The Book of Acts: Witnesses to the World. Twenty-First Century Biblical Commentary series. Chattanooga, Tenn.: AMG Publishers, 2004.

Gerlach, Joel C. "Glossolalia." Wisconsin Lutheran Quarterly 70:4 (October 1973):233-61.

Gill, David W. J. "Acts and Roman Policy in Judaea."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15-26. Edited by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5.

Glahn, Sandra L. "The Identity of Artemis in First-Century Ephesus." Bibliotheca Sacra 172:687 (July-September 2015):316-34.

Golding, Thomas A. "Pagan Worship in Jerusalem?" Bibliotheca Sacra 170:679 (July-September 2013):304-16.

Goodspeed, Edgar J. "Gaius Titius Justu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69:4 (December 1950):382-83.

Graham, Billy. The Holy Spirit: Activating God's Power in Your Life. N.c.: W Publishing Group, 1978, 1988.

Grant, F. W. The Crowned Christ. Reprint ed. New York: Loizeaux Brothers, 1945.

_____. The Numerical Bible. New York: Loizeaux Brothers, n.d.

Gray-Fow, Michael J. G. "Why Festus, Not Felix? Paul's Caesarem Appello."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9:3 (September 2016):473-85.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y C. G. Wilke. Revised by C. L. Wilibald Grimm. Translated, revised and enlarged by Joseph Henry Thayer, 1889.

Gromacki, Robert G. The Modern Tongues Movement.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7;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n.d.

_____. The Holy Spirit. Swindoll Leadership Library series. Nashville: Word Publishing, 1999.

Guthrie, Donald. New Testament Introduction: The Gospels and Acts. Reprint ed. London: Tyndale Press, 1965, 1966.

Haenchen, Ernst. The Acts of the Apostles. Translated by R. McL. Wils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1.

Hanna, Kenneth G. From Gospels to Glory: Exploring the New Testament.

Bloomington, Ind.: CrossBooks, 2014.

Harm, Frederick R. "Structural Elements Related to the Gift of the Holy Spirit in Acts." Concordia Journal 14:1 (January 1988):28-41.

Harnack, Adolph. The Date of the Acts and of the Synoptic Gospels.

Translated by J. R. Wilkinson. London: Williams & Norgate, 1911.

_____. The Mission and Expansion of Christianity. 2 vols. Translated by J. Moffatt. London: Williams & Norgate, 1908.

Hays, J. Daniel. "The Cushites: A Black Nation in the Bible." Bibliotheca Sacra 153:612 (October-December 1996):396-409.

Heater, Homer, Jr. "Evidence from Joel and Amos." In A Case for Premillennialism: A New Consensus, pp. 147-64. Edited by Donald K. Campbell and Jeffrey L. Townsend. Chicago: Moody Press, 1992.

Helyer, Larry R. "Luke and the Restoration of Israel."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6:3 (September 1993):317-29.

Hendriksen, William.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Philippians and Exposition of Colossians and Philemon.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Hengel, Martin. "The Geography of Palestine in Acts."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27-78. Edited by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5.

Henry, Matthew.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One volume ed. Edited by Leslie F.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Co., 1961.

Herodotus. The Histories. The Landmark Herodotus edition. Edited by Robert B. Strassler. Translated by Andrea L. Purvis. Pantheon Books, Random House: New York and Toronto, 2007.

Hesner, Colin. "The Name of Felix Agai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1 (October 1987):45-49.

Hess, Richard S. Song of Song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seri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Hiebert, D. Edmond. Working With God: Scriptural Studies in Intercession. New York: Carlton Press, 1987.

Hock, R. F. The Social Context of Paul's Ministr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Hodges, Zane C. Absolutely Free! A Biblical Reply to Lordship Salvation. Dallas: Redencion Viva, an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Academie Books, 1989.

_____. "A Dispensational Understanding of Acts 2." In Issues in Dispensationalism, pp. 167-80. Edited by Wesley R. Willis and John R. Master. Chicago: Moody Press, 1994.

_____. The Gospel Under Siege. Dallas: Redencion Viva, 1981.

_____. "The Purpose of Tongues." Bibliotheca Sacra 120:479 (July- September 1963):226-33.

_____. Review of "A Review of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by Darrell L. Bock in Bibliotheca Sacra, January-March 1989, pp. 21-40." Journal of the Grace Evangelical Society 2:1(Spring 1989):79-83.

Hoehner, Harold W. Chronological Aspects of the Life of Christ. Grand Rapid: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7.

_____. "Chronology of the Apostolic Age." Th.D. dissertation, Dallas Theological Seminary, 1965.

_____. "The Duration of the Egyptian Bondage." Bibliotheca Sacra 126:504 (October-December 1969):306-16.

The Holy Bibl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n.d.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lorado Springs, et al.: International Bible Society, 1984.

Homer. The Odyssey. 2 vols. With an English translation by A. T. Murray. Th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and London: William Heinemann, 1946.

Hook, H. Phillip. "A Biblical Definition of Faith." Bibliotheca Sacra 121:482 (April-June 1964):133-40.

Horsley, Richard A. "High Priests and the Politics of Roman Palestine."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17:1 (June 1986):23-55.

Ice, Thomas D. "Dispensational Hermeneutics." In Issues in Dispensationalism, pp. 29-49. Edited by Wesley R. Willis and John R. Master. Chicago: Moody Press, 1994.

Instone-Brewer, David. "Infanticide and the Apostolic decree of Acts 15."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2:2 (June 2009):301-21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Edited by James Orr. 1957 ed. 5 vols. S.v. "Acts of the Apostles," by A. T. Robertson.

Ironside, Harry A. Except Ye Repent.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1937.

_____. Lectures on the Book of Acts. New York: Loizeaux Brothers, 1943.

Jamieson, Robert; A. R. Fausset; and David Brown. Commentary Prac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1.

Jeremias, Joachim. Jerusalem in the Time of Jesus. Translated by F. H. and C. H. Cav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9.

_____. "Untersuchungen zum Quellenproblem der Apostelgeschichte."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rift 36 (1937):208- 13.

Jewett, Robert A. A Chronology of Paul's Lif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The Jewish Encyclopedia. Edited by Isadore Singer. 1906 ed. 12 vols. S. v. "Alexandrians in Jerusalem," by Emil Schürer, 1:371-72.

Johnson, Elliott E. "Hermeneutical Principles and the Interpretation of Psalm 110." Bibliotheca Sacra 149:596 (October-December 1992):428-37.

Johnson, John E. "The Old Testament Offices as Paradigm for Pastoral Identity." Bibliotheca Sacra 152:606 (April-June 1995):182-200.

Johnson, S. Lewis, Jr. Discovering Romans: Spiritual Revival for the Soul. Adapted by Mike Abendroth. Grand Rapids: Zondervan, 2014.

_____. "The Gift of Tongues and the Book of Acts." Bibliotheca Sacra 120:480 (October-December 1963):309-11.

_____. "How Faith Works." Christianity Today 33:13 (September 22, 1989):21-25.

Jones, A. H. M. Studies in Roman Government and Law. New York: Praeger, 1960.

Jones, Bruce. "Real Repentance." Moody Monthly 88:2 (October 1987):21- 23.

Josephus, Flavius. The Works of Flavius Josephus. Translated by William Whiston. London: T. Nelson and Sons, 1866; reprint ed. Peabody, Mass.: Hendrickson Publishers, 1988.

Judd, Andrew. "Do the Speakers in Acts Use Different Hermeneutics for Different Old Testament Genre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64:1 (March 2021):109-27.

Kaiser, Walter C., Jr. Back Toward the Future: Hints for Interpreting Biblical Prophec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9.

Keener, Craig S. Bible Background Commentar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93.

_____. "The Spirit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Acts 1—2."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62:1 (March 2019):25-45.

Kennedy, George A.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through Rhetorical Criticism.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4.

Kent, Homer A., Jr. Jerusalem to Rome. New Testament Studies series. Brethren Missionary Herald, 1972;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and BMH Books, 1985.

Knowling, R. J. "The Acts of the Apostles." In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2 (1912):1-554. 4th ed. Edited by W. Robertson Nicoll. London: 5 vols. Hodder and Stoughton, 1900-12.

Koch, Kurt E. Between Christ and Satan. Translated by Yolanda N. Entz.

Berghausen Bd., Germany: Evangelization Publishers, 1961.

Kraeling, Emil G. "The World of Paul," pp. 379-88. In Everyday Life in Bible Times. Washington, D.C.: National Geographic Society, 1967, 1968.

Ladd, George Eldon. "The Acts of the Apostles."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pp. 1123-78. Edited by Charles F. Pfeiffer and Everett F. Harrison. Chicago: Moody Press, 1962.

_____.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4, 1979.

Lange, John Peter, ed.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12 vols.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0. Vol 9: John- Acts, by J. P. Lange and Gotthard Victor Lechler. Translated by Philip Schaff and Charles F. Schaeffer.

Larkin, William J., Jr. "The Recovery of Luke-Acts as 'Grand Narrative' for the Church's Evangelistic and Edification Tasks in a Postmodern Ag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3:3 (September 2000):405-15.

Latourette, Kenneth Scott. A Hi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3.

Law, Robert. The Tests of Life. Edinburgh: T. and T. Clark, 1909.

Lawrence, William D. "The New Testament Doctrine of the Lordship of Christ." Th.D. dissertation, Dallas Theological Seminary, 1968.

Lawson, Steven J. "The Priority of Biblical Preaching: An Expository Study of Acts 2:42-47." Bibliotheca Sacra 158:630 (April-June 2001):198-217.

Légasse, Simon. "Paul's Pre-Christian Career according to Acts."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365-90. Edited by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5.

Lenski, Richard C. H.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s of the Apostles. Reprint ed.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64.

Levinskaya, Irena. The Book of Acts in Its Diaspora Setting. Vol. 5 of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edited by Bruce W. Winter.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6.

Lewellen, Thomas G. "Has Lordship Salvation Been Taught throughout Church History?" Bibliotheca Sacra 147:585 (January-March 1990):54-68.

Liddell, Henry George, and Robert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7th ed.

Revised by Prof. Drisler. New York: Harper, 1883.

Lightner, Robert P. Speaking in Tongues and Divine Healing. 2nd ed.

Schaumburg, Ill.: Regular Baptist Press, 1978.

Longenecker, Richard N.. "The Acts of the Apostles." In John-Acts. Vol. 9 of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Edited by Frank E. Gaebelein and J. D. Dougla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1.

_____. Paul, Apostle of Liberty. New York: Harper & Row, 1964.

López, René A. "Is Faith a Gift from God or a Human Exercise?" Bibliotheca Sacra 164:655 (July-September 2007):259-76.

Lumby, J. Rawson. The Acts of the Apostles. Cambridge Greek Testament for Schools and

Colleges se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85.

Lutzer, Irwin W. We Will Not Be Silenced. Eugene, Oreg.: Harvest House Publishers, 2020.

MacArthur, John F., Jr. The Charismatics: A Doctrinal Perspectiv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_____. Faith Works: The Gospel According to the Apostles. Dallas: Word Publishing, 1993.

_____.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Academie Books, 1988.

_____. Justification by Faith. Chicago: Moody Press, 1984.

Macartney, Clarence E. N. Paul the Man. Westwood, N.J.: Fleming H. Revell, 1961.

Machen, J. Gresham. Christianity and Liberalis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23.

MacLennan, Robert S. and A. Thomas Kraabel. "The God-Fearers—A Literary and Theological Invention." Biblical Archaeology Review 12:5 (September-October 1986):46-53.

Maile, John F. "The Ascension in Luke-Acts." Tyndale Bulletin 37 (1986):29-59.

Malina, Bruce J. "'Religion' in the World of Paul." Biblical Theology Bulletin 16:3 (July 1986):92-101.

Malphurs, Aubrey M. "A Theological Critique of the Churches of Christ Doctrine of Soteriology." Th.D. dissertation, Dallas Theological Seminary, 1981.

Man, Ronald E. "The Value of Chiasm for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Bibliotheca Sacra 141:562 (April-June 1984):146-57.

Manek, Jindrich. "The New Exodus in the Books of Luke." Novum Testamentum 2 (1957):8-23.

Manson, T. W. Studies in the Gospels and Epistles. Edited by Matthew Black.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Marshall, I. Howard. "Acts and the 'Former Treatise.'"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1: The Book of Acts in Its Ancient Literary Setting, pp. 163-182. Edited by Bruce W. Winter and Andrew D. Clark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3.

_____. The Acts of the Apostles.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series. Reprint ed.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an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4.

Mason, Steve. "Chief Priests, Sadducees, Pharisees and Sanhedrin in Acts."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115-77. Edited by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5.

McClain, Alva J. The Greatness of the Kingdom. Reprint ed. Winona Lake, Ind.: BMH Books, 1974.

McGee, J. Vernon. Thru the Bible with J. Vernon McGee. 5 vols. Pasadena, Calif.: Thru The Bible Radio; and Nashville: Thomas Nelson, Inc., 1983.

McGrath, Alister E. "Apologetics to the Romans." Bibliotheca Sacra 155:620 (October-December 1998):387-93.

McIntyre, Luther B., Jr. "Baptism and Forgiveness in Acts 2:38." Bibliotheca Sacra 153:609 (January-March 1996):53-62.

McLean, John A. "Did Jesus Correct the Disciples' View of the Kingdom?"

Bibliotheca Sacra 151:602 (April-June 1994):215-27.

McNeile, A. H.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2nd McNeile, Alan Hugh.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2nd ed. revised by C. S. C. Williams. Oxford: Clarendon Press, 1927, 1953.

Meisner, Donald R. "Chiasm and the Composition and Message of Paul's Missionary Sermons." S.T.D. thesis,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 1974.

_____. "The Missionary Journeys Narrative: Patterns and Implications." In Perspectives on Luke-Acts, pp. 199-214. Edited by Charles H. Talbert. Danville, Va.: Association of Baptist Professors of Religion, 1978.

Merrill, Eugene H. "Paul's Use of 'About 450 Years' in Acts 13:20."

Bibliotheca Sacra 138:551 (July-September 1981):246-57.

Metzger, Bruce M. "St. Paul and the Magicians." Princeton Seminary Bulletin 38 (1944):27-30.

Meyer, F. B.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London: Morgan and Scott, n.d.

The Mishnah. Translated by Herbert Danb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3.

Moore, Thomas S. "'To the End of the Earth': The Geographical and Ethnic Universalism of Acts 1:8 in Light of Isaianic Influence on Luk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0:3 (September 1997):389-99.

Morgan, G. Campbell. The Acts of the Apostle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24; reprint ed., London: Pickering and Inglis, 1965.

_____. An Exposition of the Whole Bible. Westwood, N.J.: Fleming H. Revell, 1959.

_____. Living Messages of the Books of the Bible. 2 vol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12.

_____. The Unfolding Message of the Bible. Westwood, N.J.: Fleming H. Revell Co., 1961.

Moule, C. F. D. "Once More, Who Were the Hellenists?" Expository Times 70 (October 1958-September 1959):100-2.

Murphy, S. Jonathan. "The Role of Barnabas in the Book of Acts." Bibliotheca Sacra 167:667 (July-September 2010):319-41.

Murphy-O'Connor, Jerome. "The Cenacle—Topographical Setting for Acts 2:44-45."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303-22. Edited by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5.

_____. "On the Road and on the Sea with St. Paul." Bible Review 1:2 (Summer 1985):38-47.

Murray, George W. "Paul's Corporate Evangelism in the Book of Acts."

Bibliotheca Sacra 155:618 (April-June 1998):189-200.

Murray, John. Redemption—Accomplished and Appli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5.

"Must Christ be Lord to be Savior?" Eternity, September 1959, pp. 14-18, 36-37, 48.

Neil, William, The Acts of the Apostle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series.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1973; reprint 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1981.

The Nelson Study Bible. Edited by Earl D. Radmacher.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7.

The NET2 (New English Translation) Bible. N.c.: Biblical Press Foundation, 2019.

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La Habra, Cal.: The Lockman Foundation, 2020.

The New Bible Dictionary. Edited by J. D. Douglas. 1962 ed. S.v. "Cilicia," by E. M. B. Green, p.

233.

_____. S.v. "Judas Iscariot," by R. P. Martin, pp. 673-75.

The New Scofield Reference Bible. Edited by Frank E. Gaebelein, William Culbertson, et 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The New Testament in Modern English. Translated by J. B. Phillips. New York: Macmillan Co., 1958.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First series. Edited by Philip Schaff.

14 vol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8.

O'Connor, E. D. The Pentecostal Movement in the Catholic Church. Notre Dame: Ave Maria Press, 1971.

Olmstead, A. T.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48.

Olson, C. Gordon. Beyond Calvinism & Arminianism: An Inductive, Mediate Theology of Salvation. 3rd ed. Lynchburg, Va.: Global Gospel Publishers, 2012.

Orr, J. Edwin. The Fervent Prayer: The Worldwide Impact of the Great Awakening of 1858. Chicago: Moody Press, 1974.

O'Toole, Robert F. "Acts 2:30 and the Davidic Covenant of Pentecos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2:2 (1983):245-58.

Ott, Ludwig. Fundamentals of Catholic Dogma. 6th ed. Translated by Patrick Lynch. Edited by James Canon Bastible. St. Louis: B. Herder Book Co., 1964.

The Oxford Dictionary of Quotations. 2nd e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Packer, James I.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61.

Palmer, D. W. "The Literary Background of Acts 1.1-14." New Testament Studies 33:3 (July 1987):427-38.

Patterson, Richard D. "The Imagery of Clouds in the Scriptures." Bibliotheca Sacra 165:657 (January-March 2008):13-27.

Pentecost, J. Dwight. "The Apostles' Use of Jesus' Predictions of Judgment on Jerusalem in A.D. 70." In Integrity of Heart, Skillfulness of Hands, pp. 134-43. Edited by Charles H. Dyer and Roy B. Zuc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4.

_____. Things to Come. Findlay, Ohio: Dunham Publishing Co., 1958, 1963.

_____. Thy Kingdom Come. Wheaton: Scripture Press Publications, Victor Books, 1990.

Peterson, Brian. "Stephen's Speech as a Modified Prophetic Rib Formula."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7:2 (June 2014):351-69.

Peterson, David. "The Motif of Fulfilment and Purpose of Luke-Acts."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1: The Book of Acts in Its Ancient Literary Setting, pp. 83-104. Edited by Bruce W. Winter and Andrew D. Clark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3.

Pfeiffer, Robert H. History of New Testament Time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49, 1963.

Philips, J. B. Your God Is Too Small. New York: The Macmillan Co., 1952. Philostratus. The Life of Appollonius. 2 vols. With an English translation by F. C. Conybeare. Th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London: William Heinemann, and New York: G. P. Putnam's Sons, 1921.

Pink, Arthur W. Studies on Saving Faith. Swengel, Pa.: Reiner Publications, n.d.

Pocock, Michael. "The Role of Encouragement in Leadership." In Integrity of Heart, Skillfulness of Hands, pp. 301-7. Edited by Charles H. Dyer and Roy B. Zuc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4.

Polhill, J. P. The Acts of the Apostles. Nashville: Broadman, 1992.

Pollock, A. J. The Apostle Paul and His Missionary Labors. New York: Loizeaux Brothers, n.d.

Praeder, Susan Marie. "The Problem of First Person Narration in Acts."

Novum Testamentum 29:3 (July 1987):193-218.

Price, J. Randall. "Prophetic Postponement in Daniel 9 and Other Texts." In Issues in Dispensationalism, pp. 133-65. Edited by Wesley R. Willis and John R. Master. Chicago: Moody Press, 1994.

Rackham, Richard Belward. The Acts of the Apostles. Westminster Commentaries series. 9th ed. London: Methuen and Co., 1922.

Radmacher, Earl D. Salvation. Swindoll Leadership Library series. Nashville: Word Publishing, 2000.

Ramm, Bernard. Rapping about the Spirit. Waco: Word Books, 1974.

Ramsay, William M. The Bearing of Recent Discovery on the Trustworthiness of the New Testament.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3.

_____. The Church in the Roman Empire before A.D. 170. 3rd ed. London: Hoddar and Stoughton, 1894.

_____. Pictures of the Apostolic Church. London: Hodder & Stoughton, 1910.

_____. St. Paul the Traveller and the Roman Citizen. London: Hoddar and Stoughton, 1897;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0.

Reinhardt, Wolfgang. "The Population Size of Jerusalem and the Numerical Growth of the Jerusalem Church"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237-65. Edited by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5.

Richard, Ramesh. "Soteriological Inclusivism and Dispensationalism."

Bibliotheca Sacra 151:601 (January-March 1994):85-108.

Richardson, Alan.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Harper & Row, 1958.

Riesner, Rainer. "Synagogues in Jerusalem."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179-211. Edited by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5.

Roberts, C., T. C. Skeat, and A. D. Nock. "The Guild of Zeus Hypsistos."

Harvard Theological Review 29 (1936):39-88.

Robertson, Archibald Thomas.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6 vols.

Nashville: Broadman Press, 1931.

Robertson, Archibald, and Alfre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series. Second ed. Edinburgh: T. & T. Clark, 1963.

Rogers, Cleon L., Jr. "The Davidic Covenant in Acts-Revelation." Bibliotheca Sacra 151:601 (January-March 1994):71-84.

_____. "The Davidic Covenant in the Gospels." Bibliotheca Sacra 150:600 (October-December

1993):458-78.

Rosner, Brian S. "Acts and Biblical History."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1: The Book of Acts in Its Ancient Literary Setting, pp. 65-82. Edited by Bruce W. Winter and Andrew D. Clark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3.

Ross, Bob L. Acts 2:38 and Baptismal Regeneration. Pasadena, Tex.: Pilgrim Publications, 1976.

Ruble, Richard L. "The Doctrine of Dreams." Bibliotheca Sacra 125:500 (October-December 1968):360-64.

Russell, Walt. "The Anointing with the Holy Spirit in Luke-Acts." Trinity Journal 7NS (Spring 1986):47-63.

Rydelnik, Michael. The Messianic Hope: Is the Hebrew Bible Really Messianic?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10.

Ryrie, Charles Caldwell. The Acts of the Apostles. Everyman's Bible Commentary series. Chicago: Moody Press, 1961.

_____. Balancing the Christian Life. Chicago: Moody Press, 1969.

_____. The Basis of the Premillennial Faith. Neptune, N.J.: Loizeaux Brothers, 1953.

_____. Biblical Answers to Tough Questions. Previously published as Biblical Answers to Contemporary Issues. Chicago: Moody Press, 1974, 1991. Ft. Worth: Tyndale Seminary Press, 2008.

_____. Biblica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Moody Press, 1959.

_____. "The Christian and Civil Disobedience." Bibliotheca Sacra 127:506 (April-June 1970):153:62.

_____. Dispensationalism. Chicago: Moody Press, 1995.

_____. Dispensationalism Today. Chicago: Moody Press, 1965.

_____. "The End of the Law." Bibliotheca Sacra 124:495 (July-September 1967):243.

_____. So Great Salvation. Wheaton: Scripture Press Publications, Victor Books, 1989.

_____. You Mean the Bible Teaches That … Chicago: Moody Press, 1974. Sachar, Abram Leon. A History of the Jews. 5th ed. New York: Alfred A.

Knopf, 1965.

Salmond, S. D. F.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in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3 (1910):203-395. Edited by W. Robertson Nicoll. 5 vol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00-10.

Sanders, John. "Inclusivism." In What about Those Who Have Never Heard? Three Views on the Destiny of the Unevangelized, pp. 21-55. Edited by John Sander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5.

Sarles, Ken L. "All Power & Signs." Kindred Spirit 13:2 (Summer 1989):8- 11.

_____. "An Appraisal of the Signs and Wonders Movement." Bibliotheca Sacra 145:577 (January-March 1988):57-82.

_____. "A Theological Evaluation of the Prosperity Gospel." Bibliotheca Sacra 143:572 (October-December 1986):329-52.

Saucy, Robert L. The Case for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3.

_____. "The Presence of the Kingdom and the Life of the Church."

Bibliotheca Sacra 145:577 (January-March 1987):30-46.

Savelle, Charles H. "Acts 15:21: Moses Is Preached and Read in the Synagogue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65:4 (December 2022):707-17.

_____. "A Reexamination of the Prohibitions in Acts 15." Bibliotheca Sacra 161:644 (October-December 2004):449-68.

Schnabel, Eckhard J. Early Christian Mission. 2 vol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and Leicester, Eng.: Apollos, 2004.

_____.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the First Century."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61:3 (September 2018):525-47.

Schwartz, Joshua. "Peter and Ben Stada in Lydda."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391-414. Edited by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5.

Scofield, C. I.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1896; reprint ed. Neptune, N.J.: Loizeaux Brothers, n.d.

Schürer, Emil.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in the Age of Jesus Christ.

Edinburgh: T. & T. Clark, 1979.

Sell, Phillip W. "The Seven in Acts 6 as a Ministry Team." Bibliotheca Sacra 167:665 (January-March 2010):58-67.

Shedd, William G. T. Dogmatic Theology. 2 vols. Edinburgh: T. & T. Clark, 1889.

Sherrill, John. They Shall Speak with Other Tongues.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Co., 1964.

Showers, Renald E. Maranatha Our Lord, Come: A Definitive Study of the Rapture of the Church. Bellmawr, Pa.: Friends of Israel Gospel Ministry, 1995.

_____. There Really Is a Difference! A Comparison of Covenant and Dispensational Theology. Bellmawr, N.J.: The Friends of Israel Gospel Ministry, Inc., 1990.

Smith, James. The Voyage and Shipwreck of St. Paul. London: Longman, Brown, Green, and Longmans, 1848.

Soards, M. The Speeches in Acts: Their Content, Context, and Concern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1994.

Stagg, Frank. The Book of Acts. Nashville: Broadman Press, 1955. Stewart, James S. A Man in Christ: The Vital Elements of St. Paul's Religion.

1935. Reprint ed. London: Hodder & Stoughton Ltd., 1964. Stonehouse, Ned. "The Gift of the Holy Spirit."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3 (1949-51):1-15. Stott, John R. W. Basic Christianit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8.

_____. Basic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1st American 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4.

_____. The Message of Act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0.

Strabo. Geography. 8 vols. With an English translation by Horace Leonard Jones. Th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and London: William Heinemann, 1960.

Strauch, Alexander. Biblical Eldership. Littleton, Colo.: Lewis & Roth Publishers, 1986.

Strauss, Stephen J. "The Purpose of Acts and the Mission of God."

Bibliotheca Sacra 169:676 (October-December 2012):443-64.

_____. "The Significance of Acts 11:26 for the Church at Antioch and Today." Bibliotheca Sacra 168:671 (July-September 2011):283-300.

Strom, Mark R. "An Old Testament Background to Acts 12. 20-23." New Testament Studies 32:2 (April 1986):289-92.

Strong, Augustus Hopkins. Systematic Theology. 3 vols. In 1. Westwood, N.J.: Fleming H. Revell Co., 1907, 1965.

Suetonius. "The Deified Claudius." In The Lives of the Caesars. Translated by J. C. Rolfe. Th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Mas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39.

Swindoll, Charles R. Come before Winter … and Share My Hope. Portland: Multnomah Press, 1985.

_____. "Dallas's New Dispensation." Christianity Today, October 25, 1993,

pp. 14-15.

_____. Paul: A Man of Grace and Grit. Nashville: The W Publishing Group, 2002.

_____. The Swindoll Study Bible. Carol Stream, Ill.: Tyndale House Publishers, 2017.

Sylva, Dennis 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Acts 7:46-50."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6:2 (1987):261-75.

Tabb, Brian. "Salvation, Spreading, and Suffering: God's Unfolding Plan in Luke-Act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8:1 (March 2015):43-61.

Tacitus. The Histories. The Loeb Classical Library series. Translated by Clifford H. Moore. London: William Heinemann Ltd., New York: G. P. Putnam's Sons, 1931.

Talbert, Charles H. Literary Patterns, Theological Themes, and the Genre of Luke-Acts.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4.

_____. Luke and the Gnostics. Nashville: Abingdon Press, 1966.

Tan, Paul Lee. The Interpretation of Prophecy. Winona Lake, Ind.: BMH Books, Inc., 1974.

Tannehill, Robert C.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Vol. 2: The Acts of the Apostl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Tannenbaum, Robert F. "Jews and God-Fearers in the Holy City of Aphradite." Biblical Archaeology Review 12:5 (September-October 1986):54-57.

Tanton, Lanny T. "The Gospel and Water Baptism: A Study of Acts 2:38."

Journal of the Grace Evangelical Society 3:1 (Spring 1990):27-52.

Tenney, Merrill C. The New Testament: An Historical and Analytic Surve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3, 1957.

_____. The Reality of the Resurrection. New York, et al.: Harper & Row, Publishers, 1963.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ited by Gerhard Kittel and Gerhard Friedrich. Translated and edited by Geoffrey W. Bromiley. 1964-76 ed. 10 vols. S.v. "kyrios, at al.," by Gottfried Quell and Werner Foerster, 3(1965):1039-95.

_____. S.v. "pneuma, et al.," by Hermann Kleinknect, et al., 6(1968):411. Thiessen, Henry Clarence.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43, 1962.

Thomas, W. H. Griffith. The Acts of the Apostles: Outline Studies in Primitive Christianity. Chicago: Bible Institute Colportage Association, n.d.

Thompson, Alan J. "Unity in Acts: Idealization or Reality?"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1:3 (September 2008):523-42.

Thompson, Robin G. "Diaspora Jewish Freedmen: Stephen's Deadly Opponents." Bibliotheca Sacra 173:690 (April-June 2016):166-81.

Thomson, W. M. The Land and the Book. 2 vols.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873.

Thrasher, Bill. A Journey to Victorious Praying. Chicago: Moody Publishers, 2003.

Toussaint, Stanley D. "Acts." I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New Testament, pp. 349-432. Edited by John F. Walvoord and Roy B. Zuck. Wheaton: Scripture Press Publications, Victor Books, 1983.

_____. "The Contingency of the Coming of the Kingdom." In Integrity of Heart, Skillfulness of Hands, pp. 222-37. Edited by Charles H. Dyer and Roy B. Zuc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4.

_____. "Rethinking Tongues." Bibliotheca Sacra 172:686 (April-June 2015):177-189.

_____. "Suffering in Acts and the Pauline Epistles." In Why, O God? Suffering and Disability in the Bible and the Church, pp. 183-93. Edited by Larry J. Waters and Roy B. Zuck. Wheaton: Crossway, 2011.

Toussaint, Stanley D., and Jay A. Quine. "No, Not Yet: The Contingency of God's Promised

Kingdom." Bibliotheca Sacra 164:654 (April-June 2007):131-47.

Treier, Daniel J. "The Fulfillment of Joel 2:28-32: A Multiple-Lens Approach."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0:1 (March 1997):13-26.

Trites, Allison A. "Church Growth in the Book of Acts." Bibliotheca Sacra 145:578 (April-June 1988):162-73.

Trompf, G. W. The Idea of Historical Recurrence in Western Though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Trull, Gregory V. "Peter's Interpretation of Psalm 16:8-11 in Acts 2:25-32." Bibliotheca Sacra 161:644 (October-December 2004):432-48.

_____. "Views on Peter's Use of Psalm 16:8 in Acts 2:25-32." Bibliotheca Sacra 161:642 (April-June 2004):194-214.

Unger, Merrill F. "Archaeology and Paul's Visit to Iconium, Lystra, and Derbe." Bibliotheca Sacra 118:470 (April-June 1961):107-12.

_____. The Baptizing Work of the Holy Spirit. Chicago: Scripture Press, 1953.

_____. "Historical Research and the Church at Thessalonica." Bibliotheca Sacra 119:473 (January-March 1962):38-44.

_____. "Pisidian Antioch and Gospel Penetration of the Greek World."

Bibliotheca Sacra 118:469 (January-March 1961):46-53.

_____. "The Significance of Pentecost." Bibliotheca Sacra 122:486 (April- June 1965):169-77.

_____. Zechariah.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3.

Unger's Bible Dictionary. 1957 ed. S.v. "Herod," by S. L. Bowman.

Unger, Merrill F. Demons in the World Today: A Study of Occultism in the Light of God's Word. Wheaton, Ill.: Tyndale House Publishers, 1971.

Valdés, Alberto S. "The Acts of the Apostles." In The Grace New Testament Commentary, 1:481-615. Edited by Robert N. Wilkin. 2 vols. Denton, Tex.: Grace Evangelical Society, 2010.

Van Baalen, Jan Karel. The Chaos of Cults: A Study in Present-Day Isms. 2nd revised and enlarged 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38, 1956.

van Ommeren, Nicholas M. "Was Luke an Accurate Historian? Bibliotheca Sacra 148:589

(January-March 1991):57-71.

van Unnik, W. C. Tarsus or Jerusalem: The City of Paul's Youth. Translated by G. Ogg. London: Epworth, 1962.

Walton, Steve. "What Does 'Mission' in Acts Mean in Relation to the 'Powers That B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5:3 (September 2012):537-56.

Walvoord, John F. "The Ascension of Christ." Bibliotheca Sacra 121:481 (January-March 1964):3-12.

_____. "Biblical Kingdoms Compared and Contrasted." In Issues in Dispensationalism, pp. 75-91. Edited by Wesley R. Willis and John R. Master. Chicago: Moody Press, 1994.

_____. The Holy Spirit. 3rd ed. Findlay, Ohio: Dunham Publishing Co., 1958.

_____. The Holy Spirit at Work Today. Chicago: Moody Press, 1973.

_____. Jesus Christ Our Lord. Chicago: Moody Press, 1969.

Ware, Timothy. The Orthodox Church. Revised and reprinted ed. New York: Penguin Books, 1981.

Warfield, Benjamin B. Counterfeit Miracle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8; reprint ed.,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72.

Weinert, Francis D. "Luke, Stephen, and the Temple in Luke-Acts." Biblical Theology Bulletin 17:3 (July 1987):88-90.

Wenham, John. "The Identification of Luke." Evangelical Quarterly 63:1 (1991):3-44.

Whyte, Alexander. Bible Characters. One-volume e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3.

Wiersbe, Warren W. The Bible Exposition Commentary. 2 vols. Wheaton: Scripture Press, Victor Books, 1989.

_____"Joel." In The Bible Exposition Commentary/Prophets, pp. 333-42. Colorado Springs, Colo.: Cook Communications Ministries; and Eastbourne, England: Kingsway Communications Ltd., 2002.

Wilkin, Robert N. Confident in Christ: Living by Faith Really Works. Irving, Tex.: Grace Evangelical Society, 1999.

_____. "Did H. A. Ironside Teach Commitment Salvation?" Grace Evangelical Society News 4:6 (June 1989):1, 3.

_____. "An Exegetical Evaluation of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Th.D. dissertation, Dallas Theological Seminary, 1982.

_____. "Repentance and Salvation." Journal of the Grace Evangelical Society 1:1 (Autumn 1988):11-20; 2:1 (Spring 1989):13-26.

_____. "Repentance and Salvation: A Key Gospel Issue." Grace Evangelical Society News 3:6 (June-July 1988):3.

Williams, D. J. Acts. San Francisco: Harper, 1985.

Williams, Ernest Swing. Systematic Theology. 3 vols.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53.

Williams, Margaret H. "Palestinian Jewish Personal Names in Acts." In The Book of Acts in Its First Century Setting; Vol. 4: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pp. 79-113. Edited by Richard Bauckha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Carlisle, England: Paternoster Press, 1995.

Wilson, Benjamin R. "The Depiction of Church Growth in Act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60:2 (June 2017):317-32.

Wimber, John. Power Evangelism.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6.

Winter, B. W. "Providentia for the Widows of 1 Timothy 5:3-16." Tyndale Bulletin 39 (1988):93-99.

Witherington, Ben, III. The Acts of the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and Carlisle, U.K.: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nd Paternoster Press, 1998.

_____. "The Case of the Imprisonment That Did Not Happen: Paul at Ephesu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60:3 (September 2017):525-32.

Witmer, John A. Immanuel. The Swindoll Leadership Library series.

Nashville: Word Publishing, 1998.

Woodbridge, Charles J. A Study of the Book of Act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5.

Yates, Kenneth W. "Military Leaders and Jonah in the Writings of Luke, Part 2." Bibliotheca Sacra 173:692 (October-December 2016):448-59.

Zimmerman, Charles. "To This Agree the Words of the Prophets." Grace Journal 4:3 (Fall 1963):28-40.

Zuck, Roy B. "Cheap Grace?" Kindred Spirit 13:2 (Summer 1989):4-7.

_____. "The Doctrine of Conscience." Bibliotheca Sacra 126:504 (October-December 1969):329-40.

Zweck, Dean W. "The Areopagus Speech of Acts 17." Lutheran Theological Journal 21:3 (December 1987):111-22.